



한국민족연구원 ^편

권두언 ‘五星红旗’에서 ‘一星红旗’로 - 중국 민족정책의 변용 / 조정남

특 집 한국사회와 유학

유학생 대상 한국 역사 교재(2010년대 이후) 분석 / 권순홍

「日本留學歌」에 나타난 유학 체험과 초국적 자아의 형성 / 백순철

유학생의 논설문 헤지 표현(hedges) 연구 / 최보선

유학생의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안 연구 / 이윤주

인문사회계열 베트남 유학생의 졸업 후 한국 유학 자본 활용 전략 연구 / 이예지, 김연희

일반논문

문법교육에서 ‘국어 의식’의 개념적 체계화와 교육 내용의 비판적 고찰 / 김규훈

한국의 민주시민교육과 ‘공민’ 개념의 형성 / 김두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변화된 결혼이주여성의 삶 / 장임숙



81

2023 Spring

<권두언>

04 | '五星红旗'에서 '一星红旗'로 - 중국 민족정책의 변용

조정남

<특집> 한국사회와 유학

12 | 유학생 대상 한국 역사 교재(2010년대 이후) 분석 -고대사 기술을 중심으로-

권순홍

35 | 「日本留學歌」에 나타난 유학 체험과 초국적 자아의 형성

백순철

55 | 유학생의 논설문 헤지 표현(hedges) 연구

최보선

90 | 유학생의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안 연구

이윤주

- 베트남 유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121 | 인문사회계열 베트남 유학생의 졸업 후 한국 유학 자본 활용 전략 연구

이예지·김연희

<일반논문>

160 | 문법교육에서 '국어 의식'의 개념적 체계화와 교육 내용의 비판적 고찰

김규훈

183 | 한국의 민주시민교육과 '공민' 개념의 형성: 미군정기 및 1950년대의 중등교과서 분석

김두진

212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변화된 결혼이주여성의 삶

장임숙

Articles

- From the Five Star Red Flag to the One Star Red Flag. Transformation in China National policy 04
Cho Chungnam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 Analysis of Korean History Textbooks for International Students with a Focus on the Description of Ancient History 12
Kwon Soonhong (Daegu University)
-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Studying Abroad and the formation of a transnational self in the 「IIBonYuHakGa」 35
Paik Sunchul (Daegu University)
- A Study on the Hedges of Foreign Students' Persuasive Writing 55
Choi Boseon(Center for Multiculturalism and Social Policy, Daegu University)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Curriculum for the Settlement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90
Lee Yunju (Daegu University)
- A study on Vietnamese students' strategy of using studying abroad capital after graduation in Korea 121
Lee Yeji(Daegu University), Kim Yeunhee (Daegu University)
- Conceptual Systematization of “Korean Language Consciousness” and Critical Consideration of Educational Contents in Grammar Education 160
Kim Kyoohoon (Daegu University)
-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in Korea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Civics: a focus on the middle school textbooks during the United States military administration and in the 1950s 183
Kim Doojin (Korea University)
- The life of marriage migrant women chang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212
Jang Imsook (Pusan National University)

권두언

‘五星紅旗’에서 ‘一星紅旗’로 - 중국 민족정책의 변용

조정남



‘五星紅旗’에서 ‘一星紅旗’로 - 중국 민족정책의 변용



조 정 남 (한국민족연구원 원장)

시진핑 장기집권 개막식을 뒤덮은 것은 진홍색 ‘中華民族主義’ 깃발이었다. 2022년 10월 17일부터 중국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20차 당 대회는 시진핑 총서기의 장기집권을 공식화하고 이를 자축하는 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장기집권에 대한 빗장은 몇 년 전에 이미 활짝 열렸기에 이번 대회는 단지 모택동, 등소평에 이은 시진핑의 제3의 장기집권을 내외에 선포하는 한마당 잔치에 불과했다. 이 대회의 개막연설에서 시진핑은 중국공산당의 중심적 임무는, 전국 각 민족을 단결시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구축을 통해 ‘中華民族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천명하고 나섰다. 그는 中華民族主義라는 전래의 깃발을 다시 꺼내들고 장기집권을 합리화함은 물론, 이에서 더 나아가 여전히 중국 각지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민족갈등을 봉합하면서 개별 민족지역의 자치권을 축소하고 中華民族의 통일성을 확립하여 그의 전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려 했다.

시진핑은 왜 자기의 장기집권을 자축하는 축하의 장에서 굳이 中華民族主義라는 민족주의의 기치를 내걸었을까. 이에는 먼저 탈냉전의 국제환경에서 민족주의라는 태풍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음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냉전이라는 팽팽한 이념적인 색깔이 지배하던 시대가 걸린 허허한 공간에 찾아든 것은 이념적 색채가 가장 희박한 민족주의였다, 탈냉전의 주인 없는 공간에서 환영을 받은 것은 색깔과 냄새가 희미하고 존재감 또한 강하게 드러나지 않은 민족주의가 가장 적절한 선택지로 요청되었다. 냉전체제 해체 후에 찾아온 갖가지 세계사적인 문제에서 민족주의를 배제하고는 이를 설명할 수 없음은 바로 지금이 민족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임을 웅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세상은 ‘이데올로기 부재’의 시대가 아닌 ‘민족주의의 전면적 부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환경이 장기집권의 문을 연 시진핑에게도 中華民族主義의 기치를 높이는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지구상 거의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임을 자처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더욱더 그들이 체제 특성으로 강조하고 있는 공산주의의 색깔을 손상치 않으면서 오늘의 중국을 포장하는 외양으로 민족주의가 상당한 유효성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더해 독재와 민주를 결합하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민족자치와 민족통합을 증대하는 등 시급한 중국적 요청에도 효과적인 처방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시진핑의 이번의 中華民族主義 강조는 전통적인 중국의 민족정책을 교묘하게 변용하고 왜곡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민족국가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다민족관계의 설정과 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민족정책의 정립이 중심적인 정치적 현안의 하나일 수밖에 없었다. 형식적으로는 ‘大漢族主義’와 ‘地方民族主義’라는 이른바 ‘부르조아 민족주의’의 극복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오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민족정책으로는 어디까지나 개별 민족들 간의 공존과 협조를 내용으로 하는 中華民族多元一體를 견지해 왔다. 이는 중국은 전통적으로 다민족국가이기는 하나, 그곳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소수민족들의 분포상황이 가지는 특수성에도 기인한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우선 그 수에 있어, 우세민족인 漢族에 비해 절대적인 열세인 7-8%선을 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적인 분포에 있어서도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중국 전토의 거의 50%가까운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나, 한 지역에 많은 수의 민족인구가 모여사는 것이 아니라, 넓게 분산된 생활(小集居,大分散)을 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공존 모델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의 시진핑에 의해 용의주도하게 시도하고 있는 민족정책의 변용은 형식적으로는 기존의 ‘中華民族多元一體論’에서 ‘中華民族共同體論’이라는 논리로 이를 전환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나, 실질적 의미에서는 기존 민족정책과는 질적으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엄청난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中華民族多元一體’이라는 1988년 費孝通(1910-2005년)에 의해 발표된 공식적인 민족관을 유지하면서 소수민족들과의 관계를 형식적으로나마 공존관계로 유지 시켜 오고 있었다. 費는 漢族을 중심으로 중국 내의 56개 민족이 일체화한 것이 ‘中華民族’이며, 中華民族은 수천 년 전부터 서서히 형성되어 왔으나 19C 이래 열강들과의 경쟁 속에서 분명히 자각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특징은 각 개별민족의 상위개념으로써 中華民族이 성립된 것으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청말기에서 중화민국기에 걸쳐 중국의 내이션을 둘러싼 논의로의 회귀를 의미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의 민족관계의 설정은 지나친 개별민족 자립을 강조하다가 이 때문에 연방체제의 분열과 해체를 초래한 소비에트연방과는 달리 다민족국가 중국의 생존을 담보하는 것으로 주장돼 왔다.

이렇듯 오랫동안 중국의 민족정책의 뿌리로 작동되어온 中華民族多元一體論은 이번 제20차 당 대회를 통하여 ‘中華民族共同體論’이라는 새로운 민족정책의 목표로 공식화되기에 이르면서, 이 같은 민족정책의 변용을 통해 시진핑은 새로운 중국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의 중심적인

논리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섰다. 소수민족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방침은 당초 민족의 자결권, 분리권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에서 출발하였다. 1921년 당 대회에서는 ‘自由聯邦制’를 통한 ‘中華聯邦共和國’ 구상이 채택되었다. 또 1931년의 江西省 瑞金에서 모택동을 주석으로 하는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도 ‘중국 역내의 소수민족의 자치권을 인정, 소수민족들이 단독국가를 만들든 중화소비에트연방에 가맹하든 혹은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역내에서 自治區域을 만들든 간에 이는 전적으로 소수민족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는 방침을 내걸고 있었다. (<중화소비에트공화국헌법대강>) 그러나 이 같은 민족자결권의 승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중화소비에트연방의 건설이라는 당의 기본방침은 전후 내전에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는 사이에 전환됐다. 대전 직후부터 내몽골에서 내외 몽골의 통일을 요구하는 몽골 민족운동이 격화(외몽골에는 이미 1924년에 몽골인민공화국이 성립), 또 1944년에 위글, 카자흐 족 등이 新疆의 伊寧을 중심으로 ‘동트루키스탄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등 터키계 무슬림 민족운동도 전쟁 전후로 커다란 확산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몽골 민족운동은 중국공산당 주도하에 결국 1947년 내몽골자치구인민정부의 성립이라는 형태로 종결되었다. 그 외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그 후 점차로 해소되는 가운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하여 결국 내몽골자치구 설립이 선도적인 모델로 작용, 소수민족자치구 방식이 전체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확산, 적용되기에 이른다. 이런 과정으로 오늘의 중국에는 1급행정구로 5개의 自治區(내몽골, 新疆위글, 廣西 좡족, 寧夏 회족, 티베트)가 설치되고, 그 아래 2,3급 행정단위로, 30개의 自治州, 124의 自治현이 설치되어 있다. 거기에는 입법권을 포함한 소수민족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일정의 우대정책이 채택되어 왔으며,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지속되어왔던 형식적이긴 하나 다민족공존을 내용으로 하는 中華民族多元一體論이었던 것인데, 이러한 전통적인 민족정책이 이번의 당대회를 통하여 시진핑에 의해 실질적인 다민족공존이 아닌 민족통합을 실질적 내용으로 하는 ‘中華民族共同體論’으로 수정되기에 이르렀다.

中華民族共同體論이 가지는 의미는 시진핑의 직접적 언명에서도 분명하다. 그는 中華民族共同體意識을 만드는 것은 신시대 민족공작의 ‘綱’으로 中華民族共同體意識은 국가통일의 기본이며, 민족단결의 본질이며, 정신역량의 ‘魂’이라 봤다. 그는 2022년 3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회 제5회의 내몽고대표단과의 회합에서, ‘각 민족들의 단결은 중국 각 민족인민의 생명선이며 민족단결의 기본’이라고 강조까지 한다. 그는 中華民族共同體意識의 주형은 신시대의 中華民族 위대한 부흥을 위한 필연적인 요구이며, 그것은 사회주의 민족관계의 공고, 발전, 평등단결, 상호 원조 호혜를 위한 필연적인 요구로 이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이는 신시대의 당의 민족정책의 근본으로, 이의 완전히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社會主義現代化國家全面建設’ 시기에는 일개 민족으로는 적어서 안 되고, 공동 부유하는 것이 사회주의적 본질적인 요구로 이것은 중국식 현대화의 중대한 특징이라고

주장, 중국은 56개 민족 공동으로 전면 小康狀態를 달성, 소수민족과 민족지구등이 전국적으로 현대화의 기초설비 건설을 끝내긴 하였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민족지구 발전 불균형을 시정하고 전면적 사회주의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해 공동 투쟁하는 것은 신시대의 당의 민족 공작적 중요 임무로 각 민족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응해 공동투쟁,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中華民族共同體論’으로 정의된 지금까지의 형식적이고 공허한 민족공존책인 中華民族多元一體論을 벗어던지고 이에 대신하여 실질적인 민족통합 즉 한민족으로의 민족융합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시 주석은 2014년 ‘제2차 중앙신장공작좌담회(第二次中央新疆工作座談會)’에서 처음으로 ‘中華民族共同體 의식’ 수립을 제안한 이래 여러 차례 “中華民族共同體意識” 공고화를 강조해왔고, 2018년 제19차 당 대회에서는 中華民族共同體의 식을 확실히 확립, 각 민족 간의 왕래, 교류, 융화를 강화, 각 민족이 석류알과 같이 다 같이 단결, 분투, 공동번영, 발전하도록 추진하자고 그 내용을 분명히 하면서 민족정책의 대강을 民族多元論으로부터 민족단결론으로의 본질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2018년에 처음으로 ‘中華民族共同體論’은 ‘중국 공산당 당장(黨章)’에 포함돼 새로운 민족정책으로 확정,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기관과 대학, 학자들도 이의 이론화작업에 널리 동원되었다. 2020년 11월 중앙민족대학(中央民族大學)은 ‘中華民族共同體意識鞏固化 연구센터(鑄牢中華民族共同體意識研究基地)’를 설립한 이래 각 지역의 주요 대학에는 모두 ‘中華民族共同體 의식 공고화 연구센터’가 설립되면서 中華民族共同體意識은 나라의 통일과 민족단결의 기초로 자리잡았다.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中華民族共同體論이 가지는 구체적인 함의는 무엇일까. 먼저, 中華民族共同體論에서는 지금까지 중국 민족정책의 주요 내용인 ‘民族區域自治制’의 전면적인 폐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自治’를 강조하고 ‘통일’은 아주 적게 말했다. 소수민족자치 권의 유지와 옹호를 강조하면서 소수민족들의 권익을 확보키 위해 어떻게 각 민족들이 대 中華民族과 국가를 동일하게 인식하는 가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았다. 이렇듯 中華民族多元一體論에서는 소수민족 지역의 자치권을 전제로 한 민족구역자치는 어디까지나 소수민족들의 자치의 허용과 이를 통한 민족화합과 민족공존을 전제로 하고 있었음에 반해 새로운 中華民族共同體論은 이러한 소수민족들의 독자성을 더욱 억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더욱 이들 간의 긴장이 격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신 중국성립 이래의 기존의 민족정책은 국가통일과 각 민족공동성의 강조가 비교적 적었고 현실적으로는 ‘民族區域自治制’로 구체화되어 왔었다. ‘中華民族은 중국 각 족의 총칭’으로 규정되어왔고, 이는 특정 시기의 소련의 민족이론을 답습한 관점이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 등장한 中華民族共同體論에서는 민족구역자치는 어떤 민족의 독자적 자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며, 또 어떤 민족의 독자적인 지방을 말하는 것도 아니며 그것은 오히려 각 민족 간의

혼거, 교류 등의 공동발전의 지역 공간을 이용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민족구역자치 제도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당의 전면적 영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기존의 民族區域自治制度의 철폐를 적극적으로 시사하고 나섰다.

또 하나의 中華民族共同體論이 가지는 함의는 대만에 대한 흡수통합에 대한 의지다. 중국은 이미 홍콩과 마카오 등 주변 중화권에 대한 통합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中華民族 통합의 대상이 바로 대만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마지막 남은 中華民族 통합 대상으로서의 대만에 대한 구체적인 통합목표가 바로 中華民族共同體論 속에 내포 되어 있는 강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시진핑은 이미 대만에 대한 통합의 의지를 기회 있을 때마다 표출시켜오고 있었는데, 이러한 통합의지의 명분적인 정책대안으로서 中華民族共同體論이 가지는 의미는 결코 간과될 수 없다.

이밖에도 中華民族共同體論이 가지는 가장 분명하고 실질적인 명분은 漢族중심으로 중국의 민족관계를 확실하게 재편하려는 의지다, 중국이 다민족국가라고 하더라도 漢族과 여타 소수민족들과의 인구구성 비율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漢族의 점유비율이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는 9할 이상이 漢族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의 中華民族共同體論의 강조는 겉으로는 中華民族共同體의 일체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漢族중심으로 다민족을 통합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소수민족을 동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됐다. 우선, 소수민족 신분을 폐지하고 漢族과 동등하게 중국 공민으로서의 법률적 대우를 받게 하려하고 또는 또 中華民族만을 ‘民族’(nation)으로 표기하고, 다른 소수민족은 ‘種族’(ethnic group)으로 표기하자고도 한다.

그리고 소수민족의 자치권, 소수민족 학생에 대한 학력고사 점수 가중치 부여 등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폐지하려하고, 동화정책의 일환으로는 소수민족 학생들에게 漢語와 漢族史를 교육하고 민족종교를 탄압하고 있기도 하다. 中華民族共同體論의 이론가의 한사람인 후안강(胡鞍綱)은 각 민족의 신분을 취소하고 일체 된 ‘國族’ 개념의 中華民族共同體를 형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마룽(馬戎) 베이징대 교수는 “21세기 중국에 닥친 가장 큰 위협은 국가분열이다. 민족자결권 이론에 따르면 어떤 민족도 독립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할 권리를 부르짖던 소련은 이미 해체됐다. 민족자결은 해체를 부르는 이론”이라고 말한다. 그는 소수민족과 中華民族이 모두 民族(nation)으로 불러 혼란스럽다는 점을 지적하며 56개 민족은 族群(ethnic)으로, 中華民族은 民族(nation)으로 부르자고 ‘숨겨진 漢族으로의 통합론’을 주장한다.

이상에서 보듯 시진핑이 장기집권기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펼쳐내고 있는 ‘中華民族共同體論’이 담고 있는 함의는 한마디로 본격적인 ‘大漢族主義’로의 민족정책의 대 선회로 이를 단순화할 수 있다. 신중국 성립이래 지속적으로 견지해 온 ‘大漢族主義’와 ‘地方民族主義’라고 하는 이른바 두 가지의 과도기적 경향을 극복하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국민통합을 통한 사회주의 강국 중국 건설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나,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大漢族主義’로의 민족통합 이상의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는 또 현재의 중국에서의 민족적 상황이 과거와는 달리 소수민족들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반증하는 정책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 성립 이래 꾸준히 이어져온 소수민족과 소수민족지구에 대한 漢族化의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만들어 내어 현재 남아 있는 소수민족들에 의한 불안 요소는 정권유지에 위협이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이 ‘大漢族主義’의 강화를 통한 ‘地方民族主義’의 제거라는 즉 漢族 중심의 민족통일이라는 오랫동안 기도해온 중국의 내심을 주저없이 표면화하면서 강력한 漢族 중심의 민족통합적 민족공동체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多民族共存’이라는 형식논리를 버리고 漢族 중심의 ‘中華民族共同體’라는 실제적인 민족통합체를 내걸면서, 시진핑의 장기집권의 중심 세력으로서의 ‘漢族 중심주의’의 깃발을 내건 것이다. 여기서 이제 중국의 다원성의 상징이었던 國旗인 ‘五星紅旗’는 이제 단일성을 상징하는 ‘一星紅旗’로 그 내용을 바꿔가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의 이러한 선택은 그만큼의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만큼의 위태로운 도전이기도 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시진핑보다는 민족의 힘이 보다 크고 영원함은 불변의 진리일 수밖에 없기에 말이다.

특집

한국사회와 유학

유학생 대상 한국 역사 교재(2010년대 이후) 분석 -고대사 기술을 중심으로-	권순홍
『日本留學歌』에 나타난 유학 체험과 초국적 자아의 형성	백순철
유학생의 논설문 헤지 표현(hedges) 연구	최보선
유학생의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안 연구 - 베트남 유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이윤주



유학생 대상 한국 역사 교재 (2010년대 이후) 분석*

- 고대사 기술을 중심으로 -



권 순 홍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kwon358@naver.com)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 역사 교재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였다. 첫째, 외국인 독자를 배려하는 편집 및 구성이 두드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자에게 혼란을 줄 소지가 많았다. 둘째, 오래된 역사, 광활한 영토, 강대한 나라 등을 강조하는 국수주의적 서술이 많았고, 오류도 적지 않았다. 셋째, 한국사 체계가 갖는 단일민족의 '발전' 서사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다문화사회를 전망하는 한국 사회 내에서의 유효성이 의심된다. 이로써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역사 교재의 엄격한 집필, 엄정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주제어 : 유학생, 한국사, 교과서, 국수주의, 한국사 체계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896275).

I. 머리말

2021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대학 재적의 외국인 유학생은 총 163,697명이다. 대학의 총 재적학생수 1,888,699명 중 약 9%가 외국인 유학생인 셈이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54.7%는 한국에서의 취업 및 정착, 한국으로의 이주, 귀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와 의무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 역시 그 일환으로서 중요하다.

국제사회에 한국의 역사를 소개하려는 목적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역사 교재가 발간된 사례가 있었지만(전국역사교사모임 2011), 그 수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대학의 전공으로 한국학이 신설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학에 대한 학문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현실에 발맞추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역사 교재가 아래와 같이 출간/재출간되었다.¹⁾

- ① 박성준·이선이. 2011. *외국인을 위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문화사.
- ② 이연주. 2019.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의 역사*. 일일구인쇄기획.
- ③ 김경호·박이진·박은영·손성준·김도형. 2020. *(유학생이 알아야 할 한국학 시리즈) 한국 역사: 전통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한국학연계 전공 교재편찬위원회. 2021. *(유학생이 알아야 할 한국학시리즈) 한국역사: 근현대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④ 전국역사교사모임. 2021(2판, 1판은 2011년).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 휴머니스트.

1) 아래 4종 외에 이가원·신사명·신경환(2018)도 있지만, 이 경우 한국 역사 콘텐츠를 예시문으로 활용한 한국어 교재로서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되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 1〉 외국인 대상 한국 역사 교재 4종의 목차

①	②	③	④
I. 한국의 역사 1장 한국인의 기원과 초기 국가의 형성 2장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 3장 통일국가 고려의 성립과 전개 4장 조선의 성립과 발전 5장 조선 후기 사회와 근대 의식의 성장 6장 일제의 침략과 한민족의 독립운동 7장 대한민국의 발전	CHAPTER 1. 국가의 형성과 고대사회 1. 선사시대 2. 삼국시대 3. 삼국의 통일 4. 고대의 사회와 문화 CHAPTER 2. 다양한 문화를 꽃피운 고려 1. 후삼국 통일 2. 고려의 사회와 문화 CHAPTER 3. 500년의 역사 조선의 건국 1. 조선의 건국과 발전 2. 조선의 사회와 문화 3. 임진왜란 4. 실학과 서민문학 CHAPTER 4. 새로운 문물 수용과 독립운동 1. 외세의 침략과 조선의 개항 2. 대한제국과 근대화와의 추구 3. 국권 상실과 민족의 수난 4. 독립운동 CHAPTER 5. 대한민국의 발전 1.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2. 대한민국의 발전 CHAPTER 6. 인물로 보는 한국의 역사 1. 고대의 인물 2. 중세의 인물 3. 근세의 인물 4. 근대의 인물 5. 현대의 인물	전통편: 제1강 한민족의 기원과 고조선 제2강 고대국가의 성립과 남북국 시대 제3강 고려 왕조의 성립과 전개 제4강 고려 후기의 정치변동과 대몽항쟁 제5강 고려의 쇠락과 공민왕 제6강 조선, 새로운 왕조의 시작 제7강 훈민정음 창제와 경국대전 정비 제8강 유교적 사회 질서의 확산 제9강 왜란과 호란 제10강 왕조의 궁궐 제11강 영조·정조 시대의 개혁 정치 제12강 서민문화의 융성 제13강 실학의 발달과 그 갈래 제14강 혼란스러운 조선과 서구 열강의 충돌 제15강 조선 왕조의 몰락과 민중의 대두 근현대편: 제1강 독립 협회의 활동과 대한 제국 제2강 일제의 국권 침탈과 구국 운동 제3강 무단 통치기 한국의 변화 제4강 3·1운동과 임시 정부 수립 제5강 근대 도시의 성장과 발전 제6강 해외 한인 사회의 형성 제7강 국내외 민족 운동의 전개 제8강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동원 제9강 해방과 민족 분단 제10강 4·19 혁명과 5·16 군사 정변 제11강 박정희 정부와 유신체제 제12강 성장하는 한국 경제 제13강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 제14강 냉전 체제의 긴장과 완화 제15강 한국 문화의 세계화	I 한국 역사의 시작 (B.C.50만~B.C.1세기) II 삼국시대의 개막 (B.C.1세기~A.D.700) III 남북국을 이룬 통일신라와 발해(648~926) IV 통일국가 고려의 등장 (900~1135) V 외세와 싸우며 형성된 새로운 역사 인식(1135~1380) VI 조선의 건국, 새로운 전통의 시작(1380~1474) VII 유교문화의 확산 (1474~1650) VIII 변화를 위한 다양한 모색 (1650~1862) IX 전하기를 맞이한 조선 (1863~1896) X 국민국가 건설의 좌절과 식민지 체제(1867~1921) XI 해방을 준비한 한국인들 (1922~1945) XII 민주공화국의 수립과 분단 (1945~1960) XIII 변화하는 한반도, 역동적인 대한민국(1960~2010)

다만, 그 필요와 취지에 적극 동의하더라도, 위의 교재들은 교과서와 달리, 소수의 필자가 개인의 능력으로 집필을 전담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²⁾ 교과서처럼 엄격한 집필기준과 엄정한 검정절차를 따를 필요는 없더라도, 읽는 외국인 독자의 입장에서는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밀하게 검증될 필요는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위 교재들의 내용 및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역사 교재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개선방안의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다. 분석 범위는 고대사 기술로 국한한다. 필자의 전공을 고려한 것이지만, 고대사는 이 글에서 문제 삼고 있는 국수주의적 역사인식과 한국사 체계의 오류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II. 편집 및 구성의 문제

먼저, 구성상의 특이점이 주목된다. 고대사 부분의 양적 비중이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아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2020년 발간의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중, 고대사의 비중은 7~9% 정도이다. 2014년 발간되었던 김인정 교과서 내용 중 고대사의 분량이 대략 14%였던 사실을 유의하면(이정빈 2018, 14-16), 고등학교 교과서 중 고대사의 분량과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아래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4종의 외국인 대상 한국 역사 교재 가운데 3종(박성준 외 2011; 이연주 2019; 전국역사교사모임 2021)은 고대사의 분량이 전체의 20%를 상회한다. 외국인 독자에게 한국 고대사 학습의 의미와 필요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지나친 분량으로 인해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

〈표 2〉 고등학교 한국사(2020) 교과서 9종의 고대사 부분 양적 비교

고등학교 교과서	장의 비중	쪽수 분량
금성출판사	2/26(7.7%)	26/306(8.5%)
동아출판	2/26(7.7%)	20/298(6.7%)
리베르스쿨	2/26(7.7%)	24/300(8.0%)
미래엔	2/24(8.3%)	24/301(8.0%)

2) 박성준 외(2011)의 집필자 2인 가운데 한국 역사 전공자는 1인이다. 이연주(2019)는 비전공자 1인이 집필하였다. 김경호 외(2020)의 집필자 5인 가운데 한국 역사 전공자는 없다. 전국역사교사모임(2021)의 경우, 7인의 편찬위원과 12인의 검토위원이 있었지만, 집필은 2인뿐이었다.

고등학교 교과서	장의 비중	쪽수 분량
비상교육	2/26(7.7%)	24/304(7.9%)
씨마스	2/26(7.7%)	26/315(8.3%)
지학사	2/26(7.7%)	26/298(8.7%)
천재교육	2/25(8.0%)	28/310(9.0%)
해냄에듀	5/66(7.6%)	18/309(5.8%)

〈표 3〉 외국인 대상 한국 역사 교재 4종의 고대사 부분 양적 비교

교재	① ³⁾	②	③	④
장의 비중	2/7(28.6%)	1/5(20%)	2/30(6.7%)	3/13(23%)
쪽수 분량	28/90(31.1%)	45/102(44.1%)	28/344(8.1%)	70/300(23.3%)

한편, 대상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특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 교재, 교과서 등과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표현의 난이도를 낮추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지만(박성준 외 2011, 7), 선명하지 않다. 한국인 학생들도 교과서에서 서술된 단어가 어려워서 한국사를 어려워한다는 점을 상기하면(송호정 2016, 293), 어려운 단어들을 쉽게 풀어쓰려는 노력이 가장 크게 요구된다. 이외에도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눈에 띈다.

첫째, 표기의 문제이다. 역사 서술의 특성상 한자어가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고, 한자를 병기하지 않고 한글만 표기할 경우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 아래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원 전후 시기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는 여러 국가가 존재하였다. 북방에서는 부여 외에도 고구려와 옥저, 동예가 일어났고, 남쪽에서는 크고 작은 국가들이 마한, 진한, 변한의 연맹체로 새로이 결집되었다. 북방에서 일어난 국가들은 이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던 한족세력과 대립하거나 교섭하면서 성장하였다. 특히 고구려는 한족세력과 여러 차례 투쟁하면서 국가를 발전시켰다. 모두 54개국으로 이루어진 마한에서는 백제가, 각각 12개국으로 이루어진 진한과 변한에서는 사로와 구야가 두각을 나타냈다. 이들이 훗날 한국 고대사의 주역이 될 백제와 신라, 가야였다(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35).

3) 교재 ①의 경우, 표 1에서 확인되듯이 총 1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역사 부분은 앞의 7개 장만 해당한다.

위의 인용문은 부여·고구려·옥저·동예·삼한 등의 초기 국가들이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성장하던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이 외중에 한(韓)과 한(漢)이 한(韓)-한(漢)-한(韓)의 순서로 교차되며 서술되었는데, 구분 없이 ‘한’으로 표기되었다.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독자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다.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위의 서술 중 마한 등의 한과 한족세력의 한은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한자를 병기하거나(박성준 외 2011, 19), 한자병기와 함께 한(韓)과 한(漢)을 교차하지 않고 절을 구분하여 서술(김경호 외 2020, 22-26)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위의 서술에 따르면 마한의 백제가 훗날 한국 고대사의 주역이 될 백제였다고 한다. 『삼국지』에 나오는 마한 54개국 가운데 하나인 백제국(伯濟國)이 훗날 백제(百濟)로 성장한 사실을 전한 것인데, 한자를 병기하지 않음으로써, 본래 의미를 알 수 없는, 백제가 백제가 되었다는 어색한 서술이 되고 말았다. 필요에 따라 한글, 한자, 영어를 함께 병기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우려는 시도가 주목된다(박성준 외 2011).

둘째, 서술 방식의 문제이다. 한국어가 서툰 독자들을 위해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한자어들을 쉽게 풀어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나당연합/동맹 즉, 신라와 당(唐)의 연합/동맹을 설명할 경우, ‘나’가 신라를, ‘당’이 중국의 당을 각각 가리킨다는 사실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A1 고구려는 신라와 당이 손을 잡은 나당연합군의 공격에 의해 668년에 멸망하였다(박성준 외 2011, 31).

A2 나당 연합군의 침입 : 신라군(김유신)과 당군(소정방)의 침입 (이연주 2019, 29).

A3 당나라는 고구려 정복을 위해서 한반도 내의 다른 세력과 연합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백제의 공세에 부담을 느끼던 신라 또한 당나라와의 연합을 통한 세력 강화를 도모하면서 나-당 동맹(羅唐同盟)이 성사되었습니다(김경호 외 2020, 37).

A4 신라와 당의 군사동맹이 이루어지면서 동북아시아 정세는 빠르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백제와 고구려는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도, 내부 개혁을 통해 국력을 결집하지도 못하였다. 두 나라는 강력한 나당 연합군을 개별적으로 상대해야 했다(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68).

위의 인용문은 고구려·백제·신라가 각축하던 7세기에 신라가 중국의 당과 연합하여 고구려·백제를 압박하던 사실을 전하고 있다. A1은 나당연합을 ‘신라와 당이 손을 잡은’ 것으로 설명했고, A3은 신라와 당이 동맹을 맺은 구체적인 배경까지 설명한 반면, A4는 그러한 설명이 없다. 배경지식 없이, A4의 ‘신라와 당의 군사동맹’과 ‘나당 연합군’을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다. 특히, A4의 ‘두 나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신라와 당을 가리키는지도 배경지식 없이는 선뜻 판단하기 어렵다. 한편, A2는 나당 연합군이 신라군과 당군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만, 의미함축적인 한자어만 나열한 개조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유학생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특히, A2에서 인용한 교재는 그 핵심내용을 대부분 한자병기 없이 개조식으로 서술했는데, 이러한 방식이 과연 효과적인지 의문이다.

한편, A3은 신라와 당이 ‘연합’한 결과를 나당‘동맹’으로 표기했고, A4는 신라와 당의 군사‘동맹’을 나당 ‘연합’으로 표기했다. 양국의 당시 관계를 연합으로 해석할 것인지, 동맹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고(김종복 2019, 238-240 참고), ‘연합’과 ‘동맹’의 개념에 관한 논의로도 이어지지만(신가영 2017), 양자를 혼용하는 것은 문제이다.

셋째, 참고 및 보충자료의 문제이다. 본문에서 다루기 어려운 역사적 사건, 인물, 용어 등에 관한 추가 설명자료는 필요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독자를 배려한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 풍부한 시각자료를 활용하거나(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본문과 관련된 인물 및 사건을 대화나 이야기의 형식으로 흥미롭게 재구성한 자료(이연주 2019)는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만하지만, 외국인만을 배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교연표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본국의 역사 혹은 세계사와 비교하며 한국 역사의 전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단원의 첫머리에 연표를 배치하여 외국의 역사적 사건을 표기하기도 했지만(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매우 소략할 뿐만 아니라 주로 유럽과 중국의 역사만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2021년 자료 기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40%에 육박(전체 163,697명 중 63,491명)하고, 상위 4개국(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출신 유학생이 전체의 약 80%에 달한다는 점이 참고된다.

한편, 단원마다 해당 시기와 관련된 한국의 사극(드라마, 영화 등)을 소개하는 코너(김경호 외 2020)는 외국인 독자를 고려한 참고자료로서 주목된다. 단, 시의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⁴⁾ 특히,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교재에서 배운 내용을 총정리하고, 지인과 토론해보라는 제안은 팩트와 픽션을 분별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없는 독자들에게는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를테면, 해당 코너에서 참고자료로 제시한 드라마 ‘주몽’의 경우, 부여에서 황제 칭호가 사용된 것으로

4) 고대사 부분에서는 드라마 ‘주몽’(2006~2007), ‘대조영’(2006~2007), 영화 ‘황산벌’(2003), ‘평양성’(2011), ‘안시성’(2018) 등이 거론되었는데, 영화 ‘안시성’을 제외하면, 모두 10년~20년이 지난 작품들이다. 2000년 이후 고대사를 소재로 한 이른바 정통 사극 드라마는 이외에도 ‘연개소문’(2006~2007), ‘근초고왕’(2010~2011), ‘광개토태왕’(2011~2012), ‘대왕의 꿈’(2012~2013), ‘한국사기’(2017) 등이 있는데(정동준 2016, 127), 이 가운데 위의 작품들이 선정된 이유가 불분명하다.

묘사하거나, 기원전 82년에 없어진 임둔(臨屯)과 진번(眞番)을 그로부터 20여년 이후(기원전 59년)에 태어난 주몽이 공격한 것으로 묘사하는 등의 사실 왜곡(서길수 2007, 24-36)으로 인해, 정통 사극이 아닌 퓨전 사극으로 분류된다(정동준 2016, 127).

요컨대, 위 4종의 교재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상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 역사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독자를 배려하는 서술 태도와 구성이 부족했다. 특히, 어려운 한자어를 설명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같은 발음의 한자어들을 구분 없이 사용하여 오해의 소지가 컸다. 비교연표 등을 활용하여 이해를 도우려는 노력도 부족했다.

Ⅲ. 국수주의적 서술의 강박과 오류

검정을 거친 교과서의 경우에도 국수주의적 서술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임지현 1999; 徐毅植 2001; 김한규 2002; 송호정 2003; 梁正鉉 2005; 김한중 2006; 김기봉 2006; 김나연 2014; 朴美先 2018; 정동준 2019; 조영광 2019; 장창은 2020; 이정빈 2021),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비판과 성찰이 집필기준에 일정부분 반영되어 현행 교과서에 이르렀다. 물론 현행 교과서 역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논의가 집적된 나름의 성과인 셈이다.

반면, 위 4종 교재의 서술 중에서 구태의 역사 인식을 답습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오류가 확인되는데, 대체로 오래된 역사, 광활한 영토를 강조함으로써 한국 역사의 유구함, 강대함 등을 드러내려는 국수주의적 의도가 포착된다.

1, 오래된 역사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한곳에 머물러 정착 생활을 하였는데, 이들이 현재 한국인으로 이어지고 있다(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24).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는 약 70만년 전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 단, 그들은 정착생활을 하지 않고, 동굴 등을 옮겨 다니며 살았다. 위의 서술은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정착생활을 했다는 정보를 토대로, 이들이 정착함으로써 말미암아 계속 이 땅에 살았고, 따라서 한국인의 기원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인 혹은 한민족이라는 용어는 공통의 조상, 공통의 언어, 공통의 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동체로서 민족을 단위로 한다.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근대적 의미의 민족(nation)에 선행하는 에스닉 그룹(ethnic group)이 있었다는 전제 위에서 그 기원 내지 형성시점으로서 단군조선의 성립(申采浩 1908: 2007, 311), 예(濊)·맥(貊)·한(韓)의 분포(과학원 역사연구소 1962; 金廷鶴 1964), 신라의 삼국통일(孫晉泰 1948, 126; 김석형·박시형 1953; 임지현 1994, 119-125), 고려의 후삼국통일(盧泰敦 1997, 180) 등의 역사적 사건들이 주목되어 왔다.

위의 서술은 민족의 개념 및 형성시점에 대한 이러한 여러 논의들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인/한민족의 기원을 단군조선의 성립 즉 청동기시대 보다 이른, 신석기시대로 소급하고 있다. 신석기시대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공통의 조상, 공통의 언어, 공통의 문화 등을 공유했다는 증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서술이 시도된 데에는 한국 역사의 기원을 신석기시대로 소급하려는, 일종의 강박이 작동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강박은 아래의 서술들에서도 확인된다.

- B1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한 이는 단군왕검으로, 그는 한국인의 시조로 받들어진다(박성준 외 2011, 18).
- B2 고조선의 건국: 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이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음(이연주 2019, 3).
- B3 『삼국유사』에 따르면 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중국의 『사기』, 『한서』, 『후한서』 등의 역사서에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단편적으로 나옵니다(김경호 외 2020, 20).
- B4 그러나 고조선이 언제 건국되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기원전 7세기에 쓴 중국의 『관자』라는 책에 “조선은 (중국 제나라에서) 8,000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라고 언급되어, 적어도 기원전 7세기 이전에 국가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29).

위의 인용문은 고조선의 건국시점을 전하고 있다. B1~B3은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특히, B3은 그 근거로서 『삼국유사(三國遺事)』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는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는 기록이 없다. 『삼국유사』는 고조선의 건국연대를 ‘당고⁵⁾즉위50년경인(唐高卽位五十年庚寅)’으로 전하는 『고기(古記)』를 인용한 뒤, ‘요(堯)임금의 즉위 원년은 무진년(戊辰年)이기 때문에 50년은 정사년(丁巳年)이지 경인년(庚寅年)이 아니므로, 『고기』의 기록은 의심스럽다’는 일연(一然)의 해석⁶⁾을 전한다. 즉, 일연은 고조선의 건국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5) 고려 정종의 이름인 堯을 피휘하여, 高로 고쳤다.

고백한 셈이다. 따라서 B3의 서술은 명백한 오류이다.

한편, 기원전 2333년은 중국 요임금대의 무진년을 서기(西紀)로 환산한 것으로, 무진년 건국설은 13세기에 편찬된 『제왕운기(帝王韻紀)』에서 처음 확인되며,⁷⁾ 15세기에 편찬된 『동국통감(東國通鑑)』에서 정착되었다.⁸⁾ 단, 『제왕운기』와 『동국통감』은 고조선의 건국 시점을 공히 무진년으로 보고 있지만, 그 기준인 요임금의 즉위년을 달리 본다. 전자는 요임금의 즉위년을 무진년으로, 후자는 갑진년(甲辰年)으로 보는데, 이는 중국 송대(宋代) 이래의 이설(異說)이 각각 반영된 결과였다(박대재 2015, 8-10). 즉, 『삼국유사』·『제왕운기』·『동국통감』에서 활용된 고조선 건국연대 비정의 준거는 각기 다르고, 시기적으로도 고조선 멸망 이후 1천년여가 지난 이후의 기록들이므로, 어느 것 하나를 쉽게 따르기 어렵다. 이로 말미암아 고조선의 건국연대에 관한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박대재 2015), 기원전 2333년으로 특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B1~B3은 고조선의 건국시점을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하면서, 그와 동시에 고조선의 성립 기반인 청동기 문화는 도리어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 무렵(박성준 외 2011, 15; 김경호 외 2020, 17) 혹은 기원전 2000년경(이연주 2019, 3)에 성립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되면, 고조선의 건국이 그 바탕인 청동기 문화의 성립보다 앞서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⁹⁾ 고조선의 건국을 고대로 소급하려는 강박의 소산이다. 반면, 고조선의 건국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늦어도 기원전 7세기에는 존재했다는 B4의 조심스러운 표현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 결과로 이해된다.

2. 강대한 나라

기원전 4세기에 고조선은 주변의 작은 국가들을 제후국으로 삼는 왕국으로 발전하면서 한족의 연 왕국과 한때 전면전을 벌이기도 하였다(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30).

위의 서술은 고조선이 제후국을 거느린 왕국이었다고 설명한다. 『위략(魏略)』에 따르면, 이 시기의 고조선은 왕을 자칭하였다.¹⁰⁾ 『위략』은 3세기에 편찬된 책으로, 후대의 윤색이

6) “以唐高卽位五十年庚寅(唐堯卽位元年戊辰 則五十年丁巳非庚寅也 疑其未實) 都平壤城(今西京) 始稱朝鮮”(『三國遺事』 卷1, 紀異1, 古朝鮮)

7) “初誰開國啓風雲 釋帝之孫名檀君 竝與帝高興戊辰”(『帝王韻紀』 卷下)

8) “東方初無君長 有神人降于檀木下 國人立爲君 是爲檀君 國號朝鮮 是唐堯戊辰歲也”(『東國通鑑』 東國通鑑外紀, 檀君朝鮮)

9) 이러한 모순은 현행 교과서에서도 확인된다(조영광 2022, 35-37).

가해졌겠지만, 고조선과 연(燕)의 관계 기사는 교차검증을 통해 사실성이 인정된다(盧泰敦 1990, 32-33). 따라서 고조선을 왕국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다만, 기원전 4세기의 고조선이 주변국을 제후국으로 삼았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러한 서술은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고조선의 위상을 제고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한다. 대체로 중원왕조에 복속되어 있던 고조선의 종속적 국제관계(송호정 2020 참고)는 설명에서 배제한 채, 위와 같이 연과 전면전을 벌였다는 기술이나, 고조선 멸망 과정에 관한 내용을 ‘한과 고조선의 대결’이라는 표제로 다룬 것(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31)은 고조선을 중원왕조와 대등한, 혹은 버금가는 주체로 확대 해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한과 1년동안 전쟁을 계속하면서 힘이 약해졌고, 지배층의 내분이 일어나면서 결국 기원전 108년에 이르러 멸망하였다(박성준 외 2011, 19).

『사기(史記)』에 따르면, 고조선은 기원전 109년부터 한의 공격을 받았고, 1년간의 항전 끝에 패배함으로써, 멸망했다. 명백한 사실은 고조선의 멸망 원인이 한의 공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조선 멸망 이후 고조선의 땅에는 낙랑군(樂浪郡)·임둔군(臨屯郡)·진번군(眞番郡) 등 한의 군현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위의 서술에 따르면, 고조선의 멸망은 지배층의 내분에 의한 것으로 읽힌다. 한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내부 분열을 내세움으로써, 고조선이 한과의 전쟁에서 졌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특히, 위 교재는 고조선의 멸망 이후 설치된 한군현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 한에게 졌다는 사실과 그 결과로 한에게 복속되어 있던 역사적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한과 대립했던 고조선의 강대함을 제고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들(漢)이 남겨놓고 간 통치기관들은 채 몇 년도 안 되어 폐지되었다. 수도가 함락된 뒤에 도 옛 조선인들이 거세게 저항하였기 때문이다(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31).

위의 서술에서 한이 ‘남겨놓고 간 통치기관’은 낙랑군·진번군·임둔군·현도군(玄菟郡) 등의 한사군(漢四郡)을 의미한다. 한사군이 몇 년도 안 되어 폐지되었다는 기술은 명백한 오류이다. 진번군과 임둔군은 기원전 108년 설치되었다가 기원전 82년에 각각 낙랑군과 현도군으로 통합되었다.¹¹⁾ 현도군의 경우, 기원전 107년에 설치되었고, 현재의 중국

10) “魏略曰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 韓)

11) “至昭帝始元五年 罷臨屯眞番 以并樂浪玄菟” (『後漢書』 卷85, 東夷, 滅)

랴오닝성 차오양(朝陽)으로 옮긴 세 번째 이치 전까지 약 400여년간 고구려 등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윤용구 2008). 특히 낙랑군의 경우에는 한의 멸망 이후에도 공손씨(公孫氏) 등이 운용하다가, 313년에야 고구려에 의해 축출됨으로써,¹²⁾ 약 400여년간 현재의 평양지역에 존속했다. 위와 같은 기술은 한국의 초기 국가 성립 과정에 미친 한사군의 영향 및 관계 등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오히려 그것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한편, 한사군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하는 사료는 많지 않다. 다만, 아래와 같은 서술에서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포착된다.

고조선을 통일한 무제는 고조선의 옛 땅에 한사군을 설치했습니다. 한나라 사람들은 강제로 땅과 재물을 빼앗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에 대항하면서 민족적 자각 의식을 갖게 되었고, 빼어난 철기 문화에 힘입어 여러 부족 국가들이 생겨났습니다(이연주 2019,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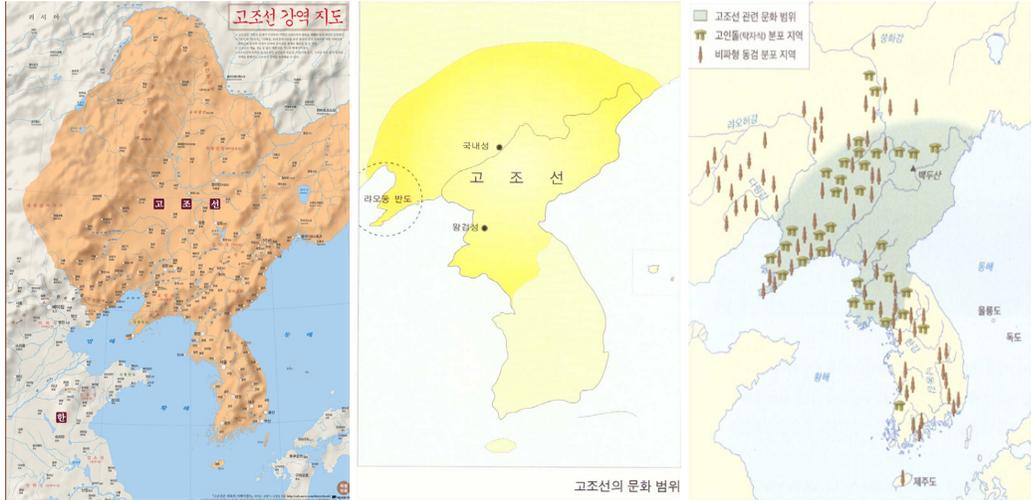
한의 통치에 대한 위와 같은 부정적 묘사는 근대적 민족의식을 이 시기까지 소급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을 떠나 중국/한에 귀부한 예군 남려(濊君 南閩)나 조선상 노인(朝鮮相 路人) 등의 사례를 통해 보면, 과연 그 시기에 민족적 자각 의식이 있었을지 의문이다. 근대적 민족 개념을 고대로 투영하려는 것은 민족주의의 강박이기도 하다.

위 인용문에서는 그 외에 용어 문제 두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한의 고조선 공격과 그 결과로서 한사군 설치를 ‘한의 고조선 통일’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통일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로 통합된다는 의미일 뿐이지만, 역사용어로서 통일은 주로 ‘원래 하나였던 것이 나뉘었다가, 다시 하나로 통합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김영하 2016, 4). 고조선이 통일된 것이라면, 원래 중국/한이었던 곳이 고조선으로 나뉘어 있다가 다시 중국/한이 되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다음, 고조선 이래 등장한 부여·고구려·옥저·동예·삼한 등의 초기국가를 ‘부족’ 국가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부족이라는 단어 역시 사전적으로는 넓지 않은 지역에서 공통의 조상, 언어, 종교 등을 가진 초기사회의 구성 단위 내지 생활공동체라는 의미이지만, 역사용어로서는 신진화론에서 국가발달단계를 설명하며 제시했던 ‘band-tribe-chieftdom-state’의 도식 중 tribe의 번역어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tribe의 번역어로서 ‘부족’과 state의 번역어로서 ‘국가’를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미 1970년대 이래 있어 왔다(金貞培 1973). 게다가, 부여 등의 초기 국가들은 tribe나, state가 아닌 chieftdom 단계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위의 ‘부족 국가’라는 용어는 명실상부 부적절하다.

12) “十四年 冬十月 侵樂浪郡 虜獲男女二千餘口”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5, 美川王)

3. 광활한 영토

〈표 4〉 외국인 대상 한국 역사 교재 4종의 고조선 관련 지도



(이연주 2019, 5)

(박성준 외 2011, 19)

(김경호 외 2020, 19)



(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29)

위의 표 4에서 주목되는 것은 고조선의 범위로 설정된 지역의 크기 차이뿐만 아니라, ‘강역’과 ‘문화 범위’, ‘관련 문화 범위’, ‘예맥족 거주지’ 등의 단어 차이이다. 1990년, 제5차 교육과정 교과서부터 「고조선의 ‘세력’ 범위」라는 제하에 지도가 제시되었는데, 고조선 관련 문화 지표로 알려진 비파형 동검과 북방식/탁자식 고인돌, 미송리형 토기 등이 공반 출토되는 지역을 선과 면으로 표시한 것이었다. 과연 유물 현황을 정치적 영역으로 직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었고(송호정 2003), 이에 따라 이후 교과서에서는 고조선 ‘세력’ 범위가 아닌 ‘문화’ 범위로 수정되었다(조영광 2022). 위의 표에서 고조선 ‘관련 문화’ 범위로 표기하거나(김경호 외 2020, 19), ‘예맥족 거주지’로 표기(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29)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결과였다. 반면, 한반도 전부와 중국의 동북3성 전부, 내몽골 일부와 러시아 연해주 일부까지 포괄하는 위의 ‘고조선 강역 지도’는 그 크기도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강역’이라는 표현 역시 적절하지 않다.

한편, 고구려 광개토왕은 그 이름에 걸맞게 한국 역사상 가장 활발하게 영토를 넓힌 왕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 고구려의 지배권력은 왕에게 더욱 집중되어, 왕 중의 왕으로서 대왕/태왕으로 불리기도 했다(여호규 2010). 단, 아래와 같은 설명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C1 광개토대왕 : 동아시아의 대제국을 건설 (이연주 2019, 80)

C2 위기를 딛고 대제국으로 발전한 고구려 (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51)

5세기경의 고구려가 독자적 천하관을 바탕으로, 다원적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은 사실이지만(盧泰敦 1988), 대제국이라는 표현은 어색하다. 제국은 단지 영토가 넓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역사용어로서 황제는 왕의 상위개념으로서, 주변국을 복속시키고 그 왕들을 제후화함으로써, 이원적 통치구조를 갖는다. 고구려의 대왕/태왕은 왕 중의 왕이라는 의미이지만, 황제와 같다고 볼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하다(盧泰敦 1988, 50-62 참고). 단, 위의 교재에서 대왕/태왕과 제국에 대한 설명 없이, 대제국을 건설했다고만 서술한 것은 이러한 논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대제국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광활한 영토’의 이미지만을 차용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요컨대, 위 4종의 교재들은 오래된 역사, 강대한 나라, 광활한 영토를 강조하는 국수주의적 서술이 많았다. 구태의 역사 인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있었던 사실을 은폐 혹은 왜곡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의 역사가 유구하고, 강대했으며, 광활한 영토를 차지했었다는 서사, 즉 국수주의적 서사가 독자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어떠한 의미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IV. 한국사 체계의 함정

고조선을 한국 역사의 출발로 설정하고, 삼국-남북국-고려-조선으로 이어지는 계보도를 그리고 있는 한국사 체계는 ‘처음부터 있었던 원형이 역사의 유전자처럼 계승’된다고 믿는 ‘기억의 망상’이다(김기봉 2008, 26). 위 4종의 교재들도 고조선에서 출발하는 한국사 체계를 아래와 같이 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표 5〉 외국인 대상 한국 역사 교재 4종의 서사 도식

① 박성준 외	초기국가(고조선-여러 나라)-삼국-남북국-고려-조선
② 이연주	고조선-여러 나라-삼국-남북국-고려-조선
③ 김경호 외	고조선-여러 나라-고대국가(삼국-남북국)-고려-조선
④ 전국역사교사모임	고조선-여러 나라-삼국-남북국-고려-조선

1. ‘고조선-여러 나라’ 계보의 오류

D1 고조선이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세력을 펼치다가 멸망할 무렵, 주변 지역에서는 한민족의 또 다른 집단들이 부족 단위로 세력을 키워갔다. 기원 전후의 시기에 이들 세력은 다른 부족과 연합하거나 부족 간의 전쟁을 통해 세력을 확대하여 마침내 체제를 갖춘 국가로 발전해 나갔다. 만주 지역에는 부여가, 압록강 일대에는 고구려가, 한반도의 북부 동해안 지방에는 옥저와 동예가 자리를 잡았다. 한편 한반도의 남부 지방에서는 마한, 진한, 변한이 있었으며 이를 삼한이라고 하였다(박성준 외 2011, 19).

D2 고조선에 뒤이어 일어난 나라들: 고조선 멸망 후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부여·고구려·옥저·동예·마한·변한·진한 등의 여러 나라들이 일어났음 (이연주 2019, 4)

D3 결국 한나라 무제의 공격을 받고 내부적으로도 지배층의 내분이 이어지면서 멸망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가 멸망한 고조선의 일부 영토에 군현을 설치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변화와 정치적 분화가 일어났고, 해당 지역에서 여러 부족들이 연맹하거나 분리하여 각각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서는 유입된 철기문화를 기반으로 부여와 고구려와 같은 세력들이 등장하였습니다(김경호 외 2020, 22-23).

위의 인용문은 부여·고구려·옥저·동예·삼한 등 초기 국가들의 성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위의 서술들이 고조선과 여러 나라(부여·고구려·옥저·동예·삼한 등)를

선후관계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D1은 여러 나라가 고조선이 멸망할 무렵에 세력을 키웠다고 설명했고, D2는 고조선의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으며, D3은 고조선 멸망 이후에 형성되었다고 설명함으로써, ‘고조선-여러 나라’의 계보도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의 현행 역사교과서 분석을 통해, 고조선=청동기 문화, 여러 나라=철기 문화라는 이분법적 이해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朴賢淑 2011, 7)이 있었듯이, ‘청동기 문화의 고조선에서 철기 문화의 여러 나라로’와 같은 도식적 이해는 ‘여러 나라’의 성립 시기를 실제보다 늦출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다원적 기원과 다양한 경로의 사회변화를 생략한다(이정빈 2021, 391). 특히, 여러 나라 가운데, 부여는 기원전 10~3세기에 송화강 유역에서 발달한 청동기 문화에 기초하여 성립하였고, 유라시아 초원의 청동기·철기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고구려 역시 기원전 4~3세기 압록강 중류 유역의 청동기~철기문화에 기초하여 성립하였다.

다시 말해, 부여와 고구려는 고조선 멸망에 앞서 이미 다양한 경로의 청동기·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해 있었고, 따라서 고조선이 멸망하기 이전부터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는 고조선·부여·고구려 등 여러 나라가 공존하고 있었다. 다양한 사회와 문화의 공존과 병립을 삭제하고, 중심에서 주변으로의 문화세례 및 사회이행으로 역사를 전유하는 것이 한국사 체계의 함정이다.

2. ‘발전’ 서사의 폭력성과 ‘삼국시대’

한국사 체계에서 한국의 역사는 중앙집권과 왕권강화를 정치적 ‘발전’으로, 권력의 자본축적과 그를 위한 기술발달을 경제적 ‘발전’으로 묘사하고, ‘선진’의 지표로 삼았다. 이러한 근대로의 이행 서사에서 한국의 역사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허구의 ‘발전’을 거듭해 온 것으로 묘사되었는데(김기봉 2008; 앙드레 슈미드 2007; 도면희 2009), 4종의 교재들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차례의 교섭과 대결 과정에서 한자를 비롯한 한족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국왕을 중심으로 한 통치체제를 갖추는 등 정치·사회적인 발전을 이루었다(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30- 31).

고조선 부분에 서술되어 있는 위의 문장은 고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사 체계의 역사서술 가운데 어느 시기에 놓더라도 어색하지 않다. 한국의 역사는 ‘중국/한족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여 국왕을 중심으로 한 통치체제를 끊임없이 정비하고, 특히 이것을 정치·사회의 유일무이한 ‘발전’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발전’을 빨리 달성할수록 선진사회로 평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서술이 주목된다.

2세기 고국천왕 대에 이르면 기존 다섯 부족이 행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5부체제로 개편하면서 고대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습니다(김경호 외 2020, 28).

고구려의 다섯부족이 행정적 기능의 5부체제로 개편되었다는 위의 서술은 단위정치체로서의 고유명 5부에서 행정단위로서 방위명 5부로의 전환을 뜻한다. 물론 고구려의 5부는 고유명부에서 방위명부로 전환되었지만, 그것이 위의 설명처럼 2세기 고국천왕대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체로 2세기경에서 4세기경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임기환 2004, 103-110). 특히, ‘고대왕국의 면모를 갖추었다’는 서술을 통해, 행정적 기능의 5부체제를 이른바 ‘발전’된 중앙집권적 면모로 파악하고, 그러한 중앙집권적 면모의 등장을 2세기까지 소급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편, 이러한 ‘발전’ 서사는 중앙집권 혹은 왕권강화를 이루지 못한 사회를 역사의 패배자 혹은 조연으로 낙인찍고,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을 역사의 승리자이자 주인공으로 묘사한다.

가야 연맹을 주도하던 금관가야는 4세기 말~5세기 초에 고구려·신라 연합군의 공격으로 크게 패한 뒤, 국가를 보전하기도 어려운 처지였다. 지도자를 잃은 가야의 여러 국가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부여와 가야가 탈락하고 이제 고구려와 백제, 신라 세 나라가 남았다. 북쪽의 고구려, 남쪽의 백제와 신라. 훗날 하나의 국가로 통합될 이 세 나라가 경쟁하던 시대를 한국인들은 삼국시대라고 부른다(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47).

위의 내용은 ‘부여와 가야의 탈락’이라는 표제 아래 서술되어 있다. ‘삼국시대’라는 한국사 체계의 시대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레토릭이다. 부여와 가야뿐 아니라, 옥저와 동예, 삼한의 여러 소국들도 ‘삼국시대’를 위해 사라졌다. 위의 기술은 5세기 초 금관가야의 실세(失勢)를 4세기 부여의 고구려 복속과 함께 ‘삼국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금관가야의 실세 이후 5~6세기의 가야 제국은 대가야를 중심으로 존속하며 해상교역 활동을 전개하였고, 479년에는 남제(南齊)에게 책봉을 받기도 했다.¹³⁾ 대가야 중심의 가야 제국을 금관가야 중심의 전기가야연맹과 구분하여 후기가야연맹으로 부르기도 한다(金泰植 1990). 가야의 5~6세기 역사를 삭제한 이유는 명실상부한 ‘삼국시대’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13) “建元元年 國王荷知使來獻 詔曰 量廣始登 遠夷洽化 加羅王 荷知款關海外 奉贄東遐 可授輔國將軍本國王”(『南齊書』卷58, 東夷, 加羅國)

E1 가야연맹의 여러 나라들은 국력이 비슷하여 각 나라마다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결국 신라에 합병되고 말았다(박성준 외 2011, 34).

E2 여전히 각 부족들의 정치적 기반이 유지되었기에 특정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국가 로까지 성장하지는 못하였습니다(김경호 외 2020, 32).

연맹왕국→중앙집권적 고대국가의 도식은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탈락한 가야를 한국 역사의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규정하며 ‘삼국시대’라는 한국사 체계를 공고히 한다. 이렇게 탈락한 부여·가야·옥저·동예·삼한 등의 다양한 문화는 소거되고, 오로지 삼국의 문화만이 주목받는다. 문화적 다양성을 억압하는 획일화를 ‘발전’으로 평가한다. 과연 이러한 서사가 앞으로의 다문화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행 9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4종에서 부여와 가야 등의 퇴장을 아예 서술하지 않거나(씨마스 2020; 해냄에듀 2020), 가야는 신라에 의해 멸망 당했다는 결과만을 건조하게 서술(동아출판 2020, 15; 리베르스쿨 2020, 20)한 것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일정 부분 공유했기 때문일 수 있다. 비록 삼국이 주인공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지만, 부여와 가야 등이 ‘발전’하지 ‘못’하여 ‘탈락’한 것이라는 표현을 배제함으로써, ‘발전’ 서사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3. ‘삼국통일’과 ‘남북국’의 모순

F1 신라의 삼국 통일은 한국인에게 동일한 민족문화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박성준 외 2011, 34).

F2 삼국통일의 의의 : 최초의 민족통일로 새로운 민족 문화 형성의 계기 (이연주 2019, 29)

F3 특히 이 사건은 한반도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세력들이 대륙 세력에 맞서서 처음으로 민족적인 공동체를 이루었음과 동시에, 대륙세력에게 한반도의 독자적인 통일국가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사건으로 의미를 갖습니다(김경호 외 2020, 38-39).

F4 공동의 경험이 확대되면서 동질감이 강화되었다. 그런 점에서 신라가 두 나라를 통합하여 200년 이상 통일국가를 유지한 것은 한국 민족의 형성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신라 왕실이 ‘우리가 삼국을 통일하였다’고 주장한 것도 틀린 이야기만은 아니었다(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72).

F1~F4는 공히 7세기 신라의 삼국통일을 민족문화 혹은 민족공동체가 형성된 시점으로서 특기하고 있다. 한국인/한민족의 기원은 청동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동질감이 강화'된 '민족적인 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바로 이때라는 설명이다. 그래서 이후의 신라는 '통일신라'로 구분하여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과연 여전히 유효한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국가를 대신할 근대적 주체로서 민족을 규정하고,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민족사 복원을 시도했던 신채호 이래, 한국 근대 역사학의 한국사 체계는 단일민족의 계보사였다(앙드레 슈미트 2007). 고조선에서 삼국통일로 시점이 많이 내려왔지만, 위의 교재들 역시 여전히 고대에 형성된 단일민족이 현대까지 이르고 있다는 계보사로 구성되었다. 이 와중에 삼국통일 이후의 고구려유민, 백제유민 등 다양한 소수집단의 문화와 역사는 배제되었다(정동준 2019, 208-209). 고대에 형성된 유구하고 강고한 단일민족 서사를 고수하는 것은 다문화사회를 전망하는 현대 한국사회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 민족형성은 고대에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서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행 9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3종(금성출판사 2020; 비상교육 2020; 해냄에듀 2020)에서 신라의 삼국통일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건에도 민족 형성/통합/통일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어느 정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000년대 초반 동북공정의 여파로 발해 역사의 귀속문제가 불거지면서, 발해를 한국사 체계에 확고하게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 기왕의 '통일신라시대'를 대신하여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가 새삼 강조되었다. 남쪽의 신라와 함께, 북쪽의 발해도 한국의 역사라는 점을 천명한 것이었다.

G1 남북국을 이룬 통일신라와 발해 (박성준 외 2011)

G2 통일신라와 발해 (남북국 시대) (이연주 2019)

G3 통일신라, 발해, 남북국의 형세 (김경호 외 2020)

G4 남북국을 이룬 통일신라와 발해 (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4종의 교재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라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사이를 남북국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바로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다. F에서 설명한대로, 신라의 삼국통일이 민족문화 내지 민족공동체가 형성된 사건이었다면, 신라의 바깥에서 독립적으로 건국한 발해는 민족문화, 민족공동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발해는 한민족의 역사가 아닌 셈이다. 반대로, 발해가 한국사 체계에 포함된다면, 신라의 삼국통일에 부여했던 민족 형성의 기점이라는

의의는 부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지 않은 채, 즉 통일신라와 발해의 어색한 공존을 묵시한 채, F와 같이 삼국통일의 의의를 평가하면서 G처럼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독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행 9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1종이 신라의 삼국통일이 아닌, 고려의 발해 흡수와 후삼국 통일을 민족의 통합으로 평가(동아출판 2020, 30)한 것은 위와 같은 모순을 인정한 결과였다. 한편, 나머지 5종 가운데 3종(미래엔 2020; 씨마스 2020; 지학사 2020)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민족의 통합/통일로 평가하면서도, 고려의 발해 흡수와 후삼국 통일을 민족의 재통합/재통일로 서술함으로써, 위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했지만, 이 4종 모두 특정 역사적 사건을 민족의 형성/통일/통합으로 평가하고, 이를 ‘올바른’ ‘발전’의 방향으로 해석하는 단일민족의 ‘발전’ 서사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았다.

요컨대, 고조선부터 조선까지 이어지는 한국사 체계는 허구이다. 단일민족의 ‘발전’ 서사에서 수많은 국가와 사회,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배제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위의 4종 교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현행 역사교과서에도 마찬가지로 제기된 문제이다.

V. 맺음말

외국인 대상 한국 역사 교재 분석, 특히 고대사 관련 기술을 통해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였다. 첫째, 외국인 독자를 배려하는 편집 및 구성이 두드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자에게 혼란을 줄 소지가 많았다. 둘째, 오래된 역사, 광활한 영토, 강대한 나라 등을 강조하는 국수주의적 서술이 많았고, 오류도 적지 않았다. 셋째, 한국사 체계가 갖는 단일민족의 ‘발전’ 서사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다문화사회를 전망하는 한국 사회 내에서의 유효성을 의심했다.

이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는 비단 외국인 대상 교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중고교 역사교과서 및 박물관, 유적지의 설명문 등 한국의 역사교육 전반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에서 한국학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국내 학령인구의 급감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 또한 절실하다. 한국 역사교육은 더 이상 민족공동체의 결속력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세계시민을 교육하고,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는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수요와 목적에 걸맞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과학원 역사연구소. 1962. 조선통사(상). 과학원출판사.
- 김기봉. 2006. 역사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만들기. 푸른역사.
- _____. 2008. 한국 고대사의 계보학. 한국고대사연구 52, 19-55.
- 김나연. 2014. 국사(한국사)교과서 속 〈민족〉서술의 변화와 그 배경. 한국문화연구 27, 149-182.
- 김석형·박시형. 1953. 조선력사. 학우서방.
- 김영하. 2016. 7세기 동아시아의 정세와 전쟁. 新羅史學報 38, 1-38.
- 金貞培. 1973. 韓國古代國家 起源論. 白山學報 14, 59-85.
- 金廷鶴. 1964. 韓國民族形成史. 韓國文化史大系 1, 21-27.
- 김종복. 2019. 7~8세기 나당관계의 추이. 역사비평 127, 238-262.
- 金泰植. 1990. 加耶의 社會發展段階.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39-104.
- 김한규. 2002. 역사 교과서의 민족주의적 왜곡. 세계의 신학 54, 46-72.
- 김한중. 2006.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 선인.
- 盧泰敦. 1988. 5세기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人の 天下觀. 韓國史論 19, 31-66.
- _____. 1990.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23, 3-55.
- _____. 1997. 한국민족형성시기론. 한국사시민강좌 20, 158-181.
- 도면희. 2009. 국사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한국 근대 역사학의 창출과 통사체계의 확립. 역사학의 세기-20세기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 휴머니스트, 175-214.
- 박대재. 2015. 檀君紀元과 「古記」. 韓國史學報 61, 7-46.
- 朴美先. 2018. 역사교육에서 고대사 영역의 내용 체계와 계열성 검토. 歷史教育 147, 1-34.
- 朴賢淑. 2011. 중학교 『역사』(상)의 古代史 서술체계와 내용을 통해 본 韓國古代史像. 東國史學 51, 1-45.
- 서길수. 2007. 역사와 고구려 드라마 ‘주몽’. 高句麗研究 28, 9-48.
- 徐毅植. 2001. 포스트모던시대의 韓國史認識과 國史教育. 歷史教育 80, 1-30.
- 송호정. 2003. 제7차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선사 및 국가 형성 관련 서술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29, 9-46.
- _____. 2016. 학교에서의 한국고대사 교육 현황과 교과서 서술의 올바른 방향. 한국고사연구 84, 263-301.

- _____. 2020. 고조선과 연(燕)·진(秦)·한(漢)의 외교 관계. 사학연구 137, 165-206.
- 신가영. 2017. 가야사 연구와 ‘연맹’이라는 용어. 學林 40, 57-85.
- 申采浩. 1908. 讀史新論: 2007. 단재 신채호 전집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308-340.
- 앙드레 슈미드 지음. 정여울 옮김. 2007.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휴머니스트.
- 梁正鉉. 2005. 역사교육에서 민족주의를 둘러싼 최근 논의. 歷史教育 95, 1-28.
- 여호규. 2010. 高句麗 太王號의 제정과 國岡型 왕릉입지의 성립. 역사문화연구 35, 445-488.
- 윤용구. 2008. 현도군의 군현 지배와 고구려.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113-150.
- 이정빈. 2018. 국정 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과 유사역사 문제. 역사교육연구 31, 7-37.
- _____. 2021. 역사교과서의 국수적 한국사 체계와 역사정책 성찰. 역사와교육 33, 383-420.
-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 임지현. 1994. 한국사학계의 ‘민족’ 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역사비평 28, 114-137.
- _____. 1999. 민족주의는 반역이다-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소나무.
- 장창은. 2020. 2020 발행 『중학교 역사 ②』 교과서 「선사문화와 고대국가의 형성」 지도·그림 자료 검토. 한국학논총 55, 389-429.
- 정동준. 2016. 드라마·영화에 나타난 한국고대사. 한국고대사연구 84, 121-156.
- _____. 2019. 『한국사』교과서의 민족주의적 역사서술 분석-고대사 부분의 서술내용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59, 195-220.
- 조영광. 2019. 새 중등 역사교육과정 한국고대사 내용 구성에 대한 제언. 民族文化論叢 72, 385-415.
- _____. 2022. 한국사 교과서 고대사 부분의 국수주의적 시각에 대한 비판적 검토. 歷史教育論集 80, 33-69.

● 투고일: 2022.12.30. ● 심사일: 2023.01.25. ● 게재확정일: 2023.02.20.

| Abstract |

Analysis of Korean History Textbooks for International Students with a Focus on the Description of Ancient History

Kwon Soonhong (Daegu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at presenting the need to verify Korean history textbooks for international students by pointing out the problems. Three major problems are posed in this article. The first problem is that the editing and composition considering international readers did not stand out, and rather, there is a lot of potential to confuse the readers. Second, there are many nationalistic descriptions that emphasize long history, vast territory, powerful country, and not a few errors in the description. The third problem is that since the narrative of the “development” of mono-ethnicity in the Korean history system has been followed as it is, the validity in Korean society of prospecting for a multicultural society is questionable. This article, therefore, raises the necessity of rigorous writing and strict verification of Korean history textbooks targeting international students and urges the preparation of alternatives.

<Key words> International Student, Korean History, Textbook, Nationalism, Korean History System

「日本留學歌」에 나타난 유학 체험과 초국적 자아의 형성*



백 순 철 (대구대학교)
(urirangk4@daegu.ac.kr)

국문요약

「일본유학가」는 외교관이 일본의 풍속과 문물을 소개한 두 작품 「일동장유가」와 「티일본유람가」 이후 등장한 20세기 작품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앞선 두 작품의 작자가 조선의 지식인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데 반해서, 「일본유학가」의 작자는 유교 지식인의 정신적 우월감보다는 신학문에 대한 열망을 지닌 근대적 주체의 의식을 보여준다. 또한 조선의 식민지화가 가속화되는 1904년에서 1910년에 이르는 시기에 조선을 보는 일본의 시선과 일본을 보는 조선의 시선을 작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작품이다.

이 글에서 「일본유학가」의 작자 윤정하의 유학 체험을 통해서 일본의 보호국화되어 가는 식민지 한국의 초라한 위상을 깨닫고 조선을 바라보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시선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작품에 나타난 '동종동문(同種同文)'의식은 일본의 식민교육 정책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일본 유학이라는 초국적 경험에 대한 경계를 낮추고 쉽게 동화되어 갈 수 있는 심리적 바탕이 되고 있음을 살폈다. 더불어 일본의 유학생들이 겪는 갈등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초국적 이동 경험의 긍정성(성장확장) 이면에 부정적 요소(불안과 순응) 또한 자리잡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주제어 : 일본유학가, 유학, 유학생, 식민교육, 초국적 이동, 초국적 자아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8096275)

I. 머리말

유학은 개인이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마주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환경과 경험은 개인의 의식과 사고를 자극하고, 새롭게 습득한 사상과 지식은 유학생 안에서 자기화되어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의식을 형성한다. 유학생들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 세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과 주변을 세계 속에서 자리매김하게 한다.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 경계를 확장하고, 확장된 세계 속에서의 역할을 가늠하게 되는 것이다(민진경 외, 2018, 151). 이처럼 유학이나 이주와 같은 초국적 이동은 개별 주체의 세계 및 현실에 대한 자각을 통해 의식의 확장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초국적 이동이 자아의 긍정적 변화를 견인하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그 초국적 이동의 과정에서 세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인에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무력하고 불완전한 자아와 현실을 발견하고 세계의 위력에 순응하는 주체를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구한말 일본유학생들의 유학 양상을 살펴 보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1905년 을사조약을 전후해 일본으로의 유학생이 대거 증가하는데 이들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들이 일본에서 배운 것을 한국에 들여와 반일과 항일의 방향을 강화했다는 긍정적 평가의 측면에서 보면 2·8 독립선언과 3·1 운동을 주도하는 등 항일 독립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들을 주목할 수 있다. 조소앙(趙素昂, 1887~1958), 최남선(崔南善, 1890~1957), 최린(崔麟, 1878~?)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다.¹⁾ 반면 실제 이 시기 일본 유학생 대부분은 긍정적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고 후에 식민지 조선총독부의 관료가 되어 적극적 친일을 하거나 군수나 기능적 지식인 등 소극적 친일에 기여함으로써 유학의 경험이 조선의 독립에 기여한 것이 미미했다고 보는 평가도 있다.(민진경 외, 2018, 152 ; 박찬승, 2009년 겨울호, 225~227).

1906년 윤정하(尹定夏, 1887~?)에 의해 창작된 「일본유학가」는 일본 유학 체험을 가사라는 갈래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동 저자의 『유학실기』라는 한문 또는 국한문 실기류의 후반부에 수록되어 있다. 일본 유학에서 겪는 당대 학생들의 고충과 문제의식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정재호에 의해 진행되어 실기류와 함께 폭넓게 정리되어 있는 편이다(정재호, 1983). 김윤희는 정재호의 초기 성과를 이어받아 상세한 작품내용에 대한 분석과 가사의 문학적 특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김윤희, 2012년). 또한 근대 사행가사 전반으로 시야를 넓혀 그 동질성과 차이성을 드러내는

1) 이 중 최남선과 최린은 나중에 변절하여 친일 문인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데 주력하고 있다(김윤희, 2012ㄱ, 2012ㄴ, 2012ㄷ, 2012년 여름). 그리고 정보나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한문 산문과의 차이성에 주목하여 인상적인 경험이나 정서적 반응을 진솔하게 드러낸 가사문학적 특질을 탐구한 성과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정재호, 1983 ; 김윤희, 2012ㄷ ; 장정수, 2022).

앞의 성과들은 근대기 일본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들의 가사에 나타난 현실인식과 문학적 특질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다만 전통과 근대가 교차하는 시간적 경계, 조선과 일본의 국경을 넘나드는 공간적 경계에서 변화하거나 흔들리는 근대 지식인들의 다양한 면모를 충분히 다루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유교적 관념이나 의식체계가 다소 열어지고 신학문에 대한 열망을 가진 젊은 지식인들에게 유학이라는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로 검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국 체험의 성격과 경험 주체의 처지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에 주목하면서 선행 연구와 따른 시각과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18세기 계미통신사 일행으로 일본을 다녀온 김인겸(金仁謙, 1707~1772)은 1763년 8월 3일부터 1764년 7월 8일까지 약 1년 간의 일본 사행 체험을 한문 일기인 『동사록(東槎錄)』과 가사 「일동장유가」에 기록한 바 있다(하우봉, 2016). 또한 1902년에 완성된 「딤희일본유람가」²⁾는 조선 말엽 주차일본동경 조선공사관 대리공사를 지낸 바 있는 설정(雪汀) 이태직(李台植, 1859~1903)선생이 1895~1896년간의 약 1년 동안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지은 가사인데, 한문일기인 『범사록』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장정수, 2022). 이 두 사례의 경우 특징은 외국 상주 외교관이 그 나라의 풍속과 문물을 소개한 작품이라는 점이다. 적어도 「일본유학가」 이전 일본을 배경으로 한 국문 가사로는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와 「딤희일본유람가」 단 두 편뿐이었다. 이들 작품에서는 일본의 근대 문물에 주목하면서도 화夷관(華夷觀)에 바탕한 도덕적 우월감, 반일 정서, 문화적 자신감이 드러나는 것이 공통적이다. 이유는 적어도 두 작품의 작자는 명분을 중시하는 조선의 지식인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조선의 역사와 정치적 형세를 자각한 지식인으로서 일본에 대한 경계와 폄하적 시선이 은연중에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일본 문물에 대한 경탄적 시선은 일종의 여행자적 시선과 같은 것으로 근본적인 동경과 선망의 태도와는 거리가 있다.

그런데 윤정하(尹定夏, 1887~?)의 「일본유학가」는 이들과 달리 조선을 열등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 화夷관 같은 정신적 우월감으로 무장된 지식인의 태도는 엿보이지 않는다. 1904년 러일전쟁과 1차 한일협약 이후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화되는

2) 이본으로 후손가에 소장되어 있는 「유일록(遊日錄)」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본 「딤희일본유람가」와 비교해 볼 때 자구(字句)의 이동(異同)이 있을 뿐 동일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가혹한 현실에서 젊은 유학생들은 오히려 신지식에 대한 열망과 함께 조선의 현실적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으로의 유학을 절실히 감행하였다. 이 가사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겪는 신산스런 유학의 여정과 주체의 현실인식이 담겨 있다. 이들이 유학 체험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초국적 자아의 성격 역시 그 점에서 주목된다.

작자의 삶은 크게 일본 유학 이전, 일본 유학 초기, 일본 유학 후기, 조선 귀국 이후 등으로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 그 생활의 양상과 의식의 추이는 가사 작품을 통해 상당 부분 입체적으로 노출되기도 하고, 또 객관적 정보를 통해 부분적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초국적 자아라는 표현은 그런 점에서 유학이라는 경험을 통해 조선과 일본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형성하게 된, 매우 복잡적이고 중층적인 자아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905년 을사늑약 시기를 전후하여 일본 유학 체험을 서술한 가사 「일본유학가」에 나타난 초국적 자아의 성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의식의 초점은 문학적 특질보다는 유학 체험이 경험 주체인 작자의 의식과 정체성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살피는 데에 두고자 한다.

Ⅱ. 「일본유학가」에 나타난 작자 윤정하(尹定夏)의 유학 체험

가사 「일본유학가」의 구조는 전통적인 가사처럼 서사, 본사, 결사의 방식으로 구조를 분절하여 분석하기 쉽지 않다. 전체적인 내용이 유학 이전과 유학 이후의 시간적 추이에 따라 경험하는 사건과 의식의 변화를 서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학 이전 : 남아로써 칭겨나서 ~ 칭각하니 무엇허리(1~36구)

유학 초기(동맹 휴학 이전) :

일본 입국 초기 : 고베(神戸)에서 은행 사무를 보다 동경으로 가다(37~64구)

일본 학교 입학 : 일본어 학습기를 거쳐 동경고등상업학교에 들어가다(65~100구)

관비생 유학기 : 보결로 동경부립제일중학교에 관비유학생으로 들어가다(101~148구)

동맹휴학 계기 : 가츠우라 토모오(勝浦鞆雄) 교장이 호치신문(報知新聞)에 한인유학생을 비하하는 글을 발표하다(149~178구)

동맹휴학 시작 : 37명의 학생이 맹문(盟文)을 짓고 동맹휴학에 돌입하다(179~208구)

유학 후기(동맹 휴학 이후) :

- 상업학교 재입학 : 중학교 퇴학 후 고등상업학교에 재입학하다(209~285구)
- 유학비 지원 중단 : 조선외교관들의 부당한 조치와 학생들의 대응(286~326구)
- 유학생 복교 포기 : 복교가 어려워진 상황을 받아들이다(327~366구)
- 유학 중단 고민 : 유학 중단 후 귀국 뒤의 할 일을 생각하다(367~428구)

이 장에서 분석되는 작품의 주요 내용들은 위의 내용 구조의 흐름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정재호(1983, 28~31)는 『留學實記』와 『毛山略史』에 나타난 작자 윤정하의 생애를 삶의 추이에 따라 인상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가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외국어 공부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모습이다. 19세에 학부 학무국장 한창수의 소개로 한성관립영어학교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공부하기도 하고, 24세에 사립중교의숙(私立中橋義塾) 영어과에 입학하였다가 5월에 사립낙연의숙(私立洛淵義塾) 일어과에 입학하기도 하였다(정재호, 1983, 29). 그가 영어와 일어 공부에 전념하게 된 것은 작품의 서두에도 나와 있듯이 남자로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명학문’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정재호, 1983, 50~51).³⁾

작자는 일본에 유학을 하기 위해 처음에는 은행에서 사무일을 했지만 공부할 여유가 없자 그만 두고 지인을 찾아가 함께 지내며 일본어 공부를 하는데 한 달만에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에 달하게 된다.

[1] 분연발정 동경도착 스고무친 별천지의, 아는스름 강씨일인 그녀관을 츠자가 니, 손잡고 반갑게인스 친형제가 더홀소냐, 동경관에 슈일류년 동탑동식 혼연후에, 외국와셔 공부컨딘 어학공부 제일급무, 강망여의 쇼기로셔 녀관셔나 여렴에서, 일본스름 갖치잇셔 풍속이며 말공부를, 아츰저녁 연습하고 낮이면 강습쇼에서, 독본습곤 다일그니 밤달나 물달나 혼말, 혼달만에 덕강통정 학교에 들고져 혼들, 학즈업셔 막가싱의 귀국받게 헐수업닌, 어리석고 썩 혼인싱 잇자하니 학비업고, 가자하니 남부그려 진퇴유곡 양난이라

(정재호, 1983, 50~51).

3) 남아로서 싱겨나셔 세계중에 활동호야, 첫지의는 충군익국 들지에는 립신양명, 위딕스업 경영성취 남아된즈 의무로다, 디스업을 경영컨딘 학문업시 엇지호리, 우리나라 아츰미기 학문발달 불건이라, 문명학문 비라호면 세계중에 구미제국, 웃씀이오 제일이나 윤선길로 슈만여리, 멀기도오 멀거니와 각식물까 고등호야, 여간직산 가지고는 가라히도 극난인즉, 무전즈로 싱의엇지 다시싱각 호야보니, 가직호고 편리호고 문명호고 부강호고, 학문발달 호는곳시 일본국이 저기잇네. 「일본유학가 제일」(정재호, 1983, 50). 작품 원문은 정재호의 논문에 소개된 「일본류학가 제일」을 인용하기로 한다.

작자인 윤정하(尹定夏, 1887~?)는 해남 윤씨 일사(一史) 주찬(柱瓚)의 장남으로 전남 강진 출신이다. 유학을 갈 만큼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과 과감한 행동력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품 속에서 ‘불일발경(不日發程), 타국발정(他國發程), 분연발정(憤然發程)’ 등의 표현에서 이를 알 수 있듯이, 신속한 결정과정, 과감하고 능동적인 행동력 등을 짧은 단어 속에 함축하여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친구 강씨의 추천으로 고베(神戸)의 대시라운행 사무로 가게 되는 결정 과정도 빠르지만, 막상 일이 힘들어서 공부할 시간이 없자 한 달만에 그만 두는 결정 역시 빠르게 감행한다. 또한 작자는 문자를 많이 쓰기도 한다. ‘사반공배(事半功培), 유지사경성(有志事竟成), 무가내하(無可奈何)’ 등의 문자를 쓰고 있는데 ‘노력에 비해 성과가 크다, 뜻이 있으면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다, 굳게 고집하여 어찌할 수가 없다’ 등의 표현을 짧은 한자어로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1]을 보면 작자는 외국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어학 공부로 인식하고 있으며, 강습소에서 독본 공부하는 것뿐 아니라 동네 생활 속에서 언어습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결과 한 달만에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학비만 마련된다면 바로 학교에 진학하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귀국까지 고민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 때가 작자의 나이가 26~27세 때이다. 그러나 작자는 적극적이고 집요한 성격으로 관비생이 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노력하던 차에 지인의 소개로 동경고등상업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2] 관비생을 도둑코져 공스쵸씨 춤셔박씨, 밭일가져 쫄나보나 궂도업고 심도업서, 이결흔들 무효로다 날날씩씩 울분홀췌, 한푼업시 빈손으로 몇달간을 스라운일, 친고덕턱 이아닌가 우환중에 춤과갓치, 돈업서 고싱하면서 학교에는 들고시퍼, 전구박스 쇼기로서 동경고등 송업학교, 입학하니 깃부우나 무전이라 되로격적, 그럭저럭 혼달동안 텅기느라 헛던츠의, 춤셔박씨 하인보너 오라하기 가서보니, 관비생의 리종승씨 친환잇서 귀국헌디, 춤췌코져 입학시험 부럽제일 중학교셔, 시험하니 가보라기 빗비빗비 가서보니, 시험보난 칠인중에 천형만형 췌퍼시나, 도로올적 싱각흔즉 전문명식 단이다가, 중학교에 가즈하니 그역마음 신신치못, 그러나 이중학교에 입학을 안이할진저, 관비생이 될슈옵서 싱각다못 송업학교, 일시에 퇴학청원 중학교에 입학하고

(정재호, 1983, 51).

작자는 귀국보다는 관비생의 자격을 얻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게 된다. [2]에 나오는 공사 조씨, 참사 박씨 등 외교관들을 찾아 다니며 방법을 구하다가 일단은 사비로 동경고등상업학교에 진학한 것이다. 하지만 학비가 없는 처지는 그대로였는데 참사 박씨가 관비생이었던 이종상이 부모님 병환으로 귀국하게 되자 작자를 불러 시험을 보게 한다. 다행히도 함께 시험 본 7명 중 보결로 뽑히게 되었으나 중학교에 가는 것은 썩 내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저 관비생이 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동경부립제일중학교⁴⁾에 들어가서 작자는 40명 정도의 동료 유학생들을 만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생활하게 된다. 그러나 학교수업이나 기숙사 생활은 문제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인내하면서 공부한 것은 우리나라 독립기초를 공고히 하겠다는 일념으로 서로를 권면하면서 지냈기에 가능했다.⁵⁾ 그러나 학생들에게 더욱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다.

[3] 그러하나 이런고싱 춤고춤고 쏘춤어서, 다만학업 성취하면 제일이라 생각하야, 열심으로 공부하고 칠팔수를 지닌던니, 그역성역 부족으로 마가들고 익이와서, 작연섯달 초칭끼에 우리맛터 갈친스람, 중학교장 승포변용 무슨심장 니케셔셔, 세계공포 신문상에 츠음에는 국제관계, 우리학싱 장쳐단체 이틀연속 기지하고, 슛티에는 고등교육 할슈음다 발표하니, 이걸들고 불작성면 장니목적 간디읍니, 슬프도다 슬프도다 국제위키 불거업고, 스승조츠 퇴출하니 어디갈가 갈씨읍셔, 저의심장 짐작하니 한일협약 되언후로, 얼마안된 우리학싱 교육조츠 제흔코져, 마음속에 푸문계교 신문송의 발표하니, 우리학싱 츠음싱각 오날일본 동양에서, 교육중심 되야 잇셔 한국청국 인도셔랴, 슈천학싱 각각파견 일본셔도 어셔어셔, 교육시켜 어둔나라 발달시켜 이웃날의, 동양평화 보전힘이 션진국의 의무인즉, 잊지하야 우리들만 불교 불혹 홀이잇나, 정부슈단 안인줄노 밋고밋고 심분미더, 승포흔져 고악타고 습십철인 불승분격, 장니목적 달키위히 저중학교 퇴학하고, 다른학교 도입타가 여의치못 귀국 지경, 필지라도 복교등스 물론이라 땡문직코, 일변으로 청원지여 공스의게 설명하고, 기숙스를 일제셔나 쇼금루로 왕겨와셔, 우리들이 귀척쨌며 침식츄립 제반등스,

4) 동경부립제일중학교는 현재는 히비야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1879년 창립된 명문중학교로 학생수 800명, 교사수 50명 규모의 큰 학교이다. 당시 한국의 황실유학생들을 위해 '특설한국위탁생과'를 개설하기도 하였다.

5) 기숙스에 드러가서 스십학싱 반계만나, 즈금이후 일체동고 여행약제 다정흔일, 학교에도 가치가고 기숙스도 갖치잇네, 죽더덕도 공부하야 졸업귀국 흔연후에, 우리나라 독립기초 공고확실 흔연후에, 썩썩셔로 권면하고 바람불고 비오난날, 일시라도 결석안코 학교가셔 공부하며, 귀숙스셔 썩고흔일 일주간을 불작성면, 쓸밤세번 외출두번 죄인인들 더할쇼냐, 먹고시분 것못먹고 즈고십푼 줌못즈고, 즈라먹으라 종쇼리 호로라도 십여번식, 귀가떡떡 정신스란 도로혀 공부에방히, 이것저것 고송흔일 기록즈면 한량업네(정재호, 1983, 51~52).

약쪼티로 굿히짓켜 일망동안 잇셔턴니(정재호, 1983, 52~53).

중학교에서 7, 8개월 정도 공부하고 지내던 중 충격적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일본인 학교장 가츠우라 토모오(勝浦鞆雄)가 「호치신문(報知新聞)」(12월 2, 3일자)에 한인 유학생을 비하하는 글을 발표한 것이다. [3]을 보면 학교장이 주로 강조한 내용은 국제관계, 한인 유학생의 장단점, 그리고 문제적 한인 유학생에 대한 고등교육 포기 발표가 핵심이다. 사실 내용에도 잠시 언급되어 있지만 2차 한일협약인 1905년 을사늑약이 이미 체결되어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학교장이 이러한 유학생들의 열패감을 더욱 자극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4] 朝鮮人은 愈愈 日本統監擁護下에 在ᄃ야 立國ᄃ事와 未來의 富強을 可築ᄃᄃ 學生의 狀態의 如何와 留學生의 收容始末과 長所短所와 無氣力 不規則等說을 記載ᄃᄃ 고 將來 高等教育에 期望이 無ᄃᄃ 事를 特書大書ᄃᄃ얏더라.(정재호, 1983, 38, 재인용)⁶⁾

[4]를 보면 ‘愈愈(더더욱)’라는 표현을 써서 조선이 철저히 일본통감의 옹호하에 관할되는 보호국이 되었다는 점과, 나라가 다시 서고 미래의 부강을 든든히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 철저하게 일본인의 시선으로 조선과 조선인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학생을 받아들여 일종의 검열을 통해 장단점을 가리고 무기력하고 불규칙하다고 판단되어 고등교육이 어려운 사항들을 특별히 크게 기록한다고 하였으니 이 역시 일본인의 태도와 시선에서 표현된 대목이다.

위의 [3]을 보면 유학생들의 처음 생각은 크게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들은 일본은 아시아에서 문명화된 선진국으로서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주변국인 한국, 청나라, 인도, 태국⁷⁾ 등에서 수천 명의 유학생을 받아 교육시켜 어두운 나라를 발전시키고 동양평화를 보전하는 것이 일본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학교장의 폭력적인 언론 발표를 듣고 학생들은 분격하여 전원 퇴학을 감행하게 된다. 조선의 식민지 현실이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를 이용해 억압과 통제를 강화하는 일본의 처사는 더욱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학생들이 뜻을 모아 맹문(盟文)을 작성하고 전원 자퇴서를 제출한다. 일본과의 정치적 관계가 더욱 수직적이고 위계화되는 현실 속에서 교육까지 일본의 제도속에 복속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6) 가츠우라 토모오(勝浦鞆雄) 교장이 「한인유학생」이라는 제목으로 「호치신문(報知新聞)」 1906년 12월 2~3일자에 발표한 내용이다.

7) 섬라(暹羅)는 ‘타이’의 이전 명칭인 ‘시암’의 음역어이다.

사실 가즈우라 토모오(勝浦頼雄) 학교장처럼 조선을 바라보는 일본의 지식인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일본의 지식인들은 19세기 후반 조선의 개항 이후로 한국을 모르는 일본인들에게 부정적인 한국인상을 심어주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하여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왔다(무쓰 무네타미쓰, 김승일, 1993 ; 한상일, 1993).⁸⁾ 윤정하는 바로 일본이 조선을 바라보는 이러한 식민지적 관점을 유학이라는 현실 체험에 이르러서야 깊이 통감하게 된 것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1905년 12월 20일 공사 겸 유학생감독인 趙民熙(1859~1931)⁹⁾가 외무성과 교섭을 시도하게 된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6권을 보면 1905년 12월 26일 한국의 林公使가 일본의 桂 大臣에 보낸 電文(541) 「한국 유학생 동맹휴학자 說諭復校 노력에 관한 건」에 구체적 내용이 밝혀져 있다(국사편찬위원회편, 1997).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東京 桂 大臣

貴 信 機密 137호 한국 유학생의 동맹휴학에 관하여 學部大臣은 東京 유학생 감독에게 휴교자를 설유하여 復校시키는 데 힘쓰고 이에 추종하지 않는 자는 상당한 처분을 하도록 電訓하였음. 이에 대하여 그 쪽에서 이를 양지하신 위에 다시 설득을 받은 대다수는 복교하도록 진력을 해주기 바람. 또 第一中學校長의 열성과 각 교수들의 간절함에 대해 이 나라 정부는 충분히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음.

[5]의 공사관 기록 전문 내용에서 특기할 것은 학생들의 집단 자퇴를 야기한 학교장과 학생들의 민원을 받고 있는 교수들에게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학생들의 요청을 전달하는 대신 사태를 외교적으로 수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공사는 학생들과 함께 귀국하게 되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였지만 학생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일본 당국에서 다시 학교 입학이 허가되었지만 학생들은 약소국으로 일본의 보호국 처지가 된 조선의 현실을 깊이 자각하고 각성하게 된다.¹⁰⁾ 오히려 각각

8) 김승일(1993)은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 내각의 외무대신 무쓰 무네타미쓰(陸奥宗光)가 국제간의 외교적 관계와 경험을 기록한 『건건록(蹇蹇錄)』을 번역 소개하였다. 한상일(1993)은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 1860~1938)가 1883년부터 4년간 서울에 체류한 경험을 기록한 『한성지잔몽(漢城之殘夢)』(동경:춘양당, 1891), 일본공사 외교관 스키무라 후카시(杉村藩, 1848~1906)가 1894년 5월부터 1895년 10월까지 한국에서의 체험을 기록한 『재한고심록(在韓苦心錄)』(동경:용회사, 1932), 마이니치 신문 특과원 사쿠라이 군노스케(柵瀬軍之佐)의 한국견문기인 『조선시사(朝鮮時事)』(동경:춘양당, 1894)를 번역 소개하였다.

9) 조민희(趙民熙, 1859~?)는 본관은 양주이고 대한제국기 시장원첨사, 궁내부특진관, 봉상사제조를 지낸 조병익의 아들이다. 그 역시 대한제국기 법무협관, 경남관찰사, 송녕부 총관 등을 지냈다. 후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평가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다른 학교에 입학하도록 타결되었다고 하고 각자 여관을 정하고 투숙하기도 하였다. 작자는 중학교를 자퇴하고 고등상업학교에 다시 입학하게 된다.

그리고 학부참여관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 1870~1953)가 광무 10년(1906) 1월 조선에서 일본으로 와서 일본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부대신 명령으로 학비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게 된다.¹¹⁾ 학생들은 이후 답례대사로 일본에 온 완순군(完順君)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왕에게 주달하도록 하였다. 완순군 이재완(李載完, 1855~1922)¹²⁾은 자퇴 전말과 학생들의 청원을 감독인 한치유(韓致愈)를 통해 전달하고 학부에 전보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감독 한치유가 학생 36인이 모두 중학교 재입학을 원한다고 학부에 거짓 전보를 한 것이다.¹³⁾ 이후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학부와 완순군에게 알리게 된다. 그리고 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11인, 불원 학생은 25인이라고 알린다.

[6] 습십육명 학싱중에 원입흔즈 열흐나라, 불원흔즈 이십오인 전보명오 흐여달나, 감독보고 말흐여도 죽기위한 불충이라, 혈슈읍서 불원즈만 학디의게 즉점으로, 감독전보 잘못되고 지금당긴 학교의서, 목적디로 열심공부 복교안키 결심이라, 전즈 디스 완순군게 천폐의게 주달흐여, 츠본결과 웃지되나 두곤디로 전보흐고, 학부의는 그잇튼날 쓰즈셰이 청원흐고, 귀국되면 귀국흐고 유학되면 류학코져, 양즈지간 잇슬줄노 학부츠분 바랏던니, 과연이월 이십스일 당일노은 학부전훈, 습십륙인 일월 이후 관비싱이 안뒀스즉, 학비금은 줄슈읍다 아췌거절 흐여신니, 승리흐고 어이음

-
- 10) 감독레겸 공스췌씨 밤낫스르 외무성과, 다른학교 너달나고 교섭히도 불청이라, 혈슈읍서 공스흐고 갖치귀국 하하즈야, 공관가서 귀국준비 속장하기 총총이라, 외무성서 간간시위 자바간다 학비출출, 그러히도 우리학싱 원눈이나 깔지기리, 귀국준비 혼다말을 정말인가 싱각흐고, 혈슈읍서 목적디로 학교들게 허락나서, 당당디한 독입국이 덩치부피 인민쇠약, 일노흐야 외교권을 타인의게 허락흐고, 각국공스 쇼환되야 도공스도 갖튼경계, 디한신민 되야서는 뉘리안이 통곡홀니, 슌열슈열 슬픈쇼리 정거정이 변작상가, 서로손목 썩러좁고 여광여취 도라와서 혼좁즈고 다시싱각 걱정하면 무엇할이(정재호, 1983, 52~53)
- 11) 폐원탄씨 과연와서 광무십연 일월회일, 감독청에 학싱모여 불문곡직 흐는말이, 정부명영 듯지안코 마음디로 처스흐니, 학부디신 명녕으로 학비정지 혼다흐기, 우리들이 질문흐되 퇴학할씨 공관청원, 입학할씨 감독공문 이도역시 정부명령, 정부명녕 억웁단말 잘못싱각 디단모호, 학디명녕 말할진딘 학싱당췌 파견홀디, 즉명으로 파견흐고 황실비로 학즈주셔, 공부식킨 이학싱은 학부공문 엇슬진딘, 무가너흐 쇼환되되 다맛구전 전흐는말, 엇지우리 복종흐리 (정재호, 1983, 53).
- 12) 이재완은 대한제국기 종정원경, 궁내부대신, 승녕부총관 등을 역임한 관료이다. 고종황제의 종제로 종친에 포함된다. 후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13) 속히귀정 흐여달나 말흐여도 저의감독, 관비싱일 들여다고 나모른다 거절된이, 멧칠지식 베란간에 학싱말도 듯지안코, 습십륙인 중학교에 다시들기 원흐다고, 학부전보 흐여다기 일제가서 질문흐니(정재호, 1983, 54).

다 쇼환명영 분명쿠나(정재호, 1983, 54).

[6]을 보면 원입자 11인, 불원자 25인인데 전보를 바로잡아 다시 조치를 요청했지만 감독인 한치유는 불원자 25인에 대해서만 조치한다. 또한 완순군이 왕에게 주달하여 학부의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1906년 2월 24일 36인 전원 관비생의 자격을 상실하고 학비 지원은 중단되어 이제 귀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설사 복교를 한다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처지에 이른 작자는 이 모든 문제가 교육자의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되었음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¹⁴⁾ 다만 가츠우라 토모오(勝浦頼雄) 학교장의 잘못 외에도 믿었던 정부 정책의 문제도 깨닫게 된다.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작자는 동양의 가장 친한 나라인 일본도 우리를 이렇게 괘시하는데 서양제국은 더욱 기대할 것이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¹⁵⁾ 작자는 뒤에 일본에 남아 동경고등상업 학교에 재입학하게 되는데 그의 나이 28세(1906) 때이다. 30세(1908) 때는 「상학계」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편집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기록과 평가가 신한민보에 기사로 남아 있어 주목을 요한다.(신한민보, 1909)

[7] 내일죽 동경 류학싱계를 살펴보건디 혹자 금시디 풍요를 살피지 못하고 다룬 구습에 젖은 사환목에 열광이 되어 정리 법률에만 뜻을 기우리고 그 실업에 주의하는 자 | 겨우 빅에 혼들 일뿐이니 엇지 기탄홀 바이 아니라 홀이 오 금에 나의 지극 혼 친구 윤명하군이 분연히 시세를 선각하고 상업학교에 투신하야 불원에 업을 맞치게 됨은 이의 하려하기를 말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윤군이 붓슬 들고 대성 질호하며 간곡 측단한 말로 상업 잡지를 발간하니 그 일흠은 상학계(商學界)라 신한기자 | 이 책을 들고 삼복 흥란하야왈 상학계는 비단 아한 경제계의 호시라 실로 우리 이천만 동포의 심명 직산을 보호하고 세계 대무대에 역기를 걸어 나아갈만한 팔불의 복이라하노라 (신한기자)

[7]은 「신한민보」 기자의 기사 내용으로 윤정하가 동경 유학생계에서 시대의 선각자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상업 잡지인 「상학계」 발간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14) 다행 혼 일 말할진전 류학싱을 파견목적, 문명국의 고등학문 속키속키 비워다가, 전국인민 교혹발달 식키조고 혼난일이, 교혹가를 잘못만나 일시퇴학 혼여난디, 퇴학후 후 여러달에 복교문제 다시나서, 들어가즈 못가게다 학싱들도 규각나고, 감독과도 송힐 혼중 쇼환전보 너도 혼니, 복교하기 원 혼즈도 복교하기 틀여시나, 가령복교 홀지라도 목적달기 극난이라, 목적달기 어려워진 복교 혼들 무엇하리(정재호, 1983, 54~55).

15) 동양제일 친한나라 우리관세 이갓거던, 덕욱서량 각국이야 인종문즈 부동이요, 서세동정 혼날에 원근지별 현슈 혼니, 서양인들 미들손야 서량제국 간다히도, 즈본읍셔 할슈읍고 이런싱각 저런싱각, 다 혼여도 속만답답 (정재호, 1983, 55).

있다. 다소 과장된 감은 없지 않지만 상업 잡지 발간이 매우 유의미한 시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비유학생으로 유학을 가서 관비유학생으로 전환되었다가 사건에 휘말려 다시 자격을 잃고 사비유학생으로 유학 여정을 마무리하는 작자의 파란만장한 유학 체험은 이후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작자인 윤정하는 31세(1909)에 상업학교 졸업 이후 귀국하여 1909년부터 한성상업회의소(漢城商業會議所)에서 창간한 『상공월보(商工月報)』의 편집을 담당하였고, 조선 말기의 민족지에 자주 투고하면서 한국상업계의 혁신을 위한 계몽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현기봉(玄基奉)이 창립한 해동물산주식회사(海東物産株式會社)에서 취체역 및 감사역을 역임하였으며, 특히 현준호(玄俊鎬)가 호남은행을 설립할 때 서류작성을 전담하기도 하였다. 1909년부터 5년간 주식회사 한일은행의 지배인 대리, 1910년부터 3년간 보성전문학교 강사 및 교수, 같은 해 중앙기독교청년회 상과 강사로 일했다. 1913년부터 5년간 주식회사 대구은행 지배인, 43세인 1921년부터 7년간 연희전문학교 상과 강사 및 교수, 보성전문학교 강사, 49세(1927)에는 진주 일신여고보 교장, 54세(1930)에 계리사 개업, 56세(1934)에 조선광업신보사부사장 취임, 1938년부터는 계리사(計理士)로 회계사무에 종사했다. 『조선세무요람』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역서로 『경제학요의』가 있다.(정재호, 1983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작자 윤정하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인물이며, 일본으로의 유학은 이러한 그에게 시련과 고난이면서 동시에 도전이기도 하였다. 그는 유학 체험을 통해 일본의 보호국화되어 가는 식민지 한국의 초라한 위상을 냉정하게 깨닫기도 하였고, 일본이 조선을 바라보는 매우 권력적이고 위계적인 현실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일본 문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냉정한 국제적 관계 속에서 비판적 태도와 경계심을 잃지 않으려 하였다. 다소 복잡하고 신산스럽게 진행된 유학 체험이었지만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교육가이자 기업가, 전문인으로서의 능력과 자세를 폭넓게 갖추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Ⅲ. 식민교육정책의 심화와 초국적 자아의 형성

구한말 유학생들은 유학의 체험을 통해 어떠한 발견과 탐구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초국적 자아의 형성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올바른 유학의 교육 경험을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주제들의 개별적인 경험과 인식보다는 암묵적으로 꾸준히 형성되어 온 공동체의 집단적 의식이

개별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이다.

「일본유학가」의 서두와 결말 부분에서 주목되는 ‘동종동문(同種同文)’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관습적인 표현을 넘어 일본이 조선을, 조선이 일본을 친밀하게 인식하는 중요한 역사적 이유가 되기도 한다.

[8] 우리나라 아즉미기 학문발달 불건이라, 문명학문 비라하면 세계중에 구미제국, 웃썸이오 제일이나 윤선길로 슈만여리, 멀기도오 멀거니와 각식물까 고등하야, 여간직산 가지고는 가라히도 극난인즉, 무전즈로 칭의엇지 다시싱각 하야보니, 가직하고 편리하고 문명하고 부강하고, 학문발달 하느곳시 일본국이 저기잇네, 일본국과 우리나라 밀접관계 더욱크며, 글도갓고 씨도갓고 풍속습관 디동쇼이, 구미원방 간것보다 문명학문 비울진디, 일본국이 더욱편리 엇지아니 스반공비, 건너가랴 십년경영 자본업서 그역극난, 밤낫스로 혼져싱각 싱각하니 무엇하리, ……(중략)……동양제일 친한나라 우리팔세 이갓거던, 덕옥서량 각국이야 인종문즈 부동이오, 서세동경 하날에 원근지별 현슈하니, 서양인들 미들손야 서량제국 간다히도, 즈본읍서 할슈읍고 이런싱각 저런싱각, 다하여도 속만답답 세승만스 다치우고, 본토로나 도라가서 부모쳐즈 형제숙질, 한즈리서 반겨만나 그간일본 유학할써, 공칭훈말 깃부던말 일중설토 혼연후에, 탁쥬습비 취케먹고 세승만스 싱각말고, 초당춘슈 하거데면 일신칭에 제일인 듯(정재호, 1983, 50).

[8]에서 작품의 서두를 보면 작자가 생각하는 학문은 서구에서 발원한 신학문이기애 우리나라를 학문발달이 지체된 곳으로 표현하고 있다. 구미제국은 선망과 동경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뚜렷하지만, 유학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쉽게 선택할 수 없다. 일본은 일종의 아시아에서 서구열강의 문명을 가장 빨리 수용한 국가로서 그 대체적 공간 표상의 의미를 가진다. 일본은 “가직하고 편리하고 문명하고 부강하고”하다는 점에서 근대적 문물의 발달이 구미제국의 수준에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토적 접근성과 함께 “글도갓고 씨도갓고”한 ‘동종동문(同種同文)’의식은 서로를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은 오히려 서구를 대체하여 일본이 비슷한 인종이자 한자를 사용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최혜주, 1998, 50).

이러한 의식은 양국간의 혈통적 근친성을 강조함으로써 적대적 태도를 우호적 태도로 전환하는 식민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시데하라 다이러(幣原坦, 1870~1953)이다. 그는 1900년에 관립 경기중학교의 교사로 부임한 이후 1905년 2월에는 학부(學部)의 학정참여관으로 참여하여 학부대신의 교육정책을 돕기도 하였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시에 교육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도 관여함으로써 일제의 식민교육에 기여한 바가 크다. 또한 그는 1910년 동경제대 교수로 역사를 연구하면서 유구(琉球), 대만(臺灣), 남양(南洋)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주요 저술로는 『식민교육론』(동문관, 1912), 『세계소관』(보문관, 1912), 『만주관』(보문관, 1916), 『조선교육론』(육명관, 1919) 등이 있다. 1920년대 이후에도 다수의 저술을 통해 일본의 대동아공영론의 이론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였다(최혜주, 1998, 47~48). 시데하라는 식민지를 경영하는 데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로 식민지의 기후·인종·종교·언어문제에 주목하였고 본국과의 동화(同化)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최혜주, 1998, 49~51). 시데하라는 또한 조선의 당쟁에 대한 최초의 근대적 연구를 한 학자이기도 하다(김경래, 2019).

「일본유학가」에는 이중 인종과 언어의 동질성을 통해 일본에 동화되어 가는 조선인들의 의식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작자인 윤정하와 유학생들은 유학 이전이나 유학 초기에는 다소 호의적이고 기대에 가득한 심리였다면, 유학의 과정에서 일본의 교장과 교사, 교육 당국의 태도를 경험하면서 국제관계 속에서 조선의 현실과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즉 일본 체험 이전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 일본에 대한 유학 체험이 누적될수록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초국적 자아의 중층적 의식이 더욱 강화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구한말 유학의 양상은 시기별로 1기에서 3기로 나눌 수 있다. 1기는 1881~1894년에 해당한다. 1881년 청으로의 영선사행과 조사시찰단의 수원 일부의 일본 유학, 1883년 보빙사 수행 후 미국에 유학한 유길준 등이 이에 속한다. 관비유학생이 대부분이며 미·일·청 등 여러 국가에 분포되어 있다. 2기는 1895~1904년에 해당한다. 이 때는 주로 일본으로의 관비유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3기는 1905~1910년이다. 이 시기에는 일본으로의 사비유학생이 대거 증가한다(민진경 외, 2018, 152 ; 박인화, 1982).

일제는 1904년 2월 러일전쟁 이후 1차 한일협약을 통해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였고, 1904년 4월에는 전쟁 중에도 ‘한국보호권 확립의 건’을 결의하였다.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화하는 노력이 본격화된 것이다(이계형, 2021).

일제가 한국을 보호국화하는 기간인 1904년에서 1910년 사이에 일본 유학생이 대거 증가한 것 역시 식민교육 확대의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 대규모의 관비유학생 파견은 1904년 황실특과 유학생 50명, 1909년 학부 소관 관비유학생 78명 정도 외에는 없었고 대부분 사비유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최덕수, 1991, 120).

1904년 황실유학생 50명의 유학, 대한제국 정부는 10월 11일자로 황실유학생에 대한 감독을 주일공사 조민희(趙民熙)에게 맡겼다. 그는 유학생들을 ‘한국황실유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외무성에 위탁하였고, 외무성은 이를 다시 문부성에, 문부성은 이를 다시 동경부에 의뢰하여 동경부립제일중학교에 특별속성과정(特別속성과정)을 만들어 한국 학생들을 입학시켰다고 한다(박찬승, 2009년 겨울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유학가」에 나타난 공사 조민희의 역할 역시 유학생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역할보다는 외교적 수습의 역할에 더 무게가 두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유학생들이 조국에서 파견된 외교 관료들이 후원자나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일본 외무성이나 문부성의 정책을 대리하는 역할을 경험하면서 식민지 현실의 냉혹한 국제관계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유학생들의 교육내용이나 교육과정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여기에는 일제의 교육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유학생들의 개별적 욕구 및 의지와 때로는 충돌하기도 한다.

[9] 유학생의 학과는 국어(일본어)를 주로 하고, 보통학과에 대해서는 그 개요를 알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수업연한은 3개년으로서 졸업 후에는 가능한 한 농공 상업 혹은 의학 방면으로 향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관리생활을 이상으로 하고 있던 유학생들은 위와 같은 지도를 좋아하지 않았고, 다수는 법률을 배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본교에서는 가능한 한 소정의 목적에 가깝게 가기 위해 수업의 여가가 있을 때마다 여러 공장의 참관, 기타 각 방면의 견학을 시켰다(阿部洋, 1974, 106~107)

[9]에서 유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보면 일본어를 주로 배우고 보통학과의 개요를 배우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식민지 조선을 위해 기여할 인력을 기르고자 하는 일본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조선의 지도층 역할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들의 목적에는 충분하지 않은 교육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학생들은 일본에서 터득한 다양한 신학문을 통해 조선의 근대화와 문명화를 견인하는 지도자적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관료나 기능적 지식인으로 충실하게 복무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일본유학가」의 윤정하와 함께 동경부립제일중학교에 유학했던 최린(崔麟, 1878~?)은 유학 도중 을사늑약의 비보를 접한 경험과 함께 당시 부립제일중학교장이었던 가츠우라 토모오(勝浦頼雄)가 신문에 발표한 내용 때문에 격분했던 과정을 기술한 바 있다.

[10] 이 해 11월 17일 학교로부터 돌아오는 길에서 신문 호위를 사서 본 즉, 천만 뜻밖에 한일보호조약이 체결되었다는 보도가 실려 있었다. ... 나는 그 호위를 손에 들고 기숙사에 돌아와서 사생 동지들과 서로 붙들고 서천을 향하여 통곡하였다. 그

이튿날 호시신문 조간에 부립제일중학교장 가르우라의 담화가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금후 조선 유학생들의 교육방침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고등교육이 필요 없다는 담화가 게재되었다. 이것을 본 사생 일동은 극도로 분격하여 그 날 아침부터 등교를 거부하였다. 우리들의 동맹자퇴는 중대한 국제문제가 되었다. 그것은 황실특파유학생이기 때문이었다(如菴先生文集編纂委員會, 1971).

문제가 된 기사는 「호치신문(報知新聞)」 1905년 12월 2, 3일자에 연재된 「한국유학생」이라는 기사였다. 기사는 교장이 한국유학생 위탁 1년간을 회고하면서 말한 소감을 기자가 정리한 것이었다. 유학생을 보는 일본의 시선과 입장을 명확히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유학생들은 동맹 자퇴를 감행하고 관비유학생의 자격을 잃고 가까스로 학교에 복교하게 되지만 과정 자체는 다소 치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다. 기사의 제목이 「일본류학가 제일」로 끝나고 있어서 후속편을 계속 창작할 의도가 작자에게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후속 작품은 창작되지 못했다. 학생들의 이후 유학 생활은 이제 상상 속에서만 그려 볼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작품에 나타난 혈기왕성하고 의기 가득한 학생들이 귀국 이후의 삶 속에서 유학생들의 초기 주체적 의지를 꾸준히 관철해 갔는지는 의문이다. 많은 유학생들이 식민지 조선의 총독부 관료나 기능적 지식인의 역할에 머물렀던 것은 물론 그들의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유학이라는 초국적 경험이 그들의 의식과 정서를 좀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변화된 초국적 자아의 형성과 의미는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IV. 맺음말

일본 유학 체험을 서술한 가사 「일본유학가」는 외국 상주 외교관이 일본의 풍속과 문물을 소개한 두 작품 「일동장유가」와 「디일본유람가」 이후 등장한 20세기 작품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앞선 두 작품의 작자가 조선의 지식인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유학가」의 작자는 유교 지식인의 정신적 우월감보다는 신학문에 대한 열망을 지닌 근대적 주체의 의식을 보여준다. 또한 조선의 식민지화가 가속화되는 1904년에서 1910년에 이르는 시기에 조선을 보는 일본의 시선과 일본을 보는 조선의 시선을 작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유학생들이 유학 체험을 통해 확인한 일본에 대한 인식과 정서가 그들의 이전의 자아 정체성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유학가」의 작자 윤정하의 유학 체험을 통해서 일본의 보호국화되어 가는 식민지 한국의 초라한 위상을 깨닫고 조선을 바라보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시선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작품에 나타난 ‘동종동문(同種同文)’의식은 일본의 식민교육 정책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일본 유학이라는 초국적 경험에 대한 경계를 낮추고 쉽게 동화되어 갈 수 있는 심리적 바탕이 되고 있음을 살폈다. 더불어 일본의 유학 정책이 유학생들의 의지나 목표와 충돌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초국적 경험의 긍정성 이면에 부정적 요소 또한 위험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초국적 이동이라는 경험을 통해 형성된 초국적 자아의 모습은 때로는 성장과 확장으로, 때로는 불안과 순응으로 나타나기도 함을 확인하였다. 유학 이전 작자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다소 호의적이고 기대에 가득한 심리였다면, 유학의 과정에서 일본의 교장과 교사, 교육 당국의 태도를 경험하면서 일본에 대한 인식은 좀 더 비분강개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후 유학생들의 삶과 의식에서 이러한 태도가 지속적으로 관철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초국적 자아의 성격을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양상으로 파악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역사적 경과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 국사편찬위원회편. 199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2~26.
-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 김승일. 1993. 건건록.
- 如菴先生文集編纂委員會. 1971. 如菴文集 上.
- 윤정하. 모산약사
- 윤정하. 유학실기
- 신한민보. 1909.04.28. 商業을 崇拜할 理由(상학계 조등)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한상일. 1993. 서울에 남겨둔 꿈-19세기말 일본인이 본 조선. 건국대학교출판부.

- 김윤희. 2012ㄱ. 1920년대 일본 시찰단원의 가사 「동유감흥록(東遊感興錄)」의 문학적 특질, 우리말글 54. 우리말글학회.
- 김윤희. 2012년 여름. 1920年代 歌辭 「東遊感興錄」內 朝鮮人 ‘身世打令’의 특질과 그 의미. 어문연구 40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김윤희. 2012나. 20세기 초 대일 기행가사와 동경 표상의 변모-「유일록」, 「동유감흥록」을 중심으로. 동방학 24. 동방학회.
- 김윤희. 2012다. 20세기 초 외국 기행가사의 세계인식과 문학사적 의미, 우리문학연구 36, 우리문화회.
- 김윤희. 2012르. 「일본유학가」에 형상화된 유학 체험과 가사문학적 특질, 한민족문화연구 40, 한민족문화학회.
- 김경래. 2019. 시대하라 다이라(幣原坦)의 『韓國政爭志』와 조선시대 정치사. 한국문화 85. 서울대규장각한국문화연구원.
- 민진경·우현정·박영미·최광만. 2018. 구한말(1876년~1910년) 유학생 관련 국내 연구 동향 검토. 교육연구논총 39. 한국교육사학회.
- 박찬승. 2009년 겨울호. 1904년 황실 파견 도일유학생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51. 한국근현대사학회.
- 阿部洋. 1974. 旧韓末の 日本留學-資料的考察 II~III, 韓 3권 6호~7호.

- 이계형. 2008.12. 1904~1910년 대한제국 관비 일본유학생의 성격 변화.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이계형. 2021. 일제의 대한 '보호국화' 추진과 학정참여관 시데하라(幣原坦)의 식민교육 정책. 승실사학 46. 승실사학회.
- 장정수. 2022. 「디일본유람가」와 「범사록(泛槎錄)」의 내용 및 작가 의식 비교. 한국어문교육 41.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 정재호. 1983. 일본유학가고-유학실기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 최덕수. 1991. 구한말 일본유학과 친일세력의 형성, 역사비평 17호(1991년 겨울호). 역사비평사.
- 최혜주. 1998. 시데하라(幣原坦)의 식민지 조선 경영론에 관한 연구. 역사학보 160. 역사학회.
- 하우봉. 2016. 재미통신사행의 문화교류 양상과 특징. 진단학보 126. 진단학회.

● 투고일: 2023.02.01. ● 심사일: 2023.02.03. ● 게재확정일: 2023.02.20.

| Abstract |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Studying Abroad and the formation of a transnational self in the 『IlBonYuHakGa』

Paik Sunchul (Daegu University)

『IlBonYuHakGa』 is important in that it is a work of the 20th century that appeared after the two works, 『IldongJangyuga』 and 『Daeilbonyuramga』, in which a diplomat introduced Japanese customs and culture. In addition, while the authors of the previous two works show Joseon's intellectual attitude. But the author of 『IlBonYuHakGa』 shows the consciousness of a modern subject with aspirations for the Western thoughts rather than the mental superiority of Confucian intellectuals. In addition, it is an interesting work in that you can discover the Japanese gaze of Joseon and the Joseon's gaze of Japan in the period from 1904 to 1910 when Joseon's colonization was accelerating.

In this article, through the experience of studying abroad by Yoon-Jeongha, the author of 『IlBonYuHakGa』, I focused on discovering Japan's imperialist gaze on Joseon after realizing the humble status of Korea, a colony that was becoming a protectorate of Japan. In addition, it was examined that the consciousness of 'same race and same character' shown in the work is deeply related to Japan's colonial education policy, and serves as a psychological basis for lowering the boundaries of the transnational experience of studying in Japan and being easily assimilated.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conflict process experienced by international students in Japan, it was clearly confirmed that negative factors (anxiety and adaptation) were also located behind the positivity (growth and expansion) of the transnational movement experience.

〈Key words〉 『IlBonYuHakGa』, Studying abroad, International students, Colonial education, Transnational migration, Transnational self

유학생의 논설문 헤지 표현(hedges) 연구



최 보 선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boseonlove@gmail.com)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부 유학생들이 산출한 논설문에 나타난 헤지 표현(hedges)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교육적인 함의를 찾는 데에 목적이 있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헤지 표현의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면서 선행연구들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난 두 가지 부분을 보완하고자 시작되었다. 첫째, 한국어교육 관련 헤지 표현 관련 연구는 대학원생의 학술적 텍스트를 분석하는데 치중하였으나 다양한 학습자의 다양한 글쓰기에서의 헤지 표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헤지 표현과 부스터 표현(boosters)을 구분하지 않은 연구들이 많은데 각 표현의 기능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논설문에 나타난 헤지 표현을 '투영 동사, 투영 동사 복합 형식, 인식 양태 표현, 시상 표현'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외국인 유학생의 헤지 표현 사용 양상과 중간언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헤지 표현 인식과 실제 산출의 모습을 비교하여 앞으로의 교육적 처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헤지 표현, 부스터 표현, 인식적 태도, 논설문, 학술적 텍스트,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 이 논문은 2022년 12월 09일 대구대학교에서 열린 공동국내학술대회 “초국적 모빌리티: 이주와 유학”에서 발표된 논문을 발전시킨 것이며,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8096275)

I. 서론

1.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문 목적의 외국인 학습자(이하 학습자)들의 논설문에 나타난 ‘헤지 표현(hedges)’ 양상을 살펴보고 추후에 교육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 수집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헤지 표현은 Lakoff(1973:471)에서 ‘어떤 것을 더 혹은 덜 모호하게 만드는 단어들(words whose job is to make things more or less fuzzy)’이라는 개념으로 처음 제기되었고, 신명선(2006:157-158)에서 Lakoff(1973), Fraser(1975, 1980), Prince, Frader & Bosk(1982), Hübler(1983), Brown & Levinson(1987), Markkannen & Schröder(1997) 등의 연구를 살펴보고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모호하다. 명제 내용의 진리 조건을 참과 거짓으로 명확하게 규정 짓는 것을 방해하여 화자의 판단을 정확히 드러내지 않고 흐리게 한다.
- 둘째, 공손성을 나타낸다. 상대의 체면을 유지시켜 주는 데에 효과적이다.
- 셋째, 양태성을 가진다. 발화 내용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헤지 표현은 화자와 필자의 입장에서 특정 표현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목적의 학습자 중에서 특히 대학,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학문 목적 학습자는 학술적인 텍스트를 접하고 산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 연수 과정에서도 일반적으로 중급 시작 단계인 3급부터 격식적인 문체로 나타난 문어 자료 및 구어 자료를 다루게 된다. 또한 한국어 연수 과정 중 중급부터 논설문(주장하는 글)을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한국어 논설문 장르적 특성을 배우게 된다. 국가 및 문화마다 구어와 문어의 담화 형식이 다르므로 외국인 학습자는 목표어의 담화 형식을 언어 연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 특정 장르, 특정 담화에서 사용되는 헤지 표현은 해당 언어 사용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동의하고 관습적으로 쓰는 언어적 표현이므로 외국인 학습자들은 이것을 별도로 학습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적 내용을 학습하기 시작하는 수준의 학습자들은 헤지 표현의 의미를 온전하게 명확히 이해하기보다는 단순히 암기식으로 학습을 시작하게 되므로 충분한 교수, 학습을 통해 내재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학습자가 작성한 학술 텍스트(학위 논문, 학술지, 작문 등)에

나타난 헤지 표현을 분석한 연구(신영주 2011; 심호연 2013; 박미영·이미혜 2018; 강수진·이미혜 2019; 윤나영 2022; 이엽·JIN XUEYAN 2022 등)가 가장 많았고¹⁾, 그 외로 교재 분석 후 학습용으로 제시할 헤지 표현 제시 방안(이아름, 2018; 하원, 2021), 외국인 학습자의 헤지 표현 목록화(이준호, 2012; 류지현, 2019 등), 구어 텍스트에 나타난 헤지 표현 연구(임진숙, 2021 등), 헤지 표현 연구 동향 분석 연구(유인박·김한근, 2022 등), 한국어-모국어 헤지 표현 비교 연구(조은영·총니, 2022 등)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교육 헤지 표현 관련 연구는 보통 학위 논문에 나타난 것을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인데 이와 같은 대학원생의 학술적 텍스트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학술적인 텍스트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은 한국어 연수는 물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쓰기 영역 52, 53, 54번에서도 격식체 반말을 사용해야 하고, 특히 54번에서는 주어진 주제에 맞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논설문 장르를 산출해야 한다. 논설문은 학습자의 자격증 취득이라는 목적 달성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 후에도 주관식 시험지 답안, 보고서 등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장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학 연수가 끝나고 학부로 입학한 후에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학업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기에 논설문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분석 자료로 선택하게 되었다.

논설문이라는 특정 장르의 정형화된 모습은 비슷하게 산출될 것으로 기대되나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목적 및 학습 과정, 교사의 지도 방법, 교재 등에 따라 헤지 표현 사용 여부나 사용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논설문 자료를 분석한 후에 헤지 표현 사용 양상을 살펴본 후 추후에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한국어교육 분야로 헤지 관련 연구들이 있으나 학위 논문과 같은 학술 텍스트 연구가 대부분이므로 학습자의 다양한 장르적 담화에 나타난 헤지 표현 연구가 계속 필요하다고 보인다.

먼저 신명선(2006)에서는 국어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헤지 표현을 연구하였다. 이

1) 강영란(2021)은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가 산출한 논설문에 나타난 메타담화표지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조은영·총니(2022)에서는 동일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서 학술적 글쓰기를 쓰게 하고 그것을 번역하게 하여 동일한 주제가 모어인 중국어에서, 목표어인 한국어에서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두 연구에서는 헤지 표현이 각각 메타담화표지 및 쓰기 특징 안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된다. 헤지 표현이 전체 연구의 주제가 아닌 경우는 논문 기술회시 필요한 경우에 인용한다.

연구는 여러 연구자가 정의한 헤지 표현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고, 기존 국어 학술 텍스트에서는 수동태와 간접 인용 등으로 헤지 표현이 유발되었다고 보았으나 실제 학술 텍스트 자료의 서론 부분을 분석한 결과 이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요소가 헤지 유발에 관여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한국어교육 분야의 연구인 이준호(2012)에서도 신명선(2006)과 신영주(2011)의 한계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였다. 연구자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헤지 표현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그 후 학술 텍스트를 학습자가 직접 읽으면서 해당 헤지 표현을 찾는 인식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의 인식을 처음 조사했다는 점과 한국어 헤지 표현 유형과 예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아름(2018)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읽기 및 쓰기 교재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은 후 인식적 측면과 사용적 측면으로 헤지 표현 제시 방안을 제안하였다. 교재는 학습자가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학습 자료이다. 따라서 교실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제성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고 그만큼 학습자에 대한 영향력도 크다. 이러한 교재를 분석하고 교육적으로 접근한 부분에 의의가 있다.

박미영·이미혜(2018)에서는 한국어교육 분야의 석사학위 논문 50편을 한정하여 학위 논문에 고빈도로 나타나는 헤지 표현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인이 작성한 논문을 분석하고 거기에 많이 나타나는 헤지 표현을 정리하였다. 이는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학습자들이 정형화된 텍스트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라도 학위 논문과 같은 학술 텍스트 작성은 어느 정도의 표현을 익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당연히 더 어려운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강수진·이미혜(2019)에서는 외국인 학습자가 작성한 석사 학위 논문 30편을 분석하여 실제 학습자가 사용한 헤지 표현이 어떤 것인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위 논문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본 것이다. 이 연구는 앞선 박미영·이미혜(2018)의 연구의 후속 연구로 볼 수 있고, 비슷한 연구 방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보였던 학술 텍스트 연구에서 실제 학습자 자료를 사용하면서 이전 연구와의 비교를 통하여 내용을 정리한 점에 의의가 있다.

임진숙(2021)에서는 TOPIK 듣기 영역의 안내 구어 텍스트의 항목과 사용의 예를 분석하였다. 안내 구어 텍스트를 다시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청자 지향적 헤지, 명제 지향적 헤지, 청자 지향적 헤지+명제 지향적 헤지, 화자 지향적 헤지 등으로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문어 자료를 분석하거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비해 이 연구는 한국어교육에서 구어 자료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TOPIK 텍스트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실제성이 있고, 교육적으로도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의 헤지 표현 연구 경향은 문어 자료, 특히 학위 논문과 같은 학술 텍스트를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다양한 자료로 헤지 표현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II. 헤지 표현

2.1. 헤지 표현의 용어 설정 및 개념

각 연구에서 의미하는 헤지 표현의 의미는 ‘상대방의 체면을 고려하고 필자 주장의 단호함을 줄이기 위한 장치’의 의미라는 점에서 비슷하나 명칭은 상이하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연구인 유인박·김한근(2022)을 참고할 만하다. 이 연구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70여 편의 한국어 헤지 표현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 정리한 것이다. ‘hedges’의 한국어 번역 양상, 연구 목적 양상, 한국어 모어 화자의 헤지 표현 실제 활용 양상, 비교 양상, 통번역 양상, 학습자의 헤지 표현 활용 양상, 학습자의 헤지 표현 인지 양상, 한국어교육용 헤지 표현 제시 양상, 한국어 헤지 표현 연구 동향 분석 등 여러 각도에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고 6가지의 제언을 후속 연구에 남기고 있어 최근의 한국어교육 분야의 헤지 표현 연구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유인박·김한근(2022:135)에서는 ‘hedge(s), hedge expression(s), hedging(s), hedging expression(s)’ 등의 용어가 ‘헤지 표현, 헤지, 헛지 표현, 헛지, 헤취, 헤지 문법 항목, 헤지 문형, 완화 표지, 완화 표현, 완화적 표현, 완충어, 완충 표현, 완충장치, 방책어, 유보, 유보어, 유보장치, 완곡 표지, 주저 표현, 애매한 태도 표지, 의미 없는 부사구, 울타리 표현, 울타리어, 디딤말’ 등으로 한국어교육 분야의 논문에서 사용된다고 밝혔다. 각 연구에서 헤지 표현에 관한 관점이 모두 다르므로 번역한 명칭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hedges’의 여러 용어 중에서 ‘헤지 표현’이라는 용어를 선택한다. 후술하겠으나 담화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쓰는 특정한 표현은 어휘적으로, 통사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것들을 모두 포함하기에 해당 표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헤지 표현의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명확하게 의미를 제시한 연구들도 있지만 보통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적인 부분을 언급하거나 자료에 나타난 특성을 정리하는

것에 그쳤다. 명시적으로 개념을 제시하기보다 구어나 문어의 의사소통적 기능을 앞세워 다양한 언어적 표현들을 예로 들어 제시하는 것으로 개념을 소개하는 연구들도 있다. 이와 같이 헤지 표현은 연구자마다 혹은 담화의 특성에 따라 개념이나 범위 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하면 헤지 표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1장에서 Lakoff(1973)가 헤지 표현을 ‘어떤 것을 다소 모호하게 만드는 단어들’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신명선(2006:154-157)에서는 몇몇 연구자들의 정의를 정리하고 있어 그것을 참고하여 이후 국어 및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의 내용을 더하여 헤지 표현의 정의를 간단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선행 연구의 헤지 표현 정의

연구	정의
Lakoff(1973)	어떤 것을 더 혹은 덜 모호하게 만드는 단어들
Fraser(1975, 1980)	전체 명제의 참과 거짓에 대한 화자의 논평을 한정하는 것, 발화 행위가 유발할 수 있는 적대심이나 귀에 거슬림 등을 완화하는 표현
Prince, Frade & Bosk(1982)	논평을 완화하거나 모호하게 하는 것(명제 내용, 화자의 논평으로 구분)
Hübler(1983)	청자의 수용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합의의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
Brown & Levinson(1987)	체면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Markkannen & Schröder(1997)	정보, 필자의 태도 완화소 / 작가의 태도를 감추는 것 / 표현된 것의 책임에 대해 독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
Hyland(1994)	필자가 명제를 사실이 아닌 의견으로 제시할 때 사용되는 수단으로 인지적으로 불확실한 것
신명선(2006)	모호성 / 공손성 /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
신영주(2011)	필자가 단언하지 않고 가능한 반박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
이준호(2012)	필자가 자기 주장의 강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분명히 검증되지 않은 제안에 조심성을 더하기 위하여, 혹은 확신이 있더라도 이를 부드럽게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도적 언어적 장치
강수진·이미혜(2019)	학술 텍스트에서 저자가 학술 공동체인 독자들에게 인정 받고 체면 위협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 주장을 서술할 때 조심성을 더하여 완곡하게 전달하는 표현
임진숙(2021)	화자가 공손성을 고려하여 수행하는 여러 가지 전략

연구자마다 초점을 두는 부분이 다를 수 있으나 여러 연구에서 반복, 강조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헤지 표현이란 말이나 글에서 화자, 필자의 강한 명제적 내용, 태도를 숨겨 체면 손상을 줄이고 청자, 독자에 대한 조심성을 높여 공손함을 나타내는 의사소통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2. 헤지 표현의 분류

헤지 표현은 연구자마다 분석 기준과 분류 방법이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학습자 자료를 분석하고 사용 양상을 살피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분석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헤지 표현을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유형화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신명선(2006), 신영주(2011), 이준호(2012), 박미영(2016), 류지현(2019) 등에서 분류 및 제시한 헤지 표현을 목록화한 것이다.

〈표 2〉 신명선(2006)의 소논문 서론의 헤지 표현

구분	기능		헤지 표현
명제 내용 판단 유보	① 가능성과 추측		•수, -겠-, 아마도, 듯하다, 아마도, 어쩌면, 은/는, 만, 질문하기 등
	② 한정		•거의, 주로, 크게, 비교적, 큰, 깊이 있게, 그리, 다소 등
판단 유보	명제 내용에 대한 필자의 판단 유보	① 일반화의 방지 (전체-부분)	•중의 하나, 한, 일종의 등
		② 드러내기-숨기기 (주체화-객체화)	•주체화: 연구자(필자), 나는 - 생각하다, -(으)ㄹ 것이다, 다소 등 •객체화: 흔히, -고 알려져 있다, - 때문에, 거의 등
	③ 전제와 함축	•부정 표현: -지 않다, 역시 -지 못하다, -(으)ㄹ 수 없다	
수행성 약화			•곤란하다, 무리가 있다, 필요성을 제기한다, 필요하다, 우려가 있다 등

신명선(2006)은 한국어의 헤지 표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헤지 표현의 개념 정리 및 학술 텍스트(학술 잡지의 소논문)에 나타난 헤지 표현을 살펴보는 유의미하다. 이 연구는 다양한 문법 범주들로 헤지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헤지를 기능적, 화용적 관점에서 언어 사용 전략으로 볼 경우 헤지 표현 목록을 작성이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후속 연구들에서도 위의 표에 제시된 헤지 표현이 헤지 표현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분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보조사는 한정을 나타내지만

완화의 의미가 약하여 제외되어야 하며, 질문하기는 학위 논문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표 3〉 신영주(2011)의 학위 논문 서론의 헤지 표현

구분		헤지 표현
부가적 완화 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호: 거의, 다소, 비교적, 어느 • 부정(否定)칭: 무슨, 무엇, 어느, 어떤 • 불확실: 아마(도), 어쩌면
내용 중심 완화 표지	정확성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용: -고 + 전달 동사(말하다 주장하다 하다 등) • 증거: -고 + 인지 동사(생각하다 여기다 판단하다 평가하다 해석하다)
	필자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단: -(으)ㄴ/는 편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 듯하다, -(으)ㄴ/는가 보다, -(으)ㄹ 것이다, -(으)ㄹ 법하다, -(으)ㄹ 수 있다, -(으)ㄹ까 생각하다, -아/어/(으)로 보이다, -겠-, 가능하다, 가정/추측/추정하다, 의의가 있다, 짐작하다, 필요성이 있다, ‘부정 표현 + 헤지 표현’ 등 • 객관화: 본고, 본 연구, 연구자, 우리

신영주(2011:42)는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출판된 5개 대학교의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교육 분야 석사 논문 50편, 외국인 학습자의 논문이 가장 많은 5개 대학 선정²⁾ 후 중국인 학습자의 석사학위 논문 50편, 총 100편을 대상으로 분석 대상으로 삼아 헤지 표현을 목록화하였다. 분석 자료 선정에서 사전 분석 후 결론을 제외하고 ‘서론, 이론적 배경, 본론’에 헤지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했으나 서론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헤지 표현이 적게 나타나 서론만 분석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Hyland(1998)의 헤지 표현 모형을 기본 틀로 하여 신명선(2006)에서 제시한 헤지 표현 목록과 한국어교육 문법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헤지 표현을 바탕으로 분석의 틀을 작성하여 위와 같은 목록을 완성하였다. 유사한 계열의 두 집단의 논문을 비교하여 각 집단의 특성을 알 수 있고, 연구 결과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전체적인 논문 헤지 표현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준호(2012:277)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Hyland(1998)의 헤지 표현 목록을 단순화시켰고 분석 기준이 잘못 설정되었음을 보이는 결과들이 도출된 부분이 아쉽다.

2) 신영주(2011:28)는 200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충남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순서였고,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순서였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논문을 찾기 힘든 고려대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개 학교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표 4〉 이준호(2012)의 한국어교육용 학술적 헤지 표현

유형	항목	헤지 표현	예	
핵심이 되는 표현	동사 중심 표현	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로 볼 수 있다 • -(으)ㄴ/(이)ㄴ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 • -다/라고 볼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의 비중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 소비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소비재의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보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로 보인다 • - 것처럼 보인다 • -(으)로 보이기도 한다 • -(으)ㄴ/(이)ㄴ 것으로 보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재의 비중이 높은 것처럼 보인다. • 소비재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로 알 수 있다 • -(으)ㄴ/(이)ㄴ 것으로 알 수 있다 • -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다/라고 알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의 비중을 낮춰야 함을 알 수 있다. • 소비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소비재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타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로 나타났다 • -이/가 나타났다 • - 것이 나타났다 • - 점이 나타난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 비중을 낮출 필요성이 나타났다. • 소비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 소비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나타난 것이다.
		나타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를 나타냈다 • -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임을 나타냈다. • 소비재의 비중이 높아진 결과라는 것을 나타낸다.
		생각하다 예상하다 이해하다 파악하다 판단하다 분석하다 고려하다 설명하다 간주하다 평가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로 + 피동형 • ‘-되다’ • -(으)ㄴ 수 있다 • -다고 할 수 있다 • -기도 하다 • -(으)ㄴ 것이다 • -게 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소비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 소비재의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될 수 있을 것이다. • 소비재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 소비재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으로 간주하게 된다. • 소비재의 비중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유형	항목	헤지 표현	예	
	형용사 중심	가능하다 필요하다 적합하다 타당하다 바람직하다 이상적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라고 할 수 있다 • -(으)ㄴ 것이다 • -ㄴ/ㄹ 것으로 보인다/나타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소비재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소비재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명사 중심 표현	의미 가능성 필요성 중요성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가 있다 • -이/가 있을 것이다 • -이/가 보인다/나타나다/제시되다 • -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나타나다/제시되다 • -을/를 볼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 소비재의 비중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 대체로 소비재의 비중이 낮게 조사되는 경향이 있었다.
부가적 표현	부사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적, 상대적으로, 대체로, 대략적으로, 주로 • 다소, 약간, 어느 정도, 일종의, 하나의 • 그리, 거의 - 안/못 등의 부정 표현 		
	(준)정형화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만을 보자면, -을/를 고려하자면 •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예외가 나타날 수 있으나, 여러 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 한계가 있다, 부족함이 있다, 아쉬움이 남는다,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준호(2012)의 연구는 학습자의 헤지 표현 인식 연구와 함께 다양한 전공의 소논문을 분석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술 텍스트 작성 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용 헤지 표현을 처음으로 목록화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표 5〉 박미영(2016)의 소논문의 헤지 표현

Hedge	구분	기능	하위 기능	헤지 표현
내용 중심 (저자 중심)		• 명제적 내용의 차원	• 일반화의 방지,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중의 하나, 한, 일종의, 거의, 주로, 크게, 비교적, 큰, 깊이 있게, 그리, 다소,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약간

Hedge	구분	기능	하위 기능	헤지 표현
		• 명제를 대하는 저자의 태도 차원	• 가능성과 추측	• - 수, -겠-, 아마도, 듯하다, 대체로, 대략적으로
			• 주체화 (드러내기)	• 보다(볼 수 있다, 보이다), 알다(알 수 있다, 알게 되다), 생각하다, 예상하다, 이해하다, 파악하다, 판단하다, 분석하다, 고려하다, 설명하다, 간주하다, 평가하다
			• 객체화 (숨기기)	• -고 알려져 있다(인용 표현), 나타나다
독자 중심		• 독자와의 관계 차원	• 수행성 약화	• 곤란하다, 무리가 있다, 필요하다, 우려가 있다. 가능하다, 적당하다, 타당하다, 바람직하다, 이상적이다
		• 독자와의 관계 차원	• 부정성 조절 (전제와 함축)	• 그리, 거의 - 안/못 부정 표현

박미영(2016:34)은 최근 5년 이내의 등재지에 게재된 인문학계열 소논문 200편과 자연과학계열 소논문 200편, 총 400편의 1,749,053 어절의 학술 텍스트를 분석하여 학문 목적 학습자의 학술 텍스트 작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Hyland (1998)의 헤지 표현 분류 모형을 토대로, 신명선(2006)과 이준호(2012)의 연구 내용을 하부 기능으로 정리하여 새로운 목록을 제시하였다. 두 학문 계열 간 헤지 표현 사용에 의미 있는 차이점을 발견하고 선행 연구들의 표현을 재분류한 것에 의의가 있다.

〈표 6〉 이슬비(2016)의 소논문의 헤지 표현

필자 태도 표현	구분	헤지 표현
1. 평가적 태도	직접적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어휘 : 새롭다, 흥미롭다, 자연스럽다, 낯설다... • 인용 동사 : 설명하다, 하다, 말하다, 보다, 생각하다... • 논리, 해석 동사 : 시키다, -기 때문이다/때문에..., 나타나다, 관련되다/관련하다...
	간접적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도 조절 : 가장, 매우, 많이..., 구체적, 일반적... • 수량 조절 : 가능성이 크다/높다/빈번하다, 필요가 있다/없다/많다, 필요가 많다/있다/없다... • 초점 조절 : N 중 하나, 일종의, 다소, -지 않다...

필자 태도 표현	구분	헤지 표현
2. 인식적 태도	자기 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영 동사 : 보이다, 보다, 생각하다... • 자기 투영 복합 구성 : -(으)ㄹ 수 있을 것이다, -을/를 알 수 있다, -다/라고 할 수 있다...
	인식 양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 양태 표현 : -(으)ㄹ 수 있다, -는 것이다, -(으)ㄹ 것이다...
	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상 표현 : -고 있다, -았/었-, -던, -게 되다...
3. 상호작용적 태도	텍스트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 선후 안내 : -고자 하다, 다음과 같이/같은/같다..., -듯이 • 접속 : 이러한, 이는, 또... • 독자 유도 : 가?, 가., 까?, 까..., 여기서, 점이다...
	논리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장 : -기도 하-... • 반박, 전제 : -더라도, -다..., -다는 점에서 • 부정, 변별 : -이/가 아니라..., 보다, 그러나, 비해(서) • 반기대 : 아직, 오히려... • 심화 : 뿐만 아니라...

이슬비(2016:56)는 담화적 관점에서 ‘필자 태도’(stance)를 어떤 개념을 통해 논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새로운 태도 관련 개념은 문법 범주에 국한된 양태 범주와 달리, 의미를 중심으로 여러 문법 범주의 표현들을 한 개념 아래 논의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슬비(2016:137-165)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가 산출한 학술적 텍스트와 외국인 학습자가 산출한 학술적 텍스트를 비교하면서 텍스트에 나타난 헤지 표현을 살피고 있다. 이 연구는 헤지 표현의 언어적 범위를 여러 언어적 층위에 걸친 것으로 보고 어휘, 문법, 담화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본 것과 장르 중심 언어 연구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표 7〉 류지현(2019)의 TV 뉴스 기사 및 신문 지면 기사의 헤지 표현

구분	헤지 표현	
어휘·문법적 표현	양태성을 가진 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필요성], 정도, 의미, 의의, 가능성, 중요성, 경향, 우려, 무리, 감(感)
	판정 의미의 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하다, 예상하다, 파악하다, 판단하다, 분석하다, 평가하다, 추측하다, 추정하다, 짐작하다
	긍정·부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란하다, 가능하다, 적합하다, 타당하다, 바람직하다, 이상적이다, 필요하다, 힘들다, 낫다
	관형사 및 관형형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일종의, 어느, 어떤, 약

구분	헤지 표현
양태 부사 및 부사구, 부사적 표현	• 비교적, 아마(도), 거의, 주로, 크게, 그리, 다소, 상대적으로, 약간, 대체로, 그다지, 조금, 좀, 대략, 혹시나, 솔직히, 설마, 특히, 일반적으로
양태 의미의 선어말·연결·종결 어미 표현	• -(으)ㄹ 수 있다[없다], (으)ㄴ/는/(으)ㄹ 듯하다, -(이)라고, -(ㄴ)다고, (으)ㄴ/는 편이다, (으)ㄴ/는/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 것이다, -(으)ㄹ 수밖에 없다, -(으)ㄹ 텐데, -(으)ㄹ 만하다, -을/를 나타내다, -(으)로 나타내다, -(으)로 보다/ 보이다, -아/어 보이다

류지현(2019:35)은 TV 뉴스 기사와 신문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이준호(2012:285)에서 제시한 ‘한국어 헤지 표현 표면형 분류’를 참고하여 새로운 헤지 표현 분류표를 만들었다. 이때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수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주로 개별 문법과 표현을 위주로 하여 수업이 이루어지므로 이준호(2012)가 제시한 조건, 방법론 언급 등의 글쓰기 전략에 해당하는 ‘전략적 표현’은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둘째, 관형사 및 관형사형 항목을 추가하였다. 자료 수집에 나타난 항목에는 이준호(2012)가 제시한 분류 기준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셋째, 개별 헤지 표현 중 용례가 지나치게 지엽적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신영주(2011:42)에서 제시한 ‘본고, 본 연구, 연구자’ 등은 학술 텍스트 내에서만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특수한 표현이므로 제외하였다. 이 연구는 학문 목적 학습자뿐만 아니라 일반 목적 학습자에게까지 교육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헤지 표현 교육 대상이 될 학습자의 구체적 수준까지 논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상기한 연구의 헤지 표현 분류 기준과 목록은 연구자들이 자료의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들의 분석 기준은 3장에서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참고한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에서 학문 목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가 산출한 논설문 40편을 대상으로 총 753 문장, 27,671 어절의 텍스트에 나타난 헤지 표현을 분석하고자 한다.³⁾ 학문 목적 학습자에게 논설문은 학술 텍스트에 해당한다. 학습자들은 대학 교육의

3)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논설문’은 단순히 ‘서론-본론-결론’의 구성을 갖추며 주장과 근거를 나열하는

학습 과정 중에 보고서, 발표문, 토론문, 주관식 시험 답안지 등에서 교재나 강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펼치면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글을 써 내야 한다. 그 중에서 자신의 주장과 그에 맞는 근거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하는 글인 논설문은 학습자들이 많이 읽고 쓰게 되는 글의 유형 중 하나이므로 학습자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에도 용이하여 본 연구에서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학기 정규 시험에서 산출한 논설문을 분석한다.⁴⁾ 학습자의 자료 수집의 경우 모르는 어휘 및 문법을 사전, 인터넷 검색, 한국인 친구 등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학습자의 내재적 언어 사용이 아닌 외부 변인의 영향을 받아 산출된 자료는 신뢰성을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일체의 언어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시험 상황에서 산출한 자료를 수집하였다.⁵⁾

이 수업은 학문 목적의 글쓰기를 연습하는 수업이고, 일주일에 1번, 2시간씩 진행되었다. 학기 시작 후 논쟁형 논설문 1-3(동물원 폐지 찬반, 한국식 서열 문화 존중 찬반, 흉악범죄자 신상공개 찬반), 발표문, 요약문을 연습하고 8주차 중간시험에 논쟁형 논설문의 장르로 시험을 실시하였다.⁶⁾ 연구자는 의도적으로 중간시험 이전에 논쟁형 논설문의 비중을

주장하는 글이라는 의미보다 학문 목적 학습자가 대학 교육 과정 중 맞닥뜨리게 되는 학술적 텍스트라는 의미가 더 크다. 한국어 연수 과정 중 또는 대학 교육 과정 중에 있으면서 배우게 되는 학술적 텍스트에서 산출되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므로 일반적인 논설문에 기대하는 구조, 주장에 따른 근거의 논리성보다 적절하게 헤지 표현을 사용하여 학술적으로 글을 풀어내고 있는가에 집중하고자 한다.

- 4) 본 연구의 자료는 시험 실시 직후 학습자들에게 해당 시험의 텍스트 자료가 연구자의 연구를 위해서 활용될 것임을 알리고, 자료 사용 동의를 얻어 사용한 것이다.
- 5) 신영주(2011)는 한국인과 중국인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에 나타난 헤지 표현을 비교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마지막 결론(2011:79, 81)에는 '학교별 완화 표지의 사용 빈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한국인 논문에서 완화 표지 빈도가 높았던 학교는 중국인 논문에서도 그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석사 논문을 작성할 때 본교 논문을 참고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위 논문이 일반적으로 다른 학위 논문을 참고하거나 동료나 지도 교수와 같이 한국어 모어 화자가 논문 작성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내용은 학습자의 산출물이 학습자 스스로 생성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즉, 학위 논문이라는 중요한 텍스트는 당연히 지도 교수, 한국인 동기, 선후배 또는 인쇄소 등에서 교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학습자의 한국어 표현이 누군가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외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가 더 좋은 표현을 제시한다면 쉽게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는 해당 연구의 연구자의 언급과 같이 학습자가 '모범글'로 보이는 모교 선배의 논문을 참고하였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자가 스스로 산출한 결과물이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변인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순수한 학습자 산출물-그것이 정확하든 그렇지 않든-을 수집할 때 학습자의 중간언어적 양상을 관찰하면서 더 유의미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6) 학문 목적 외국인 학습자는 일반적으로 한국어 연수 과정에서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 II' 쓰기 영역 54번의 '주어진 주제에 맞게 글쓰기 유형'을 연습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논설문 장르에 익숙하다. 논설문이 주장과 근거만을 펼치는 글이라는 점에서

많이 두고 수업을 진행하였고 중간시험의 장르도 논쟁형 논설문(동물 실험 찬반)으로 지정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기말시험 이전에는 문제해결형 논설문 3편을 연습하고 문제해결형 논설문 장르로 시험을 실시하였다.⁷⁾ ‘논설문’은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펼치면서 뒷받침하는 근거가 논리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주장하는 글이다. 비단 TOPIK 시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대학 교육 과정 중에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써 내야 하는 학술적 상황이 많으므로 학습자들은 논설문 장르를 연습하는 것이 학술적 텍스트를 이해하고 산출하는 데에 도움이 되므로 중요하다.⁸⁾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을 목표어인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도 학습자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를 학술적인 상황에서 산출해 내야 한다면 더 큰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장르를 충분히 연습하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슬비(2016:29-30)는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필자 태도 표현 교육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언급한 내용을 빌리자면 본 연구의 논설문은 ‘(학습자가 목표로 하는) 학술적 텍스트의 형식을 지향하는 학습용 학술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다. 아직은 엄격한 학술적 구조와 양식에 맞출 수는 없으나 각 학습자들이 지향하는 학술적 텍스트를 완성하기 위해 연습의 일환으로 산출하는 텍스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이 쓰는 텍스트의 격식성과 학술적이라는 텍스트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슬비(2016)를 제외하고 한국어 헤지 표현 관련 연구에서 통제된 상황에서의 학습자 산출물을 연구한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연구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 수업은 헤지 표현 사용 및 특정 항목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었으므로 학습자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한강우(2022:203)는 TOPIK 쓰기 관련 연구 중에서 ‘도입-전개-마무리’ 형식을 가지는 54번 문제 유형을 다룬 연구 중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먼저 서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서술하는 구성 방식을 많이 다루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경향은 현장의 교사와 학습자들의 쓰기 학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7) 학기 정규 시험인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의 장르는 1주차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미리 공개되고 주제는 시험 당일 공개되어 학습자들은 주제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없고 시험 중에도 사전, 스마트폰 사용, 질문 등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매주 수업은 학습자의 학술적 텍스트 쓰기 향상을 위하여 뉴스 영상, 다큐멘터리 영상, 신문 기사, 학술 잡지 텍스트 등을 함께 활용하였고, 학습자는 장르적 특성 및 필수 사용 어휘, 문법, 표현 등을 학습한 후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아 개요를 짜고 원고지에 글을 작성한다. 분량은 800-1,000자이고 1,000자 이상 작성도 가능하다. 글 작성 후 일주일 후 수업까지 연구자가 필수적으로 1차 피드백을 서면으로 진행하고 원고지를 돌려줄 때 서면 피드백의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질문을 받거나 피드백의 중요 내용을 강조하였다.
- 8) 텍스트에 나타나는 헤지 표현은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중간시험 때의 논쟁형 논설문과 기말시험의 문제해결형 논설문을 같이 분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논쟁형 논설문만 분석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글쓰기 양상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한국어 연수 과정부터 학부 입학 후까지 다양한 학술적 텍스트를 읽고 쓰면서 습득, 학습하게 된 글쓰기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고 중간언어적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3.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논설문은 모두 40명의 다국적 학습자들에게서 수집한 것이다⁹⁾. 학습자의 국적은 중국 28명, 일본 7명, 캄보디아 3명, 몽골 1명, 키르기스스탄 1명이고, 성별은 남성 11명, 여성 29명이었다. 이 수업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외국인 학습자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수업의 교양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었으며, 이 수업을 듣기 위한 선행 과목 수강이나 특별한 조건은 없다.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은 4년제 대학 입학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TOPIK 3급 수준이고¹⁰⁾ 한국에서 한국어 연수 과정을 끝내고 입학하거나 1학기 또는 2학기 교환학생이 이 수업을 듣는다.

3.3. 분석 기준

본 연구는 <표 6>을 큰 틀로 하여 일부 기준을 적용하여 학습자 문어 자료를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표 6>의 기준에 따라 분석하나 자료 분석 과정 중에 보이는 특이점이나 다른 형태의 사용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내용 전개 과정 중 함께 기술한다. 그리고 고려할 만한 사항은 2개 이상의 헤지 표현이 결합하여 나타난 ‘복합 형식(chunk) 헤지 표현’인데 ‘생각할 수 있다, 바람직해 보인다’ 등이 그것이다. 이준호(2012:289-290)에서는 이러한 복합 형식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나 류지현(2019:35)에서는 복합 형식 헤지 표현을 하나의 개별 표현으로 판단했을 때 헤지 표현의 종류가 지나치게 방대해지고 사용 빈도는 낮아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복합 형식 헤지 표현에 나타나는 것들을 각각의 헤지 표현으로 나누어 분석한다고 보았으며, 본 연구도 류지현(2019)의

9) 이 수업의 원래 수강생은 46명이었으나 시험 포기, 시험 분량 미달, 논설문의 완결성을 지니지 못한 경우, 주제 이탈 등의 경우는 모두 제외하고 최종 40명의 자료만 분석하였다.

10) 실제 TOPIK 급수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도 있었으나 학교 자체 시험을 통해 입학한 경우나 예체능 전공 계열의 경우는 TOPIK 급수가 없거나 초급(1급, 2급)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등급을 명확하게 나누어 등급별 수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자 글쓰기에 나타난 헤지 표현 양상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학습자의 등급 구분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료 분석 후 등급별 구분과 관련하여 언급이 필요한 경우는 따로 기술하기로 한다.

의견에 동의하여 복합 형식 헤지 표현은 따로 분류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그의 연구에서는 ‘바람직해 보인다’는 ‘판정 의미의 동사’인 ‘바람직하다’와 ‘양태 의미의 선어말·연결·종결 어미 표현’인 ‘-아/어 보이다’라는 두 개의 헤지 표현이 결합한 것이고, 텍스트에서 헤지 표현이 2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다. 본 연구도 그 기준에 맞추어 복합 형식 헤지 표현을 따로 구분한다. 즉, ‘못하게 되었다’의 경우, ‘-게 되다’와 ‘-았/었-’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헤지 표현으로 보이거나 의미가 다른 경우를 분석에서 구분해야 한다.

- (1) 몸이 아플 때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CHN02)¹¹⁾
- (2) 그러므로 우리가 쓸 약이나 화장품 등을 동물이 쓰고 연구나 실험하는 것은 이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 (JPN01)
- (2)' 그러므로 우리가 쓸 약이나 화장품 등을 동물이 쓰고 연구나 실험하는 것은 이것과 같은 의미이다.
- (3) 공간의 이러한 사회적, 인식적 성격에 주목한다면, 〈북찬가〉는 공간에 따른 주체의 인식이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이끄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슬비, 2016:103)

(1)과 (2)에 모두 ‘-(으)ㄴ 수 있다’ 문형이 사용되었으나 (1)은 헤지 표현이 아니고 (2)는 헤지 표현이다.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헤지 표현은 화자, 필자의 강한 주장이나 태도를 숨겨 체면을 유지하고 청자, 독자에게 공손함을 나타내는 전략이다. (1)은 몸이 아픈 경우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상황의 가능성을 서술하는 것이고 여기에 필자의 담화적 태도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본다.¹²⁾ (2)와 (2)'을 비교해 보면 그 의미가 잘 드러나는데, (2)'은 필자의 동물 실험에 대한 찬성 의견을 단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자칫 독자에 대한 조심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여 공손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2)에서는 이러한 표현의 완화를 위하여 ‘-(으)ㄴ 수 있다’는 문형을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화자 태도에 대한 양태적 의미를 드러내므로 헤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3)의 예문은 선행연구에서 가져온 것인데 (1)과 (2)의 비교를 도와준다. 이슬비 (2016:104-105)에서는 이러한 표현의 근본적 의미를 Halliday의 ‘projection(투영)’에

11) 학습자 예문을 제시할 때는 국적과 순번을 붙였다. 학습자의 국적인 중국, 일본, 캄보디아, 몽골, 키르기스스탄을 CHN, JPN, CAM, MNG, KGZ로 표기하고 순번은 01부터 시작한다. ‘CHN02’는 중국인 학습자 중 순번 두 번째인 학습자가 산출한 자료라는 의미이다.

12) 이러한 문장이 무조건 헤지 표현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후술하겠으나 헤지 표현은 텍스트에 대한 필자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명제에 대한 가능성, 추측 표현 등을 제외하고, 필자의 담화적 태도가 드러나는 것을 헤지 표현이라고 본다.

대한 기술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투영을 통해 내용이 되는 명제는 뒤에 붙은 절의 ‘content(내용)’의 표현으로서 정립되며 후행하는 술어에 따라 정신적 사고의 내용이나 동사적 과정의 내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Halliday & Matthiessen, 2014:440). 또한 이렇게 투영하는 필자와 투영되는 필자의 출처를 분리하게 되면 필자 자신의 명제를 타인인 것처럼 인용하는 ‘자기 투영’이 다성적(polyphonic) 필자를 상징함으로써 인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쓰기 산출물에서 특히 학술적 텍스트 산출물에서는 이러한 헤지 표현의 적절한 사용이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글의 완성도를 높이므로 학습자들은 한국어 글쓰기 상황에서 이를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Hyland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할 때 참고할 수 있다.¹³⁾

〈표 8〉 헤지 표현 기능 및 주요 구현 방식 정리¹⁴⁾

Content Oriented		Reader-Oriented
Accuracy-Oriented	Writer-Oriented	
Hedges propositional content	Hedges writer commitment	Hedges assertiveness
Attribute type Precision Adverbs: Content disjuncts Style disjuncts downtoners Reliability type Epistemic lexical verbs Modal verbs Epistemic adjectives Epistemic nouns Content disjunct adverbs Limited knowledge	Epistemic lexical verbs: Judgmental Evidential Impersonal expressions: Passive voice Abstract rhetors “empty” subjects Modal verbs Thematic epistemic device Attribution to literature Impersonal reference to: Method Model Experimental conditions	Epistemic lexical verbs: Judgmental Deductive Personal attribution Personal reference to: Methods Model Assume shared goals Hypotheticals conditionals <i>would</i> Involve Reader Direct questions Refer to testability

13) Hyland는 ‘담화(discourse)’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있고 헤지 표현 관련 연구(1996, 1998, 2005)도 꾸준히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기술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기본적인 틀을 잡는 데에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학습자의 실제 자료 분석을 위한 기준 설정에 있어 기존 선행 연구에서 드러나는 한계점, 보완해야 할 점 등이라고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헤지 표현 관련 선행 연구에서 많이 인용되는 그의 연구가 기준이 될 수 있다.

14) ‘Table 2. Summary of Hedging functions and principal realization devices’ (Hyland, 1996:450)

〈표 8〉은 Hyland(1996:450)의 그림을 표로 제시한 것으로 헤지 표현을 몇 개로 나누는 것인데 가장 큰 구분은 ‘명제 지향적 헤지(Content-oriented hedges)’와 ‘독자 지향적 헤지(Reader-oriented hedges)’이다. 명제 지향적 헤지는 다시 ‘정확성 지향적 헤지(Accuracy-oriented hedges)’와 ‘필자 지향적 헤지(Writer-oriented hedges)’로 나눌 수 있고, 정확성 헤지는 다시 ‘상세화 헤지(Attribute hedges)’와 ‘진실성 헤지(Reliability hedges)’로 구분한다.¹⁵⁾ 이러한 구분은 Hyland(1996)가 텍스트 자체에 대한 필자와 독자의 거리를 인식하고 동시에 명제에 대한 모호성(헤지 표현 관련), 명확성(부스터 관련 표현)의 태도를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This implies that the extent to which the endophyte might effect N metabolism under field conditions could also depend considerably upon other interacting factors. (Hyland, 1996:436)

이는 내생식물이 현장 조건에서 N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다른 상호작용 요인에 상당히 의존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5) From our investigations we conclude that the data of Wydrzynski et al can be seen in a differnt light when the adverse effects of Cl deprivation are seen in conjunction with. (Hyland, 1996:436)

우리의 조사에서 Cl 박탈의 역효과를 볼 때 Wydrzynski 등의 데이터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다.

Hyland(1996:436-437)에서 (4)는 명제 지향적 헤지를 나타내는데 이는 텍스트가 진술하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5)는 독자 지향적 헤지를 나타내는데 객관적 범주에서 제시되는 명제는 ‘독자 고려(reader considerations)’로 분명하게 헤지될 수 있다(hedged)고 설명한다. 또한 헤지 표현은 필자가 독자의 승인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장을 정당화할 필요성을 예상하고 독자가 명제를 수용할지, 명제를 부정할지 등에 대한 모든 가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필자는 명제 내용을 신뢰하는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불확실성, 주의, 대인관계 요소(uncertainty, caution, interpersonal factors) 등을 방해하는 헤지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예들에서는 내용뿐만 아니라 사용된 표현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명제 내용을

15) 〈표 8〉의 용어 번역은 김강희(2017:40)를 참고하였고 해당 연구의 ‘헤지’는 본 연구의 ‘헤지 표현’과 같은 의미의 용어이다.

불확실하게 수용하는 태도와 관련한 어휘(imply) 및 문법 표현(might, could also, can be seen), 텍스트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명제 논의와 관련한 표현(our investigations we conclude, different)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앞선 장에서 확인하였듯이 최근 연구로 올수록 과거보다 헤지 표현들이 세부적으로 구분됨을 볼 수 있다.

이 연구에 이어 Hyland(1998:350)에서는 헤지 표현과 함께 '부스터 표현(booster(s))'을 보여주고, 헤지 표현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 ... Hedges and boosters are communicative strategies for increasing or reducing the force of Statements. Their importance in academic discourse lies in their contribution to an appropriate rhetorical and interactive tenor, conveying both epistemic and affective meanings. That is, they not only carry the writer's degree of confidence in the truth of a proposition, but also an attitude to the audience. Boosters, such as clearly, obviously, and of course, allow writers to express conviction and assert a proposition with confidence, representing a strong claim about a state of affairs. ... 헤지와 부스터는 진술의 힘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의사소통적 전략이다. 학술적 담화에서의 둘의 중요성은 적절한 인식론적 의미와 정의적 의미를 모두 전달하는 적절한 수사적, 상호작용적인 것에 있다. 즉, 명제의 진실성에 대한 작가의 확신뿐만 아니라 청중의 태도도 지니는 것이다. '분명하게, 명백하게, 물론'과 같은 부스터는 작가가 확신을 가지고 의견을 표현하고 명제를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이는 상황에 대한 강한 주장을 나타낸다.

Hyland(1998)에서는 헤지 표현과 부스터 표현을 모두 필자(또는 화자)의 담화적 태도를 나타내는 의사소통적 전략임을 인정하면서 담화에서의 둘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즉, 부스터 표현은 작가가 상황에 대해 강한 주장, 확신을 나타낼 때 쓰는 것으로 필자, 화자의 체면 또는 독자, 청자에 대한 공손성 등을 나타내기 위해 주장을 약화하거나 명제를 모호하게 제시하는 헤지와는 분명히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렇게 헤지와 부스터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묶어 제시하기도 한다. 이는 해당 표현들이 담화 상황에서 필자가 공손성이나 체면 등의 어떠한 담화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나 필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yland(1998)의 의견에 동의하여 헤지 표현을 필자의 주장을 약하게 완화하는 표현들이라고 정의하고 그러한 표현들만 헤지 표현으로 분석한다.

최근 한국어교육에서도 김설연·이염(2022), 장아남(2022) 등의 연구를 시작으로 부스터 표현 관련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김설연·이염(2022)에서는 부스터 표현을 헤지 표현의 강화 표현으로 보고, 한중 커머스 라이브에 나타난 헤지 표현과 부스터 표현을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한국어 부스터 표현을 ‘부사, 명사, 관형사, 형용사, 조사, 표현’ 등으로 나누었다. 장아남(2022)에서는 학술대회 논문발표 담화에 나타난 입장 표현(stance marker)에 대해 연구하였다. 크게 인식적 표현과 태도적 표현으로 나누었는데 인식적 표현을 다시 헤지 표현과 부스터 표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텍스트를 헤지 표현과 부스터 표현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학습자의 보다 정확한 언어적 표현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고 더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Hyland(2005:173, 175-177)는 지금까지의 헤지 표현 관련 연구는 텍스트가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정리하면서 이 연구에서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입증한 것을 실제 말뭉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상호작용적 방법으로 텍스트에 나타난 필자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태도(Stance)’와 필자가 독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신의 주장에 따라 끌어당기며 담화 참여자로 포함된 필자 자신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참여(engagement)’를 강조하였다.

(7) ... Results and interpretations need to be presented in ways that readers are likely to find persuasive, and so writers must draw on these to express their positions, represent themselves, and engage their audiences.

... (텍스트의) 결과와 해석은 독자에게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따라서 필자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청중을 참여시켜야 한다.

그러나 Hyland(2005:177)도 언급한 바와 같이 태도와 참여는 매우 맥락적인 문제이므로 텍스트적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분명하게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경우가 어떤 담화 참여자에게는 (텍스트 의미 이해에 필요한 개념의) 상당한 부재(significant absence)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아래의 (8)과 같이 독자를 고려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일부 나타났으나 본 연구의 분석 기준과는 다른 항목으로 묶인다고 보므로 다음 기회에 살펴보고자 한다. 독자를 고려한 표현도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되므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8) 그 근거는 세 개 있기 때문에 소개할 것이다. (JPN01)

결국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텍스트에서 적절한 맥락에 맞게 필자의 의견 및 주장을 독자에게 잘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헤지 표현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분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텍스트에서 각 언어 표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들의 기준들을 모두 받아들여 한 텍스트에서 다양한 헤지 표현을 찾기보다는 특정 기능을 하는 헤지 표현들을 골라 살펴보고 그것들이 학습자 텍스트에서 어떤 중간언어적 기능을 하는지 또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집중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의 언어 표현이 하나의 헤지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맥락에 따라 여러 개의 헤지 표현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을 것임을 상정한다면 범위를 좁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6>의 이슬비(2016:102-124)의 내용 중 일부분으로 범위를 줄여 ‘인식적 양태’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¹⁶⁾ 선행연구들에서도 헤지 표현의 여러 기준들 중에서 가장 모호하게 나타난 부분이 양태 부분이었고, 투영 동사를 사용한 투영 복합 구성의 해석도 맥락에 따라 여러 부분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 학습자 텍스트에서 이런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면서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표 9> 인식적 태도 관련 헤지 표현 분석 기준

구분	헤지 표현
① 투영 동사	•보이다, 보다, 생각하다...
② 투영 동사 복합 구성	•-(으)ㄹ 수 있을 것이다, -을/를 알 수 있다, -다/라고 할 수 있다...
③ 인식 양태 표현	•-(으)ㄹ 수 있다, -(으)ㄹ 것이다...
④ 시상 표현	•-고 있다, -았/었-, -던, -게 되다...

<표 9>는 <표 6>의 ‘인식적 태도’ 중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할 표인데 선행 연구들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앞에서 구분한 명제에 대한 필자의 강한 태도를 나타내는 부스터 표현으로 판단되는 문형인 ‘-(으)ㄹ/는 것이다, -(으)ㄹ 수밖에 없다’ 등은 제외한다. 명확한 의견을 드러내는 ‘분석하다, 주장하다, 파악하다, 판단하다, 평가하다’, ‘당연하다, 명확하다, 물론이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등의 명제 내용의 확신을 드러내는 표현들과 이 표현들의 부사형도 강조를 나타내는 ‘주로, 크게, 특히’ 등도 부스터 표현에 해당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추후에 동일한 방식으로 더 자세하게 분석하겠다. 우선 이러한 분석 기준을 먼저 적용해 보고 분석 진행 중에 나타나는 양상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16) 분석에 사용된 용어 중 일부는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자기 투영 복합 구성 → 투영 동사 복합 구성’

IV. 연구 결과

이 장에서는 <표 9>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모두 4개 항목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고 연구 결과를 서술하고자 한다. 이슬비(2016)의 분석 기준을 중심으로 이준호(2012) 등의 학습자 인식 및 자료를 비교하면서 결과를 분석하는데, 실제 학습자의 인식이나 산출물을 연구 결과물을 함께 살펴보려는 이유는 결국 학습자의 목표는 자연스러운 한국어 학술적 텍스트의 산출이므로 기존에 연구된 것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결과 분석에 타당하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산출한 논설문 40편을 대상으로 총 753 문장, 27,671 어절 중에서 4 종류의 헤지 표현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각 절에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¹⁷⁾

4.1. 투영 동사

선행 연구들에서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투영 동사가 오로지 ‘생각하다’만 나타났다. 이준호(2012)에서도 ‘생각하다’는 ‘동사 중심 표현’에서 핵심이 되는 표현의 항목으로 선택되었고, 이슬비(2016)에서도 ‘보다, 생각하다, 보이다, 생각되다, 파악되다, 파악하다’ 외의 순으로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특히 이준호(2012:293)에서는 ‘소비재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와 같이 투영 동사 앞에 명사화가 필요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9), (10)과 같이 ‘-다고/라고 생각하다’의 형태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슬비(2016:150)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학습자들이 명사화가 필요한 표현, ‘-(으)로, -(으)ㄴ’ 등의 표현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학습자들은 명사화가 필요한 서술어를 사용할 때 오류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형태를 선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단,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의 양이 적으므로 더 많은 양으로 분석한 후에 명확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다양한 학술적 텍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투영 동사에 대해 배웠고 연습 때에도 ‘생각하다’ 외에 다른 동사들을 사용하였으나 분석 자료로 활용한 시험 텍스트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아마 격식적으로 새롭게 배운 형태보다

17) 본 연구에 실는 학습자 예문은 수정 없이 그대로 옮긴다. 본 연구는 언어적으로 완성된 학습자의 쓰기 산출물에 나타난 내용을 살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습자의 오류 또는 중간언어적 산출 자체가 본 연구에서 살펴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수정하지 않는다.

익숙하게 쓰던 형태로 감점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10〉 투영 동사 헤지 표현 사용 양상

구분	개별 헤지 표현	빈도(회) (27,671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도 ¹⁸⁾
투영 동사	생각하다	33	1192.6

(9) 두 번째 세상에 모든 생명이 평등이라고 생각한다. (CHN02)

(10) 나는 동물들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 한다고 생각한다. (CHN04)

(11) 가. 그러나 그 실험은 우리 위해 중요한 것 있는 것 라는 생각하다. (JPN01)

나. 그렇게 동물 실험을 너무 나빠고 무서운 것을 생각한다. (CHN09)

다. 그래서 저는 동물 실험이 해야 하는 생각이다. (CHN12)

또한 (11)의 예문들과 같이 투영 동사 사용의 중간언어적 양상도 찾을 수 있다. 인용조사를 채 익히지 못했거나 서술어 형태가 아니라 명사 형태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생각’이라는 어근 앞에 인용 조사 ‘-고’의 형태 또는 어근 뒤에 ‘하다’ 접사를 붙이기 전 다양한 형태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4.2. 투영 동사 복합 형식

본 연구에서는 ‘-(으)ㄴ 수 있을 것이다’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라고 본다, -을/를 알 수 있다’ 등이 사용되었다. 이슬비(2016)에서는 학습자의 투영 동사 복합 형식 중 ‘-을/를 알 수 있다 > -다/라고 할 수 있다 > -(으)ㄴ 수 있을 것이다 > -다/라고 본다’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앞 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활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명사화 표현이 필요한 헤지 표현은 많이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⁹⁾

18) 옆 칸의 ‘빈도’는 학습자 자료에서 27,671 어절에서 나타난 산출 횟수이고 ‘100만 어절 환산 빈도’는 실제 산출 횟수와 비교를 통하여 나타낸 수치이다. 실제 산출 자료의 양이 유의미하게 많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산하여 비교한다.

19) 함께 비교하는 연구인 이준호(2012)에서는 본 연구와 이슬비(2016)와 같이 복합 형식을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은 다음 절인 ‘4.3. 인식 양태 표현’에서 함께 다룬다.

〈표 11〉 투영 동사 복합 구성 헤지 표현 사용 양상

구분	개별 헤지 표현	빈도(회) (27,671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도
투영 동사 복합 구성	-(으)ㄴ 수 있을 것이다	10	361.4
	-다/라고 본다	4	144.6
	-을/를 알 수 있다	3	108.4
	-다/라고 말할 수 있다	2	72.3
	-다/라고 보인다	1	36.1
	-(으)ㄴ 수 없을 것이다	1	
	-을/를 알 수 없다	1	

- (12) 가. 동물 실험에 실험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장단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MNG01)
 나. 그뿐만 아니라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은 사회에게 많은 위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CHN24)
- (13) 가. 사람이 죽으면 동물보다 큰 문제 될 수도 있다고 본다. (CHN11)
 나. ... 먼저 사람에게 이용해 보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본다. (CAM03)
- (14) 약이나 화장품의 특성과 용양을 정확하게 안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 수 있다. (CHN05)
- (15) 가. ... 연구나 실험하는 것은 이것이랑 같은 의미 라고 말할 수 있다. (JPN01)
 나. ...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동물 실험이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KGZ01)

그리고 특이할 만한 점은 ‘-다/라고 할 수 있다’는 산출되지 않았는데 ‘-다/라고 말할 수 있다’의 형태로 산출한 학습자가 2명 있었고 이러한 문장을 각각 1개씩 산출하였다. ‘보다/보이다’가 그러하듯이 Halliday의 ‘protection(투영)’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 ‘말하다’도 필자의 주관적 태도가 드러나는 투영 동사로 볼 수 있다.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 = 의미라고 할 수 있다 = 의미라고 볼 수 있다 = 의미라고 보인다’ 등으로 바뀌어도 의미 변화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4.3. 인식 양태 표현

학습자는 자신의 인식을 표현하기 위한 양태 표현으로 ‘-(으)ㄴ 수 있다’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으)ㄴ 것이다, -(으)ㄴ 수 없다’ 등을 사용하였다. 명제 내용의 가능성을 나타내거나 추측을 나타내는 인식 양태 표현으로 ‘-(으)ㄴ 수 있다’를 많이

선택한 것이다.

이슬비(2016)에서는 ‘는 것이다 > -(으)ㄴ 수 있다 > -(으)ㄴ 것이다’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는 것이다’의 분류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헤지 표현으로 분류한 ‘는 것이다’를 부스터 표현으로 보고 제외하였다. ‘3.3’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필자 태도를 약화시켜 텍스트의 내용을 비단언적으로 표현하는 헤지 표현과 필자 태도를 강하게 표현하는 부스터는 각기 다른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게 되므로 당연히 구분하여 분석해야 한다.

(16) 그래서 이런 공손하지 못한 그런 문법 항목을 사용하는 경우를 청자 지향 제약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문법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바로 청자에게, 청자와의 관계에 있는 거죠.

(장아남 2022:235)

‘는 것이다’는 선행 문장 또는 선행절의 내용에 확신을 가지는 부스터 표현으로서 ‘즉’ 등의 무엇을 명확하게 가리키는 ‘바로’의 의미를 가지는 접속부사와도 잘 어울린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헤지 표현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표현을 제외하고 ‘-(으)ㄴ 것이다’는 헤지 표현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으)ㄴ 수 있다’가 많이 사용된 이유를 살펴보면, 이는 필자의 주제 이해도 및 주제 자체와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이슬비(2016:40)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논문을 쓰는 과제이므로 필자인 학습자들이 선택한 주제로 전문적인 배경지식을 가지고 글을 서술할 수 있을 것이고, 게다가 연구 참여자 중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습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언어적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교양 과목의 시험 상황이었고 주제도 교수자가 지정하여 시험 당일 처음 보는 주제였으므로 관련 주제의 정확한 지식보다 보다 자신의 경험이나 이미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표 12〉 인식 양태 헤지 표현 사용 양상

구분	개별 헤지 표현	빈도(회) (27,671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도
인식 양태 표현	-(으)ㄴ 수 있다	89	3216.4
	-(으)ㄴ 것이다	32	1156.4
	-(으)ㄴ 수 없다	24	867.3
	-(으)ㄴ 수도 있다	8	289.1
	듯하다	1	36.1
	만하다	1	

(17) 사람들은 동물의 어떤 우량한 특징을 이용하고 우리 주변의 생활 환경 또는 우리 지구의 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 (CHN15)

(18) 세상에 사람이 없어진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JPN05)

(19) 미래에는 사람들과 동물들은 함께 지구에서 행복하게 생활해야 할 것이다. (CHN24)

(20) 동물 실험할 때 불량상황이나 부장용이 너무 심하면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없다. (CHN20)

(21) 부작용이 생긴다면 동물이 사람보다 낫다고 하여 기술을 통해 그 동물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CHN11)

‘-(으)ㄴ 수 있다’는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 초기에 배우는 문형이기도 하고 ‘가능성, 추측’ 등의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 문형이기 때문에 쉽게 선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으)ㄴ 것이다’ 형태는 교재 또는 기관마다 다르겠으나 보통 한국어 학습 초급 후반 중급 초반에 ‘반말’을 배우면서 구분하게 되는 문형이다. 한국어 학습은 구어에서 문어로 진행되는데 ‘-(으)ㄴ 거예요’를 초급 초기에 먼저 배우고 후에 ‘-(으)ㄴ 것이다’를 배우기 때문에 반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구어와 문어를 구분하게 된다. 따라서 ‘-(으)ㄴ 것이다’는 문어에서만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더 나아가 격식적 구어에서는 ‘-(으)ㄴ 것입니다, -(으)ㄴ 겁니다’를 사용하는 것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한국어교육을 정규 과정으로 공부했다면 수준별, 체계적으로 학습이 되므로 문어적 표현을 오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에 있어서는 문맥적으로 실수가 없을 것이다.

이준호(2012:280-281)에서도 ‘-(으)ㄴ 수 있다, -(으)ㄴ 것이다’가 각각 70%, 60%로 해당 연구에서는 높은 비율로 학습자들이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이유를 전성어미 ‘ㄴ’에서 찾고 있다. 그는 문형에 이것이 포함될 경우 미래 혹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헤지 표현을 선택할 때에도 쉽게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4. 시상 표현

학습자들은 시상 표현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았/었-’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고 있다 > -아/어지다 > -게 되다’ 등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 결과도 이슬비(2016:154-155)와 유사한데 그는 학습자들이 과거 사실을 보고 중심으로 기술하기 때문이며 현재 시제로 이루어지는 논리적 논증 과정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의 연구는 학습자와

한국인의 텍스트를 비교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한국인의 텍스트에서는 ‘-고 있다 > -았/었- > -던 > -게 되다’의 순으로 나타나 학습자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거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았/었-’을 쓰는 경우와 과거의 중단 또는 미완을 나타내는 ‘-던’을 사용하여 나타내는 양상은 다른데 그 부분에서 두 그룹은 차이를 보였다.

〈표 13〉 시상 헤지 표현 사용 양상

구분	개별 헤지 표현	빈도(회) (27,671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도
시상 표현	-았/었-	36	1301.0
	-고 있다	30	1084.2
	-아/어지다	29	1048.0
	-게 되다	18	650.5
	-아/어 있다	2	72.3
	-던	1	36.1
	-았/었던	1	

(22) 동물 실험중에서 얼마나 동물은 그 실험 때문에 자기 생명이 없고 고통에서 죽었다. (CHN03)

(23) 사람들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약이나 화장품을 생성할 때에 동물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고 있다. (CHN06)

(24) 그렇게 보면 동물 시험을 진행하는 것의 좋은 점을 밝혀지고 있다. (CHN15)

(25) 실험 때문에 살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으며 동물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 (JPN05)

본 연구에서도 ‘-던, -았/었던’이 사용되었으나 각 1회에 그쳐 다양한 과거의 양상을 보여주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형의 용법을 몰라서라기보다 주제가 이 해당 문형을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틀릴까 봐 미리 문형 사용을 회피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4.5. 기타

본 절에서는 학습자들의 중간언어적 모습을 보이는 예문들을 보이고 어떤 이유 때문에

오류를 나타냈는지 생각해 보고 어떠한 교육적 처치가 필요할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26) 가. 그렇게 동물 실험을 너무 나빠고 무서운 것을 생각한다(✓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CHN09)

나. 저는 동물 실험을 해야 하는 생각이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CHN10)

다. ... 동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게 안 된다고 생각이다(✓안 된다고 생각한다). (CHN19)

(26)의 예문들은 ‘-다고/라고 생각하다’의 문형에 나타난 오류들이다. 인용조사를 잘 사용하지 못했거나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한 후에 바로 명사가 붙어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텍스트 안에서 사용되는 모습은 적절해 보이므로 형태적인 부분만 강화하면 문형의 정확성 지도를 통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27) 가. 그러므로 동물들이 불상하다는 우려가 없어질 수도 된다(✓없어질 수도 있다, 없어질지도 모른다). (CHN04)

나. ... 원래 있던 모습을 찾기 어렵고 동물도 없어질 수도 모른다(✓없어질 수도 있다, 없어질지도 모른다). (CHN11)

(27)은 ‘-(으)ㄴ 수 있다, -(으)ㄴ 수도 있다’ 등의 문형 또는 ‘-(으)ㄴ지도 모른다’의 문형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 학습자들은 많은 부분에서 복합 형식(chunk)의 조합을 어려워하여 오류문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의미를 헷갈리거나 문형의 형태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로 보인다.

(28) 가. 시대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만드는 약이나 화장품 또 다른 먹는 거나 쓰는 것이 많아질 것 같다(✓많아질 것이다). (CHN04)

나. 미래에 경제와 기술을 발달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기 바란다(✓찾아야 한다, 찾아야 할 것이다, 찾는 것이 좋다). (CHN17)

다. 이렇게 하면 동물들도 많이 죽지 않고 사람들은 동물 실험을 더 찬성할겠다(✓찬성할 것이다, 찬성하게 될 것이다). (CHN10)

(28)은 격식적 글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으)ㄴ 것 같다, -기 바란다, -겠-’의 사용을 나타낸 것이다. 학습자들은 추측 표현으로 ‘-(으)ㄴ 것 같다’ 문형을 초급에서부터 배우는데 문어와 구어의 구분이 잘 되지 않으면 격식적 문어에 이러한 문형을 쓰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기 바라다’ 형태도 학습자들이 많이 쓰는 희망 표현 중의 하나인데 ‘-(으)면 좋겠어요’의 희망, 바람을 나타내는 문형을 급수가 올라가고 문체가 바뀔 때 보통 ‘-기 바라다’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습자들은 ‘-겠-’도 추측을 나타내는 문형으로 초급에서부터 배운다. 즉 (28)에 제시된 예문들은 문어와 구어에 적합한 문형 선택에 실패하여 나타난 양상이라고 보이며 문체에 따른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9) 가. 최근 다양한 약 및 화장품이 판매하게 되고 있다(✓판매되고 있다). (JPN04)

나. 동물은 말을 못 하지만 생각도 우리가 알 수 못 하지만(✓알 수 없지만, 알지 못하지만)... (CHN21)

다. 어떤 사람들은 동물로 실험을 하는 것이 필요 있다고(✓필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하나... (CHN23)

(29가)의 서술어가 피동형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앞의 조사가 ‘이/가’이기 때문이다. ‘판매되다’를 써야 하는데 ‘판매하게 되다’와 ‘-고 있다’를 함께 쓰고 있어 오류문이 되었다. 이것도 여러 문형을 복합적으로 쓸 때 혼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29나)의 형태도 학습자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 중의 하나인데 ‘-(으)ㄴ 수 있다/없다’와 ‘-지 못하다’의 형태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29다)는 매우 많은 학습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명사와 접사가 붙은 ‘필요하다, 중요하다’와 같은 형용사 단어와 ‘공부하다, 사랑하다’와 같은 동사 단어의 혼동이 그것이다. 품사에 따른 혼동으로 인한 오류는 많은 한국어교육 선행연구에서도 보이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확하게 품사를 인식하고 시제에 맞게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다.

V. 결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없던 학문 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텍스트에 헤지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어떻게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서 출발하였다. 학문 목적 외국인 학습자의 산출 텍스트에 나타난 헤지 표현을 살펴보면서 중간언어적 형태를 살펴보고,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헤지 표현 중 인식적 태도와 관련된 표현들을 ① 투영 동사, ② 투영 동사 복합 구성, ③ 인식 양태 표현, ④ 시상 표현’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실제 학습자 논설문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① 투영 동사’ 헤지 표현은 선행연구들에서보다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명사화가 필요한 서술어 사용 시 오류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은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② 투영 동사 복합 구성’ 헤지 표현은 선행연구에서는 보이지 않은 필자의 주관적 태도가 드러나는 투영 동사 ‘말하다’가 새롭게 관찰되었다. ‘③ 인식 양태 표현’ 헤지 표현은 선행연구들과 같이 ‘-(으)ㄴ 수 있다’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선행연구들에서 혼재된 의미로 사용된 헤지 표현과 부스터 표현을 나누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④ 시상 표현’ 헤지 표현은 ‘-았/었- > -고 있다 > -아/어지다 > -게 되다’의 순으로 나타나 학습자들이 과거 사실 기술을 선호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더 많은 학습자의 자료를 통해 더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후속 과제로 남는다. 기존의 다수 연구들에서는 헤지 표현과 부스터 표현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여 단순히 필자의 태도를 나타냈으나 이 둘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습자는 결국 목표어의 담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해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적은 수의 자료 분석, 학습자 모국어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에 이를 더 보완할 것이다. 또한 문어에서도 다양한 장르적 특성을 가진 텍스트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구어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덧붙여 언어권별, 성별 등을 고려한 분석, 격식적, 비격식적 상황에서의 담화 텍스트도 충분히 분석해 볼 만하다.



- 강수진·이미혜. 2019. “유학생 학위논문에서의 헤지 표현 사용 연구: 한국어 교육 전공을 중심으로.” 『교과교육학연구』 23(5), 478-486.
- 김강희. 2017. “헤지 문법 항목으로서의 ‘고요’, ‘거든요’, ‘는데요’ 연구.” 『언어학연구』 0(44), 35-51.
- 김설연·이엽. 2022. “한중 라이브 커머스에서 나타난 헤지 표현 및 부스터 표현의 사용 양상 연구.” 『반교어문학회』 0(61), 105-130.
- 류지현. 2019. “한국어 헤지 표현 교육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미영. 2016. “말뭉치 기반 연구 방법을 사용한 한국어 학술 텍스트의 헤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영·이미혜. 2018.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학위논문의 고빈도 헤지 표현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외국어교육)』, 25(3), 225-246.
- 신명선. 2006. “국어 학술텍스트에 드러난 헤지(Hedge) 표현에 대한 연구.” 『배달말』 38, 151-180.
- 신영주. 2011. “한국어 학위 논문 서론의 완화 표지 사용 양상.”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호연. 2013. “한국인과 유학생의 학위논문 결과: 논 의 부분에 나타난 완화표지 사용 양상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인박·김한근. 2022. “한국어 헤지 표현의 연구 동향 분석: 한국어교육을 위한 연구 목적별 경향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76, 129-167.
- 윤나영. 2022. “한국어 안내 구어 텍스트에 나타난 헤지 연구.” 『한국어와 문화』 32, 161-182.
- 이슬비. 2016. “한국어 학술 텍스트의 필자 태도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아름. 2018.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헤지(Hedge) 표현 제시 방안.”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8(9), 119-140.
- 이엽·JIN XUEYAN. 2022. “학술지 논문에 나타난 중국어권 학습자의 헤지 표현 사용

- 양상 연구: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33(3), 167-205.
- 이준호. 2012.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한국어 헤지 표현 선정 연구.” 『이중언어학』 49, 269-297.
 - 임진숙. 2021. “한국어 안내 구어 텍스트에 나타난 헤지 연구: 한국어능력시험 듣기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2(3), 87-113.
 - 장아남. 2021. “한국어 학술텍스트의 부스터 표현 사용 양상 연구: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32(2), 261-283.
 - 장아남. 2022. “학술대회 논문발표 담화에 나타난 한국어 입장 표현에 대한 연구.” 『한국어교육』 33(3), 207-242.
 - 조은영·총니. 2022. “중국인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쓰기 특징과 모국어 쓰기 특징 비교 연구.” 『문화와 융합』 44(5), 75-98.
 - 하완. 2021. “한국어 교재 대화문의 헤지(hedge) 표현 제시 양상 분석 연구: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재를 대상으로.” 『한국어문교육』 35, 327-360.
 - 한강우. 2022.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영역 54번 문항 답안 작성 방안 연구: 글의 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4), 201-233.
 - Brown, P. & Levinson, S.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Fraser, B. 1975. Hedged performatives, in P. Cole, and J. L.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speech acts*(187-210). New York: Harcourt Brace and Jovanovich.
 - Fraser, B. 1980. “Conversational mitigation,” *Journal of Pragmatics* 4(4), 341-350.
 - Hübler, A. 1983. *Understatements and hedges in English*. Amsterdam: John Benjamins.
 - Hyland, K. 1996. “Writing without conviction? Hedging in scientific research articles,” *Applied Linguistics* 17(4), 433-454.
 - Hyland, K. 1998. “Boosting, hedging and the negotiation of academic knowledge,” *Text* 18(3), 349-382.
 - Hyland, K. 2005. “Stance and engagement: a model of interaction in academic discourse,” *Discourse Studies* 7, 173-192.
 - Lakoff, G. 1973. “Hedges: A Study in Meaning criteria and the Logic of Fussy

concepts.” *Journal of Philosophical Logic* 2, 458-508.

- Markkannen, R. & Schröder, H. 1997. Hedging: A challenge for pragmatics and discourse analys in R. Markkannen & H. Schröder (Eds), *Hedging and Discourse*(3-18). Walter de Gruyter.
- Prince, E. F. & Frader, J. & Bosk, C. 1982. On hedging in physician-physician discourse". in R. J. Di Pierto, (Ed.), *Linguistics and the professions*(83-97). Norwood, N. J.: Ablex.

● 투고일: 2022.12.26. ● 심사일: 2023.01.25. ● 게재확정일: 2023.02.20.

| Abstract |

A Study on the Hedges of Foreign Students' Persuasive Writing

CHOI Boseon (Center for Multiculturalism and Social Policy, Daeg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use of hedges in a persuasive writing by foreign undergraduate students studying at universities in Korea and to find educational implications. In addition,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hedges shown in prior studies are summarized. And it was started to supplement two parts that appeared almost in common in prior studies. First, the studies on hedges related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focused on analyzing academic text of graduate students, but the studies on hedges in various writing of various learners is needed. Second, there are many studies that do not distinguish between hedges and boosters, but the functions of each expression are different, so it must be distinguished.

In this study, the hedges in the persuasive writing was divided into four parts: 'projective verbs, composite forms of projective verbs, epistemic modality expressions, tense-aspect expressions', and the pattern of foreign students' use of hedges and interlanguage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prior studies, and the recognition of hedges and actual output of foreign students were compared to discuss future educational measures.

<Key words> Hedges, Boosters, Epistemic Modality, Persuasive Writing, Academic text, Korean Language Learners for Academic Purpose

유학생의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안 연구*

- 베트남 유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



이 윤 주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ubhyunju@hanmail.net)

국문요약

이 연구는 이민 사회 도래에 따라 베트남 유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 장기체류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정주형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우선 외국인정책기본계획(제1~4차) 수립에 나타난 유학정책을 살펴보고, 급격히 증가한 베트남 유학생 및 베트남 국적 외국인 현황뿐 아니라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이것을 토대로 면담지를 구성한 후, 베트남 국적 유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후 어학연수(D-4), 학부(D-2), 대학원 진학(D-2-3), 구직비자(D-10), 비전문취업비자(E-9), 특정활동전문비자(E-7), 거주(F-2), 지역특화형(F-2-R) 영주(F-5), 귀화로 이어지는 ‘연계형 교육과정’ 즉, ‘한국 정주 주기별 교육과정’ 방안을 개발하였다. 이는 초국가주의 관점에 기초한 유학정책과 교육혁신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총체적 의미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주제어 : 초국가주의 외국인 유학생, 이민 사회, 베트남 국적 외국인, 한국 정주 주기별 한국어 교육과정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21S1A5B8096275)이며,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수정 보완하였다.

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이민 사회 도래에 따라 베트남 유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체류 장기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국내 체류외국인¹⁾은 COVID-19 발생 이전 이민 250만 명에 육박하여 전국적으로 전체 인구의 4%를 넘어섰으며, 국적(지역)별·연도별 입국자 현황 분포에 있어 베트남 국적 외국인 수만 해도 작년 대비 888.5% 증가하였다^{별첨 참조}. 이처럼 이미 외국인은 한국 사회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상황을 공감하며 차이를 인정하는 공존적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유학생의 경우 1967년 외국인 우수 인재 선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양적은 물론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이윤주, 2022:144),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 시마다 유입·유치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전체 체류외국인의 7.6%, 장기체류 외국인의 10.9%에 해당하며, 그 규모는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학위과정 유학(D-2)과 어학연수(D-4)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COVID-19로 인해 어학연수 유학이 급감한 상황이지만 2022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중국 국적 유학생이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 이후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재 베트남 유학생이 중국 유학생보다 만 여 명이 더 많다²⁾.

외국인 유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몇몇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학 학업 수행에 부족한 한국어 실력, 그리고 한국의 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이해 결여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학업 수행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보다 대학 생활과 한국 문화를 익히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것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전규미 외 2019; 차숙정, 2022).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과정 진단이 필요하다. 김명광(2019:11-14)은 학문 목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려는 외국인 학습자이지만 오늘날 국제 이주가 세계의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한국어교육의 수요 신장과 다변화에 따라 한국어 교육과정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의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및 90일 미만 체류할 목적의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한 총 국내 체류외국인을 의미함.

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2년 11월호 참조.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검색일 2022.12.23).

설계가 해당 목적³⁾에 맞게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사회적 공감을 통한 압력이 선행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급격히 증가한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면담을 통해 한국 유학 생활 적응 및 한국 사회 이주 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장기체류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한국 정주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 가능성을 가늠해 보기 위해 우선 외국인정책기본 계획 수립에 나타난 유학정책을 살펴보고, 급격히 증가한 베트남 유학생 및 베트남 국적 외국인 현황 및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과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을 토대로 면담지를 구성한 후, 어학연수비자(D-4), 학위과정비자(D-2), 구직비자(D-10)를 거쳐 비전문취업비자(E-9) 또는 특정활동전문비자(E-7)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목적(유형)에 따른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초국가주의 관점에 기초한 유학정책과 교육혁신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총체적 의미의 한국 사회 정주형 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2.1.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정책

외국인 유학생 수는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18만 명이 유입되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다가 COVID-19의 확산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현재 점차 증가하여 COVID-19 이전 수준보다 만여 명이 증가한 197,988명에 이르렀다⁴⁾. 한류, 선진 한국, 경제적 요인, 국가 인지도, 유학 절차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을 유학지로 선택하고 있다. 한편, 이민 사회에 먼저 도래한 호주 등에서는 해외에서 바로 유입되는 이민자보다 자국에서 유학 생활을 경험하고 졸업한 유학생이 생산성이 더 높고 호주 사회 적응에 드는 비용도 적게 든다는 점에서 유학 경로를 통한 인재

3) 김명광(2019:11)에서는 한국어 학습자 목적을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 목적, 학문 목적, 취업 또는 근로 목적, 한국 사회 적응 목적, 한국인의 사고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 고양 목적, 기타 목적으로 구분하였다.

4)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 증감 추이(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2년 11월호 참조.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검색일 2022.12.23).

확보 및 정주 이민자 확보 비중을 상대적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어, 우리의 이민정책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잠재적 우수 인재 및 전문인력 육성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주요 유입·유치 대상으로 삼고 있다(외국인정책기본계획수립 제1~4차 참조).

그간 우리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2007년 5월에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2008년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시작으로, 5개년 단위로 수립되어 제2차(2013~2017), 제3차(2018~2022), 제4차 예정(2023~2027)으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제1~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제시된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제1~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시기	비전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제1차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일류국가 (4대 영역: 13대 중점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 <u>우수인재에 대한 입국문화 확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제도 개선을 통한 우수인재 유치 촉진 -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제공 - 국적제도 개선 ● <u>국가 차원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인력 발굴 및 유치 지원 - 우수 유학생 유치 및 활용 지원 강화 - 외국인 공무원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유치 지원
제2차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5대 영역: 19대 중점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학생 유치 ● <u>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조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장학프로그램의 전략적 추진(교과부) - 우수유학생 유치 전담기관 지정·육성(교과부) - 유학생 한국생활 여건 개선(교과부, 문화부) - 해외 유수의 교육기관 및 해외학자 유치 확대(교과부)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1년 11월	'22년 11월
총 계	135,087	160,671	180,131	153,361	163,699	168,194	197,988
유 학(D-2)	86,875	102,690	118,254	101,810	111,178	117,335	137,311
한국어연수(D-4-1)	48,208	57,971	61,867	51,545	52,506	50,850	60,650
외국어연수(D-4-7)	4	10	10	6	15	9	27
전년대비증감률	16.5%	18.9%	12.1%	-14.9%	6.7%	-	17.7%

시기	비전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유학생 관리 및 활용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정착(교과부, 법무부) - 글로벌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교과부, 지경부)
제3차	<p>국민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p> <p>(6대 영역: 18대 중점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 유치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기반 조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장학프로그램(GKS)의 확대 - 유학생 유치 및 관리체계 강화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통한 유학 환경 조성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기준 강화 -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 교육부의 유학생 전략적 유치·활용 전략에 대한 지원과 협력 - 우수 지방대학 유학생 유치 활성화 - 주요국의 사례 연구와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개발 ● <u>해외우수교육기관 및 해외학자유치</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국제화와 경쟁력 제고 - 우수연구인력 확보 및 지한파 인재 양성 - 대학의 질 향상을 통해 만성적인 유학생 연수수지 적자 해결 ● <u>유학생 출신국가의 다변화 추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 출신국의 다변화 필요
제4차	<p>국민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p> <p>(8대 영역: 25대 중점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입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육성형 이민정책에 입각한 유학생 유치</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의 체류와 사회통합의 연계 강화 - 유학생 유치조건을 통한 우수인재 영입 - 유학생의 도입-양성-활용을 연계한 종합적 계획수립 ● <u>체류와 통합을 연계한 예측가능한 비자 경로 구축</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측 가능한 체계적 비자 경로 로드맵 구축 - 체류와 통합 경로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 사증제도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유입·유치 이민정책 -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구성원 관점의 국적부여 제도 개선

「제1차 기본계획」에서 우수인재 유치, 이민자 사회 적응 지원 등 새로운 정책 분야가 도입되어 기반을 조성하였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국민의 다양하고 상반된 요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균형 잡힌 정책 기조 유지로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중심이다. 그리고 「제3차 기본계획」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기반과 제도 조성에 따라 국제화된 캠퍼스 조성을 통해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개방성 확대 및 글로벌 수준의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중점에 두었다. 특히 「제4차 기본계획」의 영역별 중점과제 제안을 살펴보면, 유입-유치에 있어 육성형 이민정책에 입각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항목이 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와 사회통합의 연계 강화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조건외 다변화를 통한 우수 인재 영입, 외국인 유학생의 도입-양성-활용을 연계한 종합적 계획수립 등을 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고학력자로 잠재적 전문(숙련, skilled)인력이자, 학위 과정 동안 한국 문화에 대해 습득하고 한국어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점 등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노동시장의 생산성 측면에서도 빠르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송해련(2022)은 미래의 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정착 국가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가가치 창출의 장점을 갖는다고 하였다.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결과(2022)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 규모 변화와 함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산업구조 고도화 등 양질의 일자리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이 유입되고, 국내에서 필요한 인재로 양성된다면 인력 활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주지하자면 외국인 유학생은 상당 기간 한국 체류를 통해 이미 ‘한국화’된 외국인이므로 체류 규제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취업 교육을 제공한다면 자신의 역량에 따라 한국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자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주 주기에 맞춰 이루어지는 연계적이며 지속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발에 앞서 요구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 및 베트남 국적 외국인 현황 분석은 이민 사회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정주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이민 사회에 가장 중요한 언어교육 즉, 한국어교육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2. 베트남 유학생 및 베트남 국적 외국인 현황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197,988명으로 약 20만 명에 이르며,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외국인 유학생 국적별 현황⁵⁾

구 분	총 계(명)	유학(D-2)	한국어연수(D-4-1)	외국어연수(D-4-7)
총계	197,988	137,311	60,650	27
베트남	69,780	32,201	37,576	3
중 국 ⁶⁾	59,432	53,599	5,833	0
한국계	560	555	5	0
우즈베키스탄	11,448	9,579	1,869	0
몽골	10,861	6,350	4,511	0
일본	5,476	3,077	2,399	0
네팔	2,756	2,585	170	1
미얀마	2,650	1,063	1,587	0
인도네시아	2,517	2,192	325	0
미국	2,376	2,081	294	1
프랑스	2,170	1,864	306	0

베트남 국적 유학생은 유학(D-2) 32,201명, 한국어연수(D-4) 37,576명, 외국어연수(D-4-7) 3명으로 총 69,780명을 차지하며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 197,988명 중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한다. 이윤주 외(2022:17)에서는 중국과 베트남 유학생 수의 연도별 추이는 중국 국적 유학생이 2019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베트남 국적 유학생은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중국 국적보다 더 많은 유학생이 한국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수학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체류외국인 분포에서도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 다른 국적 외국인보다 국적(지역)별·연도별 외국인 입국자 현황, 체류 외국인 연도별·국적(지역)별 현황,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현황, 특정활동전문비자(E-7) 유형별 및 국적별 현황 등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별첨] 자료를 살펴보면, 연도별·국적(지역)별 현황에서 총 체류외국인 2,194,780명

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2년 11월호 참조 (검색일 2022.12.23).

6) 한국계 포함

중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233,660명으로 중국(한국계 포함) 국적 외국인 다음으로 높았다. 또한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 현황에서도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총 445,235명 중 45,397명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특정활동전문비자(E-7) 유형별 및 국적별 현황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23,020개 전체 직종에서 4,187개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전문인력(67개), 일반기능인력(8개), 숙련기능인력(3개)에서 중국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한국 내 베트남 유학생 및 베트남 국적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 원인은 베트남 현지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으로, 유학생은 베트남 내 한국 기업에 대한 베트남인의 취업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유학을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 정부가 고용허가제도를 실시한 2004년 이후로, 고용허가제 허가를 받아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현재에는 연수생, 유학 후 취업, 친척방문, 계절 근로 등 여러 가지 유입 경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다(전혜정·이가연, 2015; 전혜정, 2019).

게다가 이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의 경우,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전체 169,800명 중 39,358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의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적 취득 현황에서도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2017년 3,743명, 2018년 4,849명, 2019년 3,867명, 2020년 4,076명, 2021년 4,225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별첨 참조)

이같이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에, 이민 사회의 갈등을 예방하고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베트남 유학생 및 베트남 국적 외국인의 인식에 관한 진단이 필요하다. 박종호(2021:38)는 베트남 유학생들의 한국어교육 측면에서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베트남 유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외적 요인을 분석하여 한국어교육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먼저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연구 및 베트남 유학생의 요구 조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3.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교양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김명광(2021)은 각 대학이 인성교육의 기반이 되는 교양교육과정의 확대와 인문학적인 부분의 강화 발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지만 동일한 시기에 각 대학이 유사하게 외국인 유학생의 교양교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교양교육의

변화 발전 방안에 자연스럽게 글로벌 교육으로 이해되는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한국학 교육을 위한 한국어’ 등의 교육과정이 함께 다루어졌다고 하였다.

일례로 [그림 1]을 살펴보면, 고려대학교는 교양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이 필수 과목이 되도록 공통과정과 선택과정으로 나누어 편성하였다. 공통과정은 학업 역량 다섯 가지 요소(언어적 역량, 지식 역량, 기술 역량, 인지적 역량, 정의적 역량)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과정은 학습자 필요에 따라 특정 역량을 선택하게 하였다.

교양 교육 과정	공통	고급	언어적 역량+기술 역량(2)	지적 역량(3)
			인지적 역량 + 정의적 역량	
		중급	언어적 역량+기술 역량(3)	지적 역량(2)
			인지적 역량 + 정의적 역량	
		초급	언어적 역량+기술 역량(4)	지적 역량(1)
	인지적 역량 + 정의적 역량			
선택	*			

교양 교육 과목	한국어	일반한국어, 한국어 말하기, 한국어 읽기, 한국어 쓰기, 한국어능력시험, 시사한국어, 학문목적 한국어, 사고와 표현, 학문적 글쓰기
	기초이론	일반화학, 일반물리학, 미적분학, 일반물리학, 철학적 사유, 동서양 문화와 문명
	한국의 이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 대중문화, 북한의 이해, 한국 경제
	기타	요가와 명상

[그림 1] 고려대학교 외국인 교양과정 및 교양교육 교과목 구성

특이한 점은 공통과정에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수준별로 구분하여 학습자 개인 역량에 대한 학습 중점 분포를 고려하여 설계하였으며, 교양교육 과목으로 한국어, 기초이론, 한국의 이해, 기타 유형으로 나누었다. 한국어의 경우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와 같은 언어기능 교과목을, 기초이론의 경우 교양 수준의 교과목을, 한국 문화의 경우 한국 사회와 문화를 주제별로 나누어 교과목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로 요가, 명상을 교과목으로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다양한 목적의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새롭게 접근한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김종일(2017)은 대학 특성화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모형 구안에 앞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 부적응 요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만을 위해 제공되는 교양과정과 각 대학의 유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대체로 ‘분리형’, ‘통합형’, ‘거주형’이 있는데, 국내 대학에서는 보편적으로 ‘분리형’을 취하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부적응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최초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부터 대학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전제 아래, ‘이해 중심 교육과정’을 제안하였으며 ‘학습자 중심의 ‘특성화 교육과정’이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민경(2021)은 매체에 의한 한국어 교수·학습을 통해 한국어 매체 문식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 이는 언어의 사회적 기능과 실현에 초점을 두는 기능 문법(Functional Grammar)에 바탕을 둔 것으로, 매체 한국어는 문자와 음성, 시각 언어를 결합한 통합적 언어의 차원에서 한국어 소통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또한 매체에 담긴 한국어와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해석 및 비판적 사고 능력 신장은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한국 사회 내 주도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2007년을 기점으로 근래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유입되는 베트남 유학생 및 베트남 국적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면서 베트남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도 증가하였다. 응웬티꾸잉안(2020)은 베트남과 한국에서 발표된 베트남 관련 한국어교육 연구(논문, 보고서, 단행본, 교재 포함) 총 390편을 선정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최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내 발표 논문이 176편으로 전체 45%이며, 박사학위 24편, 석사 213편, 학술논문 122편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주제별로는 한국어교육 일반 40편, 한국어교육 내용 148편, 교수·학습 87편, 대조 연구 78편, 통·번역 6편, 기타 31편으로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교수·학습에서 교육과정 개발 관련 연구는 석사 4편, 박사 2편으로 학위 논문에서만 나타났음을 밝혔다. 이는 지식의 확장과 공유를 위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며 토론하는 장인 학술지 연구가 없다는 것은 베트남 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 전문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며(남은영 외, 2019:104), 심지어 근래의 베트남인 학습자 대상의 실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기초적인 교육과정의 개설이나 개선 방안 등을 논한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강수정 외, 2021:228). 특히 이정민 외(2022)에서는 베트남 유학생들이 경험한 학습은 결코 장소에 국한되어 일어나지 않으므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연계, 대학 내의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교육적 대응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조현용(2018)은 베트남인 유학생들의 경우, 어학연수 이후에 학부 및 대학원에까지 진학하는 비율이 높기에 이들을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이들이 학부, 대학원에 수월하게 입학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베트남 유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나 전문적인 교재 개발 연구가 미비하며, 한국어교육 연구들이 다양화되었지만 질적으로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유학(D-2)하고 구직(D-10) 활동을 통해 비전문활동비자(E-9), 특정활동전문비자(E-7)를 받은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한국 유학 경험을 탐색하고,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를 위한 효용성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 동기 심층 면담

3.1. 연구 방법

이 글은 베트남 유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방안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에 연구에 필요한 특성을 갖춘 연구 참여자의 심층 면담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에 어학연수를 와, 학부 또는 석박사 학위 과정을 졸업하고 구직활동을 거친 후, 한국 회사에 취업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 목록은 <표 3>과 같다.

<표 3> 외국인 유학생 관련 사증(VISA) 발급 목록

사증 구분	채류자격별 분류				
어학연수	대학부설어학원연수 (D-4-1)		초중고생 (D-4-3)	외국어연수 (D-4-7)	
유학	전문학사 (D-2-1)	학사유학 (D-2-2)	석사유학 (D-2-3)	박사유학 (D-2-4)	
	연구유학 (D-2-5)	(학사)교환학생 (D-2-6)	일-학습연계 (D-2-7)	단기유학 (D-2-8)	교환학생 (D-2-F)
전문직 취업 ⁷⁾	구직활동(D-10-1)			창업준비(D-10-2)	
투자/경영 ⁸⁾	외국인 투자(D-8-1~4)		무역교류거래(D-9-1)	경영영리사업(D-9-4)	
지역 맞춤형 ⁹⁾	지역특화형(F-2-R)				

7) D-10 구직비자는 국내 기업에 정식 취업하기 전에 구직 활동 및 인턴 과정을 밟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채류자격이다. 주로 한국에서 유학을 마친 대학생들이 이 비자를 받는다. 최대 2년으로 본인 전공과 관련된 직종을 찾아야 특정활동전문(E-7)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연구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였으며 2022년 12월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베트남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국에 유학(D-2 또는 D-2-1)을 와서 학업을 마친 후 구직비자(D-10)를 받고 나서, 구직활동을 통해 비전문취업비자(E-9) 또는 특정활동전문비자(E-7)를 받은 5명이다. 특히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IIP)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우선순위로 선택하였다. 연구 참여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참여자 A는 여성으로, 2018년 대구지역 대학으로 어학연수(D-4)를 와, 부산지역 경영대학원(D-2-4)에서 국제무역통상을 전공하였다. 졸업 후 구직비자(D-10)를 받아 인천에서 구직 활동을 하다 2021년에 대구로 와 중국무역 관련 회사에서 인턴사원(E-7)으로 일하고 있다.
2. 참여자 B는 남성으로, 2015년에 경기지역 대학으로 어학연수(D-4)를 와, 본교(D-2-1)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였다. 3년제 졸업 후 구직비자(D-10)을 받은 후, 친구 소개로 하남시 소재 식품 회사에 입사(E-7)해 일하다가 COVID-19로 인해 2021년 퇴직하였다. 이후 구직비자(D-10) 재발급받았으며 2023년 3월에 비자가 만료된다.
3. 참여자 C는 여성으로, 2012년에 서울지역 대학으로 어학연수(D-4)를 와, 본교(D-2-1)에서 영어학과를 전공하였다. 이후 경상지역 대학 국어국문학과에 편입(D-2-1)하였으며, 학부 졸업 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으로 석사(D-2-3) 학위를 받았다. 2년 동안 구직(D-10) 활동을 하다 최근 병원코디네이터(E-7)로 일하고 있다.
4. 참여자 D는 남성으로, 2018년에 경산지역 대학으로 어학연수(D-4)를 와, 본교(D-2-2)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였다. 구직비자(D-10)을 받은 후, 2021년 외국인 유학생(D-2)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활용 법안에 따라 식품회사에 취업해 기계설비기능자(E-9)로 일하고 있다.
5. 참여자 E는 남성으로, 2018년 대구지역 대학으로 어학연수(D-4)를 와 본교(D-2-1)에서 조리학과를 전공하였다. 휴학을 거친 후 구직비자(D-10)를 받아 현재 요식업체에

8) D-8은 기업투자비자이며, D-9는 무역경영비자로 외국인 개인사업자 발급 비자이다.
 9) F-2-R은 지역특화형 비자로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인데 대상자 범위에 외국인 유학생이 포함되어 있다(법무부, 22.07.25일 보도자료 참조).

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활동전문비자(E-7)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경영비자(D-9)를 준비 중이다.

심층 면담은 ‘반구조화 인터뷰’로 이루어졌다. 면담 시작 전 연구 주제와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연구자 동의서에 서명 후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으며 한 사람당 약 한 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모두 연구자와는 충분한 라포(raport)가 형성되었기에 자연스럽게 면담 질문을 할 수 있었다. 우선 한국 체류비자 과정, 한국 유학 동기, 한국 유학 생활 경험(한국어 학습 과정, 학부 교육과정, 생활세계, 경제활동, 학생으로서의 베트남인 등), KIIP 참여 경험, 한국 정주를 위한 본인의 노력, 한국에서 외국인/베트남으로 사는 삶, 한국어 연수과정 또는 학부 과정에서 필요했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구직비자(D10) 기간 동안 생활, 한국 정주 이유,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현재의 삶의 만족도 등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면담자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답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면담을 마무리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인간 경험의 기술(description)을 분석적 방법을 통해 개인적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로 진행하였다. 신경림 외(2014)에서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체험을 변형 및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겪은 그대로 기술함으로써 체험에 접근하는 데 있어 통계적 방법을 통해 일반화 또는 설명 법칙이나 이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체험에 대해 기술적으로 접근하여 풍부하게 기술하고 해석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하였다.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수집된 내용과 정리된 원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주제 분석(thematic anal)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겪은 다양한 체험의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한 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고, 상위 주제는 ‘한국 정주 이유’, ‘한국 유학 생활’,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3개로 분류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이 3개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였으며, 자료의 실재성을 위해 원문 그대로 사용하였다.

3.2. 연구 결과

1) 한국 정주 이유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 동기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한류의 영향이다. 게다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각 국가는 국경을 넘어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우리 정부는 매년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내 취업을 돕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고, 구인·구직 정보를 확인하여 원하는 직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⁰⁾.

한국에 계속 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베트남보다 높은 월급이에요. 베트남에서 한 달에 300만 원을 벌려면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대부분 300만 원 월급이에요. 그리고 베트남에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아주 많아져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유학을 갔다왔다고 해서 베트남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참여자 B).

한국은 너무 깨끗해요. 중국에도 가 봤는데 중국보다 한국이 더 깨끗하고 편리해요. 그러니까 오염도가 낮아요. 그리고 한국 교통은 너무 편리해요. 지하철이 모두 있어서 너무 편하게 다녀요. 이제 한국이 익숙해요. 지역특화형(F-2-R) 비자가 생겨도 농촌으로 안 갈 거예요(참여자 A).

한국은 기회가 많아요. 저는 석사 졸업생이라서 전공과 상관없이 무슨 일든 할 수 있어요. 특히 한국어를 잘하면 일자리가 많아요. TOPIK 6급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참여자 C).

최근 세계적 청년 구직난으로 인해 베트남에서의 일자리가 찾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한다. 또한 위 학생들은 한국 거주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으로 오랜 기간 한국 체류를 통해 선진 한국에 익숙해져 편의 생활, 안전 보장, 임금, 일자리 확보 등 유학을 통한 한국 정주에 만족하고 있었다.

2) 한국 유학 생활 과정

교육부 외(2018:160-171)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습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어 강화 지원 서비스가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의 어려움으로 소통이 어렵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상담을 통한 생활의 문제점 지원 그리고 안정적인 유학 생활의 지원을 위해 한국인 학생들과의 교류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0) studyinkorea (<https://www.studyinkorea.go.kr/ko/main.do>) 참조(검색일자 2022.12.31).

유학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아르바이트예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이나 주말에 일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우리 외국인인 4시나 5시부터 일해야 하는데 수업이 5시, 6시에 있으면 아르바이트도 없어요. 학교에서 일하면 좋지만 학교에는 1~2개만 있어요. 그리고 한국 학생이나 교수님이 소개해 줘요. 우리는 한국 사람과 커뮤니티가 없어요. 모두 베트남 사람들끼리 이야기해요(참여자 A).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해요. 그런데 대학생 때 일할 시간이 너무 적으니까 모두 불법으로 일해야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한국어와 일할 때 말이 많이 달라요. 한국 사람들이 말을 빨리해요. 고향에 있을 때 몰랐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ㄹ’을 잘 못해요. 한글을 배울 때부터 발음과 한국 문화를 잘 배워야 해요. 어떤 유학생은 발음을 잘못하고, 어떤 유학생은 쓰기를 잘못해요. 개인별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E).

우리 회사는 한국 과자를 수출해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이지만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계 전공이라 쉽게 비자를 받았어요. 이 회사는 내가 한국에 와서 처음 일한 곳이에요. 일하는 곳을 먼저 정하면 공부하기 좋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떤 전공이 좋은지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야 해요. 전공과 취업을 알려 주면 좋겠어요(참여자 D).

대부분의 베트남 유학생은 학업-일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학업에 전념할 수 없어 한국어 수업의 어려움이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류자격 외 활동이나 시간제 취업(S-3)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또한 본국의 한국어교육에서 입국 목적과 거리가 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 입국 목적에 맞는 교육이 유학 준비 시 또는 초기 입국 시기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3)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246)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들의 미래 계획은 학력에 따라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 학부생들은 주로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하나 어떻게 취직을 하는지도 잘 모르며, 석박사 유학생들은 학부생들에 비해 국내 취업에 대해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구체적으로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막막해하고 있었다.

원래는 제가 다른 대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한국어 선생님이 우리 대학에 있는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하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무슨 학과가 좋은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식품영양학과

는 E-7 비자 받기가 너무 힘든 학과예요. 조리학과 전공이면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일할 수 있고 식당 매니저 일도 할 수 있어요. 전공 선택 전에 대학교에서 전공과 취업을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참여자 B).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2015년 경상도로 왔어요. 그런데 말이 서울과 달랐어요. 지금은 익숙해졌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에 살려면 사투리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직장 어휘도 필요해요.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데 병원 어휘를 모두 공부했어요. 대학교 때 여러 가지 어휘를 가르쳐주면 좋겠어요(참여자 C)

한국에서 E-7 비자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모두 자기 전공과 직장이 달라요, 그리고 비자 바꿀 때 법률사무소에 맡겨요. 한 300~350만 원 정도 해요. 그래도 우리는 잘 모르니까 돈을 줘요. 대학에서 전공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전공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공부할 때 전공을 바꿀 수 있으면 한국에서 취업하는데 편하겠어요(참여자 E)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은 어학연수과정(D-4)과 학부과정(D-2)을 분리 운영하고 있다. 특히 두 과정 모두 학습자들의 인구학적 배경이나 한국어교육 정도, 학습자 요구 등 학습자 변인에 대한 고려 없이 교과목이 개설되어 한국어 학습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학연수나 학부 교육과정 중 학습자 변인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나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정주할 수 있도록 정책, 교육, 사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전공 선택에 관한 로드맵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IV. 한국 정주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4.1. 한국 정주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교육과정

다변화되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과정 변화와 외국인 유학생을 한국 정주 가능 이민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과는 다른 한국어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김명광(2019:17-19)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과정은 졸업할 때까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학문을 학습하기 위한 목표로 이루어지기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이외에도 ‘대학 생활 적응이나 기초적 학문 수학에 필요한 한국어’, ‘자신이 선택한 전공 계열의 전반적인 수학에 필요한 한국어’, ‘자신이 선택한 전공의 세부적인 수학에 필요한 한국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한국어 학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장지영 외(2020)에서는 대부분 한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아시아 국가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기에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하며, 학위 취득 후 직업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직업 목적 한국어’와 ‘학문 목적 한국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고 하였으며, 박지순(2018)은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유형, 다양한 영역의 교육 자료가 개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 전공 분야의 학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특수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에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가연 외(2022)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학생이자 저숙련(시간제 취업) 노동자, 지역주민, 그리고 미래에 한국 사회의 잠재적 거주자 또는 고숙련 노동자로서의 다중적 정체성을 가진 이민자 집단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교육 및 정책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 정주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두는 경험 중심 교육이나 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비의도적으로 자연스럽게 학습(습득)하게 되는 잠재적 교육이 한국어 교육과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잠재적 교육과정(unofficial curriculum)이란, 공식적 교육과정(official curriculum)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교육기관의 물리적 조건, 제도 및 행정 조직, 사회적·심리적 상황을 통해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경험을 말한다(이승연 외, 2020:877). 교육 방법은 비의도적 학습이며 학습 영역으로는 정의적 영역을 포함하며, 학습 내용은 바람직한 내용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학습하는 교육과정이다. 박지순 외(2020)에서는 언어 학습에 있어 주로 목표 언어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문화(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데,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은 주로 젠더의 관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분석 방법으로는 교재 분석이 선호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서 짧게는 6개월(D-4), 길게는 최장 7년(D-4, D-2, D-2-1, D-10)의 유학 생활을 해야 하므로 흥미, 태도, 가치관, 신념 등이 포함된 교육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최근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우수 인재로 선발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일자리 제공, 지역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지원하는 지역특화형비자(F-2-R) 발급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 한국 정주 가능성은 더 유리해졌다. 이때 사회의 문화·풍토, 교수자의 정서적·인격적 영향과 관련이 있으며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학습되면서 항구성을 지닌 잠재적 교육과정이야말로 한국 정주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교육과정에

적합하다.

두 번째로 교수요목은 의사소통 교수요목 유형 중 완전 개념 교수요목(Fully notional syllabus)을 지향해야 한다. 기존의 교수요목과 다른 점은 개념 범주를 먼저 설계한 후 학습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가르쳐 줌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한다는 것이다. 곧 완전 개념 교수요목은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의미와 기능과 관련된 범주를 먼저 설정하여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교사 또는 학습자가 필요할 때 어느 항목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이다. 특히 이 교수요목은 다양한 사회언어학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는 물론이고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역할, 심리적인 태도, 대화의 장소와 시간 등 심리언어학적 요소까지 고려된 교수요목이라 할 수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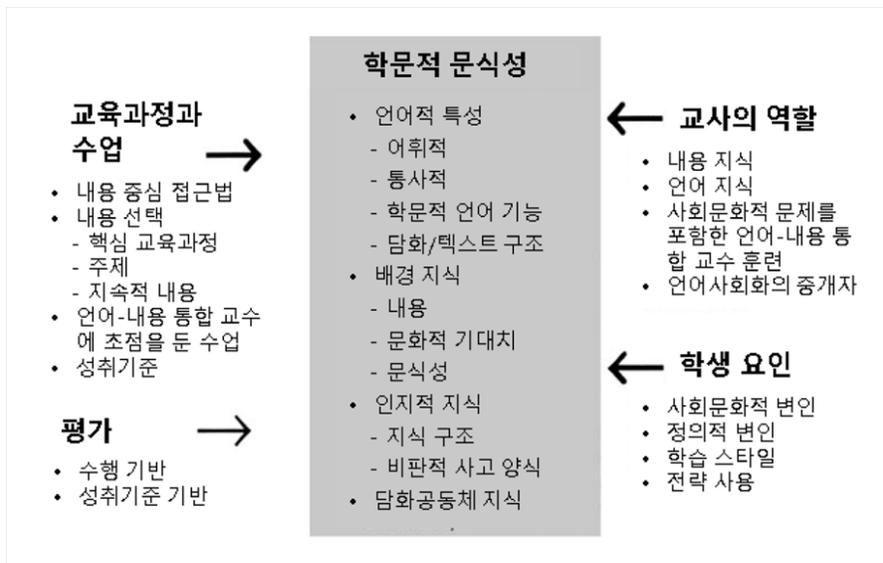
완전 개념 교수요목을 설계하고자 할 때의 출발점은 그 언어를 배우려 하는 사람들이 그 언어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과 관념을 예측하여 이들이 쓰이는 실제적인 기능을 미리 알아서 찾아내야 한다. 김진우(1981)는 완전 개념 교수요목은 언어의 현상들을 기능별로 나누어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안에서 살아있는 언어를 노출시킬 수 있으므로 차후 직업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에 용이하다고 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은 보편적으로 어학연수(D-4)에서 학부(D-2)를 거쳐 대학원 진학(D-2-3) 또는 구직비자(D-10)을 받고 난 후, 비전문취업비자(E-9), 특정활동전문비자(E-7) 순으로 체류 자격을 가진다. 게다가 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방향까지 고려한다면 한국 정주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교수요목은 나선형 접근이 가능한 완전 개념 교수요목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교육 내용 범주 및 교수-학습법에 있어서도 언어와 문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 중심 수업’으로 설계해야 한다. 학습 목표와 내용 학습자의 언어와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하고, 학습자의 개인적 학습 발달의 차이를 적용하여 교수-학습 계획과 운용 및 언어 영역별 교수-학습 방법이 기능에 맞게 단계별로 나뉘어 제시되어야 한다.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학습 경험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학습 영역에서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개인 변인을 고려하여 비판적 창의적인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형태의 커리큘럼을 운영하여 교육수요자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즉,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유도하고 흥미와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현장 친화형’ 또는 ‘현장 밀착형’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 유학 생활 경험들을 연계하여 인지적·학문적으로 유의미한 수업을 실시하여 상호 문화적 의사소통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주요 학습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11) 김명광(201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론 P174-179 참조.

보조 자료와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활용하여 미래 사회 메가트랜드에 맞춘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으로 끝나지 않고 교육을 통해 주변과 좋은 관계성을 맺으며 원만한 품성을 갖추어 인격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핵심 가치를 중심에 두는 교육 내용이야말로, 경험을 공유하고 상황을 공감하며 차이를 인정하는 공존이 일상이 되는 이민 사회의 교육적 실천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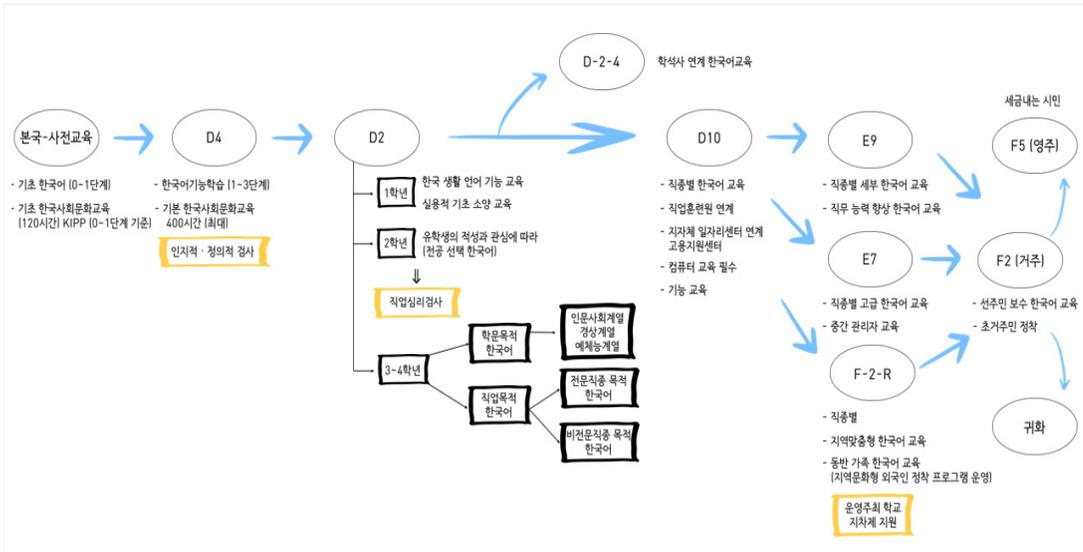
다시 말해, 본 연구의 한국 정주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교수요목, 교육내용 범주는 Snow(2005)이 제안한 언어-내용 통합 교수를 위한 문식성 모형과 유사하다. Snow(2005)은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이 학업 수행에 필수적이며, 학문적 구성 요소에 ‘언어적 특성, 배경지식, 인지적 지식, 담화 공동체 지식’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한국 정주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교육과정도 이같이 한국에 체류하며 비의도적으로 학습(습득)하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교육목표가 되어, 한국 체류 상황에 맞게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의미와 기능을 어느 항목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시를 교수요목으로 선정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 중심 설계를 교육내용으로 한다. Snow(2005)의 언어-내용 통합 교수를 위한 학문적 문식성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언어-내용 통합 교수를 위한 학문적 문식성 모형(김지혜 외, 2020:205 재인용)

4.2. 한국 정주 주기별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 사회 정주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교육과정 개발은 학문 목적 수행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물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교육적 간극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한국 사회 문화 및 경제적인 문해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에 연구자는 어학연수(D-4), 학부(D-2), 대학원 진학(D-2-3), 구직비자(D-10), 비전문취업비자(E-9), 특정활동전문비자(E-7), 거주(F-2), 지역특화형(F-2-R) 영주(F-5), 귀화로 이어지는 ‘연계형 교육과정’ 즉, ‘한국 정주 주기별 교육과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과 비의도적인 학습이 포함된 잠재적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었으며, 완전 개념 교수요목과 내용 중심 수업이 주가 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외국인 유학생 한국 정주 주기별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안)

윤향희(2021)는 본국에서 교육받은 한국어 학습이 입국 목적과 거리가 먼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국 체류 시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입학 전 단계에서 유학정보 제공 및 상담 체계를 위해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대학,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에 대응하고 있다(교육부 외, 2018:55). 이에 한국 입국 전 한국어 및 한국 사회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제안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PP) 실시하여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 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를 위해 본국에서 유학 전 준비 단계로 120시간 정도의 기초한국어교육과 기초한국사회·문화교육을 입국 전에 실시한다면 유학 생활에서 겪는 언어 및 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는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22:224)의 본국에서의 사회통합 이수제 계획과도 상통한다.

두 번째 단계인 어학연수(D-4)는 현행 어학연수 한국어 교육과정과 유사하다. 다만 진학을 목적으로 한 어학연수 과정이므로 최대 1년, 400시간 동안 어학연수를 한 후, 학습자의 적성과 목표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는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을 최대 목표로 두므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기능 영역과 발음, 어휘, 문장, 담화 등과 관련한 문법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같은 문화영역에 대한 기본을 배우는 교육과정으로 현행과 비교해 보면 한국어 2~3급에 해당한다. 다만 본 연구의 심층 면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학연수(D-4) 과정에서 개인의 적성 및 진학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는 교육 영역이 필요하다. 제3장에서 기술했듯이 구직비자(D-10)를 가진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사회 정주를 위해 취업비자(E-7)을 발급받으려면 허용 직종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전공을 잘못 선택했을 경우 구직비자(D-10)을 받고도 취업비자(E-7)으로 변경하지 못해 마지못해 진학(D-2-4)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마저도 여의치 못하면 한국에서 미등록체류외국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학연수 시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검사를 통해 자신의 학습 능력과 적성을 파악하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구체적 커리큘럼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 단계인 학부(D-2) 과정은 1~2학년과 3~4학년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학부 과정은 개개인 가진 배경지식, 경험에 따른 언어 사용 능력, 개인별 적응 능력과 학습 능력 등 개인의 일반적 능력을 고려해야 시기이다. 이에 한국어 학습과 사용을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보고 학습자의 일반적 능력과 함께 의사소통적 언어 능력을 능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해외 초중등학교 한국교육과정(안), 2021:6),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학습자는 완수해야 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적합해 보이는 전략을 쓰면서, 다양한 조건이 주어져 있는 맥락 속에서, 다양한 영역(사적, 공적, 직업, 교육 영역)의 주제와 관련한 언어 활용을 수행한다. 한국 사회 정주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학부 교육과정은 한국어와 한국 생활 적응 교육, 한국어와 전공 교육, 한국어와 진로 교육 등으로 1학년에는 한국 생활 언어기능 교육과 실용적 기초 소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2학년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여 한국어 교육과정을 배우며 학년말에는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스스로가 ‘학문 목적 한국어’와 ‘직업 목적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3~4학년에서 이루어지는 ‘학문 목적 한국어’는 전공 심화 한국어 교육과정으로 자신이 공부하고자 하는 인문·사회 계열, 경상 계열, 예·체능 계열 등 전공 분야에 따라 학습하게 한다. 또한 ‘직업 목적 한국어’는 취업을 전제로 하는 전공 심화 한국어 교육과정으로 의료, 비즈니스 등 ‘전문직종목적한국어’와 취업 전·후를 목적으로 하는 ‘비전문직종목적한국어’로 구분하여 다양한 산업 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과정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네 번째로는 구직비자(D-10) 단계이다. 학부 교육과정이 끝나면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 머물면서 진학 내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석박사 학위 과정으로 진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양질의 교육과 학습으로 인해 보다 전문적인 이민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구직비자(D-10)를 가진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 취업은 쉽지 않다. 본 연구의 면담 사례에서 조리학과 전공인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비자(E-7)를 받으려면 우선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한 회사를 찾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요식업은 취업비자가 불가능하다며 돈을 모아 베트남 식당을 창업하는 투자·경영비자(D-8, D-9)을 받는 친구들이 많아졌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구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부 과정 시 취업 관련 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아울러 구직비자(D-10)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보다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직업 교육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도쿄, 나고야, 오사카에 설치된 외국인고용 서비스센터와 후쿠오카에 설치된 후쿠오카 학생직업센터를 거점으로 구인 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사카 대학의 경우 일본 도착 전후 체재 생활 및 학습 지원은 물론 취업지원과 학업 후 산업계 연계를 통한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교육부 외, 2018:57). 이처럼 학부 졸업 후 직업훈련원과 연계한 교육이나 지자체 고용지원센터 교육을 통해 양질의 직업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노동시장 진입은 충분하고도 전문적인 인력자원이 될 것이다.

끝으로, 연구자는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히 유치나 관리적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초국가주의 관점¹²⁾에서 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외국인 유학생을 한국 사회 정주를 위한 이민의 대상으로 보았기에 유학생의 신분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인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그들이 비전문활동비자(E-9), 특정활동전문비자(E-7),

12) ‘유학생’은 지식을 위해 수용국에 잠시 머물다 돌아가는 단기 체류자로 보기보다는 국경 넘기를 감행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활동을 통해 유학생 본국과 수용국 양 방향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국경 너머 초국적 공간을 만들어 내는 존재로서 새롭게 사고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만든 초국적 공간은 지구화와 국가 간 체제(world society vs. international system) 사이의 틈을 벌리고, 그 틈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 1단계 실적보고서, 2021).

지역특화형비자(F-2-R)의 체류자격을 받은 후에도 한국어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실제적 업무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종별 세부 한국어교육, 직무 능력 향상 한국어교육, 직종별 고급 한국어교육, 중간 관리자 한국어교육, 지역맞춤형 한국어교육, 동반 가족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심층 면담 참여자들 모두 거주비자(F-2)를 받은 후 영주비자(F-5) 또는 한국 귀화를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 사회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세금 내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선순환적 모형이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주민으로 인식하고 관민일체로 추진체제를 만들어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이 타도시로 이동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별 이민자정책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선주민이 초기이민자를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외국인 유학생을 그 중심에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V. 결론

이 연구는 이민 사회에서 항상 중요한 유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초국가주의 관점에 바탕을 두고 한국 정주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체류외국인 분포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한 후, 이들의 요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 정주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1장에서는 이민 사회 도래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의 필요성과 베트남 국적 외국인의 증가에 대해 언급하며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을 제기하였다.

2장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나타난 유학정책과 베트남 유학생 및 베트남 국적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았다.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은 기본계획수립마다 진행되었으며,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연구에서는 육성형 이민정책에 입각한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하는 영역별 중점과제를 정리하였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도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에 유학을 와서 어학연수(D-4)를 거친 후, 학부과정(D-2)을 졸업하고, 구직비자(D-10)를 받은 후, 한국에서 취업(E-9 또는 E-7)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거쳐 '한국 정주 이유', '한국 유학 생활',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의 3개 향으로 분류해 면담자들의 경험을 서술하였다. 이들은 모두 본국보다 높은 임금과 발전된 생활 환경을 이유로 한국 정주를 계획하였다. 그리고 유학 생활 중 학습과 일을 병행하느라고 힘들었다고 하였다. 특히 입국 초기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으므로 초기 한국 생활 적응이 어려워 베트남 국적 커뮤니티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전공 선택에 관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로 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이 구직활동(D-10) 후 특정활동전문비자(E-7)을 받으려면 전공 관련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으므로, 학부 진학 전 구체적인 전공 설명회 및 심리검사를 통한 한국어 및 한국 생활 적응과 진로 탐색의 장을 요구하였다.

4장에서는 한국 사회 정주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교육과정 개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과 비의도적인 학습이 포함된 잠재적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었으며, 완전 개념 교수요목과 내용 중심 수업이 추가 되는 한국어 교육과정으로 어학연수(D-4), 학부(D-2), 대학원 진학(D-2-3), 구직비자(D-10), 비전문취업비자(E-9), 특정활동전문비자(E-7), 거주(F-2), 지역특화형(F-2-R), 영주(F-5), 귀화로 이어지는 ‘한국 정주 주기별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그간 유학정책은 유치와 관리에 치우쳐져 있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유학이라는 거대 담론은 이러한 단순한 유치와 관리적 측면으로만 그 면모가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달리 말하면 외국인 유학생들의 초국가적 이동의 생태계 측면에서 밝혀져야 상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관리, 더 나아가 국가 간 함께 공존하는 삶으로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 정책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 1단계 실적보고서, 2021). 특히 이 연구는 한국의 이민 사회 도래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 가능성을 실제적으로 가늠해 본 연구라 의의가 있다. 물론 연구 결과가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일반적 인식이라고 하는 데에 제약이 있으며, 베트남 국적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대학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 정주 시기별 한국어 교육과정’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범대학 차원에서 지자체나 정부기관과 연계하여 비교과과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내용, 분석 결과, 교육과정 개발 방안 등을 수정·보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강수정 · 전반뜨. 2021. 베트남인 교수자의 국내 베트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경험 사례 연구—교육과정 생성 관점에 근거한 교사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재구성 실태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 한글 82(1), 227-271.
- 교육부 ·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2018. 외국인 유학생 정주 지원 강화 방안 연구.
- 교육부 · 주태국한국교육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 해외 초 · 중등학교 한국교육과정(안).
- 김명광. 201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론. 소통.
- 김명광. 2021. 외국인 유학생 교양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개선 방안. 한국어언어문화교육학회 제33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 김민경. 2021. 매체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요구 조사 연구. 한국어교육 32(3), 33-54.
- 김종일. 2017. 대학특성화 교육과정 모형 연구: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적응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혜 · 류선숙 · 강민석 · 이아름. 2020.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 교육과정 개발 연구-학업 역량의 구성 요소 및 내용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4(4), 201-212.
- 김진우. 1981. 문형연습의 재평가. 영어교육 22, 1-17.
- 남은영 · 이숙진 · 박혜란 · 장미선. 2019. 베트남 학습자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한국어언어문화학 16(1), 97-129.
-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18년도 선정 대학중점연구소 1단계 실적보고서. 2021. 한국연구재단.
- 박종호. 2021. 베트남 한국어 유학생의 한국 생활 적응 방안에 관한 연구. 에듀테인먼트연구 3(2), 37-49.
- 박지순. 2018.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반교어문연구 49, 15-48.
- 박지순 · 윤경원. 2020. 한국어 교재의 잠재적 교육과정 분석-젠더, 국적, 연령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71, 311-349.

- 송해련. 2022.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 및 장기체류 의사 결정요인 분석. *다문화교육연구* 15(3), 73-94.
- 신경림 · 조명옥 · 양진향. 2004. *질적 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응웬 티 꾸잉안(Nguyen Thi Quynh Anh). 2020. 베트남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한국어교육연구* 12, 151-175.
- 윤향희. 2021. 한국어교육 운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가연 · 김유진 · 김찬미 · 김명광. 2022. COVID-19와 유학생 정책이 유학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3(6), 4421-4436.
- 이승연 · 조현준 · 윤명식 · 전해리. 2020. 잠재적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 교재 연구:시대에 따른 서술 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2(12), 875-912.
- 이윤주. 2022. 중도탈락 귀환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경험 연구. *글로벌교육연구* 14(4), 141-168.
- 이윤주 · 이희숙 · 이용승. 2022. 유학생의 학업 수행과 관련한 정의적 요인 연구의 동향 분석-교육정책의 함의 모색을 위하여. *인문과학연구* 72, 319-361.
- 이정민 · 김에스터. 2022. 베트남 유학생의 “학습자 되어가기”의 경험 탐구: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2), 217-234.
- 장지영 · 조은영. 2020.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양 교육 과정 운영 현황과 과제. *교육문화연구* 72, 617-636.
- 전규미 · 전용수. 2019.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습동기, 한국어 숙달도 간의 관계 연구. *MICE관광연구* 19(1), 161-177.
- 전해정. 2019.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사업장 일 적응 경험: 구성주의 근거이론.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해정 · 이가연. 2015.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6(4), 380-389.
- 조현용. 2018.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교육 정책 연구. *우리말연구* 54, 213-215.
- 차숙정. 2022. 외국인 유학생 대상 문화적 문식성 교육 방안 연구: 학부 교양과정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법무부.
 _____ .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법무부.
 _____ . 2013-2017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법무부.
 _____ . 2018-2022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법무부.
 _____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11월. 법무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 투고일: 2023.01.30. ● 심사일: 2023.02.08. ● 게재확정일: 2023.02.22.

| Abstract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Curriculum for the Settlement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 Focusing on the case of Vietnamese students -

LEE Yunju (Daegu University)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possibility of foreign students staying in Korean society for a long time, focusing on the case of Vietnamese students, and to prepare a plan to develop a Korean language curriculum for permanent students. First of all, the study abroad policy that appear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for Immigration Policy (1st to 4th) was reviewed, and the current status of rapidly increasing Vietnamese students and foreigners with Vietnamese nationality, as well as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and preceding research conducted at universities, were reviewed. Based on this, an interview sheet was formed, and after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Vietnamese students studying abroad, language training (D-4), undergraduate (D-2), graduate school (D-2-3), job-seeking visa (D-10), non-professional employment visa (E-9), special activity visa (E-7), residence (F-2), regionally specialized (F-2-R) permanent residence (F-5), 'leading to naturalization' A 'linked curriculum', that is, a 'curriculum by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was developed. This laid the foundation for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a Korean language curriculum in a holistic sense that can preemptively prepare for study abroad policy and educational innovation based on the perspective of transnationalism.

<Key words> Transnationalist foreign students, immigrant society, Vietnamese nationality, Korean language curriculum by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별첨]

◆ 국적(지역)별·연도별 외국인 입국자 현황

(2022.11.30. 현재, 단위 : 명)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1년 1~11월	`22년 1~11월	전년 대비
총 계	15,630,522	17,880,503	2,659,845	1,044,545	948,157	2,831,882	198.7%
미 국	1,068,173	1,139,150	265,134	251,203	231,345	541,772	134.2%
일 본	2,976,445	3,303,088	438,708	18,025	16,681	223,767	1241.4%
중 국	5,032,905	6,284,486	740,039	187,908	174,809	219,840	25.8%
한국계	1,046,060	1,004,319	132,191	65,929	62,959	38,655	-38.6%
베 트 남	519,448	624,640	112,938	25,359	21,281	210,367	888.5%
필 리 핀	471,532	516,503	120,171	117,316	106,048	181,767	71.4%
태 국	565,784	580,191	78,878	9,351	8,299	143,620	1630.6%

◆ 체류외국인 연도별·국적(지역)별 현황

(2022.11.30. 현재, 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1월
총 계	2,367,607	2,524,656	2,036,075	1,956,781	2,194,780
중 국 ¹³⁾	1,070,566	1,101,782	894,906	840,193	848,192
한국계	708,082	701,098	647,576	614,665	605,117
베 트 남	196,633	224,518	211,243	208,740	233,660
태 국	197,764	209,909	181,386	171,800	191,316
미 국	151,018	156,982	145,580	140,672	157,577
우즈베키스탄	68,433	75,320	65,205	66,677	79,019
러시아(연방)	54,064	61,427	50,410	48,680	55,110
필 리 핀	60,139	62,398	49,800	46,871	54,960
몽 골	46,286	48,185	42,511	37,012	50,153
캄보디아	47,012	47,565	41,405	41,525	47,820

13) 한국계 포함

◆ 등록외국인 국적(지역)별 현황

(2022.11.30. 현재, 단위 : 명)

국적별	계	중 국 ¹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기타
인원	1,180,632	418,841	195,710	48,700	44,097	43,587	42,112	387,585
비율	100%	35.5%	16.6%	4.1%	3.7%	3.7%	3.6%	32.8%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_국적별 현황

계	중 국 ¹⁵⁾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103,031	46,397	39,068	38,845	36,880	26,691	25,139
445,235	태국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국	몽골	카자흐스탄
	24,315	22,849	20,111	11,569	9,716	5,042	4,964
	파키스탄	동티모르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키르기즈	기타
	4,172	3,201	3,124	2,700	2,649	2,334	12,438

◆ 특정활동(E-7) 유형별 및 국적별 현황

(2022.11.30. 현재, 단위 : 명)

유형별 \ 국적별	총계	중 국	베트남	미 국	네팔	인 도	기 타
전 체(직종)	23,020	6,671	4,187	1,456	1,352	1,042	8,312
전문인력(67개)	9,329	876	1,403	1,451	62	652	4,885
준전문인력(9개)	7,059	5,644	133	5	393	314	570
일반기능인력(8개)	1,140	116	692	0	17	76	239
숙련기능인력(3개)	5,492	35	1,959	0	880	0	2,618

14) 한국계 포함

15) 한국계 포함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 국적별·성별 현황

(2022.11.30. 현재, 단위 : 명)

구분	국적	총계	중국 ¹⁶⁾	한국계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미국	캄보디아	기타
전체		169,800	59,651	22,052	39,358	15,379	12,242	7,431	4,802	4,605	26,332
		100%		35.1%	23.2%	9.1%	7.2%	4.4%	2.8%	2.7%	15.5%
남자		33,336	14,055	8,425	3,987	1,301	576	129	3,350	657	9281
		(19.6%)									
여자		136,464	45,596	13,627	35,371	14,078	11,666	7,302	1,452	3,948	17051
		(80.4%)									

국적별 국적취득 현황

(2022.11.30. 현재, 단위 : 명)

국적	연도	유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2년 1~11월
총 계		귀화	10,086	11,556	9,914	13,885	10,895	8,406
		회복	2,775	2,698	2,443	1,764	2,741	2,655
중 국		귀화	4,781	4,838	4,371	7,932	5,145	3,520
		회복	245	144	181	120	185	105
베 트 남		귀화	3,743	4,849	3,867	4,076	4,225	3,847
		회복	57	45	39	29	13	17
필 리 핀		귀화	359	597	423	375	241	165
		회복	7	7	11	7	25	10
몽 골		귀화	93	99	102	145	103	45
		회복	17	14	6	10	3	6
우즈베키스탄		귀화	48	72	78	138	97	93
		회복	27	12	6	8	12	10
일 본		귀화	29	17	14	15	20	23
		회복	38	53	41	54	86	86
태 국		귀화	52	58	52	68	78	72
		회복	4	5	3	7	6	7
파 키 스 탄		귀화	51	42	48	26	34	20
		회복	0	2	0	0	0	0
기 타		귀화	930	984	959	1,110	952	621
		회복	2,380	2,416	2,156	1,529	2,411	2,414

※ '45.8.15.~ '21년 말 까지 귀화자 수 : 225,976명

('91년~ '21년 말 까지 귀화자 수 : 224,321명)

16) 한국계 포함

인문사회계열 베트남 유학생의 졸업 후 한국 유학 자본 활용 전략 연구*



이 예 지

제1저자, 대구대학교
(poohyji@naver.com)



김 연 희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ckim105578@gmail.com)

국문요약

이 연구는 베트남 출신의 한국 대학(원) 졸업 유학생들의 유학 경험이 그들의 진로 궤적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추적연구이다. 국내·외 취업 과정에서 유학을 통해 그들이 획득한 자본들이 그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향상했는지를 분석하여, 유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더 나아가 유학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경험적 접근으로서 본 연구는 베트남 출신의 한국 대학(원)을 졸업한 유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12명 중 5명은 한국 내에 7명은 베트남에서 취업하였는데, 대부분이 국내·외 한국 기업(해외지사)의 통번역사, 한국 대학 외국 유학생 담당 부서의 조교, 베트남 대학의 한국학과 교수, 베트남 현지 유학원의 학생 유치 담당자, 한국어 학원의 강사 등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나, 유학을 통해 개발한 한국어 능력이 중요한 자본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2년 12월 16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국내학술대회 “트랜스로컬리티적 공간에서의 한인 디아스포라 혼종성”과 2023년 02월 17일 호치민 외국어 정보대학교에서 열린 공동국제학술대회 “베트남-한국 : 30년의 협력 및 발전 관계-유학생의 초국적 실천과 유학 지형의 변화-에서 발표된 논문을 발전시킨 것이며,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8096275).

한국어 능력도 중요하지만, 고용주와 같은 지역 사투리를 쓴다거나, 시간제 취업 경험을 통한 빨리빨리 문화를 체득하는 등과 같이, 유학 중 개발한 문화 자본이 그들의 취업이나 직장생활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글쓰기와 컴퓨터를 활용한 서류 작업 능력이 이들의 경쟁력으로 인정받고 사무직 업무, 고용주의 전담 통번역사로 지정되어 잔업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높은 임금 등으로 이어지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데 도움 되고 있다. 한국 대학이나 정부의 유학 정책이 유학생의 유치와 대학에서 적응에만 중점을 둔 채, 이들의 졸업 후 진로 지도를 위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베트남 유학생들의 유학 후 진로를 최적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유학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인문사회계열, 베트남 유학생, 유학 자본, 한국어 능력, 졸업 후 진로, 취업

I. 서론

2022년 기준, 재한 외국인 유학생은 166,892명이다. 이들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중국이 67,439명(40.4%)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 37,940명(22.7%), 우즈베키스탄 8,608명(5.2%), 몽골 7,348명(4.4%) 순이다. 중국 출신 유학생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년(44.2%) 대비 3.8% 감소하는 등 유입 속도가 완만해졌다(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교육통계과 2022, 24-25). 반면, 베트남 출신 유학생은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베트남은 한국에 유학생을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송출국가로 자리 잡았다. 2005년에는 5위에 그쳤지만, 그 증가추세가 빠르게 늘어, 2023년 현재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유학생 출신국가로 상승하였다(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교육통계과 2022, 24-25). 비학위과정생의 경우에는 베트남 유학생이 가장 많아 11,025명(26.2%)으로 전년 대비 1.5%(166명)가 상승하였다. 그다음은 중국 16.4%(6,918명), 일본 7.8%(3,303명), 몽골 6.1%(2,548명) 순이다(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교육통계과 2022, 24-25). 이처럼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만큼,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갖는 중요성은 점차 커질 것이기에 이들의 교육 욕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겠다.

고등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인으로서 개인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졸업한 유학생들이 얼마나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직업에 안착하는가는

유학생을 유치한 대학의 교육의 한 성과 지표가 될 수 있겠고, 유학생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교육에 투자한 시간과 경제적 비용에 대한 결산이란 의미로 볼 수 있겠다. 베트남 학생들의 유학 기간이 길어지면서 졸업 유학생들의 진로와 직업 성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졸업 유학생의 진로는 크게 두 경로가 있겠다. 하나는 졸업 후 출신국으로 귀환하여 취업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한국 내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는 것이다. 많은 베트남 유학생들이 애초부터 첫 번째 경로를 생각하고 한국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법무부(2020) 조사에 따르면,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로 유학생 응답자의 25.7%가 ‘본국에 좋은 일자리를 구할 기회가 많아서’, ‘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일하기 위해서(15.8%)’라고 하여, 유학 후 출신국 귀환을 희망하였다(통계청·법무부 2020). 이와 같은 응답을 보인 다양한 출신 국가 유학생 중에서도, 베트남 출신 유학생의 경우, 베트남에 투자하거나, 진출한 한국 기업이 약 4,519개 이상 존재하여, 한국계 기업에 취업의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김동수 외 2021). 한국은 1988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여 소규모 투자를 시작하였고, 1992년 한국과 베트남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 2008년 삼성전자가 진출하면서 한·베 교역과 베트남으로의 직접 투자가 급증하였다. 2021년 6월 기준, 베트남에 투자한 여러 국가 중에서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그 수나 투자 금액 면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개방정책에 따라 진출 분야도 섬유, 의류, 제조, 전기 전자(스마트폰, 태블릿PC, 가전, 반도체)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삼성전자와 LG 등 한국 기업이 위치한 타이응우옌성(Thai Nguyen Province)과 박닌성(Bac Ninh Province) 등의 지역에는 이들 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1, 2차 제조 벤더사도 증가하고 있어, 현지 근로자 채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베트남인에게 양질의 취업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김동수 외 2021, 7-16; 장진 2021, 1; Mai Kim Chi and Nguyen Thi Ly 2021, 1; Nguyen Thi Thu Huong 2021, 1). 이처럼 경제적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유학 경험을 경쟁력으로 활용하여, 베트남 소재 한국계 기업에 취업하고자 졸업 후 출신국 귀환을 선택하는 베트남 유학생들이 늘고 있다. 졸업 유학생이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이들이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그들의 취업 경쟁력이 되기 위해서, 유학 과정에서 어떤 경험이 필요한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진로 궤적으로 한국 내에서 D-10(구직) 체류자격 소지자로 인턴을 하거나, E-7(특정활동)으로 취업하고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것이다(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130-142, 191-209). 하지만 현재까지 베트남 출신의 한국 대학(원) 졸업 유학생 중 D-10(구직) 체류자격을 취직으로 연결시키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졸업 유학생은 출신국으로 비자발적으로 귀환하거나, 제3국으로 초국적 재이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예지 2021a, 54-75). 근래, 한국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와 일부 산업 분야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졸업 유학생(외국우수인재)의 국내 취업과 정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과 정주를 용이하게 하도록 지역특화형 비자(F-2-R)제도를 시범 사업하고자 한다(법무부 2022). 졸업 유학생에게 한국 내에서 취업은 졸업 후 경제적 기반 마련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체류와 정주의 기회를 획득하게 한다는 점에서 초국적 이주의 새로운 전환의 기회를 얻는 것이다. 졸업 유학생이 한국에서 취업을 원할 경우, 이들의 취업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다.

유학생들이 대학(원)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인력으로 양성된다는 것은 출신국과 한국 사회 모두 고등교육에 갖는 사회적 기대이며, 유학생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기에도 대한 관심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 연구는 한국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유학이라는 경험 자본이 베트남 유학생들의 진로 개발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이들의 졸업 후 국내·외 취업에 경쟁력과 진로의 궤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유학생들의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유학은 유학생들에게 전환적 경험이다. 청년기에 해외에서 생활은 새로운 문화와 삶의 양식을 배우며, 독립성과 적응성을 개발하는 개인적 성장의 기회이다. 해외에서 삶의 과정에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키우게 된다. 새로운 교육체계에서 교육의 기회는 학문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앞선 학문의 기회와 학위는 유학생에게 인적 자본을 개발하는 기회가 되며, 이는 유학 과정 후에 취업의 기회를 찾는데 자산이 된다. 유학 생활을 통해 맺게 되는 인적 네트워크나 다른 나라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 또한 유학을 통해 축적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자본이다. 유학 기간 중에 습득하는 새로운 언어 능력과 문화의 이해는 중요한 문화 자본이 되고, 이는 유학생의 진로와 사회적 지위의 상향이동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유학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한국과 베트남 간의 지리적 이동과 초국적 삶의 경험은 유학생들에게 사회경제적 상향이동의 가능성을 넓혀 줄 중요한 초국적 자산 축적의 기회이다. 유학의 결실로서 취(창)업은 유학을 통해 축적한 자산의 가치전환의 한 방식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는 한국 대학(원) 졸업 유학생의 진로 궤적을 추적하여, 유학 과정에서 그들이 축적하는 문화적, 사회적, 인적 자본이 초국적 행위자로서 이들의 진로와 사회적 참여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졸업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 자본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유학 과정을 통해 축적한 여러 자본들이 어떻게 그들의 진로 탐색 과정에서 경쟁력으로 작동하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는 유학생을 위한

대학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진로지도와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개선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 선행연구 검토

1. 재한 베트남 출신 유학생의 연구 동향

재한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재학 중인 베트남 출신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 계획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권순애 외(2021)는 사회복지학을 전공 중인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계획을 탐색하였다. 유학생의 대부분이 졸업 후 출신국으로 귀환하여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유학생들은 한국에 유학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회복지제도와 현장 실습 경험이 전공을 이해하는 데 도움 됐다고 하였고, 한국 유학은 출신국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인식하였다. 김수경(2015)은 이공계 대학원생의 진로 계획을 탐색하였다. 이공계 대학원 교육과정의 특성상, 이들은 졸업 후 베트남으로 귀환하여 전공을 활용함으로써, 대학 강사 또는 연구원, 전공과 관련된 한국계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는 다르지만,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은 한국 유학을 통해 비교적 취업률이 높은 특정 전공의 진로에 집중하고 있으며, 학위와 실습이라는 현장에서 경험의 결합이 그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부르디외(Bourdieu, P)의 개념에 입각해, 학력이라는 제도화된 문화적 자본과 해당 분야 실습이라는 후천적 경험을 통해 습득한 문화적 자본 측면에서, 졸업 후 진로 계획을 파악한 연구는 저조함이 나타났다.

둘째, 베트남 유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들이다. 임희진(2014)은 서구와 비교해 비교적 짧은 한국 대학들의 유학생 교육 경험으로 인해, 대학교육의 성과를 유의미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애사적 관점에서 졸업과 졸업 이후 진로 진입 과정과 진로의 궤적까지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데이터 구축의 미비로 한국 대학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실증적 분석이 잘되지 않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김현미(2020)와 바트챙게르 투맹템베렐 외(2020), 이예지(2021b) 등의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 출신 유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필요에 의해 일과 노동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 중에 미허가 노동이 크게 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여, 유학생을 전통적인 학업에 동기화된 유학생이라기

보다는 유학생-근로자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에 따라 일과 학업의 병행이 향후 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단순노무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유학생의 일 경험과 법으로 허용되는 근로 제도의 제약은 학업 이탈과 중도탈락, 비합법 체류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또 다른 유학생 진로와 관련한 연구는 한국계 기업 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다. 김경남 외(2021)는 유학생이 국내 취업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한국 사회의 높은 취업 문턱과 한국 특유의 조직 문화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춘우(2014)는 한국식 특유의 위계 질서와 군대식 문화, 상명하달의 소통방식 등이 유학생들이 국내 취업을 꺼리게 하는 문제로 지적하였다. Kim and Baek(2020)은 출신국 기업 문화와 다른 한국식 초과 근무 문화 및 높은 업무 강도도 한국 기업에 취업을 주저하게 하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위의 여러 선행연구들은 한국에 유입되는 유학생들, 특히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유학생-근로자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이들의 진로 또한 한국과 출신국 간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가 창출하는 취업의 기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동안 졸업 유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종단적 자료의 부재가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유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진로지도에서 고유한 욕구를 파악할 근거가 될 데이터의 부재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유학생들이 한국 기업을 회피하는 이유도 밝혀졌는데, 기존의 연구에서 유학을 통해 획득하는 문화적 자본이 이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취업 후 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학 동기와 졸업 후 취업 계획에 관한 연구들도 있다.

배준환 외(2020)는 증가추세를 보이는 베트남 출신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유학 동기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적 차이와 저렴한 유학 비용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 한국 기업의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취업 기회 향상을 기대하며 한국행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안영진(2009)은 359명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후 진로 계획을 분석하였다. 출신국 귀환 후 취업 희망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제3국 취업 및 국내·외 상급 과정 진학, 한국 내 취업 희망 순이다. 복수의 연구참여자는 한국 직장 경력을 원하였는데, 한국에서 배운 것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 내 선취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선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유학을 통해 국내·외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자,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학생을 위한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과 제도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혜 2017). 김미영 외(2019)는 다수의 유학생이 진로 준비 과정에서 베트남 유학 선배와 한국인 교수에게서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김경남 외(2021)도 진로 교육과 취업 지원이 거의 부재한 상황임을 지적하면

서, 생애 관점에서의 진로 설계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유학 동기 분석을 통한 진로 교육의 세분화와, 대학 및 정부 차원의 진로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유학생들이 겪는 진로 선택과 진입 장벽에 문제들을 지적하지만(이태현 외 2016; 허형원 외 2011), 졸업 후 취업 실태보다는 유학생들의 진로 계획에 초점을 둔 연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유학생 유치, 대학 생활 적응, 근로 문제 등에 집중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졸업한 유학생이 상당수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유학생 연구는 졸업을 앞둔 유학생의 진로 계획을 파악하고자 하는 초기 단계의 연구들로 한정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비교적 취업률이 높은 이공계생 등을 중심으로, 전공이라는 학위 자본과 실습이라는 경험 자본을 활용하여 진로 계획을 탐색하는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유학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유학 자본 형성이 이들의 졸업 후 취업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전혀 없다. 특히, 유학생 교육의 한 구체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유학 자본 형성과 그 자본을 취업 과정에 동원하는 전환적 경험에 관한 연구가 부재함을 발견하였다.

2. 유학 자본으로서 문화적 자본

문화적 자본(문화 자본)이라는 개념을 정립한 부르디외(Bourdieu, P)에 따르면, 문화적 자본이란 사회적으로 물려받은 계급적 배경과 특정한 생활 방식에 의해 사회화 과정을 거쳐, 자연스럽게 형성, 체화된 지속적인 문화적 취향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때,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기질 안에 내재화된 취향과 태도, 학력, 언어 등에 주목하였고, 개인이 보유한 문화의 자산적 가치를 파악하고자 했다(윤성천 2021, 19-28; 황경아 외 2018; Bourdieu, P. 1986). 부르디외는 개인들의 차별화된 문화적 자본이 사회에서 어떻게 재생산되며, 계급을 형성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개인의 일정한 행위 속에 내면화된 성향체계를 *아비투스(habitus)*라 규정하고, *아비투스(habitus)*가 발현되는 구조화된 공간을 *장(field)*으로 정의하였다(윤성천 2021, 19-28; Bourdieu, P. 1984; Bourdieu, P. and Passeron, J. 1977). 부르디외에 따르면, 취향과 언어, 태도 등의 개인의 *아비투스(habitus)*는 사회공간에서 형성된 학력 자본의 수준에 따라 달리 구조화된다. 여기서 학력 자본이란, 제도화된 형태의 학위로, 교육 공간은 계급의 차이가 재현되며 정당화되는 장으로 여기고, 그 공간의 역할과 문화 자본으로서 학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자본은 계층을 유지하거나,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문화적 자본을 축적하는 경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취향, 태도, 언어 등과 같은 상속된 문화적

자본, 후천적으로 본인이 형성한 획득된 문화적 자본, 학력과 자격증 등의 교육 수준과 경험을 통해 획득한 제도화된 형태의 문화적 자본으로 세분화하였다(윤성천 2021, 19-28; 황경아 외 2018; Bourdieu, P. 1986). 또한, 부르디외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상호 간의 친분 관계와 인정을 통해, 제도화된 관계나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사회적 관계망에 속하게 됨으로써, 소유할 수 있는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인 자원의 집합을 사회적 자본(관계 자본)이라 정의하였다(윤성천 2021, 19-28).

특히 문화적 자본의 획득 경로에 관한 후속연구는 다양한 개념 재정의의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학업 성과에 관한 영향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수 이루어졌는데, 학력 등 교육 경험 수준과 문화예술가에 대한 지식을 통해 획득한 제도화된 문화적 자본으로 재정립하였다(김갑수 2019; 서순복 2010; 윤성천 2021, 19-28). 이외에도 서순복(2010)은 문화적 소양과 미적 기준에 대한 자기 평가를 체화된 문화적 자본으로, 문화적 재화의 보유 여부를 객관화된 문화적 자본으로 보았다. 또한, 김갑수(2019)는 정규 교육과정이나 교내 활동을 통해 습득한 문화적 소양을 획득된 문화적 자본으로 재정립하였다(김갑수 2019; 서순복 2010; 윤성천 2021, 19-28). 그 외에도 문화적 자본의 개념 적용 대상을 예술과 문화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기업, 조직, 지역 등으로 확장하였다. 이에 학교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과 팀 구성원에게 공유된 조직의 정체성 및 의미체계 제공 등으로 문화적 자본을 확대하였다(윤성천 2021, 19-28; 이지은 외 2020; 최희용 외 2016).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부르디외의 문화적 자본 개념을 연구의 분석 틀로 사용하여, 유학 과정에서 축적한 문화적 자본이란 유학생의 아비투스(habitus)를, 졸업 후 교육의 구체적 성과라 할 수 있는 취업처 즉, 장(field)에서 어떻게 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유학 경험을 통한 문화적 자본 획득 경로와 그 요소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계급을 재생산하거나 계급 이동의 수단이 되는 등 사회적 위치 결정에 갖는 효과를 파악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유학 중 축적한 자본이 졸업 후 국내·외에서의 진로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교육 공간의 역할을 돌아보는 등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연구참여자

이 연구는 베트남 출신의 인문사회계열 졸업 유학생들의 취업과 취업 후 직장에서의 적응과정을 추적해봄으로써, 이들의 한국 유학 자본이 국내·외 취업에서 유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에 어떤 부가적인 효과를 갖는지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유학

자본이라 함은 교육이란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을 개념적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유학 자본의 확대를 위한 개인과 대학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원)에서 인문사회계열 전공을 한 뒤, 취업한 베트남 유학생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이유는 전공 특성으로 인해 취(창)업의 영역의 범위가 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취(창)업의 경로가 선 결정되지 않아 성과가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어서, 유학 자본 형성을 위한 개인과 대학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질적연구로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연구자 개인 네트워크와 베트남 유학생 자조모임(SNS)을 통해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으로 모집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한국 기업에 취업한 졸업 유학생(졸업예정자 포함)과 출신국인 베트남으로 귀환하여 한국 기업에 취업한 12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의 대학에서 인문사회계열 전공으로 학사부터 박사까지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졸업예정자들로 구성하기 위해 의도적인 사례 선택 방법으로 선정하였다(Creswell, J. 2014).

연구참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¹⁾ 자료수집의 전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들로 연구참여자와 관계된 모든 내용의 익명 또는 부호처리,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목적 및 연구 절차, 자발적 참여의 원칙,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인터뷰 녹음, 연구목적만을 위한 자료 사용 등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서약서를 제공하였다.

본인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유학 과정에서 축적한 자본은 무엇이며, 이 자본을 어떠한 상황과 경로를 통해 획득할 수 있었는지, ② 축적된 유학 자본이 졸업 후 한국과 출신국에서 진로 방향을 결정하고 유리한 위치를 갖는데 어떻게 활용, 실천되었는지, ③ 유학 과정에서 축적한 자본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하는지, ④ 졸업 후 체화된 유학 자본을 발휘하기 위해, 개인과 대학이 할 수 있는 일과 개선되어야 할 유학 제도는 무엇인지 크게 네 가지로 질문하였다.

인터뷰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이루어졌다. COVID-19가 지속 됨에 따라, ZOOM과 페이스북 메신저 영상통화를 활용하여, 국내 체류자와 베트남 거주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하였다. ZOOM 인터뷰는 <사례 1>, <사례 3>, <사례 7>, <사례 9>, <사례 10>, <사례 11>, <사례 12>, 페이스북 메신저를 활용한 영상통화 인터뷰는 <사례 2>, <사례 4>, <사례 5>, <사례 6>, <사례 8>이다. 1회에 걸쳐 2시간 정도 인터뷰하였으며, 연구

1) 1040621-202205-HR-042.

내용을 보충하고자, <사례 6>과 <사례 8>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상위 등급을 유지하며, 한국어 회화도 능숙하여 한국어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때 연구참여자가 본인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한국어가 능통한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통번역사로 참여하고, 필요에 따라 통역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목록

사례 번호	이름 ²⁾	성별 연령 (대)	입/출국 년도 (년)	체류 자격	최종 학력	전공	직업
1	바오	남 (30)	2016/ 2020	베트남 귀환	석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베트남 전문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2020.3. ~ 현재)
2	비	여 (30)	2012	거주 (F-2)	석사	국어 국문	성형외과 통번역사 (2016. ~ 현재)
3	코이	남 (30)	2015/ 2022	베트남 귀환	박사	사회	베트남 대학 한국학과 교수 (2022.9. ~ 현재)
4	안	여 (20)	2016	구직 (D-10)	학사	국제 관계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통번역사 (2022.4. ~ 현재)
5	꾸잉	여 (20)	2012/ 2020	베트남 귀환	학사	무역	한국 기업 전자 회사 통번역사 (무역, 회계, 인사) (2021.10. ~ 현재)
6	응옥	여 (20)	2014/ 2021	베트남 귀환	학사	국제 관계	한국 핸드폰 부품 기업 통번역사 (고객 응대) (2021. ~ 현재)
7	응이	여 (20)	2017	유학 (D-2)	학사 졸업 예정 ³⁾	경영	오일 제조 베트남 해외지사 통번역사 (2022. ~ 현재)
8	타오	여 (20)	2014/ 2020	베트남 귀환	학사	국제 관계	한국 핸드폰 부품 판매 회사 통번역사 (영업, 고객 관리) (2020. ~ 현재)
9	팅	남 (20)	2016	D-10	학사	호텔 관광	한국 대학 한국어학당 조교 (2023.1. ~ 현재)
10	푹	남 (30)	2013/ 2019	베트남 귀환	학사	무역	한국 휴대폰 부품 회사 통번역사 (2020. ~ 현재)
11	느	여 (20)	2017/ 2022	베트남 귀환	학사	관광 경영	한국 게임 IT 회사 통번역사 (2022. ~ 현재)
12	퐁	여 (20)	2016	F-6	석사 졸업 예정 ⁴⁾	무역	한국 자동차 수출 회사 베트남 담당 통번역사 (2023.1. ~ 현재)

연구참여자 12인은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 대학 어학당 수료 후, 학부 및 대학원에서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한 졸업 유학생이며, 한국 거주 기간은 4~8년이다. 이들은 교외 또는 교내에서 내국인(출생)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고 TOPIK 4~6급의 한국어 능력을 지니고 있다. 연구참여자의 특징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과 <사례 3>의 연구참여자는 한국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후, 출신국으로 귀환하여, 베트남 대학의 한국학과와 한국어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 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학부 학생들에게, 한국에서 경험한 한국 기업 문화 사례를 설명해주고, 유학 중 습득한 교수법을 현재 본인 강의의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사례 2>와 <사례 7>의 연구참여자는 베트남에서 익힌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국 유학을 결정하였다. 이들은 내국인(출생)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로 대화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지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로 개발된 버디버디 프로그램에, 충분한 준비 없이 투입된 내국인(출생) 학생들의 의지와 역량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적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사례 6>과 <사례 8>의 연구참여자는 학사 졸업 후, 한국에서 2년 정도 직장 경험을 쌓은 뒤, 베트남으로 귀환하여, 한국 기업(베트남 소재)에 취업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COVID-19로 인해 3년 정도 수학 후 출신국으로 돌아갔고, 입국 제한 등의 이유로 베트남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학사를 마치게 되었다. 이들은 베트남 현지 한국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시, 한국에서 시간제 취업 경험(합법·비합법 포함)을 강조하였다. <사례 5>와 <사례 10>의 연구참여자는 한국 유학 중 만나, 혼인한 유학생 부부다. 부인의 경우,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석사 과정 진학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COVID-19로 인해 베트남에서 비대면 수업 후 졸업하였다. 남편의 경우 한국 대학 졸업 후, 인턴으로 일 경험을 쌓고 베트남으로 귀환하여, 한국 기업 해외지사에 재입사하였다. 부부는 한국 유학 중 대학에서 습득한 문서 작성 능력과 시간제 취업을 통한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인정받아, 내국인(출생) 고용주의 전담 통번역사와 부서 내 베트남 직원들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다. <사례 4>와 <사례 9>, <사례 11>과 <사례 12>의 연구참여자는 학업과 일을 병행한 자로, 교내에서 사무 보조 또는 교외에서 단순노무 활동 등 다수의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사무 보조 경험과 단순노무 분야에서 습득한 한국 문화의 이해와 자연스러운 일상어를 자본으로 활용하여, 국내·외 취업처에서 근로하고 있다.

-
- 2)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이다.
 - 3) 졸업 예정자로, 졸업일 전 취업하였다.
 - 4) 졸업 예정자로, 졸업일 전 취업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베트남 출신 졸업 유학생의 국내·외 취업 실태

1) 한국 내 취업 실태

한국 대학(원)을 졸업한 베트남 출신의 유학생은 유학 국가였던 한국과 출신국인 베트남에 다수 취업해있다. 한국 유학 자본이 글로벌 경쟁력으로 작용하여 취업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 출신 졸업 유학생의 국내 취업 영역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한·베 산업체뿐만 아니라 대학의 유학생 관련 부서, 이주민 지원재단과 같은 비영리 기관, 의(병)원, 어업 분야, 해외 송금 업체, 공장 등 다양한 분야와 전문성의 수준에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열 졸업 유학생의 경우, 지도교수의 회사 또는 연구소나 대학, 관련 기업 등에서 자신들의 전공과 관련한 연구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최희정 2022, 8-10). 반면, 인문사회계열 졸업 유학생 다수는 모국어와 한국어라는 이중언어 능력을 자본삼아 통번역사나, 중간 관리자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사례 1>과 같이 인문사회계열 졸업 유학생의 경우, 한국 기업과 한-베 합작 기업, 공장, 철강회사와 무역회사, 비영리 지원단체(사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등)와 교육기관 등에서 내국인(출생)과 베트남 사람 간의 통역과 번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두 언어/문화의 접경지대에서 연결자/중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때는 같이 ○○○○○.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이 ○○○○○에 와서 배우러 왔어요. 그때는 통역사들이 많이 없어서 회사들이 채용을 통보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이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갔어요. ○○○○○에서 하루에 12시간 일했는데, 4일하고 이틀 쉬고 4일하고 이틀 쉬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아르바이트고, 졸업한 유학생들도 있었어요. <사례 1-1, 바오>

그 도면 있잖아요. 도면 만들어서 공장에 보내주고, 카드 업무. 거기 사람들이 그 도면 보고, 사실 그때는 공장에서 베트남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하는 목적은 베트남 사람이 이렇게 통역해주고, 이렇게 도면도 만들어주고, 베트남 사람한테는 통역 전담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만든다고, 근무하는 것 완전히는 다르지만 지금 일하기 전에 이 일도 했었어요. <사례 2-1, 비>

이외에도, 체류 중인 베트남인의 휴대전화에 필요한 유심칩 구매를 도와주는 유심 회사와 적은 수수료로 출신국에 송금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해외 송금 업체에서 근로 중인 졸업 유학생도 다수다.

서울에 가서 회사 좀 해봤어요. 1년 반 동안. 거기 이게 한국 해외 송금 회사요. 해외 송금 회사에 업무랑. [...] 손님이랑 만날 때 통역해요. 근데 여기는 거의 다 해야 돼요. 컴퓨터도 하고. 보고서도 쓰고. 맨날 맨날 다 거의 다 해야 돼요. 업무량은 옛날 (베트남에서 통역 일할 때) 보다 더 엄청 많아요. 훨씬 많아요. <사례 3-1, 코이>

최근 들어 통번역 업무는 산업체와 기업을 넘어, 의료와 어업 분야에서도 활동의 폭이 넓어져 새로운 분야에서 취업 중인 졸업 유학생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베트남 간 의료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베트남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의료와 관광을 목적으로 한 패키지 형태의 베트남 관광객이 증가하였다. 2017년에는 약 32만 명의 베트남인이 의료·관광으로 한국을 찾았으며, 이 수치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관광객 중 약 31%가 베트남인 인 셈이다. 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의료 분야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다. 베트남 의료관광객은 성형수술도 하지만,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을 받거나, 필요에 따라 치료와 입원을 하기도 한다(INSIDE VINA 베트남 전문뉴스 2019/05/31). 하지만, COVID-19의 영향으로 비자 발급에 제한을 받자, 국내에서 체류 중인 이주 여성 환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이들은 한국에서 체류 중인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민과 근로자, 유학생 등으로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치료받는 비율이 높다. 이처럼, 병원을 찾는 국내·외 거주 베트남 환자가 많아지면서, 의료 코디네이터(E-7-2 (S3922))⁵⁾로 취업한 베트남 출신의 졸업 유학생과 타 체류자격의 이주민 직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 본국인이나 한국 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한국 의료에 대한 높은 평가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아래 <사례 2>의 연구참여자는 내국인(출생)이 운영하는 한 성형외과에서 베트남 통번역 전담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녀는 의료 코디네이터로서 한국과 베트남으로부터 환자(의료관광객 포함)를 유치하고 치료 전 예약 및 상담, 의사와 환자 간 통번역, 치료 후 사후관리, 서류 안내와 작성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MOU를 맺은 베트남 성형외과와 직접 교류하며, 한국인 의사의 베트남 현지 의료 교육에 동행하여 통번역도

5) 의료 코디네이터(S3922)는 병원에서 진료 등을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 환자 안내 및 유치 활동 보조, 진료 예약 및 통역, 고객 관리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다(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244).

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의료 관광 환자도 왔었어요. 병원도 협력 있으니까. (베트남) 성형외과와 MOU를 맺었기 때문에. 또 외국인 환자들이 계속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의사 선생님이 교육하려고 매달 한 번 그렇게 (베트남) 출장하거든요. 저 병원이 너무 바쁘니까. 저는 한두 번은 같이 원장님 같이 나섰어요. 나중에 병원 일 바쁘니까 같이 일은 못하고. 저쪽에는 다른 통역을 구하고. [...] (COVID-19 때문에) 주로는 국내 환자도 많아요. 외국에서 온 환자는 많지 않아요. 비자 신청 좀 어려워서. 그래서 주로 국내 환자만 지금 보고 있어요. 베트남 좀 베트남 한국 오려면은 비자 신청 좀 어려워서. 그래서 그만큼은 많지 않았어요. 환자가. 한국에서 유학생이나 근로자나 이주 여자 있잖아요. 많이 와요. [...] 러시아하고 중국은 제일 많이 와요. 다른 나라도 중국 통역 2명하고, 태국도 2명. 러시아 1명. 영어 1명. 그렇게 통역 많아요. 중국 통역 다 석사하고 졸업 마치고 졸업 다 했어요. 한 명은 ○○대학교. 한 명은 ○○대학교 석사 과정 다 마무리했습니다. 태국 통역은 그냥 유학생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는 한국 남자 결혼해서. 러시아 사람도 한국 남자 결혼하고. 원래 일본 통역도 있었는데. 캄보디아 통역도 구하고 있어요. <사례 2-2, 비>

그 외에도 중국어 2명, 태국어 2명, 러시아어 1명, 영어 1명의 통번역사가 활동 중이다. 연구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중국어 통번역사 2명도 한국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졸업 유학생이다. 태국어와 러시아어 통번역사는 혼인귀화자이며, 내국인(출생)이 영어 통번역을 맡고 있다. COVID-19가 장기화되면서 비자 발급 규제가 완화되자, 타 국가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본어와 캄보디아어 통번역사를 모집 중이다. 연구참여자의 진술에 따르면, 병원에서는 연구참여자와 같은 졸업 유학생 직원을 뽑을 것을 선호한다. 베트남 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학 중 축적한 문화 자본을 활용하여, 혼자서도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인 고용주는 타언어 통번역사 모집 공고에 한국 대학(원) 졸업 유학생을 우대 사항으로 기재하였다.

최근 들어 한국의 어촌에서 근로 중인 베트남 출신의 어선원(E-10-2)이 증가하자 (OhmyNews 시리즈 2022/09/13), 베트남 선원의 통번역을 담당하는, 베트남 통번역사도 늘고 있다. 법무부(2022년 8월 기준)에 따르면, 국내 선원취업(E-10)자는 17,918명이며, 그중 베트남 출신이 8,705명(남성 8,704명, 여성 1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인도네시아 6,471명(남성 6,470명, 여성 1명), 중국 1,936명(남성), 미얀마 778명(남성) 순이다(법무부 2022).

베트남 어선원은 한국인 선주가 운영하는 회사(주로 가족 사업체)에 다수 고용되어 있다. 직업 특성상 외국인 어선원은 인사말 정도의 간단한 한국어와, 어획, 그물 손질,

건조와 포장 등에 필요한 용어 정도만 익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 고용주와 외국인 선원 간 의사소통과 서류 작성을 도와줄 통번역사 수요가 늘고 있다. 이때, 한국 대학(원) 졸업 유학생이 통번역사로 선호되고 있다.

〈사례 4〉에서처럼 아래 연구참여자는 베트남 어선원이 많은 포항 구룡포 바닷가의 어업 관리업체에서 통번역사로 활동 중이다. 연구참여자의 전임자도 한국 대학(원) 졸업 유학생이었으며, 그녀의 사수도 동일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선배다. 이들은 간단한 의사소통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계약과 임금 지불, 복지, 체류 기간 만료 예고, 퇴직, 취업 기간 만료자의 근로 연장 절차 등 회계, 출입국 관리 등에 관한 제도를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도 작성하는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제가 이런 선원 봤는데. 한국에 온 지 원래 계약서. 노동 계약서 4년 10개월이 안 되는데. 그거 다 끝나면 베트남에 가서 다시 재입국 신청해야 되는데. 재입국해도 한국어 하나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일하는 거 매일 반복하니까 그냥 한국어 배워야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 대표님이 아마 인도네시아 사람도 고용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아마 있겠죠. 한 3, 4개월 뒤에. 전에 있던 (베트남 통역) 사람도 유학생이었어요. 유학생 일하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례 4-1, 안〉

현재 이 회사는 베트남 어선원만 고용하고 있기에, 한국 대학 졸업 유학생 2명이 베트남 통번역사로 활동 중이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 선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출신의 한국 대학(원) 졸업 유학생을 통번역사로 채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처럼 한국 내의 다양한 산업체들(철강회사, 글로벌 소재의 부품 기업과 사업장, 조선업)과 의료 분야, 어업 분야 등에서 단순노무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의료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소통을 돕는 전문 통번역사로서 한국 대학(원) 졸업 유학생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베트남 취업 실태

출신국인 베트남으로 귀환하여 취업한 한국 대학(원) 졸업 유학생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해외 지사(부품 제조, IT, 게임, 모바일 쿠폰, 부동산, 보험, 관광, 인테리어 포함)와 한-베 합작 기업, 베트남 대학과 한국어 학원, 유학원, 병원과 화장품 회사, 인력회사, 사회단체 등에 취업해있다.

한국 기업 해외 지사와 한-베 합작 기업에 취업한 졸업 유학생 다수는 전자, 무역, 회계, 청산, 품질, 운영, 개발, 전략기획, 마케팅, 영업, 인사, 고객 관리 부서 등에서

통번역사로 활동하며, 서류를 작성하는 등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몇몇 연구참여자는 호치민과 하노이와 같은 도시가 아닌, 고향에 취업하여 통번역사로 근로하고 있다. 박장(Bac Giang)과 같은 비교적 작은 지역에도 한국어와 베트남어 간 통번역을 필요로 하는 한국 기업이 밀집해있기 때문이다.

지금 베트남에 좀 한국어 통역 많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지금은 한국 기업하고 여러 기업들 많이 베트남 투자하고 와서 우리 주변에도 가게도 많이 생기고 여러 곳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다 한국 기업인데요. 한국 기업하고 중국 기업도 있고. 우리 거의 다 한국 유학하면 베트남 와서 대부분은 통역사 좀 하고 있습니다. <사례 5-1, 꾸잉>

저 지역에서 한국 기업은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저 친구들 거의 다 저처럼 기업에서 한국 기업에서 취직하고 통번역이나 아니면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한국 유학 갔을 때 이 전공을 배웠는데 베트남이나 아니면 고향 다시 돌아오면 그 전공 맞추는 일 안 해요. <사례 6-1, 응옥>

위 <사례 5>, <사례 6>에서 확인할 수 있듯, 현재 베트남의 한국 기업에서 통번역사로 활동 중인 복수의 졸업 유학생은 통번역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한국어학, 한국어문학, 국어국문학, 한국문학, 한국학 등의 전공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졸업 유학생은 베트남 대학의 한국 관련 학과(한국학과, 한국어학과 등)에 교수로 임용되었거나, 강사로 재직 중이다(Lifepiazza 2021; Mai Kim Chi and Nguyen Thi Ly 2021, 1; Nguyen Thi Thu Huong 2021, 1).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급증함에 따라, 통번역사 수요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에 취업을 목표로, 베트남 대학의 한국 관련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도 증가하고 있고(Lifepiazza 2021), 증가하는 한국어 교육수요를 위해 교수자로서, 한국 대학(원) 졸업 유학생이 우대되고 있다. 베트남 ○○대학교 동방학부 한국학과와 관련하여, 전임 교원 10명 중 다수가 한국에서 한국학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호치민 외국어 정보대학교 동방학부 한국학과 2022, 2)이며, 아래 <사례 3>의 연구참여자도 이에 속한다. 한국어학 전공 졸업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능력은 고등교육 기관에서 교수직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임을 보여준다.

베트남에서는 한국어학과 전공했어요. [...] 저는 석사는 한국어학과 (한국) ○○대 한국어학과였는데. [...] 사회학과로 박사를 했었습니다. [...] 저는 옛날에 (유학) 가기 전에 진로가 없었어요. 그냥 한국어학과 공부하고 졸업하고 나서 취업. (한국) 회사 취업하고 회사원 같은 거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 갑자기 장학금 받아서 여기 유학을

왔어요. [...] 교수님이 선생님 해라 교수님 해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 저는 한국학과 (교수)니까 일단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한국 사회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요. 한국 사회 베트남 사회에 차이가 뭔지 알려줘서. [...] 그리고 뭐 우리 한국학과 아니라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학생들은 거의 한국 기업 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 기업의 어떻게 문화인지 저희가 알려주고 싶어요. 제 경험으로 제가 다 경험해봤으니까 그 경험으로 다시 학생들에게 알려주자는 그런 생각을. <사례 3-2, 코이>

일부 졸업 유학생의 경우, 한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베트남 소재의 모교로 돌아와 교수나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다. 아래 <사례 1>의 연구참여자도 한국 대학원 졸업 후, 본인 모교(베트남 소재 전문대, 한국어학과 학사 졸업)의 한국어학과에 교수로 임용되었다.

저는 길을 정했어요. 그것은 바로 유학에 가서 공부하고 나서 바로 베트남에 돌아오기를 정했어요. 이미 그래서 한국에서 이쪽 공부해서 졸업하고 바로 베트남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전문대는 모교이고 한국어 전공했습니다. 저는 교수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국어 국문 편입하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석사 졸업해서 지금 모교에 교수하고 있습니다. <사례 1-2, 바오>

반면, 한국에서 유학하지 않거나, 베트남 대학에서 한국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고도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또는 승진과 월급 인상을 목표로 한국어 학원을 찾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어 학원 박장 시내나 하노이하고 박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작업자도 한국 기업 근무해서 작업자도 공부 그냥 어학원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기업에서 혹시 작업자는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월급도 좀 더 높게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거든요. <사례 5-2, 꾸잉>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한국어 교육에 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기업이 위치한 호치민(Ho Chi Minh City), 하노이(Hanoi), 박장(Bac Giang), 박닌(Bac Ninh) 등에도 한국어 학원이 밀집해있다. 따라서 아래 <사례 2>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국어 학원에서 한국어를 강의하는 졸업 유학생도 몇몇 존재한다. 베트남 대학의 한국 관련 학과에 임용된 졸업 유학생과 달리, 한국어를 전공하지 않았어도,

일정 수준의 TOPIK 점수를 취득한, 한국 대학(원) 졸업 유학생이 한국어 학원의 강사로 채용되고 있다.

한국어 학원 선생님이 어떤 사람은 한국 유학 갔다 와서 (한국어) 강사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어 전공 안 해도 토픽 급수 높으면 할 수 있어요. <사례 2-3, 비>

이외에도, 아래 <사례 7>과 같이, 한국 대학에 베트남 학생을 유치하는 유학원이 증가하자, 졸업 유학생은 유치 담당자(유학 설명과 서류 준비 등) 또는 면접 평가(대학, 대사관)를 대비해, 한국어를 교육하는 한국어 강사로 고용되어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졸업하고 한국어도 어느 정도 아니까.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다시 유학원을 스스로 만들거나. 아니면 유학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졸업 유학생) 언니랑 오빠들이 점점 많이 있어요. [...]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뭐 아는 언니 중에서도 이렇게 직접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제가 아는 언니 (한국) ○○대에 있는 언니가 거의 4학년 1학기까지 공부했는데. 거의 한 학기만 남았고 졸업할 건데. 그냥 졸업 안 하고 바로 베트남에 가서 지금 (유학원) 일을 하고 있어요. [...] 저도 옛날에 다닌 유학원이 저한테도 많이 뭐지 추천 많이 했어요. 졸업하고 베트남에 가서 같이 (유학원) 일을 하죠. 그런 추천도 많이 받았어요. <사례 7-1, 응이>

이처럼 한국 대학(원)을 졸업한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의 진로 선택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래 장에서는 한국 유학 중 축적한 유학 자본의 형성 과정과, 축적된 자본이 한국과 출신국에서 취업하는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2. 유학 자본 형성과 그 효과

1) 유학을 통해 형성한 문화적 자본

(1) 한국어 말하기 자본 : 사투리

해외와 교류가 빈번하거나, 국외에 위치한 한국 기업의 경우, 한국어 능력은 직원이 겸비해야 할 필수요건으로 여겨진다. 복수의 인문사회계열 졸업 유학생은 전공을 살려 취업하기보다, 모국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는 이중언어 능력을 자본 삼아, 한국과 베트남에서 통번역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아래 <사례 8>과 같이, 취업과 직장생활에 있어 본인의 경쟁력을 한국 유학 중 습득한 한국어 말하기 능력이라고 지목했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한국말을 잘하는 거죠.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 1등. 말하기 능력이 1등. [...] 한국어 공부된 거 큰 도움이 된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도 실제로 갔다 와서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이제 여기 한국 회사.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많이 오니까. 한국에 갔다 온 사람 우선적으로 사람을 뽑거든요. 한국 다녀와서 이해할 수 있고 한국 갔다 온 사람 더 잘 뽑아요. 좋아해요. [...] 2명이었는데. 저하고 약간 베트남에서 공부 한국어를 공부하는 친구 면접하고 나서. 바로 합격 되었어요. 한국 갔다 왔기 때문에 바로 합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쟁력. 면접할 때 인터뷰할 때 그 친구는 통역사를 뽑으니까 베트남에서 한국어 공부한 사람이었고. 한국 경험 유학 경험이 정말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사례 8-1, 타오>

대다수의 졸업 유학생은 한국어 교육 경험과 수준에 따른 자격증이라 할 수 있는 TOPIK에서 높은 등급이라는 제도화된 문화적 자본의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복수의 졸업 유학생 직원에 따르면, TOPIK 성적표라는 객관적 지표보다, 실제 한국어라는 사회 공간에서 습득한 한국어 말하기 자본이 취업을 위한 중요 요인이라 말한다. 베트남 현지에서도 한국 유학 경험이 없는 다수의 베트남인이 TOPIK에 응시하고, 보유한 성적을 취업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능력시험 등급으로는 평가될 수 없는 실제 업무 상황에서 언어 구사 능력, 즉 체화된 언어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래 <사례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TOPIK 등급이 높다 하더라도, 말하기 영역이 없으며, 토픽 말하기 평가 문항은 실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말하기 주제와 상황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외의 많은 한국 기업에서는 면접을 통해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직접 평가한 후 채용하고 있다.

한국 유학 없어도 베트남에서 토픽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픽은 도움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픽 6급 갖더라도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면접 볼 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그래서 6급이 있어도 말을 못하면 바로 탈락이에요. 그래서 자격증은 자격증이지만 진짜 그냥. [...] 토픽 말하기의 문제가 우리 이렇게 맞아야 해요. 아니 우리 이런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런데 토픽 문제가 좀 따라 좀 다르면 어떻게 해요?. 아주 완전 다른 길이잖아요. 그래서 토픽은 이렇게 아예 있지만. 우리 (한국어 말하기) 능력이 있으면 바로 면접 회사들이 우리 다 뽑은 거예요. <사례 1-3, 바오>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한 기업의 경우, 외국인 직원 채용 시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시간제 근로와 인턴 또는 취업 경험과 이력 등의 경력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문화

자본을 검증하기도 한다. 한국 업무 현장에서 언어(모국어, 공용어, 한국어 포함) 구사 능력과 근무 태도나 기업 문화 등의 이해를 갖추고 있는지를 찾고자 한다. 하지만, 아래 <사례 9>에서 보듯이, 한국 대학(원) 과정을 거치면서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나 인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들이 직무 경험으로 이력서에 적을만한 경력이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제가 경력 썼을 때 (합법으로) 정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일하는 기관이 거기 (제도)에 없었으면 경력이 0이예요. 경력이 있어도 이게 (이력서에)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어 가르치는 일을 이제 외국인 학생을 못해요. 학업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정책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 그런 거 있어요. 외국인 영어 쓰는. 영어 쓰는 유학생들을 (일) 할 수 있어요. 다른 언어 중국. 베트남. 태국들을 (일) 못 해요. 그런 것도 있고. 왜냐하면 제 친구들은 영어를. 이제 영어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학업으로 할 수 있어서. 그런데 저희는 만약에 지원하잖아요. 언어 교육 부문에서 근무 불가능이 나왔어요. 못해요. <사례 9-1, 텅>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제도에 따르면, 허용된 아르바이트가 식당 점원 등의 단순노무 분야(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33-36)에만 집중되어, 그 이력이 취업과의 연관성에 부합하지 못한다. 특히, 복수의 유학생이 언어를 활용한 시간제 취업 경험(외국어 교습 포함)이 있다 하더라도, 다수가 비합법 행위에 해당하여, 이력서에 기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예지 2022, 205-209). 또한, 졸업 유학생 다수가 언어 자본을 활용한 비합법 시간제 취업 경험이 있더라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취업 지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적어, 본인의 일 경험을 서류에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학 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국내·외 한국 기업에서는 면접을 통해,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언어 자본을 활용한 시간제 취업 경험(합법·비합법 포함)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아래 <사례 8>에서 확인할 수 있듯, 졸업 유학생은 후배들을 위해,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제도와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선배한테 이력서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면 다 알려줬습니다. 이력서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베트남 선배. 한국말로 한국식으로 썼다. [...] 진로에 대해 진로 위한 수업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로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인지 알려주고 서류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주는 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8-2, 타오>

면접을 통해, 한국어 말하기 능력과 언어 활용 경험까지 인정받아, 취업한 졸업 유학생 직원은 한국어 말하기 중에서도 지역 사투리 구사 능력을 본인의 경쟁력으로 꼽고 있다. 아래 <사례 5>, <사례 8>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국 기업 해외 지사에서 근로 중인 한국인 고용주와 상사 다수가 특정 지역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체류 중 습득한 사투리가 회사 상사들과 소통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서와 기대되는 행동 양식 등을 이해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느끼게 하는 문화 자본으로 작동하여, 이들의 취업과 직장에서 적응에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아마 한국 사장님 얘기는 하기는 하는 거면, 저 잘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고 가끔 한국에서 사투리나 좀 그런 거 있어요. 사장님 고향 대구 근처에 있어요. 나도 대구 ○○대. 그래서 더 잘 알아듣고 했어요. 베트남에 있는 대구에 나오는 회사가 많아요. 친구 보니까 사장님이 대구 사람이 많아요. <사례 5-3, 꾸임>

저희 회사 본사는 바로 대구기 때문에. 제가 대구 ○○대를 나온 사람이라서. 사투리를 좀 많이 알아듣고, 다른 상사들 사투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 알아들어서 바로 확인하 시기 좋습니다. <사례 8-3, 타오>

사투리 억양과 독특한 표현들에 익숙한 이들은, 사투리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타 직원(수도권 소재 한국 대학(원) 졸업 유학생, 베트남 대학 한국 관련 학과 졸업생, 한국 유학 경험 없는 자 포함)과 비교하여, 사투리가 오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능숙하게 대처하고 있다. 사투리라는 독특한 언어 자본은 본인이 한국 유학 중 후천적으로 획득한 지역의 문화 자본이 체화되어, 지방 대학(원)을 졸업한 유학생 직원만이 보유한 차별화된 강점으로 발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투리를 구사하는 한국인 고용주 또는 상사의 전담 통·번역 업무를 맡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 유학 중 습득한 한국어 말하기 언어 자본이 국내·외 한국 기업 취업에 경쟁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2) 한국어와 결합된 컴퓨터 활용능력 자본

한국 대학(원) 졸업 유학생의 한국어 말하기뿐만 아니라, 쓰기 능력도 국내·외 한국 기업 취업에 유용한 언어 자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서류와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이다. 졸업 유학생은 대학(원) 과정에서 한국어 쓰기 교육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서 주로 쓰이는, HWP 문서 파일과 PowerPoint, Excel 등 컴퓨터 활용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많아, 타 체류자격의 외국인 직원보다 일을 수월하게 처리하는 경향을 보인다. 타 이주민(결혼이민(F-6), 비전문

취업(E-9 등)과 비교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유학생은 한국어를 쓰고, 컴퓨터를 활용하여 문서와 발표 자료 등을 만들고, 발표했던 교육 경험 등 제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획득한 문화적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 <사례 8>에서 확인할 수 있듯, 통번역사로 근무 중인 다수의 졸업 유학생은 유학 중 획득된 문화적 자본으로 인해 통번역뿐만 아니라, 보고서와 서류 작성 및 발표 등의 업무 역량을 갖추게 되어, 직무 배정에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수업할 때 저희 PPT 발표가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도 회사에서 PPT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도 다 도움이 더 많이 됐습니다. 지금 업무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 유학 경험 없는 직원은 좀 어렵습니다. <사례 8-4, 타오>

컴퓨터 많이 사용했어요. 학교 다닐 때 과제하고, 그리고 보고서도 작성했어요. 학교 다닐 때 한 거 많이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 이제 Excel하고 PPT는 잘하면 그냥 (취업) 되는 데요. (취업에) 문제없을 것 같아요. 제가 문서 만들고, Excel 작업하고, PPT도 만들고, 통역도 해요. <사례 10-1, 폭>

이로 인해, HWP 문서 파일을 활용한 한국어 보고서 쓰기와 PowerPoint, Excel 작업 능력 자본을 본인의 경쟁력으로 꼽는 졸업 유학생 직원도 다수다. 한국어 쓰기 능력뿐만 아니라, 서류 작성과 발표 능력까지 인정받은 몇몇 졸업 유학생은, 업무 분장 시 해당 부서 또는 한국인 상사의 통번역과 서류 작성을 전담하여, 잔업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생산하고 품질은 잔업 많이 하거든요. 저는 거의 잔업 없어요. 보통 남자분은 잔업 많이 해서. 저 월급보다 그 사람 좀 적어요. 근데 품질도요. 저 좀 더 높아요. 조금 더 높아요. 저는 좀 더 받아요. 그 사람보다. 아마 저는 총무에서 저 사장님 통역. 통역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일 많이 해요. 여러 가지 통역만 말고 여러 가지 해야 해요. 서류도 만들고, 그래서 너무 고생해서 그래서 사장님 월급도 좀 높게 줬어요. <사례 5-4, 꾸잉>

위 <사례 5>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국 유학 중 습득한 한국어 사무 능력과 컴퓨터 활용능력과 같은 유학이란 제도화된 교육과정 중 획득된 문화적 자본은 그 상징성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자본 수준을 달리하여 회사라는 위계적 사회구조 속에서 직급과 임금 등에서 유리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유학이 아니라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주민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습득한 후, 국내·외 한국 기업에 취직한 사람들은 통번역 업무보다 현장에서 관리직을 맡는 경우가 많다.

한국 대학(원) 졸업 유학생들은 베트남 대학의 한국 관련 학과 졸업자들과 비교하여,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베트남 대학의 한국 관련 학과 졸업자들도 정규교육을 통해 한국어 문서 작업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과 문화에 관한 열풍이 불자, 한국 기업에 취업을 목표로 입학하는 학생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다수의 베트남 대학 한국 관련 학과에서는 실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한국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부 전공으로 사무행정과 문화관광 등을 개설하고, 한국 기업 문화와 한국 문화, 한국 역사 등을 강의하고 있다(Lifeplaza 2021).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복수의 베트남 대학 한국 관련 학과에서는 졸업생의 한국 기업에 취업을 위한 준비교육을 학부 과정부터 진행한다라는 점이다. 아래 〈사례 9〉에서 나타나듯, 한국 대학에서는 유학생을 위한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과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에서도 한국 학교들이 한 가지 단점은 뭐냐 하면은 실무가 많이 없어요. 주로 이론 그리고 역사들을 많이 배워요. 그런 거 잘하면은. 그런 거 잘해도 이제 실제로 이제 업무 할 때 사용할 수 없는 지식이라서. 내가 하고 싶으려면. 내가 스스로 경험을 해야되고. 스스로 실습을 해야되고. 그런 거를 조금 이제 한국 교육과정 교육 정책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이지만. 이게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을 이제 실습 기간이 있어요. 그래야 졸업할 수 있어요. 학교 (실습) 시켜줘요. 학교 근데 한국에서는 나는 인턴하고 싶으면. 나는 스스로 잘해야 돼. 그거를 조금 외국인한테 조금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례 9-2, 텅〉

한국의 경우,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거나, 지역특화형 비자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가 검토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치와 적응에 집중되어있다(조향록 2017). 이로 인해 재학 중과 졸업 후, 취업 지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다수 유학생은 국내·외 한국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채용 정보를 제공해주는 인터넷 플랫폼과 베트남인을 위해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는 Facebook 자조 모임 등에서 취업 정보를 얻고 있다. 또한, 아래 〈사례 11〉, 〈사례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 YouTube를 통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준비를 하고, 한국인 지인의 도움을 받아 첨삭 받기도 한다.

저 인터넷으로 (취업 정보) 찾았습니다. 베트남에 한국에서 기업 사이트 있잖아요. ○○○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도 그런 웹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런거 Facebook도 많이 올랐습니다. 〈사례 11-1, 느〉

제가 이력서랑 자기소개 준비해야 되는. 한국인 YouTube로. 한국인 YouTube를 보고 준

비했어요. 한국 회사 문화에 맞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요즘 YouTube도 굉장히 많은 유익한 정보도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례 12-1, 품>

이와 달리, 다수 베트남 대학의 한국 관련 학과에서는 학부부터 한국 기업 취업 대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은 이론뿐만 아니라, 모의 면접, 한국 기업 박람회 참여, 기업 탐방 프로그램, 현장 실습, 인턴 과정 참여 및 기업 연수(졸업 실습 프로그램), 한국 기업과 산학협력 사업 추진, 한국 기업 직원 특강(한국 기업 문화, 직장 문화, 경제 제도, 경영법 등) 등 실습 위주의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호치민 외국어 정보대학교 동방학부 한국학과 2022, 2; Lifelplaza 2021).

이처럼 한국 유학 경험은 없지만, 베트남에서 취업 교육을 받고 한국어 문화 자본까지 축적한 동료와 후배가 입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유학 중 축적한 자본이 출신국의 한국 기업 채용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취업 진로 교육 프로그램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3) 기업 문화 이해 자본 : ‘빨리빨리’ 문화 체득

앞서 살펴보았듯, 한국 대학(원)에서 습득한 한국어 말하기와 컴퓨터 문서 파일을 활용한 한국어 쓰기 언어 자본은 국내·외 한국 기업 입사에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현지에서도 한국 유학 경험이 없는 자들이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어를 습득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문학 작품, 노래, 예능 등을 시청하며 한국어를 배우는 자기주도 학습자와, 한국어 학원에서 한국어 교육 수강자, 베트남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자 등이다. 아래 <사례 8>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들의 증가로 인해, 한국 대학(원) 졸업 유학생으로서 고유한 유학 자본을 통해 경쟁력 증진은 필수적이다.

지금 보통 한국 회사 많이 있는 (베트남) 지역에서. 거기서 사람을 많이 뽑고. 지금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학교, 학원 엄청 많아서. 지금 (한국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 있다 보니. 지금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진짜 (한국어) 많이 공부해요. 지역들에서 많이 공부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한국 능력에 대한 차이가 많지 않거든요. 우리 유학생보다 다 잘해요. 한국어를 다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유학 경험만 더 좋은 점이예요. 그 유학만.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왜냐하면 유학을 못 했기 때문에 유학생보다 더 자기 더 많이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귀국할 때 열심히 안 하면 실력 벌어져요. <사례 8-6, 타오>

복수의 졸업 유학생은 한국 유학 중 학업과 일을 병행하였다. 다수는 시간제 취업 제도 내 허용 분야인 식당에서 음식점 보조 활동을 하였고, 국제처에서 교내 근로했던 유학생도 몇몇 존재한다. 더 높은 월급과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공장과 계절 근로 등에서 비합법 시간제 취업을 하기도 했다. 졸업 후, 한국에서 일 경험을 쌓고자 구직(D-10) 체류자격을 취득하지만, 한국에서 취업과 구직(D-10) 체류자격 연장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소수만이 인턴 기회를 갖게 되거나, 취직에 성공한 졸업 유학생은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의 기회를 갖는다.

아래 <사례 2>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러한 일련의 일 경험 과정을 통해 습득한 한국 지역사회 특색과 기업 문화 이해 자본이, 졸업 유학생의 국내·외 한국 기업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일했던 경험들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 성실한 사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해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의 생각이나 일하는 모습, 일하는 태도 그거 많이 배웠어요. 일하는 것은 빨리하는 거, 일하는 것도 배웠고. 그래서 좋은 거 많이 배웠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일하면 그냥 여유 있게 일하고, 월급 그렇게 받고, 노력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요. 퇴근하기 힘들면, 여기 너무 빨리 사니까, 나도 바쁘게 살고 늘 노력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어요. <사례 2-4, 비>

특히, 출신국으로 귀환한 졸업 유학생에게 한국에서의 시간제 취업(합법·비합법 포함)-인턴-취직 경험이, 베트남 소재 한국 기업(해외 지사) 취업에 중요한 문화적 자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신국의 한국 기업에서는 한국에서 일 경험이 있는 경력자 채용을 우대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에 위치한 복수의 한국 기업 해외 지사의 경우, 고용주와 부장, 과장, 대리 등의 상사는 한국인이며, 그 외 직원은 베트남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서 내 2~3명 정도의 한국인 상사의 지도 아래에서 베트남 직원이 일을 수행하는 구조다. 부서별로 한국 유학 중 일 경험이 있으며, 한국어 말하기와 쓰기, 컴퓨터 활용이 능숙한 통번역사 직원(베트남 출신)이 최소 1명씩 존재한다. 이들은 부서 내 베트남 직원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에서 취업 경험을 통하여, 한국의 업무 환경에서 '빨리빨리'로 표현되는,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조하는 문화를 체득한 경우, 베트남 현지 한국 기업에서 한국인 상사와 일 처리 속도를 맞춤으로써, 부서 내 리더 역할까지 맡는 것이다.

한국 사람이면 빨리빨리 하죠. 그래서 문화를 알게 돼서 제가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휘할 때 좀 빨리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그리고 자세히 관리 자세하게. 아르바이트 했을 때 우리 사장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자세히 닦아줘 이거 닦아줘 이렇게 자세한 분이었어요. 좀 깔끔하게?. 그래서 사장님한테서 좀 배웠습니다. <사례 1-4, 바오>

일단은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 자체가 어떤 거 하든지 그냥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하거든요. 오늘. 오늘 못 끝내면 내일 또 하면 된다. 그런 거. 그리고 약속 시간도 많이 안 지키고. 맨날 늦게 오는데. 근데 한국 사람이 반대로 뭐가 하든지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그리고 약속 시간 약속 시간보다 더 일찍 오는 습관도 되었어요. 통역할 때 서류 작업할 때 빨리빨리 정확하게 하게 되었어요. [...] 취직해서 사회생활이 하려면 사회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례 4-2, 안>

한국인 상사와 동료는 유학생에게 일을 해결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해당 조직 내 정체성과 의미체계를 알려줌으로써, 유학생은 일 경험을 통해 조직의 문화적 자본까지 습득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 유학 중 일 경험이 있는 복수의 직원은 체화된 문화적 자본을 활용하여,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스스로 파악한 후, 개선책을 문서로 작성하여, 한국인 상사에게 보고하고 있다. 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 단순노무 분야에서 취업 경험을 한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대학 내 국제처와 연구소, 각종 행정부서에서 시간제 취업 경험을 통해 습득한, 조직문화와 언어 소통 능력의 이해뿐만 아니라, 업무 상황에서 행동양식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문화 자본이 주는 경쟁력이다.

아마 국제처 사무실에서 일했던 동안 제일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랑 높은 위치 높은 선생님도 같이 일하니까. 어느 정도는 그 선생님들 말투나. 그래서 말투 아니면 일은 어떻게 시키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 이 일 할 때는. 저는 서류 같은 거 아니면 뭐지 대표님이랑 얘기할 때도 어느 정도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 경험. [...] 저는 그때는 뭐지 서류는 같은 종류 정리해주고. 서류 아니면 보고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국제처)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하는 선생님들도 저한테 다들 가르쳐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선생님 말하면 이런 문장 쓰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학생들 베트남 학생들은 막 오잖아요. 베트남어로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했으니까 정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먼저 정리하고 나서 선생님들이랑 보고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 베트남 학생은 데리고 가서 그 선생님 만나고 얘기하면 말은 엄청 길게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정리하고 나서 만나러 가는 거예요. [...] 지금 일 있으면 먼저 정리하고 서류 만들어서 보고해요. <사례 11-2, 느>

아르바이트 했으면 한국 문화는 많이 약간 한국 사람 성격도 조금 급한 사람. 빨리빨리. 저도 빨리빨리 해야돼요. 한국 사람 같이 일하니까. 보고서. 그리고 문제 생기면 빨리빨리 해결해야 하고. 문제 있으면 우린 그것도 다 파악해야 되고. 보고서 만들어서 보고하고. 아르바이트할 때 배워서. 인턴할 때도. <사례 10-2, 폭>

유학생이 사무 보조를 직접 체험하고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분야는 주로 교내 근로다. 하지만, 유학생 수에 비해 교내 근로 선발 인원은 제한적이다. 학교 밖 사무 보조는 허용된 시간제 취업 분야(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33-36)지만, 한국 체류 기간이 긴 결혼이주여성 직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예지 2022, 198-202). 이러한 이유로 아래 <사례 5>는 단순노무 분야가 아닌 사무직 현장 적응력 강화와 경력 제고를 위한 시간제 취업의 기회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저는 한국 안 오면 그 정도는 한국어 못하겠죠. 한국에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서 한국어도 많이 좀 공부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한국 그때는 대부분 생활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지금 취직해서 진짜 일하는 것이예요. 그냥 어학당 하는 것만 적음하면 회사에 진짜 모르는 건 많아요. 그래서 진짜. 한국 사람마다 좀 회사마다 좀 적응이나 사장님은 말하는 방식 좀 달라요. 이 회사 쪽에 말하는데 다른 회사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 회사는 한국어말 이렇게 하는데. 다른 회사는 그런 말 하면 그 의미 아니라고 그렇게 했어요. 식당 말고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취직해서 진짜 일 잘 할 수 있어요. (제도) 바꾸면 좋겠어요. <사례 5-5, 꾸잉>

이외에도, 한국 지역사회의 단순노무 분야 근로 현장에서 익힌 자연스러운 한국어 자본과 위기상황 대처 경험 자본이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참여자는 유학 중 시간제 취업에서 내국인(출생) 고용주와 동료, 손님 간의 대화를 통해, 일과 관련된 표현과 일상어를 익힐 수 있었다고 답했다. 복수의 졸업 유학생은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시간제 취업한 경험이 많다. 식당의 경우, 주방에서 설거지하며, 내국인(출생) 고용주와 동료 간 대화를 통해 한국어가 능숙해지면, 내국인(출생) 손님에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경향을 보인다.

아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몇몇 연구참여자는 홀 서빙과 편의점 계산 중, 내국인(출생) 손님과 대화하고, 돌발상황에서 일 경험을 통해 획득된 문화적 자본이, 현재 회사에서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얘기한 거 저희 학교와서 얘기한 거 말은 단어의 표현이고. (아르바이트 때) 한국 사람이 말의 표현이 많이 들어서 내가 그다음에

사람을 얘기하는데 알아듣기도 쉬워 좋습니다. 공부하는 것과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라는 언어 표현이 좀 다르거든요. 일하면서 한국 사람 질문하고 당황했는데. 아르바이트하면서 경험하고. 지금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사례 8-7, 타오>

또한, 이들은 한국 유학 중 일 경험을 통해, 고용주와 동료, 손님 등 다양한 내국인(출생)을 접함으로써, 한국 사람의 지역 억양과 표정, 몸짓을 보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특색과 사회 관계망 속에서 익힌 자본을 활용하여 현재 일을 처리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안 하면 한국말도 좀 그 정도는 못 할 것 같은데요. 그냥 계속 있으면 아르바이트도 근무해서 한국 사람도 자주 좀 만나고 모르는 것도 좀 한국 사람도 혹시 이런 거 이런 거 잘 못하면 좀 가르쳐어. 그래서 한국어 좀 더 높게 했어요. [...] 알바하면서는 좀 한국 사람 성격. 성격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좀 사고 방식하고, 좀 이야기하는 방식도 좀 이해할 수 있었죠. 지금 도움 많이 되죠. <사례 5-6, 꾸잉>

지금 저 부서에서 과장님 한국인 두 명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원인 파악이나 아니면 개선 대책 빨리빨리 그렇게 작성하고, 원인 파악 빨리빨리하고, 가 법계 좀 늦으면 (유학 경험 없는 다른 직원한테) 소리 질렀거든요. 성질내고, 왜 지금까지 원인은 아직 파악 못했나?. 그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저도 그건 (한국에서 일 경험) 좋은 거 맞아요. 그거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에서 좀 알기 때문에 좋은 거 같아요. 학교에서는 과제 빨리, 알바하면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뭐든지 진짜 맞아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사례 6-2, 응옥>

이처럼 한국식 관계 맺기 기업 문화를 익힌 졸업 유학생은 상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한국 기업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반면 아래 <사례>를 포함한 모든 연구참여자는, 한국에서 일 경험이 없는 베트남인 직원의 업무 특성의 경우, 일 처리 속도가 느리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도 한국 문화 잘 알아서 그냥 일 처리 좋아요. 그런 (한국) 문화는 그냥 모르는 사람은 답답해요. 일을 느리게 하고, 솔직히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빨리 빨리 알아서 일 잘 처리해요. 그냥 한국말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 문화는 잘 알아서 그냥 한국 사람 성격 잘 안다?. 근데 베트남 사람 솔직히 일 느리고. <사례 10-3, 폭>

또한, Mai Kim Chi와 Nguyen Thi Ly(2021), Nguyen Thi Thu Huong(2021)에 따르면, 베트남인 직원은 한국 기업의 한국식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와 업무 특성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어한다(Mai Kim Chi and Nguyen Thi Ly 2021, 1; Nguyen Thi Thu Huong 2021, 1)고 밝힌 만큼, 졸업 유학생에게 한국에서 일 경험을 통한 한국 기업 문화 자본(회식 문화 포함) 습득은 직장생활에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지역과 기업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습득된 문화 자본이 졸업 유학생의 국내·외 한국 기업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현행 교육 프로그램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모든 연구참여자는 재학 중 일 경험을 통해, 한국어 역량이 강화될뿐만 아니라 간문화(Cross cultural sensitivity) 민감성도 개발되었으며, 실무 경험도 쌓을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유학 중에 한국어로 표현의 기회가 적었음을 아쉬워하였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인 대학생과의 교류 프로그램의 한계도 아래 <사례>와 같이 지적하였다.

기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한국 학생은 친구 되는 게 기회 많지 않았어서. 학교 친구도 원래는 1:1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자주 연락하지 않았어요. 원래 이날은 만나자고 했는데. 그때 자기가 안 된다 못 만나겠다. 그래서 친한 친구 없어요. 원래 그 프로그램 통해서 한국 친구 더 친하게 교류를 할 수 있는데. 대시하는 한국 친구는 없어요. 아마 외국인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하면은 한국 친구는 친할 수 있는데 좀 아까웠어요. 한국 친구도 와서 한국어 수업하고 아니면은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한국 친구하고 외국인 친구 더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사례 2-5, 비>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국 친구들이랑 버디버디 프로그램은 높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왜냐면 그 친구들도 따로 학교에서 주는 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기도 하는데. 우리 이렇게 그냥 처음에 열심히 도와주지만. 한두 번 지나면 나중에 열심히 연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도 이렇게 몇 개 갖추고 같이 입고 그냥 사진만 찍는 친구들도. 그래서 그런 점도 되게 많이 안타깝고. 근데 따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두 명 같이 했는데. 그 두 명 한 명이 되게 좋았는데 한 명은 그냥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만 나눠서 같이 사진(만) 찍고 그래서. <사례 7-2, 응이>

많은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버디버디 프로그램은 한국인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친구가 되어, 한국어와 전공지식을 가르쳐주거나,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대화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한국 적응을 도와주는 교류 활동이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유학생의 기대와 달리, 다수 한국인 대학생의 참여도는 낮았으며, 봉사 시간을 인정받기 위해, 옷을 바꿔가며 증빙자료로 제출할 사진만 찍기도 했다는 웃지못할 상황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모든 연구참여자가 ‘졸업 유학생 선배로서 후배 유학생에게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와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에 ‘버디버디 프로그램’이라고 답한 만큼, 본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시행 과정의 내실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겠다.

이처럼 한국 유학 과정에서 일과 학업을 통해 축적한 지역사회와 기업 문화의 이해라는 문화적 자본이 간문화 역량으로 인정받게 함으로써, 개인적 성장의 경험이자 취(창)업 기회의 확장이라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V. 결론

베트남 출신의 한국 대학(원) 졸업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유학 과정에서 어떠한 유학 자본을 축적하고, 이들 자본이 유학생의 진로를 확보해 가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았다. 유학 교육의 구체적 성과를 유학 생활을 통해 진로와 관련된 자본을 형성함으로써, 직업 선택의 토대와 방향성을 제시하여, 졸업 후에 원하는 취업을 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협소하게 정의할 수 있겠다. 또 타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와 소통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글로벌 인재로서 발돋움하는 것도 성공적인 유학의 성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베트남 출신의 한국 대학(원) 졸업 유학생 다수는 한국 유학 중 축적한 문화적 자본을 활용하여, 국내와 베트남에 소재한 한국 기업과 회사, 기관과 병원 등에서 통번역사로 활동하거나, 대학과 학원에서 교수와 강사로 재직하며 한국과 베트남 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는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이 한국 체류 중 학업과 일(시간제 취업, 합법·비합법 포함)을 병행하며, 습득한 언어 능력과 한국인과 한국 기업 문화의 이해라는 문화 자본을 축적한 것이, 이들의 취업과 직장에서의 적응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졸업 후 진로 선택이라는 전환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 언어 자본과 한국인과 한국 기업 문화의 이해라는 문화 자본은 대학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내·외에서 일 경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학 중에 한국인 고용주와 동료, 손님과 대화를 통해, 자연스러운 일상어와 지역 특유의 억양이 담긴 사투리까지 익힌 졸업 유학생 직원(베트남 소재 한국 기업)은 한국 유학 경험이 없는 베트남 직원과 비교하여,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라는 자본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빨리빨리라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일 처리와 수직적 기업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자본을 축적하게 됨으로써, 취업 후 이들의 적응을 쉽게 하고 한국인 상사들과의 관계 형성을 용이하게 하여, 유리한 직무 배정이나 직급의 수직 이동 등 직장에서 적응에 유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문화의 직접적 경험을 통해 습득한 세밀한 한국 문화의 이해는 한국인 상사의 표정과 성격과 같은 내면적 특성까지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고 하였다. 인턴이나 대학 내에서 근무 경험과 교육과정을 통해 개발한 컴퓨터 활용능력, 한국어 문서처리, 보고서 작성과 발표 능력 등은 한국인 고용주에게 일 처리 역량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한국 유학 중 문화적 자본을 습득한 베트남 출신의 졸업 유학생 직원은 한국 문화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인 고용주의 통번역을 전담하는 역할을 부여받거나, 한국 유학 경험이 없는 베트남 직원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맡는 등으로 개인적 성취감도 주고, 직장에서 상향이동의 기회도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을 볼 때, 한국 유학을 통해 축적된 문화적 자본은 졸업 유학생들이 좀 더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한국 기업에 입사하고, 사무직 등 전문직에 종사함으로써,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한국 유학 중 습득한 문화적 자본은 졸업 유학생에게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학 중 허용된 시간제 취업 분야가 졸업 후 취업과 연계성이 낮다는 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대비, 현장 실습 기회와 채용 정보 제공 등의 취업 지원 교육과정이 미흡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점, 한국어 교육이 일반적인 한국어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어, 취업 환경에 맞춤형 교육 개발의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다.

한국 유학은 유학생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과 졸업 후 취업 및 정주 가능성이 있는 지역사회에도 도전이자 기회라는 것을 알고, 유학의 긍정적인 혜택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유학생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학업-일-취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확립하고, 일·학업 병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학생의 근로 경험이 졸업 후 취업과 연관될 수 있도록, 시간제 취업 활동 가능 분야 확대 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 또한, 구직(D-10) 체류자격을 취득한 졸업 유학생에게 인턴 기회와 취업처를 연결해주는 적극적 지원과 구직(D-10) 체류자격 기간을 늘리는 등 대학과 정부의 유학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동안 온라인교육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졌기에 다양한 취업 지원 교육들-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면접 방법 등을 온라인교육으로 제공하면, 유학생들에게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될 것이다.

또한, 유학생들과 한국인들과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확장하여 한국어 학습 여건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유학을 통해 유학생들이 새로운 문화와 접촉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를 탐색하고, 관점의 확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진정한 초국적 전환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 글로벌 시민을 양성하고 국제화를 지향하는 대학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길 바란다.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교육통계과. 2022. 2022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1-44.
- 권순애·이오복. 2021. 사회복지학전공 베트남 유학생의 학업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복지상담교육연구 10(1), 33-57.
- 김갑수. 2019. 문화예술 향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김경남·김남희. 2021.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동기와 국내 취업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과학연구 52(3), 27-52.
- 김동수·사공목·신윤성·한정민. 2021.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보고서(2021년). 산업연구원, 1-121.
- 김미영·이유아. 2019. 베트남 유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탐색활동에 관한 질적연구. 동아연구 38(1), 41-72.
- 김수경. 2015. 한국 유학 베트남 이공계 대학원생의 진로 활동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 2020. 글로벌 노동 유연화와 유학생-노동자의 사례 : 수도권 물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노동리뷰 4, 63-78.
- 바트챙게르 투맹템베렐·김도혜. 2020. 유학생 노동의 불법성 연구: 한국 지방대학의 몽골과 베트남 유학생의 노동경험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0(2), 25-52.
- 배준환·박현재. 2020. 베트남 여학생들의 한국 유학 동기 탐색. 현대사회와 다문화 10(4), 1-35.
- 법무부. 2022.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팸플릿.
-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022.4, 1-443.
- 서순복. 2010. 문화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45-162.
- 윤성천. 2021. 기업의 문화적 자본이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부르디외의 문화적 자본 개념의 응용 관점에서.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예지. 2021a. 유학 후 외국인의 국내 취업 전략 연구: 시간제 불법 취업과 가족재생산.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2), 43-85.

- _____. 2021b.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학 이해당사자 요구에 기반한 유학 정책 연구-유학생의 비합법 계절근로와 학업 병행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15(2), 129-178.
- 이지. 2022.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분야 제도에 대한 실태와 대안-모국어와 공용어를 활용한 비합법 외국어 교습과 취업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16(2), 177-220.
- 이지은·김안나. 2020. 고등학생의 진로인식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가정과 학교의 문화 자본과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51(3), 171-191.
- 장진. 2021. 베트남의 경제적 변화와 한국기업의 진출. 서울대학교 KF 글로벌 e-스쿨 사업단. 한국과 베트남의 상호이해 웨비나 시리즈 1.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따른 갈등과 적응. 발표요약문, 1.
- 조항록. 2017. 베트남 유학생 유치의 효율적 방안. 언어와 문화 13(4), 219-246.
- 최희용·정문기·이규명. 2016. 지역 내 문화자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경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5(1), 109-137.
- 최희정. 2022. 이동과 정착 사이, 유학생들의 졸업 후 삶 : 한국 기업에 취업한 이공계 유학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화 다문화 12(2), 1-28.
- 호치민 외국어 정보대학교 동방학부 한국학과. 2022. 호치민 외국어 정보대학교 동방학부 한국학과 자료집. 1-9.

- Bourdieu, P.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Cambridge(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86. The Forms of Capital, ed. J. Richards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Greenwood Press, 241-258.
- Bourdieu, P. and Passeron, J. 1977.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Sage Publication.
- Creswell, J. 2014.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Nguyen Thi Thu Huong. 2021. 한국기업에 근무하는 베트남 직원들의 만족도 연구: 베트남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KF 글로벌 e-스쿨 사업단. 한국과 베트남의 상호이해 웨비나 시리즈 1.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따른 갈등과 적응. 발표요약문.
- Mai Kim Chi and Nguyen Thi Ly. 2021. 한국기업의 집단주의: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KF 글로벌 e-스쿨 사업단. 한국과 베트남의 상호이해 웨비나 시리즈 1.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따른 갈등과 적응. 발표요약문.

- 법무부. 2022. 체류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별 현황 20211231. 출처: <https://www.data.go.kr/data/3045188/fileData.do> (검색일: 2022. 11. 06.).
- 통계청·법무부. 2020.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이유(1순위, 유학생). 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FL020R&conn_path=I2 (검색일: 2023. 01. 29.).
- INSIDE VINA <http://www.insidevina.com>
- Lifepiazza <https://vietnamlife.co.kr>
- OhmyNews <http://www.ohmynews.com>

● 투고일: 2023.01.30. ● 심사일: 2023.02.07. ● 게재확정일: 2023.02.18.

| Abstract |

A study on the career development strategies of Vietnamese student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studies using cultural capital from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ies

Lee Yeji (First Author, Daegu University)

Kim Yeunhee (Corresponding Author, Daegu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experiences of Vietnamese students who studied at universities in Korea are utilized for their career development. By analyzing how the cultural capital they acquired through studying abroad improved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process of domestic and foreign employment, it was intended to derive education and career development programs Korean universities may provid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further improvements for the study abroad system in Korea. As an empirical approach, this study collected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12 Vietnamese graduate students and post-graduate students from Korean universities. 5 out of 12 study participants were employed in Korea and other 7 were employed in Vietnam at the time of interview. Many of them were working as interpreters at both Korean overseas branches in Vietnam and companies in Korea. Some worked as assistants in the Department for foreign students affairs at Korean universities, professors of Korean studies at Vietnamese universities, Vietnamese recruitment agencies for study abroad, and instructors at Korean language institutes. It can be seen that the Korean language skills developed through studying abroad are being used as an important capital. Korean language skills are important tools,

but cultural capital developed while studying abroad has been found to be useful for their employment or work life, such as understanding or speaking the same local dialects with one's employers or learning culture quickly through part-time employment experiences. In addition, the ability to write and work on documents using computers is also as useful for their employment competitiveness and for securing an advantageous positions and employer's dedicated interpreter, that leads to high wages or a waiver from strenuous overtime.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student career development programs and plans to improve the study abroad system in Korea were recommended to optimize the career path of Vietnamese students after graduation.

<Key words>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Vietnamese Students, Foreign Capital, Korean Language Skills, Career after Graduation, Employment

일반논문

문법교육에서 '국어 의식'의 개념적 체계화와 교육 내용의 비판적 고찰	김규훈
한국의 민주시민교육과 '공민' 개념의 형성 : 미군정기 및 1950년대의 중등교과서 분석	김두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변화된 결혼이주여성의 삶	장임숙



문법교육에서 ‘국어 의식’의 개념적 체계화와 교육 내용의 비판적 고찰

김 규 훈 (대구대학교)
(rbgns81@naver.com)



국문요약

이 연구는 문법교육에서 국어 의식을 체계적으로 개념화하고 국어 의식에 관한 교육 내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어 의식에 관한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국어 의식의 개념이 언어 인식과 관련하여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어교육에서 ‘국어’의 중층성을 상기하고 ‘의식’의 개념적 근원을 탐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어 의식을 탐구적 태도, 인식적 태도, 가치적 태도로 범주화하고 각 개념 요소를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2022 교육과정에서 국어 의식에 관한 교육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용 체계에서는 국어 의식이 핵심 아이디어에서 명시되었으나, 언어 인식 중심으로만 내용 요소가 제시되어 있었다. 성취기준에서는 문법 영역의 가치·태도에 관한 국어 의식 교육 내용이 지식·이해 범주와 주로 연계되어 선언적 교육에 그칠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국어 의식의 가치적 태도 교육이 국어 활동의 언어문화 관련 내용으로 구성될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주제어 : 국어 의식, 언어 인식, 국어에 대한 태도, 2022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가치·태도, 국어 활동의 언어문화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는 ‘국어 의식’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국어 의식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어 의식은 문법교육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로서, 국어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법 영역의 교육 내용이 주로 국어 지식, 즉 국어 단위에 따른 지식으로서의 음운론, 형태론, 어휘론, 통사론, 화용론 등을 중심으로 갖고 있지만, 엄연히 ‘국어 의식’이라는 ‘정의적(affective) 교육 내용’을 지니고 있다.¹⁾ 고춘화(2013, 173)에서 언급하였듯이, 국어 의식은 국어에 대한 호기심에서부터 국어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및 열의 형성에 이르는 가치적 층위를 내포하고 있는 문법 영역의 중요한 정의적 교육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어 의식에 관한 교육 내용은 아직 정련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국어 의식에 대한 체계적 개념이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방증하듯 역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의식을 국어에 대한 인식(2011, 2015 교육과정), 국어의 가치를 탐구하는 일(2022 교육과정) 등과 관련된 개념으로 사용하는 등 국어 의식이라는 용어가 명료하게 규명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국어 의식에 관련된 그간의 논의라고 할 수 있는 김은성(2005), 신명선(2008), 원진숙(2013), 고춘화(2013), 김은성(2018), 김진희(2018), 김규훈(2019) 등에서 연구되어 온 바를 답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²⁾

- 1) 이 연구는 ‘국어 의식’을 문법 영역의 정의적 지식에 대한 대표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실제(텍스트) 중심 교육’을 표방한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문법 영역의 ‘맥락’ 범주에 대한 내용 요소로 등장했던 ‘국어 의식’은 ‘국어 생활 문화’와 함께 문법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에 관한 교육 내용 가운데 하나였다. 국어 의식은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국어에 대한 정신적 태도’로서 국어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의 근간으로 작동한다. 곧 국어 의식은 문법의 맥락에 대한 구성 요소로서 지식과 탐구 영역과 서로 교호하는 것이다(신명선 2008, 374). 국어과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국어 의식은 그 개념이 축소되기도 하고(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육부 2015), 다시 확대되기도 하였는데(교육부 2022), 이는 국어 의식의 개념에 대한 숙의가 여전히 부족함을 방증한다. 이에 이 연구는 국어 의식을 문법 영역에서 다루는 국어에 대한 태도의 대표적 개념으로 상정하고 국어 의식과 관련된 개념들을 섭렵하여 논의를 진행함을 밝혀둔다.
- 2) 이들은 ‘국어 의식, 언어 인식, 언어 의식’ 등에 관한 같은 울타리 내의 논의들이다. 김은성(2005), 김은성(2018), 김진희(2018) 등은 국어 의식을 언어 인식과 관련지어 논의해 왔는데, 언어를 대상으로 탐구하고 조사하는 활동의 차원에서 개념화되어 있다. 원진숙(2013)은 NCLE(1985) 및 ALA(1996)을 바탕으로 언어 의식의 개념에 대하여 언어에 대한 의식과 언어 사용에 대한 의식을 말한다고 한 바 있다. 고춘화(2013)의 경우 국어 의식을 국어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

문법교육에서 국어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정의적 교육을 대표하는 국어 의식에 대한 개념적 체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국어 의식에 관한 기존 연구를 확인하고, 국어 의식에 대한 교육과정적 논의를 종합하여, 국어 의식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일련의 개념적 체계화가 이루어진다면 국어 의식에 대한 교육 내용을 보다 범주적으로, 세부적으로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규훈(2019)에서는 국어 의식의 교육 내용을 ‘언어 인식(language awareness)’을 기반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것은 언어 인식과 그 하위 영역인 비판적 언어 인식(critical language awareness)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국어 자료에 쓰인 어휘, 문법, 표현 등에 관심을 갖고 이를 탐구하려 하고 특히 사회문화적 가치를 파악하는 태도를 기르는 차원으로 논의한 것이다.³⁾ 김규훈(2019)가 언어 인식의 관점에서 국어 의식에 대한 내용을 구안하려는 시도는 일견 의미가 있지만, 국어 의식이 결코 언어 인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어 의식에는 국어 자료에 대한 태도적 측면도 있지만, ‘국어를 민족어와 관련하여 중요한 언어 의식 그 자체로 바라보는 관점’, ‘국어의 얼을 중시하고 전승 및 계승하는 측면’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국어 의식에 대한 개념적 체계화를 바탕으로 국어 의식의 교육 내용이 그 개념역을 충실히 담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주목하여 이 연구는 이번에 개정 고시된 2022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하 ‘2022 교육과정’)에서 국어 의식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⁴⁾ 여기서 비판적 고찰은 이번 연구에서 마련할 국어 의식의 개념을 토대로 부족한 내용 요소를 점검하고 타당한 내용 요소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특히 2022 교육과정에서 국어 의식이, 국어 의식 관련 연구에서 지적받아왔던 교육 내용의 당위적 제시라는 비판점에 대해, 어떻게 극복하고 또 새롭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어 의식에 관한 교육 내용 구성의 방향을 고민해 보는

국어 사용의 반성, 국어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및 얼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3) 비판적 언어인식은 언어 사용자가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인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언어 교육에 대한 관점이다(Fairclough et al. 2014). 특히 비판적 언어인식은 사회 속의 언어가 어떠한 힘의 논리로 실천되었는지에 대한 근거(why)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한다(Clark & Ivanic 1999, 66). 이러한 점에서 비판적 언어인식은 언어 사용자가 갖추어야 할 정신적 상태이자 교육에서는 도달해야 할 목표로 상정하고, 그 방법론으로 비판적 담화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4) 2022 교육과정의 공통 과목(공통 교육과정 ‘국어’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을 대상으로 삼아, 국어과 하위 영역에서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제시된 국어 의식 관련 성취기준을 살필 것이다.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다.

요컨대 이 연구는 “국어교육에서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한 국어 의식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그 개념적 체계화를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2 교육과정에서 국어 의식에 관한 교육 내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라는 교육적 명제를 논구한다.

Ⅱ. ‘국어 의식’의 개념적 체계화

국어 의식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어 의식에 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여 개념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국어 의식은 언어 인식, 언어 의식 등과 연관하여 논의되어 왔으므로, 이들 논의들을 함께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Ⅱ장에서는 국어 의식의 개념에 대한 범주를 새롭게 설정하고, 각 범주별 개념 요소를 마련해 보는 데 집중하기로 한다.

1. 국어 의식 관련 개념의 분석적 이해

국어 의식과 관련된 국어교육 논의로는 김은성(2005), 신명선(2008), 원진숙(2013), 고춘화(2013), 김진희(2018), 김규훈(2019)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국어 의식, 언어 인식, 언어 의식 등이 정의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표 1> 국어 의식 관련 개념의 정의와 개념 요소의 추출

논의	국어 의식 및 언어 인식 정의	국어 의식 개념 요소 추출
김은성 (2005, 440)	언어 인식을 언어를 인식하는 행위, 더 나아가 언어를 대상화하여 탐구하고 조사하는 행위이다.	- 언어를 인식하는 행위 - 언어를 대상화 - 언어에 대한 탐구, 조사
신명선 (2008, 371)	국어 의식이 맥락의 구성 요소로서 지식 및 탐구 영역과 서로 교호함을 고려하면 지식 탐구의 결과와 그 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학습자의 지적 수준이나 태도 등이 교육 내용으로 포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맥락의 구성 요소 - 지식 탐구의 결과와 그 과정에서 발현 - 학습자의 지적 수준, (국어에 대한) 태도

논의	국어 의식 및 언어 인식 정의	국어 의식 개념 요소 추출
원진숙 (2013, 116)	언어 의식은 언어의 본질과 언어가 인간의 삶에서 갖는 역할에 대한 민감성 및 의식적인 인식(NCLE, 1985) 내지 언어에 대한 명시적인 지식, 언어 학습, 언어 교수, 언어 사용에 대한 의식적인 지각 및 민감성(ALA, 1996)이다.	- 삶에서 언어의 본질과 언어의 역할에 대한 민감성, 의식적 인식 - 언어 학습, 언어 교수, 언어 사용에 대한 의식적 지각, 민감성
고춘화 (2013, 172 -173)	국어 의식은 인간의 본질적 특성인 언어 자체, 국어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 개인의 국어 사용에 대한 반성적 고찰, 언어 메타 의식과 논리적 사고, 국어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얼의 형성 층위를 내포한다.	- 언어, 국어의 호기심과 탐구심 - 국어 사용에 대한 반성 - 언어 메타 의식 - 국어 가치관과 얼 형성
김진희 (2018, 40-41)	국어 의식은 언어 의식 내지 언어 인식과 동일한 개념으로, 대상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인식과 언어를 인식하는 주체로서 자신에 대한 인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언어에 대한 인식 - 언어 인식 주체에 대한 인식
김규훈 (2019, 13-14)	국어 의식 교육은 언어 인식뿐만 아니라 비판적 언어 인식(CLA)을 바탕으로 '국어 - 사회 - 힘'의 관계를 탐구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 언어 인식 - 비판적 언어 인식(CLA) - '국어-사회-힘'의 관계 탐구

위 <표 1>은 국어 의식과 관련된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 의식의 개념 요소를 추출해 본 것이다. 위 <표 1>에 제시된 다양한 논의는 국어 의식의 유관 개념인 '언어 인식, 언어 의식, 국어 의식'의 차원에서 정리될 수 있다.

국어 의식을 '언어 인식'의 차원에서 정의한 논의들로 김은성(2005), 김진희(2018), 김규훈(2019) 등이 있다. 이들 논의들은 위 <표 1>에서 추출한 개념 요소들로 볼 때, 무엇보다 '언어를 대상화'하여 '언어 사용 주체인 학습자가 인식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쉽게 말해서, 학습자가 언어를 사용하거나 언어에 대해 탐구할 때, 자신이 사용하거나 탐구하는 언어를 인식한다는 말이다. 이에 언어 인식은 언어에 대한 탐구나 조사가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다(김은성, 2005). 한편 학습자의 언어 사용은 언어에

대한 탐구적 태도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어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메타 인식의 차원까지 포섭하는데, 김진희(2018)에서 언급된 ‘언어 인식 주체에 대한 인식’이 이와 관련된다. 김규훈(2019)의 경우 언어 인식 가운데 특히 비판적 언어 인식을 바탕으로 국어 의식의 교육 내용도 비판적 언어 인식의 차원에서 ‘사회적 힘의 관계’에 대한 ‘탐구’를 포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언어 의식’의 개념을 내세워 국어 의식을 논의한 연구는 원진숙(20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언어 의식에 대하여 NCLE(1985) 및 ALA(1996)를 바탕으로 언어에 대한 민감성과 의식적 자각, 그리고 이 토대 위에 언어 교수, 언어 학습, 언어 사용에 대한 민감성 및 의식적 자각으로 파악하고 있다.⁵⁾ 여기서 ‘민감성(sensitivity)’은 언어 사용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관심을 갖고 탐구하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의식적 자각’ 즉 학습자가 자기 스스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깨닫는다는 개념이 강조되어 있다. 위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언어 의식은 언어 그 자체만을 의식의 대상으로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측면의 언어 교수와 학습, 사회적 측면의 언어 사용까지 포괄적으로 대상화하고 있다.

신명선(2008), 고춘화(2013) 등은 ‘국어 의식’을 명시하며 그 위상이나 개념을 파악하려 한 논의이다. 신명선(2008)의 경우 위 <표 1>에서 추출한 개념 요소를 볼 때, ‘맥락, 지식, 탐구’ 등의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당대 개정되었던 2007 교육과정에 관한 개념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곧 2007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의식이 ‘맥락’이라는 내용 체계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이는 ‘국어 지식’이나 ‘국어 탐구’와 교호하도록 제시되었으므로, 국어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과 결과에서 발현하는 것이 국어 의식이라고 보았다. 어쩌면 국어 의식 자체의 개념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국어 의식이 학습자가 문법교육에서 가져야 할 태도를 통칭하는 넓은 개념이라는 사실이다.

고춘화(2013)은 이러한 맥락에서 국어 의식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언어, 국어의 호기심과 탐구심’, ‘국어 사용에 대한 반성’, ‘언어 메타 의식과 논리적 사고’, ‘국어에 대한 태도, 가치관과 열의 형성’ 등과 같이 추출된 국어 의식의 개념 요소는 각각 ‘언어 의식’, ‘사고’, ‘실천’, ‘가치’ 등으로 범주화되어 있다(고춘화 2013, 176). 이때

5) NCLE(1985)와 ALA(1996)는 언어 인식과 관련된 연구 단체를 가리킨다. 참고로 언어 인식(language awareness)은 영국의 언어 사용 운동으로 촉발되었는데, 자신의 언어 사용에 대한 성찰, 사회 속 언어에 대한 민감성 등 언어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교육 운동 및 교육 체제, 그리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포괄한다.

고춘화(2013, 176)에서는 국어 의식은 언어 의식과 사고의 범주에 국한되며, 국어 의식을 바탕으로 바른 국어 생활을 하고 국어 문화를 창조하는 ‘실천’ 차원과, 국어 사랑 및 열을 형성하는 ‘가치’ 차원으로 나아간다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고춘화(2013)은 국어 의식을 언어 의식과 사고를 중심으로 실천과 가치의 차원까지도 연계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국어 의식의 개념 범주와 요소 설정

이상의 논의들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어 의식은 논자마다 그 초점이 조금씩 다르게 개념화되어 오고 있지만, 대체로 언어 인식, 언어 의식 등의 차원과 관련지어 오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이들 논의가 각기 일견 가치가 있고 특히 언어 인식과 관련짓고자 하는 국어 의식의 개념은 그 구체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국어 의식을 국어 사랑과 구분하고(김진희, 2018: 38), 언어 의식과 사고를 강조하는(고춘화 2013, 176) 연구 등도 국어 의식에 대한 개념을 정교화하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국어 의식의 개념이 국어를 사랑하는 일과 구분되거나 국어를 인식하는 실천 행위와 구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학습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국어를 사랑하는 일, 국어를 규범에 맞게 사용하는 일이 국어를 의식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일까? 학습자가 국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국어의 열을 지키는 글을 쓰는 행위가 국어를 의식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일까?” 이처럼 국어 의식이 학습자의 국어 사용과 국어 문화 향유에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국어 의식에 대한 연구가 언어 인식 차원에서만 이루어져 왔으며, 국어의 열과 같은 정신적 차원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국어 의식의 연구 범주에서 성찰해 볼 만하다.

이 연구는 국어 의식의 개념은 ‘국어’와 ‘의식’의 개념적 본질에서부터 파악해 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주지하다시피 국어교육에서 ‘국어’의 개념은 중층적이다. 김창원 외(2015, 82)에서 국어를 ‘사고, 소통, 문화’의 세 차원으로 바라보고 국어교육은 학습자의 고등 사고력을 증진하고, 국어를 매개로 한 소통을 잘 하도록 만들며, 국어 문화를 계승하고 창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2015 교육과정의 근간이 된 국어를 바라보는 관점은 최근 개정 고시된 2022 교육과정에서도 이어졌는데, 실상 사고와 소

통, 그리고 문화로 국어를 바라보는 일은 국어교육 울타리에서는 당연하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다. 곧 국어교육에서 ‘국어’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질료’이고, 학습자가 국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도구이며, 한국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담아 독특한 한국어의 ‘문화’를 배태하는 대상인 것이다.

국어 의식의 ‘국어’ 또한 국어교육에서 ‘국어’를 바라보는 이 세 차원의 개념과 다르지 않고, 달라서는 안 된다. 곧 국어 의식은 국어 자체에 대한 의식, 국어 사용 과정에서 수반되는 의식, 국어 문화를 보존하고 창달하는 의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국어에 대한 의식은 국어 자체를 민족 의식으로 바라보는 것, 국어 사용 과정은 학습자가 자신의 국어 사용을 인식하고 성찰하는 것, 국어 문화는 국어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보아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이들 세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국어 의식인 것이다. 앞서 살펴본 <표 1>과 같은 국어 의식의 관련 개념은 이들 세 차원 가운데 하나로 수렴된다.

이러한 점에서 국어 의식은 ‘인식(awareness)’이 아니라 ‘의식(consciousness)’의 차원으로 개념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어 의식을 국어에 대한, 국어 사용의 과정에서 발견되는, 국어를 민족 문화와 얼의 관점에서 가치화하는, 학습자의 정신적 태도로 개념화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Searle(2002, 39)에서는 ‘의식(consciousness)’을 ‘언어(language)’와의 관계성에서 규명하고 있다. 즉 의식(consciousness)은 세 가지 측면인 ‘질적 과정(qualitativeness), 주체성(subjectivity), 공동체(unity)’를 주요 개념요소로 지니고 있으며, 이들 요소들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Searle(2002)는 이들 세 측면에 대해 생물학적 차원의 인간 의식을 벗어나 인간의 고차원적 정신 능력 가운데 하나인 화행(speech act)의 현상에 대한 화용론적 근거로 설명한다. 곧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언어의 가치를 질적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로서 행위하며, 우리의 언어 사용이 타인과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어는 언어 사용자의 고차원적인 정신의 질적인 발현 과정이며, 언어 사용자가 언어 사용을 통해 자신의 주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기반이자, 언어 사용자가 언어적 공동체를 이룰 때 드러나는 가치나 태도는 상호성을 지닌다. 이러한 의식의 세 측면은 말의 힘을 나타내는 화행의 세 특징과 연계되듯이, 국어 의식의 범주와 대응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어 의식은 언어에 대한 인식, 비판적 인식, 주체적이고 성찰적 언어 사용, 그리고 국어의 가치와 얼을 인식하는 차원을 범주적으로 지닌 개념이어야 마땅하다.

구체적으로 국어 의식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국어 의식의 개념적 체계화

개념	범주	개념적 요소의 예
국어 의식은 국어에 대한 탐구, 국어 사용에 대한 인식, 국어 문화에 대한 가치의 태도이다.	국어에 대한 탐구적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에 대한 호기심 ◦ 국어에 대한 탐구와 앎
	국어 사용의 인식적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사용 모습의 이해와 성찰 ◦ 국어와 사회문화의 관계 인식과 삶
	국어 문화의 가치적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가 지닌 민족 의식과 얼 ◦ 문화 자원으로써 국어의 창달

위 <표 2>와 같이, 국어 의식은 국어, 국어 사용, 국어 문화의 세 차원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국어 태도를 의미하는 말로서, 국어에 대한 탐구적 태도, 국어 사용의 인식적 태도, 국어 문화의 가치적 태도를 범주로 지닌다.

국어에 대한 탐구적 태도는 학습자가 국어에 호기심을 갖고 국어를 탐구하여 앎을 추구하려는 태도이다. 문법 영역의 중심 내용인 탐구를 수행할 때 수반되는 정의적 영역에 해당한다. 다양한 국어 현상을 탐구하려는 호기심, 국어 현상을 탐구하면서 갖는 문제 의식, 그러한 문제 의식을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 등 국어 현상을 탐구할 때 수반되는 의식적 노력을 의미한다.

국어 사용의 인식적 태도는 학습자가 국어 사용을 이해하고 성찰하는데, 이는 타인과 자신의 국어 사용 모습을 포괄한다. 자신의 국어 사용 모습에 대해 이해하고 성찰하는 것은 메타 인식과 관련이 깊다. 또한 국어와 사회문화의 관계를 인식하고 국어가 삶을 반영함을 깨닫는 것도 국어 사용의 인식적 태도에 해당한다. 이들은 국어 의식과 관련하여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언어 인식 및 비판적 언어 인식 논의와 긴밀히 관련된다.

국어 문화의 가치적 태도는 국어가 지닌 민족 의식을 파악하고 국어가 얼의 소산임을 깨닫는 것이다. 국어사에 관한 교육 내용은 해당 지식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당대 언중의 국어생활 모습을 보고 느끼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이에 국어를 단위 지식이나 듣고 말하며 읽고 쓰는 기능적 도구로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문화 그 자체이자 문화를

전승하고 창조하는 중요한 자원임을 이해하는 차원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국어 문화의 가치적 태도에 관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Ⅲ. ‘국어 의식’ 관련 교육 내용의 비판적 고찰

지금까지 정립한 국어 의식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어교육에서 국어 의식 관련 교육 내용이 어떻게 실현되어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에서 교육 내용은 최근 개정 고시된 2022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삼되, 관련 교육 내용 요소에 대한 해석은 이전 2015 교육과정 및 2011 교육과정을 참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어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만큼, 교육과정 내용 구조에 해당하는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에서 국어 의식 관련 교육 내용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1. 내용 체계: 명시된 국어 의식, 편중된 내용 제시

국어 의식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문법 영역의 정의적 교육 내용에서 존재하고 있었으며, 주로 언어 인식과 관련하여 개념화되어 왔다. 이에 2022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국어 의식에 관한 내용 요소가 제시된 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⁶⁾ 먼저 2022 교육과정에서 공통 교육과정 국어 과목의 문법 영역에 대한 내용 체계표를 제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이때 국어 의식이 문법 영역의 정의적 지식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2022 교육과정의 가치·태도 범주에 집중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6) 다만 문법 영역뿐만 아니라 2022 교육과정의 전체 영역에서 국어 의식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 마련한 국어 의식의 개념에 따라 추후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국어 의식의 교육 내용을 확충해 나갈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다.

〈표 3〉 2022 교육과정의 국어 과목 문법 영역의 가치·태도 범주의 내용 체계

핵심 아이디어	· 국어 사용자는 일상생활에서 국어 현상과 국어 문제를 탐구하고 성찰하면서 언어 주체로서의 정체성과 국어 의식을 형성한다.			
범주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1~3학년
가치·태도	· 한글에 대한 호기심	· 국어의 소중함 인식	· 국어생활에 대한 민감성 · 집단·사회의 언어와 나의 언어의 관계 인식	· 다양한 집단·사회의 언어에 대한 언어적 관용 · 언어로 구성되는 세계와 자아 인식

위 〈표 3〉은 2022 교육과정의 국어 과목에서 문법 영역의 내용 체계 가운데 정의적 지식과 관련된 범주인 가치·태도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참고로 2022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핵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범주’와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범주’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세 범주를 지니며, ‘내용 요소’는 학년군에 따라 핵심적인 내용 요소가 제시되어 있다. 문법 영역의 경우, ‘지식·이해’ 범주에 ‘언어의 본질과 맥락’, ‘언어 단위’, ‘한글의 기초와 국어 규범’이 제시되었고, ‘과정·기능’ 범주에 ‘국어의 분석과 활용’, ‘국어 실천의 생활과 비판’이 제시되었으며, ‘가치·태도’ 범주는 위 〈표 2〉과 같은 내용 요소가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22, 10). 아울러 이들 범주는 독립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성취기준을 구성할 때 범주별 내용 요소가 통합적으로 제시된다.

위 〈표 3〉을 보면 우선적으로 ‘핵심 아이디어’에서 ‘국어 의식’이라는 용어가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핵심 아이디어는 문법 영역의 태도에 관한 명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법 영역은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국어 현상과 국어 문제를 ‘탐구’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삼아, 태도와 관련하여 ‘언어 주체로서의 정체성’과 ‘국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언어적 정체성’, ‘국어 의식’ 등이 문법 영역의

7) 정체성(identity)은 언어 사용과 가까운 거리에서 정의되어 왔다. Giddens(1991, 54)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행동에서 발견할 수 없고, 특별한 이야기를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에서 발견해야 한다. 곧 자아 정체성의 형성 과정은 자기 서사의 성찰적 질서에 의해 형성된다(Giddens 1991, 224). Eisenstein(2011, 153)은 정체성은 자신의 존재를 경험하는 방식에 의해 변화하는데,

정의적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2 교육과정에서 ‘국어 의식’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더욱이 문법 영역에서 정의적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바가 국어 의식이라는 점 또한 의미가 크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일견 지난 2015 교육과정에서 ‘국어 사랑’과 ‘국어 의식’이라는 이분법적으로 나열된 ‘국어에 대한 태도’ 관련 핵심 개념이 ‘언어적 정체성’과 ‘국어 의식’으로 대체된 인상도 있지만, 언어적 정체성이 국어 사랑과 같은 맥락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어 의식’이 국어에 대한 태도를 총괄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추후 2022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국어 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적어도 국어 의식을 학습자가 문법 영역의 정의적 교육을 통해 도달해야 할 목표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하겠다.

이러한 핵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가치·태도’ 범주의 학년군별 내용 요소를 들여다보면, 위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글에 대한 호기심’, ‘국어의 소중함 인식’, ‘국어 생활에 대한 민감성’, ‘집단·사회의 언어와 나의 언어의 관계 인식’, ‘다양한 집단·사회의 언어에 대한 언어적 관용’, ‘언어로 구성되는 세계와 자아 인식’ 등이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내용 요소는 앞서 정립한 국어 의식의 개념적 범주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 국어에 대한 탐구적 태도: 한글에 대한 호기심, 국어 생활에 대한 민감성*
- 국어 사용의 인식적 태도: 집단·사회의 언어와 나의 언어의 관계 인식, 다양한 집단·사회의 언어에 대한 언어적 관용, 언어로 구성되는 세계와 자아 인식
- 국어 문화의 가치적 태도: 국어의 소중함 인식*

위와 같이 이 연구에서 정립한 국어 의식의 개념적 범주 세 차원에 2022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가치·태도에 관한 내용 요소가 모두 대응된다. 일견 국어 의식의 범주에 온전히 대응되는 것처럼 보이는 2022 교육과정의 관련 내용은, 실상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보완해야 할 지점이 존재한다.

우선 국어 의식에 관련된 교육 내용은 여전히 ‘언어 인식’의 차원에 집중되어 있다.

자신에 대한 과거 이야기와 세계에 대한 이야기의 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면, 2022 교육과정에서 언어적 정체성을 강조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보며, 학습자가 국어 의식을 갖추고 있는 인격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후속 연구로 기약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어 의식이 언어 인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연구되어 온 경향에 벗어나지 못하였겠지만, 상당한 내용 요소가 ‘인식’의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나(‘자아’)의 언어 사용과 집단(‘타자’)의 언어 사용 모습을 인식하고 그 관계도 인식하며 더 나아가 언어로 구성되는 ‘세계’를 인식하는 내용은 모두 언어 인식에서 강조되어 온 바이다. 그럼에도 언어로 구성되는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비판적 언어 인식(CLA)의 내용과 관련성이 크다는 점에서 인식 관련 내용에 대한 실천성이 확보될 수도 있다. 그런데 언어 인식에 관한 내용이 실재화된 데 반해 상대적으로 민족 의식이나 국어의 얼에 관한 가치·태도의 국어 의식에 대한 교육 내용은 부족하다. 그것은 국어의 문화 관련 내용이 ‘과정·기능’ 범주에 집중되어, 이른바 ‘국어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교육으로만 수렴되어 있기 때문이다.⁸⁾

다음으로 국어 의식 관련 내용에서 ‘국어 생활에 대한 민감성’, ‘국어의 소중한 인식’ 등의 내용은 그 실체가 다소 불분명하다. ‘민감성’은 생활 속 국어 현상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다양한 국어 원리를 탐구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자신의 국어 생활을 돌아보고 성찰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국어의 소중한 인식’은 축자적 의미로만 보면 다분히 국어 문화의 가치적 태도 범주로서 ‘국어’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민족 의식, 즉 얼에 대한 교육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인식’이라는 수행 용어가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민감성’, ‘인식’ 등의 주요한 교육과정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료화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국어 의식에 대한 범주적 혼란이 존재하고 지나치게 ‘인식’ 중심으로만 국어 의식 교육이 내용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2. 성취기준: 선언적 국어 의식 내용, 부족한 가치적 태도 내용

이번에는 2022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 국어 의식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보자. 내용 체계의 경우 영역별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국어 의식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성취기준은 이 문법 영역을 포함하되 모든 국어교육의 하위 영역을 대상으로 확인해 보기로 한다. 그것은 문법이 국어 활동의 기반이듯이, 국어 의식의 교육 내용이 다른 국어 활동을 위한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어 의식의 범주에 따른 개념적 요소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성취기준과 암묵적으로

8) 이와 관련하여 국어사의 교육 내용은 탐구를 통한 지식의 교육이기도 하지만, 당대 언어의 모습을 통해 국어의 가치를 깨닫고 문화 유산으로서 국어를 창달하는 교육이기도 하다. 후자의 교육에 대한 실체화가 국어 의식 교육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용된 성취기준을 나누어서 다음 <표 4>로 국어 의식 관련 성취기준과 그 내용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⁹⁾

<표 4> 2022 교육과정에서 국어 의식과 관련된 성취기준과 내용 요소

영역	성취기준
명 시 적	[2국04-03] 문장과 문장 부호를 알맞게 쓰고 한글에 호기심을 가진다.
	[4국04-05] 언어가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의 수단임을 이해하고 국어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지닌다.
	[6국04-02] 표준어와 방언의 기능을 파악하고 언어 공동체와 국어생활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6국04-06] 글과 담화에 쓰인 단어 및 문장, 띄어쓰기를 민감하게 살펴 바르게 고치는 태도를 지닌다.
	[9국04-07] 세대·분야·매체에 따른 어휘의 양상과 쓰임을 분석하고 다양한 집단과 사회의 언어에 관용적 태도를 지닌다.
	[9국04-08] 자신과 주변의 다양한 국어 실천 양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언어와 자아 및 세계 사이의 관계를 인식한다.
	[10공국1-04-01]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함에 따라 다양해진 언어 실천 양상을 분석하고 언어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며 국어생활을 한다.
	[10공국2-04-01] 과거 및 현재의 국어생활에 나타나는 국어의 변화를 이해하고 국어문화 발전에 참여한다.
	[10공국2-04-02]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적용하여 국어생활을 성찰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암 묵 적	듣·말 [9국01-10]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다.
	읽기 [9국02-01] 읽기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임을 이해하며 사회적 독서에 참여하고 사회적 독서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
	쓰기 [9국03-09]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인 필자로서 자신에 대해 성찰하며, 윤리적 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매체 [10공국2-06-02] 매체의 변화가 소통 문화에 끼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9) 여기에서는 2022 교육과정의 ‘공통 과목(공통 교육과정 국어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공통국어 1, 2)’을 대상으로 관련 성취기준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것은 ‘선택 과목’이 ‘공통 과목’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 확장되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 요소는 공통 과목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통 과목’에 대한 국어 의식 관련 내용을 확장적으로 살필 때 부분적으로 선택 과목의 관련 내용을 활용하기로 한다.

위 <표 4>에 제시된 2022 교육과정의 국어 의식 관련 성취기준은 내용 요소 분석을 토대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점검하고자 한다. 그것은 ‘가치·태도 범주의 내용 체계가 성취기준으로 구체화된 양상에 대한 타당성 점검’, ‘공통 교육과정을 계승한 공통국어 1, 2 과목에서의 국어 의식 실현 양상에 대한 점검’, ‘국어 의식이 암묵적으로 내포된 국어과 하위 영역에서 국어 의식 관련 내용 요소의 적용 가능성 점검’ 등이다.

첫째, 국어 의식이 명시된 성취기준에서 국어 의식과 관련된 가치·태도 범주는 주로 지식·이해 범주와 결합된 내용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위 <표 4>의 [2국04-03], [4국04-05], [6국04-02], [6국04-06], [9국04-07], [9국04-08] 등이 앞선 <표 3>에서 살핀 내용 체계가 실현된 성취기준인데, 내용 요소 간의 결합 양상을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다.

- 한글에 대한 호기심 - 문장과 문장 부호(한글의 기초와 국어 규범)
- 국어의 소중함 인식 -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의 수단(언어의 본질과 맥락)
- 국어 생활의 민감성 - 단어와 문장의 정확한 표기와 사용(한글의 기초와 국어 규범)
- 집단·사회의 언어와 나의 언어의 관계 인식 - 지역에 따른 언어와 표준어(언어의 본질과 맥락)
- 다양한 집단·사회의 언어에 대한 언어적 관용 - 세대·분야·매체에 따른 언어(언어의 본질과 맥락)
- 언어로 구성되는 세계와 자아 인식 - 국어 문제 발견하고 실천 양상 비판하기(국어 실천의 성찰과 비판)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어 의식과 관련된 문법의 가치·태도에 대한 성취기준은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지식·이해’ 범주와 결합되어 있다. 위의 마지막 항목만이 ‘국어 실천의 성찰과 비판’에 해당하는 문법의 ‘과정·기능’ 범주와 결합되었을 뿐이다. 물론 문법이 국어에 대한 지식을 다루므로 명제적 지식 중심일 수밖에 없지만, 위에서 ‘언어의 본질과 맥락’에 해당하는 지식·이해의 내용 요소는 과연 국어 의식과 관련된 내용 요소가 실제 문법의 교수·학습에서 작동할지 강한 의문이 들게 한다. 가령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의 수단’이라는 언어의 본질적 특성을 배우면서 ‘국어에 소중함을 인식’한다는 것은 당위적, 선언적으로 국어 의식을 언급하는 차원에 그칠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¹⁰⁾

10) ‘국어의 소중함 인식’은, 이 연구에서 정립한 국어 의식의 범주 가운데 ‘국어에 대한 문화적 태도’에 해당되지 않고, 2022 교육과정에서처럼 언어의 본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국어 의식 가운데 국어에 대한 문화적 태도 관련 교육 내용은 2022 교육과정의 공통

위의 마지막 항목인 언어로 구성되는 세계와 자아 인식은 국어 문제 발견과 실천 양상 비판이라는 수행 과정에서 작동될 가능성을 지닌다. 사실 이러한 결합은 언어 인식과 관련된 국어에 대한 인식적 태도의 국어 의식 교육 내용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간 교육과정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던 ‘비판적 언어 인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둘째, 공통 교육과정을 계승한 공통 과목인 ‘공통국어 1, 2’에서 국어 의식 관련 성취기준은 ‘언어 주체로서의 책임감[10공국1-04-01]’, ‘국어문화 발전에 참여[10공국2-04-1]’, ‘국어생활 성찰[10공국2-04-02]’와 같은 내용 요소를 지닌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개념화한 국어 의식의 범주에 비추어 볼 때, ‘국어에 대한 인식적 태도’와 ‘국어 문화의 가치적 태도’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언어 주체로서의 책임감’과 ‘국어생활 성찰’은 인식적 태도에, ‘국어문화 발전에 참여’는 가치적 태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언어 주체로서의 책임감[10공국1-04-01]’은, 위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9국0408]에 해당하는 언어로 구성되는 세계와 자아 인식이 계열적으로 확장된 성취기준이다. 언어 실천 양상을 분석하고 책임감 있는 언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인데, 여기에 ‘다변화된 언어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 다문화, 남북한,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공동체에서의 언어 실천 양상을 실천하는 교육 내용이 구안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국어생활 성찰[10공국2-04-02]’의 경우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적용’한다는 내용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학습자 자신의 국어 생활에서 한글 맞춤법 등 정서법에 어긋난 국어 사용을 스스로 성찰하게 한다는 교육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이들은 모두 국어 의식의 범주 중 언어 인식과 관련된 국어 사용의 인식적 태도에 대한 교육으로 실현될 것이라 본다.

‘국어 문화 발전에 참여[10공국2-04-1]’의 경우 국어문화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로 국어 문화의 가치적 태도에 관한 내용인데, 위 <표 4>를 보면 ‘국어 변화가 중심 내용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국어사에 관한 교육 내용이 중심을 이루면서 변화하는 국어의 모습에서 국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문화 자원으로서 국어를 창달하는 태도를 갖추는 데 국어 의식 관련 내용의 중점이 놓인다. 이러한 성취기준은 국어 의식의 개념적 범주에서 현재 현저하게 부족한 국어 문화의 가치적 태도에 관한 교육 내용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다만 지나치게 국어사 교육에 대한 지식·이해 관련 내용이 강조될 경우, 국어의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는 데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국어사와 더불어 국어생활사의 교육 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¹¹⁾ 국어생활사에서 선인의 민족 의식과 지혜를 국어로써 이해하고

교육과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곧 국어사를 익히는 지식·이해 차원에서만 강조되어 있어, 국어 문화에 대한 의식 차원의 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다.

11) 김수정(2015, 35)에서는 장윤희(2009, 303)를 바탕으로 국어생활사 교육의 목표는 ‘국어

깨달을 수 있는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국어 의식이 암묵적으로 제시된 국어과 하위 영역에서 주요 내용 요소를 추출해 보면, 읽기 영역의 [9국02-01]은 ‘사회적 독서 문화’를, 쓰기 영역의 [9국03-09]는 ‘윤리적 소통 문화’를, 매체 영역의 [10공국2-06-02]는 ‘매체 변화에 따른 소통 문화’이다. 한편 [9국01-10]의 경우 듣기·말하기 영역에서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성찰’하는 내용이 국어 의식과 암묵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언어 인식에 관한 국어 의식의 교육과 연관된다.

이들 언어문화에 관한 성취기준들은 공통적으로 ‘윤리성(ethics)’을 내용 요소로 내포하고 있다. 국어를 도구로 삼아 생성된 텍스트를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과정이 ‘윤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텍스트의 질료인 국어가 지닌 가치를 중시하고 국어를 문화 자원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령 쓰기 윤리를 지켜서 글을 쓴다는 것은 필자가 생산하는 글이 언어문화적 가치를 풍부하게 지닌 생산물이라는 사실과 상통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분관(2018, 51)은 국어교육의 윤리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며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참여자 간 윤리로 관심이 확장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¹²⁾

이처럼 국어 의식이 암묵적으로 내포된 성취기준은 ‘윤리성’과 관련하여 해당 국어 활동의 ‘문화’가 강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가 국어 의식 특히 국어 문화의 가치적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사회적 독서 문화와 윤리적 소통 문화 그리고 매체 환경에서의 소통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국어 의식과 이들 언어문화(language-culture) 사이의 연계성에 대한 교육과정적 논의도, 학문적 논의도 부족한 상태이기에 이러한 해석이 다소 비약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법이 국어 활동의 기반임을 직시하고, 국어 의식이 문법 영역의 학습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를 부려 쓰는 모든 학습자가 갖추는 기본 정신 상태라고 볼 때, 국어 의식은 모든 국어 활동에서 근간으로 작동해야 하며 그 지향점은 국어를 통한 문화 형성과 창달로 이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지닌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어가 지닌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면 학습자들은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를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국어 의식에 대한 개념적 범주로서 국어 문화에 대한 가치적 태도는 국어생활사 교육과 연계하여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 2022 교육과정에서 국어생활사 및 국어 문화의 측면을 강조하지 못한 것은 국어 의식이 선연적이고 당위적으로 실행되는 데 그칠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12) 쓰기 교육 영역의 경우 글쓰이의 윤리 교육, 문학 교육 영역의 경우 작품 속에 형상화된 인물을 통한 윤리 교육, 듣기 말하기의 경우 대화 참여자, 특히 듣는 이에 대한 배려로서의 윤리 교육, 문법 영역의 경우 차별적 언어 사용을 억제하는 윤리 교육 등에 많은 관심이 주어졌었다(구분관 2018, 51).

위 <표 4>에서 볼 수 있는, 국어 의식이 암묵적으로 내포된 성취기준들은 ‘국어 문화의 가치적 태도’에 관한 교육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충분히 지닌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여전히 2022 교육과정에서도 부족한 국어 문화의 가치적 태도와 관련된 국어 의식 교육 내용을 국어 활동 영역의 성취기준에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IV. 연구의 요약과 남은 과제

이 연구는 국어 의식을 개념화하고 국어 의식 관련 교육 내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국어 의식에 관한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국어 의식의 개념이 언어 인식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극복하고자 국어교육에서 ‘국어’의 중층성을 상기하고 ‘의식’의 개념적 근원을 탐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어 의식을 국어에 대한 탐구, 국어 사용에 대한 인식, 국어 문화에 대한 가치적 태도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2022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에서 국어 의식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용 체계에서는 국어 의식이 핵심 아이디어에서 명시되었으나, 언어 인식 중심으로 내용 요소가 편중되어 제시되어 있었다. 성취기준의 경우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한 명시적 내용과 국어 활동 영역에 내포된 암묵적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명시적 내용에서는, 국어 의식 관련 내용이 문법의 지식·이해 범주와 연계되어 선연적 교육에 그칠 우려가 있었다. 암묵적 내용에서는, 국어 의식에서 국어 문화에 대한 가치적 태도 범주가 국어 활동 영역의 윤리성과 언어문화에 관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련의 논의는 문법 교육의 정의적 교육 내용이자 국어에 대한 태도의 핵심적 교육 내용으로서 국어 의식을 관련 이론과 교육과정 담론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개념화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최근 개정 고시된 2022 교육과정에서 국어 의식을 중심으로 관련 교육 내용을 검토하고 그 대안점을 모색하였다는 점도 국어 의식의 교육적 실재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다만 국어 의식에 대한 국어교육적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국어 의식 개념을 보다 촘촘히 논의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2022 교육과정 연구가 활성화되고 그 실행에 대한 모습이 갖추어진 다음, 이 연구에서 추론적으로 해석했던 해당 성취기준에 대한 미비함이 발견될 우려가 있다는 점 또한 추후 시간을 두고 살펴야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국어 의식에 관한

아래 두 가지 연구 과제를 남겨두며 부족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국어 의식에 대한 국어교육의 철학적 담론을 확충하고자 한다. 국어교육은 이론과 실천의 방법적 논구에 집중한 나머지 국어교육의 존재론적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어 의식이 국어 문화와 그에 대한 가치적 범주를 지니고 있음에도 본격적으로 교육 내용화되지 못한 이유 역시 그 철학적 논의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어의 역사에 대한 논의에서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정의적 교육 테제를 살피고, 국어교육에 인접한 학문 분야의 개념인 민족 의식, 시민 의식, 윤리성 등을 섭렵하여 국어 의식에 대한 개념적 깊이를 더해 가고자 한다.

둘째, 학습자의 국어 의식에 대한 조사 연구를 수반하고자 한다. 국어 의식은 다층적 개념인 만큼 현장의 국어 학습자가 국어 의식을 이해하는 방식도 상이할 것이다. 아울러 학습자가 국어 의식을 발현하는 양상 또한 충실한 조사를 바탕으로 그 경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자의 국어 의식은 오직 문법 수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업 소통이나 일상 소통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국어 의식의 이해와 발현 양상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국어 의식의 교육 내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고춘화. 2013. 국어의식의 개념화와 교육적 해석, 국어교육학연구 47, 323-355.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국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5]).
- 교육부. 2015.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 _____. 2022.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5]).
- 구본관. 2018. 국어 교육과 윤리 - 과거, 현재, 미래 -. 국어교육 160, 37-71.
- 김규훈. 2019. 문법교육에서 ‘국어 의식’의 교육 내용 체계화 방안 - ‘언어인식 (language awareness)’의 전이를 중심으로 -. 우리말글 83, 1-26.
- 김수정. 2015. 국어생활사 교육 내용 분석 연구. 문법 교육 25, 27-57.
- 김은성. 2005. 비판적 언어인식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15, 323-355.
- _____. 2018. ‘국어에 대한 태도’ 교육의 현황과 새로운 전개. 한말연구 50, 5-32.
- 김진희. 2018. 문법 태도 교육 내용으로서 ‘국어 사랑과 국어 의식’에 대한 비판적 소고 -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양상을 중심으로 -. 한말연구 50, 35-59.
- 김창원 외. 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 - 국어과 교육과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5-25-3.
- 신명선. 2008.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 연구 31, 357-392.
- 원진숙. 2013. 다문화 배경 국어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언어 의식. 국어교육학 연구 46, 111-138.
- 장윤희. 2009. 국어생활사 교육의 성격과 목표. 문법 교육 10, 287-311.
- ALA. 1996. Language Awareness. Association for Language Awareness.
- Clark, R. & R. Ivanić. 1999. Raising critical awareness of language: a curriculum aim for the new millennium. *Introduction to critical language awareness* 8(2), 63-70.
- Eisenstein, C. 2011. *Sacred economics: money, gift, and society in the age of transition*. Evolver Editions.

- Fairclough, N., et al. 2014. *Critical language awareness*. Routledge.
-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ford University Press.
- NCLE. 1985. *Language Awareness*. National Congress on Languages in Education Assembly(4th, York, England, July 1984).
- Searle, J. R. 2002. *Consciousness and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투고일: 2023.01.04. ● 심사일: 2023.01.30. ● 게재확정일: 2023.02.13.

| Abstract |

Conceptual Systematization of “Korean Language Consciousness” and Critical Consideration of Educational Contents in Grammar Education

Kim Kyoohoon (Daeg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ceptualize Korean language consciousness and to consider Korean language consciousness related educational contents critically.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concept of Korean language consciousness is biased to studies of the language awareness was identified by piecing the existing studies about Korean language consciousness together. To overcome this bias phenomenon, this study recalls the multi-layered features of the “Korean language”, and investigates conceptual roots of the “Consciousnes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On a basis of this works, Korean language consciousness is categorized into three dimensions, “attitude of inquiry, attitude of awareness, attitude of value”, and the conceptual elements at each category are established. And then,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Korean consciousness related educational contents in 2022 curriculum. As a result, Korean language consciousness is stated clearly in the key idea, the contents elements are leaned towards the language awareness in the contents system of 2022 curriculum. In achievement standards of 2022 curriculum, it is feared that Korean language consciousness education could be just declaring education because the educational contents of Korean language consciousness, which are related to the value·attitude in grammar domain, are mostly connected to knowledge·understanding category of those domain. Nevertheless, a possibility is found that the valuable attitud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consciousness could be constructed by the contents related to language-culture of Korean language use.

〈Key words〉 Korean language consciousness, Language awareness, Attitude about Korean language, 2022 Curriculum, Value·attitude in grammar domain, Language-culture of Korean language use.

한국의 민주시민교육과 ‘공민’개념의 형성*: 미군정기 및 1950년대의 중등교과서 분석



김 두 진 (고려대학교)
(doojkim@korea.ac.kr)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해방 후 미군정기로부터 1950년대까지 민주시민의식과 관련된 공민(civics) 개념을 당시의 <중등 공민>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일제 강점기의 공민교육은 ‘공’(公)의 이데올로기로 신민(臣民)형성의 개념에 치중하였다. 미군정기의 민주시민 개념과 관련된 공민 교육은 미군정의 사회생활과(social studies)의 도입을 계기로 한국의 민주주의 시민의 가치 정립의 요체를 이루게 되었다. 미국식 민주주의 개념 수용 과정에 국내지도자들의 민족주의 담론(예 일민주의 등)에 의한 비판적 도전이 직면하기도 하였다. 서구식 공민개념의 정립을 위해 일제 잔재 폐지, 한국의 신분제도(봉건적 계급) 타파, 자유경제, 국민주권, 남녀평등, 노동자의 권리 등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념적, 제도적 수용은 당시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할만큼 급진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한국전쟁 당시의 전시교육체제의 공민 교재는 공민교육에 반공주의적 색채를 강화시키게 되었다.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개념은 공화정의 개념이 ‘광의’의 민주주의 개념속에 포함되어 구분없이 이해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주제어 : 공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사회생활과, 미군정, 민주정치, 자유경제

* 이 논문은 202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초연구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AKSR2021-C15).

I. 서론

국가를 기초로 논의되어 왔던 ‘공민’ 개념은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개념과 성격을 지니는 사회적 가치로 이해되었다. 더욱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처럼,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볼 때,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 즉 공민 - 현재적 의미로는 시민성-의 논의는 간단히 정립될 수 없다. 그 이유는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 간에는 여러 형태의 관계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에게 무게 중심이 쏠린 경우도 있지만, 역으로 사회나 국가 쪽을 중시하는 관계도 있다(조주현 2020, 18-19).¹⁾

본 연구에서는 해방 후 미군정기로부터 1950년대까지 민주시민과 관련된 공민(civics) 개념의 이해를 위해 당시의 <중등공민> 교과서- 회귀 자료 혹은 현대사료(史料)라는 의미에서- 의 공민 교육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²⁾ 일제 하에 이식된 <공민> 개념은 해방 이후 특히 미군정 및 한국 전쟁의 시기를 거치면서 민주시민 형성과 관련하여 새 유형의 ‘공민 가치’로 변모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의 시각에서 유추해 볼 때, 일제강점기로부터의 탈식민화가 서구식 시민의 가치관 수용 내지 서구식 제도적 수용으로 자연스런 연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는 1946년 9월 미군정하의 사회생활과(social studies) 도입이 현재까지 한국의 주요 민주주의의 가치의 근간이 될 만큼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끼쳐왔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해방후 서구식 공민교육의 진행은 생각만큼 순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 예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이승만대통령의 ‘민족적 민주주의’ 혹은 ‘일민주의’의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제1 공화국 문교부 장관 안호상은 미국식 민주주의 및 미국사조를 반대하여 ‘일민(一民)주의’ 실천철학을 근거로 민족주의 담론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³⁾(김학재 2012, 106; 선우현 2017 100-104; 57).

1) ‘공민’과 ‘시민’개념에 관해 시대적 배경에 따라 두 개념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범위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현재는 시민 개념이 보편적이나, 한국에서는 시간적으로 시민 개념이 일상화되기 전에 공민 용어가 먼저 사용되었다(조주현 2020, 19).

2) 본 연구의 기여의 측면은 공민교육의 성격을 밝히는 것 이외에 회귀 사료로서의 자료 속에 해방이후의 한국의 공민 과목의 특이성을 살피는 것이다. 해방 이후 탈식민지과정에서 공민의 가치관이 현재 시각에서도 놀랄만큼 서구화로의 변환은 어느 나라에서든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3) 오천석도 1963년 「민족중흥과 교육」을 저술한 바가 있으나, 그의 강조점은 자유주의 민족주의로 국수주의적 입장을 경계하고 민주주의와 조화되는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조건 2015: 119-120). 이승만정부 수립이후 안호상 등과 함께 ‘일민교육’이 강조되면서 오천석의 민주교육의 기조는 약화되는 추세를 겪게 된다 (유성상 외 2016, 15-16).

미군정하의 교육정책 기초의 기획- 주로 오천석 등이 주도한 -에 따라 ‘공민교육’관은 서구식 시민 개념에 기초하고 있었다. 주지해야 할 것은 오천석은 식민지교육의 일본적 잔재 청산을 전제하여, ‘사회생활과’ 도입을 통해 민주주의식 ‘공민’을 양성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정준영 2022, 443-445). 이러한 정책방향은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까지 일관성있게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본다. 중요한 사실은 이 당시 형성된 공민교육의 성격이 현재의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요체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천황제하 공민교육은 한 마디로 신민(臣民)을 형성하려는 의도에 치중하였다. 즉 여기서 신민이란 근대적 교육 이전의 절대주의적 국가권력에 따른 위로부터의 학교 교육을 통해 부국강병의 정책을 수용케 하는 시민상 형성과 연계되어 있다. 특히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적극적 대외팽창정책을 취하게 된 일제는 국가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1937년 공민과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 전후한 50년대의 민주시민 형성 과정에서 〈중등 공민〉 교과서의 공민 교육의 핵심과 주요 개념을 살필 것이다.⁴⁾ 오천석(1946)의 미군정청의 연계는 전반적 교육 뿐만 아니라 공민교육의 주요 가치의 형성에 상당한 역할을 의미한다.⁵⁾ 이러한 교육 시스템의 도입을 민족정신을 망각한 ‘서구식 교육의 맹목적 추종’이라는 비판도 있었다(천원오천석기념회 2019, 63). 미군정 학무국의 교육정책 입안으로의 오천석의 관여는 1950년대까지 공민교육의 핵심적 가치 형성의 주조를 이루었다.⁶⁾ 오천석의 「민주주의 교육의 건설」의 내용을 보면, 미군정시기에 구상된 서구 민주주의 개념의 모형이 오늘날 한국의 서구 민주주의의 시민 개념에 거의 대부분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

4) 해방 후 공민교육(civic education)은 국가 공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 함양과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시민교육과 연계되어 있다.

5)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교부장(문교부장관)이 오천석에서 안호상으로 바뀌었다. 「민주주의 교육의 건설」를 통해 오천석(1946)은 해방 후 4천여년 동안의 조선의 전제주의적 복종의 경험 및 36년간 일본의 전제주의적 노예에서 벗어나는 한 방편으로서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3).

6) 민주주의 시민교육 형성에서 미군정하의 오천석의 영향력이 1946년 3월 미군정 법령 제 64호에 의해 학무국은 ‘부(部)로 승격되고, 이후 학무국고 문교부로 승격된다. 오천석은 1945년 9월부터 1946년 3월까지 학무국차장, 1946년 3월부터 11월까지 문교부 차장(차관), 1947년 11월부터 1948년 8월까지 문교부 부장(장관)을 역임하게 된다.

7) 오천석의 「민주주의 교육의 건설」(1946)은- 미국의 국부 매디슨의 Federalist Papers 에는 결코 미칠 수 없겠으나- 민주주의 교육 이상으로 영향을 미친 면이 많다고 본다. 탈식민의

Ⅱ. 일제의 공민교육과 공민개념

1. 일본의 식민지 조선의 교육정책: 개요

식민지 이전 1890년대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개화파들은 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근대적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것은 국가가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은 포함하여 교육내용을 주도적으로 관리통제하여 공적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교육이 그 이전의 전근대 교육과의 차이는 국가의 구성원들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확립한다는 점에 있었다(김소영 2009, 23). 이에 따라 '신민'으로서의 국민은 과거와 같이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교화 및 통치의 대상은 아니었다. <교육에 관한 조치>의 배경은 '신민'들을 근대적 인재로 양성하여 이를 근간으로 부국강병을 이루겠다는 고종을 비롯한 조선 정부의 의지의 발현이었다(김소영 2009, 22). 이런 근대 교육의 개념은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 일본에 의해 조선의 교육은 전면적인 개편을 통하여 성격상 새로운 변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일본의 식민지 교육정책은 '조선교육령'에 의해 식민지 교육에 대한 기본 방침과 제도적 기반의 규정이 마련되었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교육의 목표를 일본 천황이 일본교육의 방향을 밝힌 교육칙어에 입각하여 일제의 '충량(忠良)한 신민(臣民)'을 양성하는데 두었다. 나아가 조선과 일본의 병합에 관해서 일본의 조선 강점은 조선인이 희망하였으며, 그 결과 조선의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시키고자 하였다(오세원 2005, 277; 284).

조선총독부는 1937년에 <황국신민(皇國臣民)의 서사(誓詞)>를 제정하여 학교 뿐만 아니라 각 관공서와 회사 등에 의식행사 때마다 외우도록 하였다. 곧 '식민지체제'의 인간형을 만들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오세원 2005, 290-291). 이에 따라 조선 중등공민교과서는 '식민지 국민 만들기'라는 일제의 기획이 표상화된 상징적, 기능적 '기억의 공간'이었다. 국가권력이 '교과서'라는 매개를 통해 일본식 '국민'의 원형질을 조형하기 위해 근대교과서는 '비물질적 기억의 터'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공민 과목은 구체적 매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⁸⁾

급변 상황에서, 민주주의 국가 건설(state-building)의 철학적 및 사상적 모형을 제시하려는 그의 '개인적' 노력은 어떤 의미에서 간과할 수 없는 시대정신의 반영이 엿보이기도 한다.
8) 일반적으로 공민교육은 반드시 '공민'이라는 명칭의 교과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민교육이란

일본에서 공민교육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1920년대 중반에서 1930년대에 본격적으로 제도화가 시작되었고, 식민지 조선에서는 1930년대 초반에 중등학교의 공민교과서가 최초로 간행되기에 이르렀다. 미국 진보 학교의 영향으로 교과서에 1차 세계 대전 이후의 국제정세의 영향이 반영되어, 국제협조, 평화주의, 및 민주주의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조선 중등학교 공민교과는 국가주도의 계몽적/근대적 가치를 비롯하여 일본적 국체론 및 동서문명 담론의 국수주의적 해석을 강조하였다(권동국 2013, 21; 권동국 2017, 116). 전시체제기인 1938년에는 식민권력은 제국 일본의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주입하기 위한 정책의 주요 항목을 차지하게 되었다. 1943년에는 재차 개정된 조선교육령에 따라 학교 교육의 핵심은, ‘황국신민’이라는 이데올로기 주체의 강조로부터 전쟁수행 및 학생들의 노동현장 동원으로 그 초점이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동원을 규정하는 ‘전시’, ‘동원’, ‘근로’, ‘결전(決戰)’의 표현들이 주를 이루었다(박해남 2013, 46-47).

2. 일본의 식민지 공민과(公民科) 교육과 ‘공(公)’의 이데올로기

일본의 공민교육의 기원은 미국 혹은 서구의 공민교육과 밀접한 연계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구공민>에서의 시민은 기본적으로 참정권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였다. 19세기 미국의 공민교육은 시민의 권리와 책임 또는 (시민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루는 교과목으로 정의되었다. 1920년대에 들어 종전의 <시민권> 및 <참정권>의 강조로부터 <새공민교육> (new civics)으로 변화되었다. 신공민에서는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시민에 포함시키면서, 구공민의 <엘리트주의적 시민> 개념으로부터 <민주적 의미의 시민>으로 성격 변화를 강조하게 되었다. 존 듀이의 영향 하에 “정치적 시민성 훈련”이라는 제한적 의미로부터, 생활양식이 준법정신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사회기관’(social institution) 으로서의 학교에 관한 교육 사상이 정립되었다(차조일 2012, 32-44).

이에 비해 일본의 공민개념은 ‘공(公)’의 이데올로기성이 강하였다. 일본의 공민 이해는 독일의 영향 하에 국가발전을 위한 독일의 공민 개념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민 보다는 국가를 ‘최고의 덕목’으로 보고 국가를 우선시하는 개념이었다.⁹⁾ 대부분의 국가에서

역사, 사회, 윤리, 수신(修身), 도덕 등의 교과목이 포괄적으로 공민교육에 연계되어 교육되었다.

9) 세계사적으로 보면, 공민교육의 흐름에는 2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미국의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에 대표되는 것으로 근대적 시민사회의 형성자를 육성하려는 데 있다. 다른 하나는

‘공’이 일반 대중을 의미하는 것이 비해 일본의 ‘공(公)은 천황 자체 또는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천황)의 인민’으로서 국가에 예속된 황민의 위치에서 권리보다 의무가 강제되었다. 즉 ‘공’으로서의 국가는 ‘민’의 권리 보다는 의무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김경옥 2020, 147-149; 정상호, 2012, 11). 이와 관련하여 일본 학자 다키야마 쓰기요(高山次嘉)를 인용하여 김경옥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일본에서의 공민은 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참정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외에도 다른 언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국가(천황)의 인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공민은 곧 황민(皇民)이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며 ‘공(국가·천황)의 민(인민)’이기 때문에 ‘공’과 ‘민의 종속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김경옥 2012, 147).

이처럼 일본의 ‘공’은 곧 애국심을 말하는 것이며, 다분히 국가주의의 이데올로기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개념은 해방 후 미국교육사절단 (1946. 3)의 시각에서는 일제의 수신(修身) 교육이 순종을 강요하는 공민의 목표 지향을 갖는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3.1 운동 이후 일제의 식민지 통치 정책은 외견상 상당한 변화를 보여, 헌병경찰 통치 대신에 ‘문화정치’를 표방하여, 강압적인 통치 분위기를 완화하였다. 조선인의 교육의 고양에 초점을 두어, 조선교육령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1921년 조선총독부가 제출한 교육개혁의 방향을 재고한 끝에 제시된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①조선의 교육제도는 민도(民度)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일본 교육제도에 준할 것, ②조선인의 교육에 특별한 제도를 둘 경우에도 각 제도하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을 교육할 수 있게 할 것, ③일본과 조선에 있는 학교들의 관련성을 한층 긴밀히 할 것 등이다. 이런 배경하에 1928년에 이르러서는 임시교과서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보통학교용 교과서 개편의 일방적 방침에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고 합병을 정당화하여 조선인을 일본에 동화시키는 측면에 치중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황실과 국가에 대한 사향을 유념시킬 것, ‘한일’(韓日) 합병의 정신을 이해시켜, ‘내선융화’의 효과를 거두는데 주력하고자 하였다. 1931년 만주 사변 이후 일본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고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을 위한 병참기지로 조선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이를 기화로 ‘조선인’과 ‘일본인’의 구분없이 “모두 황국신민”이라는 의식을 심기 시작하였다. 주목해야할 것은

독일의 국가공민교육 (Staatsbürgerlich Erziehung)으로 대표되는 국가주의적 색채가 있다. 일본의 경우 전전의 공민교육은 다분히 독일식의 국가공민교육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소위 皇民교육이 되었다. 이에 대해 남경희 (1997, 43) 참조.

이전까지 조선인에게 필수과목이었던 조선어가 수의(隨意) 과목으로 바뀌었다(김한중 2009, 310-319).

일본의 공민교육의 의미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1931년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대외팽창정책의 변화로 일본은 전국가적 전시 체제를 갖추기 위해 국가주의 이념을 전면으로 끌어 올릴 목적으로 1937년 공민과를 대대적으로 개정하였다. 무엇보다 일본 공민교육 개념에서 ‘공존공영’ ‘자유주의적 공민교육론’과 같은 자율적인 공민의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대신 사회개선의 의미가 강조되어 사회교화, 지방개량과 같은 식민지 정책의 의도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즉 식민지 교육의 개념은 일제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본래적 개념이 변용되면서 공민교육의 ‘이념화’ 내지 ‘정치화’의 색채를 띠기 시작하였다. 한 마디로 일제 식민지 정책의 ‘공민교육’의 개념이 신민적 공민의 의미로 이식되었다(임광국· 김빛나· 하스이케시게요 2017, 84-85).

2차 대전 무렵의 1937년에는 종래의 공민과는 국체의 본의에 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충량한 신민으로서의 신념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교수요목이 개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초기 공민과 중의 시민적, 사회과학적 요소가 약화되고 국가주의, 황국주의적 경향이 강해져 소위 황민과(皇民科)로 전락하는 변화를 목격하게 되었다. 그후 1941년 초등학교령이 공포되어 소(小)학교가 초등학교로 그 명칭이 개칭되었다. 나아가 황국민으로서의 덕목 함양을 목적으로 국민과에 새로운 교과로 개편되어 이전의 수신, 국사, 지리가 국민과에 하나의 교과로 흡수통합되었다. 1943년에는 중등학교의 공민과도 국민과 수신(國民科修身)에 흡수되었다. 일본의 전전의 정치 교육은 신민형성에 기반을 두었지만, 전후에는 정치교육의 강조점에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제국헌법(帝國憲法)」이 「일본의 신헌법」으로, 「교육칙어(勅語)」도 「교육기본법」으로 개칭되었다(남경희 1997, 41-42).

패전 이후 점령군에 의해 일본은 교육목표를 민주주의 국가와 자주적인 국민의 양성에 초점을 두었다. 학교 제도도 새롭게 6, 3, 3, 4 제로 바뀌었다. 교사들에게 커리큘럼의 편성의 자유재량권을 부여하였다. 1945년 9월 15일 일본 문부성은 「신일본 건설의 교육방침」을 제시하였다. 군국주의의 극단적인 국가주의의 이데올로기의 교육을 금지시키고, 의회정치, 국제평화, 개인 사상의 존중, 집회, 언론, 종교의 자유와 같은 자유주의 사상 교육을 장려하였다. 교육의 목적은 인격의 완성과 함께 ‘평화적인 국가 및 사회의 형성자’에 두었다. 동시에 전쟁을 하지 않을 국민의 양성을 목표로 삼았다(김중식 2015).

Ⅲ. 한국의 ‘공민’교과의 형성 과정: 해방후 미군정기의 민주시민 교육 요체

미 군정기(1945.9.9.~1948. 8. 14)는, 해방 후 3년 가량의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의 정치 진로를 결정짓는 주요한 시기였다. 남한에서의 통치 주체는 미군정으로 1945-48년간 국가통치의 가치체계와 사회규범을 남한에 이식시키고, 한국 현대 정치 경제의 구조와 통치형태의 기본틀을 형성하는 시기였다. 또한 미군정기는 우리나라가 신생 민주국가로서 새로운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현대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였다(이진석 2013, 82-83). 이 시기는 교육의 민족화, 민주화 및 자유화를 꾀하고 식민지교육체제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건국 교육체제로 지향하는 교육사적 전환기였다.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군정치 하이기는 하나, 이 시기의 전환정책은 그 이후 몇 차례의 교육개혁을 거친 후인 오늘날에도 한국 교육의 기본원칙의 골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정태수 1988, 72-73). 이런 배경 하에 미 군정기의 교육 정책은 우선 기본적으로 미군정이 주도하는 교육이 주류를 이루었다. 미군정의 교육정책의 기초를 살피기 위해, 한국의 교육가인 백낙준, 오천석, 김성수 및 안호상 등이 주도했던 일제 식민지 이후의 교육 사상 및 교육 인식과 상호융합되는 측면이 고찰될 필요가 있다. 당시 조선총독부의 지배연장책과 한국통치 기구에 관한 주한 미군과 일본의 유착 가능성이 논의되었다는 맥락에서 미군정청의 학무국(學務局)의 한국인 인적자원이 매우 중차대한 위상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정태수 1988, 79-89).

미군정 하의 교육정책이 한국의 민주시민 교육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반면에 미군정기의 민주주의 이념이 미 군정의 냉전 이데올로기에 편승한 지배 집단에 의해 민족적 요구 보다 미 군정의 이해를 반영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미군정기의 민주주의 교육 이념이 민주사회 실현의 궁극적인 목표로 한 것이었지만, 냉전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않는 집단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교육적 한계를 드러내었다는 비판도 있다(홍용선 1991, 31-36). 특히 한성진(1986)은 미군정기의 한국 교육 엘리트들이 일제 치하에 일제의 교육에 관계하는 동안 소극적 저항 노선을 취한 부일 혹은 친일했던 사람으로 폄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 교육의 정통성을 상실하였고, 미군 점령 초기부터 분단 고정화의 성격을 띠었다고 본다. 이런 상황이 일제에 의한 식민지 교육 정책의 잔재를 남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 군정의 교육 정책에 따라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이 형성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김용일 1994,

26-36).

미군정하의 국내의 공민교육의 성격 이해를 위해, 미점령하의 일본의 공민과 교육에 대한 간략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1945년 8월 패전 이후 10월에 공민교육 쇄신 위원회를 설치하여 새로운 공민교육 방안을 심의하였다. 동위원회는 12월에 종래의 수신과를 폐지하고 공민과를 새롭게 설치하기로 연합군 최고 사령부에 답신을 보냈다. 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수신, 일본 역사 및 지리의 교수를 '정지'하도록 지령을 내렸다. 1946년에 제 1차 미국 교육 사절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문부성은 새로운 공민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공민과는 수신(도덕)과 공민(정치 및 경제·사회)를 공민과로 통합하였으며, 지리와 역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종래의 수신, 공민, 지리, 역사가 폐지되고, 대신하여 사회과가 설치되는 방향을 취하게 되었다. 이 사회과의 목적은 미국의 초기 단계의 사회과의 민주적인 시민을 길러내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었다.

광복후 미 군정 당국이 최초로 교육에 관한 방침을 발표하였다. 1945년 9월 18일 아놀드(A. B. Arnold) 군정 장관의 포고에 따라 군정 학무국에서 각도에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 방침」을 제시하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교수 용어는 조선 국어 즉 우리말로 해야하며, 조선의 이익에 배치되는 교과목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다(홍용선 1992, 114-116).

미군정에서는 1945년 9월에 이르러 한국에 민주정치 보급을 위해 『헌법정치개요』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책의 주요 골자는 민주주의법을 세우는데 네 가지 중요조건으로 (1) 백성의 주권, (2) 백성의 대표정부 (3) 사법행정 (4) 백성의 권리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헌법은 나라의 근본원리와 근본 법률을 제정한 공문서로서, 헌법 하에 민주주의 정부의 기능을 명시한 것이다. 주권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리만을 갖게 되고, 국민의 동의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실행한다는 미국식 민주정치의 원리를 선포하게 되었다(한승연 2011, 54).

미군정은 초·중등 교육은 물론 고등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한국민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국내에 새로운 교육을 위한 준비 작업이나 준비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였던 상황에서 미군정은 통치의 기본 목표를 한국의 '민주화'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교육의 민주화는 미군정의 정치경제적 민주화의 맥락에서 미군정에 의한 교육 주도 세력에 의해 전개되었다.

1945년 무렵에 한국은 정치적으로 국체(國體)와 관련하여, 다양한 대립과 모색이 진행중인 상황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민주주의의 성격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당시 교과서에 구체화된 민주주의 교육 내용은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의미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한 예로 1946년 무렵 미국식 통합 사회과의 도입은 역사, 지리, 공민 교과를 통합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이혁규 2009, 132-133).

미 군정기 교육 주도 세력의 교육의 이념의 요체는 한 마디로 '민주주의 교육'이었다. 교육에 의한 '민주적 인간 양성'과 민주주의적 인간 양성을 통한 '민주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무엇보다 민주시민교육의 초기형태를 추적하는데 있어서 1945년 미군정에 의해 임시조치로 설치된 공민 교과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공민 교과는 군국주의 신민 교육을 가르치던 수신 교과를 대신하여 1945년 9월부터 주당 2시간씩 초중등학교에서 교수되었다.

미군정청은 '조선어학회'에 부탁하여 초등학교 1~2, 3~4, 5~6 학년용 공민교과서를 편찬하여 보급하였다. 미군정 초기에 미국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미치기 전인 이 무렵, '조선어학회'학자들에 의해 공민교과서가 제작된 사실은 우리 학자들의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사고체계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간주된다. 공민교과에 대한 조선어학회는 공민교과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일제의 굴레에서 풀려나와 과거에 받은 노예적 교육을 하루 속히 벗기 위해서도, 새 나라의 새국민이 되기 위해서도, 공민 교육이 필요했다. 여기서 군정청 학무국은 광복 직후 혼란한 시기에 돌연 공민 교과서의 편찬에 능한 사람을 얻기가 힘들어, 국어 교과서를 편찬하는 한글 학회에 공민 교과서의 편찬까지도 의뢰하게 되었다(한글학회 50돌 사업회 1971, 303).¹⁰⁾

중요한 사실은, 민족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던 조선어학회에서는 미국식의 사회과를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일제 잔재의 일소와 민족정신의 고양'의 차원까지 고려하여 교과 구성에 접근하였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각권의 도입부에 '국기를 만드는 법'을 포함하여, 개천절, 세종 임금과 한글, 화랑도, 우리 민족성, 우리 겨레의 사명 등으로 구성된 5,6학년의 초등 공민의 단원을 구성하였다(박남수 2004).

반면에 이런 교과 과정의 전면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전의 교육과정과 완전히 단절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해방 정국의 분위기가 당장의 질서 유지에 급한 상황에서 교육 문제는 불가피하게도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었다.

10) 홍용선 (1992, 118)에서 재인용

따라서 급격한 변화를 피하기 어려웠고, 심각한 물자 부족, 교육행정의 핵심을 담당했던 일본인들의 귀국에 따른 인력 부족 등 난제가 겹쳐 새로운 교육적 시도는 여러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런 배경 하에 미 군정 직후 과도기에 수신 과목이 공민으로 대체되었지만, 시수나 교과 편제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일제기의 것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의 틀이 잔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곽한영 2010, 9).

해방 이후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민주시민의 인식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관한 급격한 변화였다. 1945년 해방 후 미군정은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공민교육을 실시하였다. 공민교육에 있어 공민교과서는 일제의 경우와는 달리 남녀용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한마디로 남녀 공히 일반적 공민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여성에 관해서 특별히 부여되는 교육의 단락이 없게 되었다. 이 시기 공민교과서에는 일제 강점기의 그것과는 차별되게 민주주의를 소개하였고,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였다. 나아가 여성에게도 ‘공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강조되었다. 공민은 참정권을 갖기 때문에, 정치적 역할을 하기 위해 여성들도 정치교육이나 민주주의 교육이 필수적인 것이었다. 황국신민을 기르기 위한 일본의 수신·공민과와는 달리, 이 시기의 공민과는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제한적이거나 개인의 존재와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것은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김동선 2021, 182-183).

일본이 패망하고 미군이 진주하게 되면서 미군정의 교육 목표는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세력 팽창을 막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남한에 이식하려는 것이었다. 미군정 학무국의 키퍼(Glenn S. Kieffer) 대위는 한국내의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친미적이고 국제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태도를 지녀야 하며, 독립된 한국의 건립을 위한 민주주의 정신 발전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군정은 이를 위해 사회생활과(social studies)를 도입하였고, 사회생활과는 공민, 지리, 역사를 묶어서 만든 새 교과였다. 교과과목과 연관되어 미군정에서는 법률상 여성에게 참정권을 허용하였다. 미군정 공보부 정치교육과 고문이었던 한치진은 조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 민주사회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을 남녀 차별없이 일반화하여 공민의 자격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고 설파하였다. 또한 “남녀 누구든지 자격과 신념(신념)만 있으면 사회의 엇더한(어떠한) 직업이든지 할 수 있다는 공평한 양해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김동선 2021, 169).

미군정기의 교육 방향에 관해 제1공화국 초대 교육부 장관인 안호상은 미국식 일변도의 민주주의 교육 일변도 보다 주체적인 입장을 밝혀 조선교육연구회를 통해서 ‘민족교육’을

강조하였다. 안호상은 학원 내 우익학생이 중심이 된 교육활동에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1946년 8월 민주교육연구회를 결성하였다. 이후 이 조직은 <조선교육연구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또한 안호상은 일민주의를 표방하였다. 안호상의 일민주의는 이승만의 일민주의와 상호연계되는 일종의 사회철학이다.¹¹⁾ 일민주의는 1948년 이승만의 『일민주의 개술(概述)』을 통해 본격적으로 소개되어 이승만의 집권 초기에 안호상 등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치 이념적 성격을 띠었다. 이승만과 그의 지지 세력이 혼란한 정치적 상황 하에서 자신의 지배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들로부터의 지지확보를 위해 내세운 정치이념으로 간주된다(김학재 2012, 1-3).

다른 한편으로 조선교육연구회는 미국식 민주주의에 반하여 민족주의 전통을 강조하려는 색채가 짙었다. 조선교육연구회는 새 교육운동의 핵심이 미국의 민주주의도 아니고 소련식 공산주의도 아닌 제3의 길- 국가민족주의를 주장하였다. 사공환은 조선교육연구회는 1948년 12월 『조선교육』에 실린 그의 글 「갱생의 길」에서 ‘반자본주의, 반공산주의’를 주장하고, 개인보다 국가, 민족을 더 강조하는 국가사회주의의 성격을 강조하였다.

우리 민족이 건전치 못한 심신과 변태적인 군정으로 말미암아, 시기 상조인 민주주의와 파괴적인 공산주의 바람에 미친놈(美親派)과 소경놈(蘇敬派) 급성환자가 많이 발생하였다.....제 1차 대전 직후 독일을 갱생 부흥케 한 것은 오직 독일 사람 자신이었다. 그 방도는 강력한 독재 정권을 수립하여 국내의 분파적인 모든 세력을 통일하고.....당시 나치스는 국민교육 8개 강목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사들의 절대협력을 요청하였고, 교사들도 독일 재생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다.¹²⁾

사공환의 주장은 상당 부분은 안호상의 사고와 유사한 면이 많으며, 기본적으로 미국식 민주주의에 관해 민족적 전통을 내세워 맞서려는 입장이 짙었다. 안호상과 조선민족청년단(족청)을 함께 결성하였던 이범석도 1946년 귀국 당시에는 해방 이후의 조선(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무용론을 주장하며, “나치스와 같은 정치체제가 아니면” 조선(한국)을 구할 수 없다고 설파한 적이 있다(연정은 2003, 20). 뿐만 아니라 이승만을 비롯한 일민주의 이데올로기의 언술에는 다양한 사상적 성격들이 혼재되어 있었다. 그 속에는 정치적으로

11) 일민주의에 관한 논의 중에서 누가 일민주의 철학의 논의의 주도자인가 하는 쟁점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이승만의 통치이데올로기를 시작으로 안호상은 이데올로그의 역할을 했다는 관점도 있다 (선우현 2015, 57).

12) 『조선교육』의 1차 자료가 망실본이어서 연정은(2003, 19)에서 재인용함.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비롯한 파시즘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회주의의 성격까지 내재된 혼동이 었보였다(김학재 2012, 5-6).

이런 배경 하에서 미군정이라는 강력한 실체에 비견할 만한 교육 주도 세력이 국내에서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당시 ‘새교육’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군정청과의 친소(親疏) 및 관여 정도에 따라, 해방 후 교육 정책에 관해 국내 주요 교육 기관- 문교부 등- 혹은 교육정책 참여자- 오천석 등- 들 간의 입장 차이가 있었다. 이에 관한 쟁점을 살피는 것은 당시의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비교 파악하는데 유의미할 것으로 본다. 특히 6·3·3·4 학제 정책에 관해 긍정 혹은 비판의 입장 차이는 미군정 하의 교육 정책에 관해 일종의 국내의 이념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울대의 성내운은 『조선교육』 2권 3호 (1948. 3)에 기고한 글 「미국의 교육사조와 조선교육」에서 공민 개념의 실제적 측면을 부각시켜, 진보적 이상주의에 몰입하는데 관해 경고하고 있다. 그의 교육 철학은 생활과 유리하게 되는 교육의 취약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미국의 존 듀이의 실용주의 교육 사상을 수용할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해방후 미소 양군의 분할점령으로 민족 통일이 거이(거의) 망절(望節)적으로 된 이지음,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산업기관이 마비상태에 빠지게 된 이지음, 조화적 개성의 발달과 실제적 기능의 체득을 목표로 하는 강력한 교육을 통해서만 반민족적인 파벌사상을 해소시키고 산업을 부흥시켜 건전한 조선의 재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중략)....따라서 그主義(진보주의)에 기초된 교육은 실제로는 도로혀(도리어) 생활과 有離하게 될 것이니, 그렇다면 그것은 진보적도 아니요 또한 교육적도 아닐 것이다....진보적 교육은 실로 경계하여야할 경향일 것이다. 필자가 이와같이 말함은 진보적 교육운동이 자칫하면 이기적이고, 건방지고, 무례한 사람을 양성케 된다는 것을 염려할 따름이다(성내운 1948, 44).

유사한 맥락에서 윤형모는 『조선교육』 (1948.4) 2권 4호의 “교육상의 민주주의”에서 존 듀이의 교육 사상을 수용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민주교육건설에 초인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제일 일선 교육에 있어서, 민주교육의 태두인 존 듀이 (John Dewey)의 교육을 연구 파악함이 특히 필요함을 느끼는 바이다(윤형모 1948, 30).

IV. 한국의 ‘민주주의 시민’ 이해와 ‘공민’ 개념의 형성: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한국전 및 1950년대 시기까 지의 공민교재를 중심으로

해방 이후 미군정 주도로 진행된 교육 개혁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일제 치하 전체주의 교육 및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정착을 목표로 한 사회과(social studies) 도입이다. 우리 중등학교의 사회과는 지리·역사·공민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현재 사회과에서 ‘공민’ 용어 혹은 공민 과목은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차조일·강대현 2016, 12-13).

정부 수립기에 사회과 교육에서 보편적 용어는 ‘시민’이 아니라 ‘공민’이었다. 일본의 번역어 ‘공민’은 일본의 고유한 국체로 인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을 지칭하는 ‘citizen’과 그 의미가 달랐다. 공민 개념은 정부 수립 과정 특히 헌법 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주지할 만한 것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공민 대신 ‘국민’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헌법에서 언급되는 주권자 역시 ‘인민’이 아니라, ‘국민’으로 지칭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차조일 2018, 33).

본 연구에서는 미군정 이후 1950년대 시기까지의 공민 혹은 공민연계 중등교재에서 공민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개별 저자는 그들의 강조점과 초점에 따라 다양한 개념의 특징을 제시하거나 해석내리고 있다.

우선 공민개념의 정의를 중심으로 중등교재를 살펴 볼 경우에, ①최재희 『신공민교육』(1947)이 가장 세밀하게 「공민」 용어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 있다. 이 외에 공민의 이해와 관련하여, ②오천석 『민주주의 교육의 건설』(1946) 및 오천석 『중등공민』(1956), ③이상선 『우리나라 정치생활 (공민부분 2학년용)』(1949), ④김증한 『고등학교 사회과: 새로운 정치와 사회』(1956), ⑤권상철·오수옥 『중등 사회생활용 고등공민 II』(1949), ⑥최호진 『고등학교 사회생활과 공민(경제생활)』(1950), ⑦유진오 『중등사회생활과 국가생활』(1956a) 및 유진오 『고등학교 사회과 정치와 사회』(1956b)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의 중학생 및 성인용 교과 교재로 나온 ⑧ 문교부 『전시독본 침략자는 누구냐』(1951) 및 문교부 『전시독본 2 자유의 투쟁』(1951)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1.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의 수용: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등

「공민」의 개념과 성격에 관해서는, 미군정하에서 집필된 최재희의 『신공민교육』(1947)에서 가장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최재희 『신공민교육』(1947)에서는 독일의 쾰젠쉬타인 및 영국의 화이트(E. M. White) 등의 정의를 종합하여, “사회의 일원, 공동단체의 일원으로서의 사람을 공민”이라고 정의를 내렸다(최재희 1947, 1).

오천석은 『중등공민』에서 “무대에 나가서 연극을하는 사람들이 다 배우이듯이, 우리는 모두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공동 생활을 하는 공민들이다”(오천석 1957, 171) 라고 기술한다. 이상선은 『우리나라 정치생활』에서 “훌륭한 공민이란 국가 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여 그에 따르는 일을 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할 줄 아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상선 1946, 147).

다른 저자들에 비해 최재희는 공민에 관해 상당히 ‘진보적’ 개념으로 정의 내린다. 다른 저자와 대비하여, 공민을 설명하는 단어 가운데 ‘인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최재희의 공민은 이념적으로 좌익적 성향의 공민 개념 까지 포괄하는 공민으로 개념 규정을 하고 있다.

공민이란 것은 국가적 생활, 사회적 생활을 하는 인민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민은 이러한 국가적 생활, 사회적 생활에 보조를 맞추어 남과 한가지 평화롭게 또는 행복스럽게 살 수 있도록 먼저 자기 개인의 일상행동을 신중히 하는 동시에 이리하여(이리하여) 남과 이해있는 협동적 생활을 하여 가는 인민이다...(중략)...공민적 의무와 권리는, 공민이 공민인 이상 누구나 다 같이 지키고, 누구나 다 같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농민이든 상인이든, 좌익 정당원이든 우익 정당원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런 것은 묻지 않는 것이다(최재희 1947, 53).

나아가 구체적으로 공민을 구성하는 덕목에 관해 위에 언급된 저자들은 무엇보다 「자유주의」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그 서술 방식은 다양하나, 민주적 공민의 사회관으로 <전체>와 <부분>, 즉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념적으로는 ‘새로운’ 공민교육의 원리로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자유주의(혹은 민주주의)를 전체주의, 공산주의의 개념과 대비하여 그 개념과 성격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민주주의 설명을 위해, 기본적으로 ①민주주의의 정의, ②민주주의 제도인 ‘선거 (보통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및 정당’, ③ 권력분립의 원리 및 정부 구성 관련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 사법부(법원 및 재판)’, 민주국가의 조직원리로서의 정부형태 (책임내각제 및 대통령제) ④ 민주정치의 원리로 <직접민주정치>와 <대의정치> 등 민주주의의 <국가 제도>의 전반을 설명하고 있다.

〈표 1〉 자유주의 및 민주주의에 관한 공민개념의 유형

저자/공민교재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공민의 강조점	비고
최재희 『신공민교육』 (1947)	1)무산자 계급정치를 표방하고 폭력을 계획하는 계급적 전체주의(공산주의)에 반대 2)경제의 자유를 주장함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에 의한 자유방임적(자연방임적) 낙천적 이론은 역사적 발전의 현단계에서는 실현 불가능, 역사발전 단계에서 자본주의를 개혁하여 유산계급의 특권을 전폐하고 무산계급의 생활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함 (p. 19)	공산주의에는 반대하나,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의 약점과 폐해 시정 강조
	자유주의가 실현하려는 자유는 주로 <사회적 자유>이며, 그 사회적 자유의 종류는 단일하지 않다①신체, 생명, 이동의 자유②언론, 출판, 저술의 자유③신앙의 자유 ④단결의 자유(노동자의 단결, 집회, 결사의 자유)⑤직업의 자유, 교육의 자유⑥가족상의 자유(가족제도의 폐해 배제, 가장중심에서 부부중심 또는 자녀중심)⑦지방적 자유(최대의 자치) ⑧단체의 자유(교회, 학교, 조합)⑨국민적 자유⑩국제적 자유⑪경제상의 자유 ⑫ 정치상의 자유	1)단결의 자유에서 노동자의 단결, 집회, 결사의 자유; 2)가족의 자유에서 여성과 자녀의 자유강조
최호진 『고등학교 사회생활과 공민(경제생활)』 (1950)	1) 자유경제와 통제경제를 비교 설명하되, 근대 국민경제는 경제계 개인주의의 자유경제 원리를 강조 2) 자본주의의 생산, 기업, 상품, 물가, 유통, 신용, 상업과 무역, 임금, 소득, 지대, 분배, 외국환, 소비, 국가 경제생활(재정) 등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 개념의 전반을 설명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경제원리 지지
권상철·오수옥 『중등 사회생활용 고등공민 II』 (1949)	1) 자유경제는 개인 이기심의 무한한 충족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것(p.154) 2) 영리를 추구하여 생산한 재화의 축적에 대하여서도 국가는 간섭하지 아니하며 제한하지 아니한다(p.154)	<아담 스미스>의 자유경제원리를 강조

저자/공민교재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공민의 강조점	비 고
	3) 자유를 인정하는 국가의 개인주의 법제를 토대로 하여 과학적 기술을 이용한 합리적 경영방법으로써 <무한한 영리를 추구>하는데 그 특질(특징)이 있다 (p.155)	
이상선 『우리나라 정치생활』 (1949)	국민의 권리로, 1)자유권 2)참정권 3)청구권 4)수익권 6)평등권 제시함. 국민의 의무로 1)납세의 의무, 2)국토방위의 의무 3)교육의 의무, 4)근로의 의무 (pp. 136-146)	평등권 주장,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강조
유진오 『중등사회생활사 회과 국가생활』 (1957a)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이며, <국민>과 <민족>의 개념을 구분하여, 한 민족이 그대로 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pp. 115-116)	대한민국의 <단일민족> 강조
권상철·오수옥 『중등 사회생활용 고등공민 II』 (1949)	1) 민주주의를 국민을 위한 정치이며 그 밖의 누구를 위한 정치가 아님. 옛날에는 정치는 임금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음 2)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	주권(다른 교과서에서도 언급됨) 강조

당시 공민 개념 형성과 관련하여 <표1>에서 예시된 바를 근거로 논하면, 아담스미스의 자유경제원리, 유진오의 대한민국의 '단일민족' 개념(1957a), 권상철 외(1949)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소위 국민주권론)는 주장, 특히 이상선의 '평등권'에 관한 용어의 언급 등을 볼 때, 탈식민지 과정의 해방 공간에서 일반인들 혹은 지식인들까지도 새롭게 이해될 필요성이 있는 생소한 공민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최재희(1947)는 다른 집필자에 비해 당시로는 매우 진보적 시각을 제시하였다. 즉 공산주의에는 반대 입장이나 자본주의의 약점과 폐해가 시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을 뿐 아니라, 여타 저자들이 거의 언급하지 않은 '노동자의 단결, 집회, 결사의 자유', '여성과 자녀의 자유 및 인격권' 등을 당시로는 급진적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대체로 자유경제의 제반 원리를 (공산주의 국가의) 통제경제와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관한 간결한 설명으로 권상철·오수옥은 "옛날에 정치는 임금을 위한 정치"이었으나, 현재의 민주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권상철·오수옥 1949, 45-47).

〈표 2〉 최재희의 공민개념: 남녀평등관, 결혼관, 여성관 및 여성 사회진출관

주요 논점	최재희 「공민」 교재에 언급된 논리
남녀평등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여성 지위 향상 제시	1) 프랑스 혁명 당시에 쿠우지 여사는 “인권선언”에 대해서 “여권 선언”을 제창.....17-8 세기 까지는 양성 평등은 사상 운동에 그침. 실천적 측면에서 오직 “가정안에서의 일”이었고, “천부인권설” “자유평등설”을 부르짖은 루소(루소), 밀(Mill)같은 사상가 까지의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별로 찬동하지 않았음 (p. 44). 2) 19세기 후반 미국, 영국 및 그 밖의 문명 국가에서 “부인참정 운동이 일어나 부인에게 참정권을 인정, 1918년 영국의 부인 참정운동은 1918년 로이드 쏘지(조오지)의 인민법에서 제도적 성공을 보게 됨 (p. 45) 3) 여성 노동자의 산업상, 경제상, 사회상을 비롯하여 종래의 정치상 법률상의 여성 지위로서는 오늘날(1940년대)의 여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됨 (p. 45)
성애(性愛)/결혼의 인식 변화의 논리 제시	1) 성애는 본래 조금도 죄악시할 것이 아니다.....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서로 이성을 동경하는 자연적 성질은 조금도 죄악시할 수 없는 것이요, 또 죄악시할 것이 아닌 것이다” (p. 46). 2) 결혼은 성애만으로 성립할 것이 못된다.....성애 이상의 정신적 결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인격적 결합이요 인격적 협동이다 (p. 47) 3) 새 시대의 가정 생활에서 봉건적 가정(家長) 전제(專制) 행동을 일소하여, 아이들 중심의 구속없는 생활을 전개해야 한다 (p. 50).
여성의 사회진출관: 인격적·사회적·국가적 당위성 주장	1) 재래의 많은 사람들이 인습적으로 여성은 남성을 질겁게(졸겁게) 하는 “인생의 장식물”이요.....한 개의 귀여운 “노리개”로 보고저(보고자)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p.50). 2) 민주 시대의 오늘날 여성은 자기를 “꽃”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은 다만 가정의 안해(아내)로서의 “사람”일 뿐 아니라, 가정보다 더 넓은 사회의 한 “사람”이어야 한다 (p. 50) 3) 여성은 오직 가정에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사회적 진출을 하여, 그 인생의 목적과 내용과를 발견하고, 실현할 사명을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p. 50) 4) 여성에게 자기의 힘을 사회적으로 시험하고, 자기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주어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여성의 능력을 의심하고, 여성의 천성을 언론(言論)하는 것은 결국 역사와 전통과 편견에 인한 크나큰 독단 바깥(밖에) 되지 않는다 (p. 51) 4) 적어도 여성 역시 남성과 다른없는 인간이요, 인격일진대, 이러한 자기들의 인격권을 국가적으로 승인케 하고, 사회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여성 또한 자기의 성적(性的) 계급의 권리와 요구와를 주장하고 대표하는 대의사(代議士를 국회에 보내는 것은 당연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p. 52).

〈표 2〉에 언급했듯이, 최재희는 남녀평등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여성 지위 향상을 주장하였다. 조선의 전통적 성애(性愛)와 봉건적 가정의 전제(專制) 등을 일소시킬 것을 강조하는 등, 해방후 한국사회의 기존 인식체계에서 쉽게 수용될 수 없는 서구식 가족관, 여성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여성의 인격권과 사회진출을 통한 자기 발전, 심지어 여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여성의 국회 진출에 관한 당위성 등을 설파하는 등 당시로는 획기적이고 시대를 앞서가는 ‘여성의 공민관’을 제시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오천석(1946)은 생활방식의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민주주의의 교육적 기회에서 남녀간의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당시로는 매우 생소했던 남녀공학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오천석은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는 전래의 윤리로 보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일 수 있으나, 세계적 추세가 남녀공학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한국에 적용시킬 것을 주장한다(33-34).

여기서 민주주의의 이념의 수용 과정에서 민주주의 개념이 공화주의와 혼돈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것은 일본의 민주주의 개념 수용 과정에서 생긴 개념적 혼돈에서 연유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공화정)의 두 개념은 특히 일본에 도입될 때, 상당 기간 동안 번역과 의미상의 혼용 및 혼돈을 낳은 개념이었다. 공화정치의 함의는 민주주의가 ‘수에 초점’을 맞춘데 비해, ‘공동체의 공동선 내지 책임성’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추병완 2020, 139). 일본에서는 19세기 중반 (1850년대) 리퍼블릭(Republic)의 번역어로서 ‘민주제(民主制)’로 번역되었다. 1860년대는 관행적으로 democracy의 번역어는 일반적으로 ‘공화정치’, ‘공화국’ 또는 ‘공화주의’로 번역되었다. 이 무렵 두 개념을 먼저 수용하게 된 일본에서 조차, 〈데모크라시 democracy〉와 〈리퍼블릭 republic〉을 엄밀하게 구분해 번역하지 못한 채 혼용되었다 (송경호·김현 2021, 9-17).¹³⁾ 그럼에도 해방후 헌법 제 1 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되어 있다. 유진오는 국가를 군주국, 귀족국, 공화국의 셋으로 분류할 때, 공화국이란 주권이 “국민의 다수 또는 국민 전체에게 주어진” 국가로 정의한다. 유진오의 공화국에 관한 개념 규정으로는 공화국과 민주주의의 구분이 구분되지 않고 있다. 헌법 2 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13) 송경호·김현에 의하면, 고이즈키는 영어판 〈토크빌〉의 영어판 서문에서 프랑스의 민주주의를 언급하는 대목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원문 *The democracy of France, checked in its course or abandoned to its lawless passions, has overthrown whatever crossed its path* 가 번역될 때 “불국(佛國)의 공화주의는 그 진행의 길이 방해받거나 또는 그 열심(熱心)이 광적이어서 전후를 돌아보지 않는다 (Tocqueville, 1835, *Democracy in America*, translated by Henry Reeve, London: Saunders and Otley, p. 26). 송경호·김현, 같은 논문, 17 쪽 참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어 제 1 조의 선언을 뒷받침하고 있다¹⁴⁾(유진오 1957a, 6-7).¹⁵⁾ 유진오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학자적 입장에서 민주정치와 공화국을 포괄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나아가 공화정과 민주주의 중 민주주의 개념이 더 중요한 것처럼 방점을 두는 것 같다.¹⁶⁾

대한민국 헌법 제 1 조는 대한민국이 공화국일 뿐 아니라, 또 민주국임을 선언하였는데, 민주국이라는 말도 본래는 주권이 국민의 다수 또는 국민 전체에 있는 국가를 말하는 것이어서 공화국과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었으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하면, 본래 같은 말을 두 번 되풀이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국'이라 규정한 것은 20세기로 들어온 후, 공화국 중에도 나치스 독일이나 쏘베트 공화국 모양으로 민주 정치를 하지 않는 나라가 생겼기 때문이다(유진오 1957a, 6-7).

유진오 『정치와 사회』(1957a)에서는 '국민'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인민〉 〈민족〉의 개념과 대비하여 구분하고 있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면, 인민은 일반대중을 의미한다. 민족은 인종, 언어, 습속, 지역, 경제, 전통,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자기들이 한 민족에 속했다는 강한 자각을 갖게 된다(12-13).¹⁷⁾

2. 한국 공민교육의 민주주의 가치관의 급진적 수용: 일제 교과 잔재 폐지, 봉건 계급 철폐 및 파격적 남녀 평등관 수용 등

해방 후 공민 교과 내용에는 일종의 공민 형성을 위한 교과목 편찬의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을 만한 사항은 우선 '일제의 잔재 청산'이었다. 이

14) 유진오는 『고등학교 사회과 정치와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민의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이며,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정치이며, 국민을 위한 (for the people) 정치라고 서술하고 있다.

15) 유진오(1957a)는 공화국이 곧 민주주의로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강조한다. 독일의 나치, 소련이 공화국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치를 실현하지 못한 역사적 사례로 들고 있다.

16) 최근 공화정(공화주의)과 민주정치(민주주의)의 개념을 논리적으로 구별하여 민주주의에 적용시키려는 논의들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정욱 (2009) 및 유종현 (2013)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17) 유진오(1957a,23)는 한국 민족과 관련하여 "우리 한 민족은 세계의 여러 민족 중에서도 가장 순수에 가까운 민족"이라고 본다. 순수에 가까운 민족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친밀감과 애국 애족의 마음도 더욱 강하다"고 하여 한국적 순혈주의의 민족주의 입장을 표명한다.

쟁점은 공민 의식 형성 및 교육정책의 일차 선결 조건이었다. 이런 목표 하에 미군정청의 편수국장이었던 최현배는 일본인의 정신을 담은 교과서를 폐기하고 교과서 편수 방향을 ‘자주 정신’으로 나갈 것을 기조로 삼았다. 자주 의미란 한 마디로 교과서를 조선 사람의 정신이 담긴 그릇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과 편찬의 원칙으로 ‘한자를 가능한 적게 쓰고 한글 전용’ 방침을 제시하였다. 최현배가 1945년 『자유신문』 7호에 기고한 방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래의 일본적인 근본 정신을 업새는(업애는) 의미에서 종래의 그릇인 일본인의 손으로 된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고치지 않으면(업으면) 안 될 것이다. 종래의 교육은 우리가 배호 고십흔(배우고 싶은) 것을 배훈(배운) 것이 아니다. 그들이 가르키고 (가르치고) 십허하는 (십어하는) 것을 배워 주었다는 것에 오히려 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고 국가가 독립된 이상 신문화 건설도 절대로 시급함으로 우리는 어디까지나(어디까지나) 조선 사람의 자주적인 정신에 의해서 자기의 맘과 자기의 글을 이 그릇에 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서 교과서의 편집 방침을 세우고 잇으며 될 수 있는 대로 한자(漢字)를 적게 쓰고 순전한 조선글을 써서 문자를 배후고저(배우고자) 하는 그 노력을 더러(덜어)주는 동시에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배호(배우)도록 할 방침이다(최현배 1945).

한글 전용과 관련하여, 최재희는 『신공민 교육』(1947)에서 한자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자기 말과 글의 그릇(器)이 없다면 민족문화, 민족정신의 과실이 담기어질 수 없고 전해질 수 없다고 보았다. 최재희는 “민족 정신, 민족 문화의 본질적 내용은 우리 글의 표현적 수단을 통하여서 더욱 친근하게 더욱 실감답게(실감나게) 自他에게 시간적 공간적으로 알려 질 수 있으며 또 퍼지어 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74-75).

유사한 입장에서, 오천석은 『민주주의 교육의 건설』(1946)에서 공민 형성에 있어 ‘일본적 잔재의 청소’라는 인식을 근거로 민주주의 교육이 출발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민주시민의 신교육이 일본이 남기고 떠난 교육을 결코 계승할 수 없다는 것이다. 8·15 해방을 계기로 한국인은 구교육에 대해 종지부를 찍고, 새 출발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한다(오천석 1946). 오천석은 과거에 집착할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한국인이 ‘구일본적인 것으로 회귀할 위험’에 노출될 역설(逆說)을 엄중히 경고하였다.

해방 후 일본은 우리 나라에 한 개의 교육 제도를 두고 갔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적인 것으로 차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해방은 비교적 쉽게 얻기운(얻은) 바

되기 까닭에 우리에게는 현재에 만족할 위험이 많은 것이다.....우리는 도리어 일본적인 과오를 고수하며, 구시대에 답보를 계속하고 있을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지금으로부터 5년후 혹은 10년후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켜 볼 때, 이 땅에 오히려 구(舊)일본적인 것이 한층 더 많이 남아(남아) 있음을 보게될지도 모른다(오천석 1946, 5-6).

오천석(1946)은 이처럼 한국의 지식계급이 ‘일본적 지적 전통’을 동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염려하였다. 해방 후 일본적인 것의 타도를 외치면서 역으로 이로부터 탈피할 수 없는 현실적 깊은 우려를 교과서 내용 속에 그침없이 경고한 것이다.

해방후 공민 교육에서 주목할 만한 점 중의 하나는 ‘신분제도 차별의 철폐’에 대한 인식의 제고이다. 최재희(1947)는 민주주의 이념이 조선의 폐해의 하나인 양반 제도를 철폐했다는 점에서 찬사를 보내고 있다.¹⁸⁾ 조선 시대에 문(文)을 높이고 무(武)를 낮추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이 문약(文弱)에 빠져 용감성을 잃고 민족성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한다. 최재희는 민주 이념의 도입으로 조선 시대의 신분 제도가 폐지되어 개인적 자유 및 평등을 향유케 해야 함을 강조한다.

한 민족 안에 여러 계급이 있고 여러 계급 사이에 계급 관념이 있다면 그 민족은 도저히 자유롭게 융화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다. 우리는 양반 관념 뿐만 아니라(아니라) 중인(中人), 상민(常民)의 관념을 버리며, 또 적서(嫡庶)의 차별을 철폐하여야 한다..... 인격적 평등은 민주시대의 당연한 권리이며 인격적 평등생활은 민주적 생활의 제일보이다 (62).

〈표 2〉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당시의 대부분의 공민 교과서에 서술하지 않은 공민 인식·태도를 최재희(1947)는 파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은 정부 수립 당시의 시대상에 비추어 볼 때, 사상적·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소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버금가는 공민 인식이라 하겠다.

3. 한국의 전시(1950-1953) 교육체제와 공민 교육의 냉전적 성향

이런 배경하에 전시 교육 정책은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의 역할을 상정하여,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기초가 되었다. ‘반공교육’이 모든 교과- 사회생활과 교육, 역사교육,

18) 신분제도 철폐에 관한 최재희의 문제 제기는 다른 공민 저자와는 상당한 차별성이 돋보이는 관점이다.

시사교육 등에서 실시되는 동시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단순 비교가 아닌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 전제되었다(김남수 2003, 10-11). 초등학교의 「전시 생활」에는 ‘나쁜 인민군·중공오랑캐’ 대 ‘좋은 국군·유엔군’이라는 피아(彼我)의 구분이 명확한 선악 대결 구도의 텍스트(text)로 구성되었다(원종찬 2018, 297).

〈표 3〉 「침략자는 누구냐」(1951)의 주제별 핵심

차례	교과 내용중 인용
1. 북한공산당의 반역	1) 우리 거래의 발전을 즐겨하지 않는 소련의 세력이 북쪽에서 노리고 있었다. 이 어두운 손길은 우리나라를 4278(1945)년 일본에게서 분할 점령한 것을 기회로, 한국 사람 아닌 한국 사람 공산당 앞잡이를 군데군데서 주어 모아, 이것을 한 개 무리로 만들었다 (p.2) 2). 크레믈린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여 온 북한 공산당이다 (p.2)
2. 중공은 침략자로 규정되었다	1) 중공의 역사는 그대로 소련 볼셰비키(볼세비키)의 역사이다. 제일차 세계 대전에 있어서의 볼셰비키의 지위가, 바로 제 이차세계 대전에 있어서의 중공의 지위라고 할 수 있다 (p.12) 2) 중공은, 한국에서 이미 침략을 감행하고 있던 자들에게 직접적인 원조 후원을 제공하고, 또한 유엔군에 대하여 적대 행동을 함으로써 그 자체가 한국을 침략하였다는 것을 단정한다(p.16)
3. 소련의 적화정책	1) 우리 나라의 이번 전란은 결코 한 나라의 내란이 아니라, 우리 나라와 소련이 싸우는 한소전쟁이다 (p.20) 2) 소련 침략자들은 자기들의 지위와 목숨을 보전하기 위하여 애꿎이 우리 강토를 더럽히고 있거니와 (p.27)

〈표 3〉에 의하면, 문교부(1951b) 중등 『전시독본 침략자는 누구냐』의 교과는 불과 30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1. 북한 공산당의 반역, 2. 중공은 침략자로 규정되었다, 3. 소련의 적화 정책, 의 주제를 밀도있게 설명하고 있다.¹⁹⁾ 문교부(1951a)의 『전시독본 2 자유의 투쟁』에서는 한국 전쟁을 둘러싼 국제환경 내지 국제상황을 국제적 시각에서 분석하려는 시도를 피하고 있다. 한국 전쟁 상황에서 한국이 국제 공산세력 하에 멸망할 경우에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주변의 약소국가들의 운명에 관해 예측하고 있다. 반공적

19) 단원 1에서는 북한이 소련의 앞잡이임을 강조한다. 북한 공산당이 크레믈린의 꼭두각시로 묘사하였다. 단원 2에서는 “중국공산당은 그레믈린(크레믈린)의 직접 지령으로 움직이는 국제 공산주의자들이다” (1951b, 12)라고 단정짓고 있다. 제 3 단원에서는 한국 전쟁이 곧 한소(韓蘇)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술 내용의 논리적 전개에 주목할 때, 단순히 중등 학생의 이해 수준을 능가하는 국제정치적 안목을 제시하는 높은 논리와 분석력이 엿보인다.²⁰⁾ 『전시독본 2 자유의 투쟁』에서는 중등교재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한국전쟁을 분석하고 있는 점에서 단순히 이데올로기 편향을 넘어서 학술적으로 국제 정세 전문가가 제시한 견해가 포함된 것으로 추측된다.

실로 이번 한국 전쟁은 대한 민국의 생사(生死)에 관한 역사적 전쟁이거니와, 동시에 세계 민주주의의 금후 존망(存亡)의 시금석인 것이다. 만일 한국이 공산주의 정복 밑에 들어가면, 남동 아시아(동남아시아)의 모든 약소 민족은 모두 유엔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요, 또 공산주의는 순차로 그들을 침식(侵蝕)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가 공산주의에 정복되는 날에는, 유유럽(유럽)이 그 운명을 밟을 것이요, 유유럽이 정복되면 아메리카(미국)도 그 번영과 생존을 유지 못할 것은 확연한 일이다. 그런 뜻에서, 민주 국가가 한국 문제를 중대시하고, 이를 구하려고 하는바이다. 여기에 민주 국가의 연대책임제가 생기는 바이요, 집단방위의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1951a, 12).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해방 후 미군정기로부터 1950년대까지 <중등공민교과서>를 중심으로 당시의 민주시민 의식에 연계된 공민(civics) 과목에 있어 공민 개념의 형성을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 조선에 대한 일제의 공민 교육의 초점은 ‘공(公)’의 이데올로기성이 강조되어 일본 천황의 ‘충량(忠良)한 신민(臣民)’의 양성에 두고자 하였다.

해방 후 미군정의 교육정책 주도로 민주시민교육의 기초에 따라 대한민국정부 수립 및 한국 전쟁의 시기 동안 새로운 ‘공민 가치’ 형성을 위한 많은 노력이 경주되었다. 특히 1946년의 미군정의 ‘사회생활과’(social studies)의 도입을 계기로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에 있어 미군정 학무국 참여 한국학자들 특히 오천석 등에 의해 서구 시민(공민)개념이 수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서구식 공민개념의 형성은 생각만큼 순탄한 과정은

20) 예를 들어, ‘집단안전보장’체제, ‘한국 전쟁의 군사 상황’에 대한 서술과 관련하여, 한 예로 ‘집단안보’의 필요성 및 공산주의의 확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도미노’이론과 유사한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1954년 미국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와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이 주장한 것으로 냉전시대 미국 외교의 근간이 되고 있다. 베트남 전쟁 이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이 잇달아 공산화되면서 이 이론이 실제로 적용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아니었다. 한 예로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년) 이후 이승만대통령의 ‘민족주의적 민주주의’(혹은 이승만의 일민주의) 혹은 안호상 문교부장관의 ‘일민주의’ 등이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한국적 민족주의 담론의 위치를 차지하여 서구의 공민가치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다.

반면에 민족주의 우선주의적 이념의 강력한 도전의 상황에서도,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의 요체 형성 과정에 미군정치의 교육정책의 기초가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방 후 발간된 민주교육 관련 교과서, 학자적 지침서, 및 1950년까지의 공민교육 교재들의 공민의 핵심 가치관을 개념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의 전제정, 및 일본의 전제주의 등의 경험에 견주어 볼 때, 서구식 민주주의 이념 및 제도와 관련된 제(諸)개념들- 서구 민주주의 이념들, 자유주의경제, 신민(臣民)의 개념에서 시민의 권리로의 인식전환, 국민주권, 봉건적 계급타파, 신분제 철폐, 노동자의 단결·집회·결사의 자유, 남녀평등관 등-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할만큼 새로운 공민의 가치관으로 정착되었다고 본다. 특히 민주시민의 인식 중 여성 신분과 그 역할에 관해, 당시 수준으로 훨씬 급진적 인식변화(radical change in perception)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수준에서 유추해 볼 때도 파격적인 공민 가치관이 중등교과서에 개념화되어 있었다는 것은 놀랄만 한 것이다. 특히 최재희(1947)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도 불구하고, 의회(국회)에 여성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여성대표(representative)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발상 전환은 민주주의의 이해에 있어서 “당시로는 획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²¹⁾

한국전쟁 당시의 전시교육체제의 공민 교재는 그 이후 한국의 공민교육의 방향에 반공주의적 색채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부연하면, 유진오는 민주정치와 공화국을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려는 인식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유진오는 공화정과 민주주의 중 그 중요성에 있어서 ‘민주주의에 더 방점을 두고’ 공화정을 민주주의 속에 포함시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으로의 민주주의 개념 수용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정’에 관한 개념적 혼돈이 해방 이후에 그대로 작용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21) 공민개념에 관한 당시의 중등교과서의 분석이 연구로서의 중요성(significance)를 갖게 되는 요인에 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해방후 미군정 및 1950년대까지 공민 개념의 성격을 현재 시점에서 추론하는 것은 상당부분 당시 시대상에 관한 오해의 위험성(risk)이 내재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거의 70여년전 정부 수립 당시의 공민 교과서 분석을 시도한 결과, 현재의 학문적 추론과 유추를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범주(범위)를 훨씬 능가하는 의외의 민주시민(공민)의 개념과 문제의식이 (중등교과에) 제시되고 있음이 발견되어 연구자로서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 강창순. 2001. 한국전쟁기 (1950-1953) 사회과 교육의 전개. 사회과교육연구. 8
- 김경옥. 2020. 전후 일본 교육에서의 ‘公’의 이데올로기성: 초·중학교 도덕교육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62.
- 김남수. 2003. 1950년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의 반공교육. 성균관대 석사논문.
- 김동선. 2021. 정부 수립기 이상적 ‘여성공민’상의 성격과 인식. 송실사학 46.
- 김소영. 2009. 대한제국기 ‘국민’ 형성론과 통합론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용일. 1994. 미군정하의 교육정책연구: 교육정치학적 접근. 고려대 박사논문.
- 김종식. 2015. 1920년대 일본 중학교 「공민과」 설치 논의: 문정심의회 논의의 중심으로. 사림(성대사림) 54.
- 김학재. 2012. 이승만의 일민주의. 고려대 석사논문.
- 김한중. 2009.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교과서 발행, 역사교육연구 9.
- 곽한영. 2010. 초기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법교육의 양상에 관한 연구: 교수요목기 공민 1 교과서를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5(2).
- 권동국. 2013. 식민지 공민교육의 이념과 경계: 1930년대 조선 중등 공민교과서를 중심으로. 정근식·나오노 아키코 편. 기억과 표상으로 보는 동아시아의 20세기. 경인문화사.
- _____. 2017. 식민지 공민과의 형성과 논리: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공민과 설치와 공민교육론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16.
- 권상철·오수옥. 1948. 중등사회생활용 고등공민 II. 동심사.
- 남경희. 1997. 이데올로기로서 천황제와 일본의 교육이념: 전전의 수신과 및 전후의 사회과와 관련하여.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 (1).
- 문교부. 1951a. 전시독본 2 자유의 투쟁.
- _____. 1951b. 전시독본 침략자는 누구냐?
- 박남수. 2004.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의 편성 기반에 대한 연구: 해방 직후의 『초등공민』의 분석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17 (2).
- 박해남. 2013. 학생들의 기억으로 보는 식민지 전시체제기의 중등학교 생활: 수난, 저항, 주체성. 정근식·나오노 아키코 편. 기억과 표상으로 보는 동아시아의 20세기. 경인문화사.

- 선우현. 2015. 일민주의 철학의 정립자, 이승만인가 안호상인가: 자생적 실천철학의 맹아적 형태 여부에 관한 시론적(시론적) 탐구. 시대와 철학 26(4).
- _____. 2017. 안호상의 일민주의 철학과 자생적 실천철학의 자격 조건. 철학연구 141.
- 성내운. 1948. 미국의 교육사조와 조선교육. 조선교육, 2(3).
- 송경호·김현. 2021. 근대적 기본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民主主義)’의 개념사: 19-20세기 일본에서의 번역어 성립과 사용의 일반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5 (2).
- 연정은. 2003. 안호상의 일민주의와 정치교육활동. 역사연구 12.
- 오세원. 2005. 일제강점기 식민지 교육정책의 변화연구: 조선총독부 발행 수신서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27.
- 오천석. 1945. 민주주의 교육의 건설. 국제문화공회
- _____. 1957. 중등공민 공동생활. 정음사.
- 원종찬. 2018. 한국전쟁기 임시 교과서와 반공 아동문학: 『전시생활』·『소년기마대』·『새음악』의 반공 텍스트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64.
- 유성상·유은지·박인영. 2016. 국가발전에 관한 오천석과 정범모의 교육발전 논의 비교: 한국의 교육발전론 비평. 아시아교육연구 17(2).
- 유진오. 1957a, 중등사회생활과 국가생활. 일조각.
- _____. 1957b. 고등학교 사회과 정치와 사회. 일조각.
- 유종현. 2013. 공화국과 민주주의는 다르다”: 미국 제헌회의의 공화국과 민주주의의 논쟁에 대한 고찰. 국제정치연구 16(1).
- 윤형모. 1948. 교육상의 민주주의. 조선교육 2(4).
- 이상선. 1946. 중등사회생활과 우리나라 정치생활 공민부분 2학년용. 탐구당.
- 이순옥. 2014. 한국전쟁기 전시독본의 형성 기반과 논리. 한국문학논총 58.
- 이진석. 2013. 미 군정기 교육관련 전문 잡지의 내용분석을 통해 본 민주주의 교육의 실천에 관한 연구: 『조선교육』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5(1).
- 이혁규. 2009. 사회과교육의 기원 및 시기 구분 문제에 대한 고찰. 시민교육연구 41(4).
- 임광국·김빛나·하스이케시게요. 2017, 일제 강점기 공민과 도입시기 전후 조선의 ‘공민교육(公民教育)’ 의미 변용에 관한 개념사 연구, 교육철학연구 39 (3).
- 정상호. 2012. 동아시아 공민(公民) 개념의 비교연구. 동북아연구 27(1).

- 정준용. 2022. 민주주의로 식민지교육 비판하기: 교육행정이 오천석을 해명하는 식민지적 단서들. *경제와사회* 133.
- 정태수. 1988. 미군정기 한국교육행정의 기구와 요원의 연구: 미군측 사료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6(1)
- 조건. 2015. 미군정기 오천석의 교육정책 수립과 역사교육. *역사와 교육* 21.
- 조주현. 2020. 자유주의 시민성과 시민교육. *추병완 외. 시민성 이론과 시민교육*. 하우.
- 차조일. 2012. 사회과 교육과 공민교육. *한국학술정보*.
- _____. 2018. 번역어 '공민'과 사회과 교육. *시민교육연구* 50(3).
- 차조일·강대현. 2016. 일제 강점기와 정부수립기의 정치 참여 교육: 중등학교의 법제경제, 공민과, 사회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19(3).
- 천원오천석기념회 편. 2019. 한국 현대교육의 선구자 오천석. 서울: 정민사.
- 최재희. 1947. 사회생활과 신공민교육. *교육연구사*.
- 최정욱. 2009. Democracy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정이다: 공화주의와의 차이를 논하며. *비교민주주의연구* 5(1).
- 최현배. 1945. 교과서 편수 자주 정신으로. *자유신문* 7호. 10월 11일.
- 최호진. 1952. 고등학교 사회생활과 공민: *경제생활*. 동국문화사.
- 추병완. 2020. 공화주의 시민성과 시민교육. *추병완 외. 시민성 이론과 시민교육*. 하우.
- 한글학회 50돌 기념사업회 편. 1971. 한글 학회 50년사. 한글학회.
- 한성진. 1986. 미 군정기 한국 교육 엘리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 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한승연·신충식. 2011. 해방공간의 국가 개념사 연구. *정치사상연구* 17(2).
- 홍용선. 1992. 미군정하 사회생활과 출판의 경위. *교육학연구* 30 (1).
- _____. 1991. 광복 후의 신교육운동: 1946-1949 조선교육연구회를 중심으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高山次嘉. 1996. *社會科教育의 回生*, 教育出版.

● 투고일: 2023.01.13. ● 심사일: 2023.01.25. ● 게재확정일: 2023.02.20.

| Abstract |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in Korea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Civics: a focus on the middle school textbooks during the United States military administration and in the 1950s

Kim Doojin (Korea University)

We explore how the concept of "civics" (kongmin) has been formulated or perceived from the period of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through the 1950s. To do this, we focus on the middle school civics textbook during that time. Civic educ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intended to instill the 'public' ideology into the people.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American 'social studies', th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olicy under the American military administration continued to have an impact on the indoctrination of Western citizenship in Korea. Afterwards civic education has to do with the abolition of values associated with Japanese colonial rule, the elimination of the status system (feudal class) in Korea (Joseon), and the abolition of discrimination between men and woman, free economy, popular sovereignty, and labor rights. Conceptual change in civic education has tended to pave the way for a radical change in perception that allows for the introduction of Western citizenship values in Korea. The civic textbooks of the wartime education system during the Korean War reinforced the anti-communist character of civic education. After the introduction of Western democracy, the concepts of "democracy" and "republic" was likely to be understood in the same sense.

〈Key words〉 Civic educati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ocial studies,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Democracy, Free economy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변화된 결혼이주여성의 삶*

장 임 숙 (부산대학교)
(mukk73@naver.com)



국문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엔데믹 전환에 대응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 7명을 연구참여자로 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일상생활, 노동 및 소득, 건강 및 보건의료, 자녀돌봄 및 교육, 사회적 관계, 외국인 차별 등 6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변화와 당면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조사 결과, 6가지 영역은 “집콕의 일상화”, “코로나 실직과 취업난에 막막한 세계”, “방치된 코로나블루와 취약한 정보접근성”, “돌봄 교육 공백에 일, 가사, 양육 삼중고”, “일차적 관계와 모국인 중심의 좁은 사회관계망”, “사회적 편견에 불안감 고조” 등으로 범주화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엔데믹 전환에 대응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주제어 : 코로나19,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 변화된 삶, 심층면접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1939)

I. 서론

세계화로 인해 국경의 의미가 쇠퇴하고 국가 간 노동·자본·재화가 자유로이 이동하면서 세계 경제가 크게 성장했다. 이주의 세계화는 국제 비즈니스 발전과 투자 활성화를 촉진해 경제적 편익을 안겨 준 반면,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의 국면에서 팬데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국가들은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물리적 대면 소통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21세기 들면서 국경을 넘는 사람은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유엔 경제사회국(DESА)의 “2019년 국제 이주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이주민 수는 현재 2억 7,200만 명으로 2010년 2억 2,100만 명에 비해 23% 증가했는데, 이 수치는 세계인구증가율 11%와 비교해 두 배 넘는 증가율이다(한겨레, 19/09/20). 한국으로의 이주민 유입은 1990년대 산업연수생제도의 도입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후 국제 결혼이 증가한 200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그에 따라 2006년 이주민 수는 536,627명으로 총인구의 1.1%였으나, 2020년 2,146,748명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한다(행정안전부 2021).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이주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로 국경봉쇄가 이루어진 2019년 221만 명에 달하던 이주민 수는 1년 새 4.7% 줄었고, 그중에서도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의 감소 폭이 컸고 결혼이주민의 입국도 소폭 감소했다(행정안전부 2021).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 이동의 감소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52.27점으로 2018년 조사(52.81점)보다 0.54점 떨어졌고, 외부에 대한 개방성을 측정하는 지표의 점수도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주민을 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3배가량 증가했다(여성가족부 2022). 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에서 실시한 이주민 설문조사에서 이주민 중 29%가 코로나 이후 일상적 혐오와 차별이 심해졌다고 응답했고,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차별을 인식하는 비율도 74%로 매우 높았다(오마이뉴스 20/12/02). 이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주민과의 교류·소통이 단절되면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배제가 오히려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감염병의 위협은 인종, 민족, 국적을 초월한 것이지만, 그 영향은 사회구조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집중된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실제로 사회활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주민들은 경제, 사회, 복지영역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집단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코로나 초기에 국내 이주민들은 공적 마스크 구매에서 차별받았고, 미등록이주민들은 국가예방접종서비스에서 배제됨에 따라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미등록 체류자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었으나, 팬데믹 이후 대다수 보건소가 예방접종 업무를 중단했기 때문이다(한겨레신문 22/01/22). 이후 질병관리청의 조치에 따라 미등록이주민 예방접종서비스가 재개되기는 했으나 거의 2년 가까이 미등록이주민과 그 자녀들은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단지 건강권 위협에 그치지 않는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의하면, 내국인 실업률은 2019년 3.8%에서 2020년 4.0%로 0.2%p 늘어난 데 비해 이주민 실업률은 5.5%에서 7.6%로 2.1%p 증가해 이주민이 더 많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https://kosis.kr>). 코로나19의 고용영향은 내국인보다 이주민에게 더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바이러스 공포는 중국인 등 이주민을 향한 차별과 혐오로 이어졌다. 이주민들은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을 고위험군으로 취급하는 시선이 혐오문화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불안해한다. 특히 중국인들은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이주민집단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외출을 자제했고, 중국계 학생들은 같이 수업을 듣거나 식사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에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참세상 20/03/20).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인 생명·건강권에 소위 ‘자격’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한국 사회가 인정하는 사회구성원의 범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결혼이주민의 상황은 다를까. 코로나19 사태 이후 결혼이주민의 삶 또한 암울하다. 이주여성단체들은 다문화강사로 활동하는 이주여성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등교중지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되었고, 또 돌봄 문제는 사회 네트워크가 취약한 다문화가족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이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엔데믹 전환에 대응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노동 및 소득, 건강 및 보건의료, 자녀돌봄 및 교육, 사회적 관계, 외국인차별 등 6가지 영역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변화와 당면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이론적·정책적 검토

1. 연구 동향

2002년 사스를 시작으로 이제 감염병 대응은 지구 공동의 문제가 되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http://www.kdca.go.kr>), 중증급성호흡증후군 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 SARS)는 2002년 11월에서 2003년 7월까지 유행하여 8,096명의 감염자(사망자 774명)가 발생했고 우리나라에서는 4명이 확진을 받았다. 2009년 3월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플루는 2010년 8월까지 세계적으로 1,632,258명이 감염되고, 국내에서도 107,939명이 감염되었다. 그리고 2012년 6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중증호흡기증후군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로 전 세계 25개 국가에서 1,401명의 확진자와 국내 18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발생으로 감염병의 영향과 그 대응에 관한 학문적 관심도 증가했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된 국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인종차별주의와 제노포비아(Xenophobia), 감염병 확산에 대응한 이민자 건강권 보호와 공중보건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국경봉쇄 및 이민제한 조치에 따른 노동력 문제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집중한다.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Doàn et al.(2021)의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 이민자와 그 커뮤니티에 미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보건의 역할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보건 및 사회정책에서 인종차별주의, 이민정책, 시민권 및 이민자 지위의 영향을 분석해 체계적인 인종차별의 실태를 파악했다. Doàn et al.(2021)는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이민'을 꼽고, '이민자 커뮤니티'가 코로나19 감염위험을 높이는 사회적 결정요인이라고 보는데, 이민자들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시기에 고위험 환경에서 계속 일해야 했지만 실제로 건강관리 및 경제적 구제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았다고 주장한다. 팬데믹 이후 이민자들이 비공식부문과 같은 저소득층 일자리에서도 배제되고, 사회 및 가구 구성원들과 떨어져 안전하게 격리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기준 이하의 주거 환경에 살고 있으며,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접근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데에는 사회체제적인 요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이민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치료, 문화감수성을 가진 의료전문가와 의 연계 등에서 기존 공공의료 인프라가 가진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Public Health 3.0의 발전방안을 제안한다. 미국 보건부와 휴먼서비스부는 Healthy People 2030 캠페인

의 일환으로 공공보건 대응의 새로운 모델인 Public Health 3.0을 제시했는데, 이 모델은 건강 불평등을 유발하는 사회, 경제 및 환경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사회 지도자 간 협력을 강조한다. Doan et al.(2021)는 Public Health 3.0 인프라를 개선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건의 사회적 결정요인 고려,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적절한 도구와 기술 개발 등을 제안하면서 향후 공공보건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코로나19 구호기금, 검사 및 백신접종 관련 정책과정에 이민자공동체의 참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lark et al.(2020)의 연구는 미국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사회경제적 접근을 강조하고, 미국 텍사스주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코로나19의 잠재적 영향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와 주정부 및 국가 수준의 조치로서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경제적 및 법적 보호와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주장한다. 개선방안으로서 의료시설을 출입국 단속이 금지된 곳에 지정하여 이민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의 자격기준을 변경해 체류자격을 불문한 모든 이주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안전한 고용환경 제공과 문화적·언어적으로 적절한 공중보건메시지를 이민자커뮤니티에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Rocha et al.(2021)의 연구는 브라질 이민자를 위한 종교조직, 사회서비스기관, 의료서비스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커뮤니티의 경험, 질병통제센터(CDC) 지침에 대한 반응,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 코로나19 팬데믹이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코로나19가 브라질 이민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브라질 이민자 커뮤니티는 생활공간의 과밀과 비공식부문 대면서비스업 노동력의 과잉대표성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에 특히 취약하고, 이민자의 언어능력, 체류자격, 추방 공포 등이 감염병 관련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덧붙여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위생 습관, 사회적 거리두기, 정보전달 등이 브라질 문화규범으로 자리 잡았고, 브라질 이민자커뮤니티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 취약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한다.

또한 Wilson et al.(2020)은 최근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조치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통제할 수 없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그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면서 미국의 경제·사회 영역에서 이민자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민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방 및 주정부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과 같이 해외 연구는 이민자 및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코로나19의 파급효과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정책적 차원에서 이민자의 건강권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국내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등재(후보)학술지 논문 중 ‘감염병’으로 검색된 연구는 2022년 6월 말 기준 총 1,285편이고, 이 중에서 사회과학 분야가 683편으로 가장 많다. 이들 연구는 주로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현상과 공공문제, 법제도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이주민 관련 연구는 거의 전무하고, 일부 재난연구에서 이주민에 대한 재난정보의 중요성과 재난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정도다.

같은 기간 ‘코로나19’로 검색된 논문은 총 6,359편이고, 이 중에서 다문화 및 이주민에 관한 논문은 86편이다. 특히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4편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코로나19와의 관련성은 높지 않다(김옥녀 외 2021; 박병섭 외 2021; 옥시후 외 2021; 진소연 외 2022).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이주민과 결혼정주민의 생태환경체계와 사회적 위험대응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옥녀 외(2021)의 연구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민과 결혼정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결혼정주민보다 결혼이주민의 사회적 위험대응정도가 높고, 결혼이주민의 개인 요인 중 신체 및 정신건강이 사회적 위험대응을 매개하여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가족기능 강화를 통한 위기극복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고, 이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옥시후 외(2021)는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이 높고, 자기관리능력이 있으며, 고혈압 진단 경험 여부와 보건기관 이용 여부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언어 및 사회문화적 한계, 낮은 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동참여(경제활동, 지역사회활동, 전문능력활동, 교양능력활동)가 결혼만족과 결혼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진소연 외(2022)의 연구는 4개 요인 중 경제활동이 결혼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결혼행복감에는 경제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지역사회활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적 행위가 미래의 성공적인 결혼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역설했다.

또 박병섭 외(2021)의 연구는 병으로 남편을 잃고 한국에서 23년째 살고 있는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를 분석한 결과, 연구참여자는 미군기지에서의 전문적이고

안정된 직장을 미국의 정책과 자신의 판단착오로 잃은 후 개업한 식당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부진하지만,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으며,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종교적 신념이 강한 지지체계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어 종교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혼자가 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안전망 수립과 결혼이주민 세대간 경험전달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다문화가족 연구는 총 17편이고, 분야별로 정책·서비스 6편, 교육 4편, 심리·정서 3편, 언론·미디어 3편, 건강 1편 등이다. 분야별 연구 동향을 요약하면, 정책·서비스분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실태(김수정 외 2020; 고선강 외 2021; 구수연 2021; 진미정 2021; 박연진 외 2022)와 다문화가족자녀 지원방안(김규찬 2021)에 관심을 기울이고, 교육분야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이주배경아동의 학습환경과 학업성취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다(김강남 2021; 이은혜 외 2021; 조정래 2022; 신주미 외 2022). 그리고 심리·정서분야는 주로 코로나19 이후 다문화자녀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연구하고 있으며(이재경 외 2022; 이래혁 외 2022; 장현진 외 2022), 언론·정보분야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미디어접근성과 언론보도 양상에 관심을 가진다(하일수 2021; 기준성 외 2021; 송원일 2022).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다문화 가족 연구의 주된 관심은 연구 분야에 따라 주제는 달라도 이주아동에 편중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거대한 사회적 변화에 비해 이주여성의 삶과 코로나19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려는 학문적 시도는 매우 더디다. 이주아동 연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주여성 관련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이주여성은 이주민이자 여성이라는 중층적 취약성을 갖는다. 여성은 남성보다 재난안전교육을 받을 기회와 경험이 적어 재난 대응력이 낮거나 취약성이 높다(김남순 외 2021, 799).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국민이 재난피해자로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중층적 재난취약계층인 이주여성의 안전과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주여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2.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한 결혼이주민 지원정책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크게 재정정책과 심리지원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재정정책은 저소득지원형, 재난피해지원형, 소득 및 일자리보전형, 기타로 나뉘며, 지원대상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일반국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과학기술인, 농업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https://www.korea.kr>).

첫째, 저소득지원형 정책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져 월세 체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7천 호를 제공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결혼이주민의 상당수가 소득수준이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주거불안정성이 높고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 결혼이주민은 주거위기가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재난피해지원형 정책으로는 ‘추가 생활지원비’와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을 들 수 있다. 팬데믹 시기 정부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에 더해 재택치료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추가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와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을 대상으로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결혼이주민 중 확진자와 농업인은 이 정책의 지원대상이 된다.

셋째, 소득 및 일자리보전형 정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과학기술 으뜸적금’, ‘소상공인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지원금’, ‘예술인 고용보험’,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 ‘코로나 피해 관광업계 조기회복지원’, ‘일상회복 특별용자’, ‘희망대출’ 등이 있다. 결혼이주민과 그 가족 중 소상공인,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취업준비생, 관광업체 사업주 등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지원금, 관광업계 조기회복지원, 일상회복 특별용자, 희망대출 등의 수혜대상이다.

그리고 정부는 코로나19 심리지원정책으로 11종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및 가족, 격리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심리상담(통합심리지원단)’, 코로나19로 인한 민원 다발 품목 소비자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코로나19 소비자상담맵’, 중소기업 및 대국민을 위한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사항을 상담하는 ‘코로나19 피해상담 통합창구’ 등이 있다.

한편, 코로나19에 대응한 결혼이주민 관련 지원정책으로서 여성가족부는 한국생활가이드북, 다누리포털 등을 통한 다문화가족 정보제공 및 코로나19 방역 및 안전수칙을 12개 언어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비대면 확산에 따른 언어·문화적 차이로 자녀양육 및 성장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족센터 통·번역사가 학교의 가정통신문, 안내문자 등 학교생활 통·번역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가 언어·문화적 차이로 자녀양육 및 성장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원격학습 등의 지원을 강화했고,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해

온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온라인 멘토링’을 새로 도입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한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한외국인 지원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담은 미담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홍보동영상을 재한외국인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영상으로 대체하였다. 외교부는 베트남 한베 취약가정 현지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베함께돌봄센터’ 사업으로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베트남 귀환여성 자녀 및 보호자 온라인 건강정보 교육을 실시하고, 코로나 관련 위기아동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소방청은 이질적인 문화 및 언어소통 부재로 인한 안전 위협요인을 제거하고자 법무부와 협업하여 ‘국내체류 외국인(다문화가족) 소방안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결혼이주민 지원정책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언어적 차이로 취약성이 가중되는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교육, 홍보 분야 정책개발 및 집행에 역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결혼이주민 지원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국가 법령이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특정다문화영향평가(가칭)’ 제도의 도입이다. 코로나19로 심화되는 집단간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해 우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정부간행물, 교육자료 등에 있어서 다문화인종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사전컨설팅도 담당하는 ‘다문화모니터링단(가칭)’을 운영한다(여성가족부 2021). 이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법령이나 정책에서 다문화 차별요소가 없는지를 점검해 권고하는 ‘특정다문화영향평가(가칭)’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여성가족부 2022). 아울러 누구든지 특정 문화, 인종, 국가 관련 혐오발언으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도입된 정책은 감염병 확산으로 결혼이주민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이 겪는 일상적 차별과 소외를 완화하고 포용적 가치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질적 연구는 인간의 행위와 가치 등을 양적 계량으로 환원하기보다는 ‘그 본래 입장에서’

접근하고 그 구체적인 양상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구체적이고 실존적 개개인들의 삶이 갖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이다(박철민·도지인 2019, 21). Patton(2002)은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심층면접방법의 유용성을 강조하는데, 심층면접에서 특정한 현상에 관한 사람들의 경험, 의견, 느낌 및 지식에 대한 직접적인 인용 문구가 연구의 유용한 자료가 된다. 심층면접은 이미 계획된 형식이 아닌 연구참여자와 자유로운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생각이나 감정이 자세하게 드러남으로써 현상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이해가 가능해진다(김형태 2014, 40).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심층면접방법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상생활, 노동 및 소득, 건강 및 보건의료, 자녀돌봄 및 교육, 사회적 관계, 차별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심층면접방법은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연구참여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삶에 대해 총체적으로 재고하고,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그들의 상념과 내면에 잠재되어있는 욕구·태도·감정 등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다.

연구참여자는 국내 10년 이상 거주하고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선정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에서의 삶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족생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 10년 이상 국내 거주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삶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서 돌봄과 교육환경의 변화를 민감하게 인지할 수 있으며, 자기 경험과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 수준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했다.

이와 더불어 연구참여자를 찾을 때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국적, 연령, 가족형태, 학력, 가구유형 등을 고려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비율을 반영했고¹⁾, 둘째, 자녀의 생애주기별 발달에 따른 돌봄 욕구 파악을 위해 자녀 연령대를 고려하며, 셋째, 정착주기 장기화에 따른 한부모 다문화가족 증가 등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외에도 한부모가구를 포함했고, 넷째, 이주여성의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며, 다섯째, 코로나 팬데믹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맞벌이, 외벌이 등의 가구유형과 이주여성의 취업 여부를 고려했다.

1) 행정안전부(2022)의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국적 비율은 베트남 40,697명(23.3%), 중국 34,523명(19.8%), 중국(한국계) 28,695명(16.4%), 일본 13,537명(7.8%) 순이다(행정안전부 2022, 58).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참여자1	참여자2	참여자3	참여자4	참여자5	참여자6	참여자7
출신국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중국	중국
나이	50세	38세	37세	46세	35세	41세	40세
결혼상태	이혼	기혼	기혼	기혼	기혼	기혼	기혼
자녀수	1명	2명	2명	1명	2명	1명	3명
자녀나이	19세	16세/19세	12세/14세	17세	10세/13세	5세	2세/9세(2명)
최종학력	대졸	고졸이하	고졸이하	고졸이하	대졸	석사 졸업	석사 졸업
취업여부	취업	취업	무직	취업	취업	취업	취업
가구유형	여성홀벌이	맞벌이	남성홀벌이	맞벌이	맞벌이	맞벌이	맞벌이
거주기간	23년	19년	16년	20년	14년	12년	20년

2.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2022년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7일간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는 부산지역 이주여성 자조모임과 학교를 통해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추천받았다. 연구의 목적과 내용, 면담 방법, 개인정보 및 비밀보장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면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여성을 선택하여 면담을 진행했다. 또한 자료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 면접내용의 녹음 필요성과 연구목적 이외에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연구종료 후 영구 삭제할 것을 사전에 설명했다.

심층면접은 코로나19 확산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참여자의 감염 불안감을 덜고자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을 병행했다. 면접은 사전에 약속하여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졌고, 면접 시간은 개인당 60분 이상이었다. 면접 횟수는 1회였고, 자료 분석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전화와 SNS를 통해 추가면접을 실시했다.

면접내용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구성했으며, 연구의 주요질문은 “코로나 시기에 하루 일과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등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본인이나 가족이 실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등 노동 및 소득에 관한 질문, “평소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등 건강 및 보건의료에 관한 질문, “하루에 자녀돌봄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등 자녀돌봄 및 교육에 관한 질문,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등 사회적 관계에 관한 질문, “코로나로 인해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등 외국인차별에 관한 질문 등으로 구성했다.

면접 자료는 모두 녹음되고 전사되었으며, 면담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 열거하고, 주제영역별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다음, 최종적으로 결과를 해석했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상생활, 노동 및 소득, 건강 및 보건의료, 자녀돌봄 및 교육, 사회적 관계, 외국인차별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와 당면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면접조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상생활 : ‘집콕’의 일상화

결혼이주여성의 하루 생활구조를 보면, 이전에는 평일 출퇴근과 주말 외출이 반복되는 패턴이었으나 코로나 이후 이주여성들은 실직하거나 시간제, 단기, 일용근로 등으로 일하게 되면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했다. 특히 주말 및 휴일에는 주로 외식, 사적 모임, 여행, 운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외부에서 시간을 보냈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마트 장보기를 제외하면 거의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있는 시간이 평균 3~4시간 정도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른바 ‘집콕생활’로 평균 6시간 이상을 자녀와 함께 있고, 심지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학교나 유치원이 문을 닫은 기간에는 종일 자녀와 함께 지내기도 한다.

코로나 이전에는 무역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했는데, 코로나 이후 실직하고 집에서 쉬어요. 이전에는 평일에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주로 주말에 약속을 잡아 외출했는데, 코로나가 심해진 이후로는 취소되는 약속이 많아져서 중요한 용건이 아니면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해요. (참여자 4.)

코로나 이전에는 모든 것이 평범했어요. 매주 한두 번 외출했고, 주로 휴일에는 지인을

만나거나 드라이브를 하며 나들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출도 거의 안 하고, 휴일에도 집에만 있어요. 휴일에 장 보러 가는 일이 전부예요. 예전에는 일이 많아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평균 5시간 정도였는데, 요즘은 특별한 일이 없는 날에는 집에서 종일 아이들과 같이 있어요. (참여자 2.)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온 모든 일상이 무너져 버린 것을 꼽는다. 이주여성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로 모임이나 단체활동이 중단되고, 감염에 대한 우려로 대중교통 이용이나 장보기조차 꺼리게 되었고, 돌봄 공백으로 인한 육아 및 가사노동의 증가로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다고 한다.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은 이주민의 경우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삶의 질과 가족탄력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코로나 이전에는 어디든 마음 편히 다녔고, 모임이나 행사 등에서 인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래서 거의 주말마다 나들이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려고 외출했어요. 또 몸이 아프면 바로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받으면 됐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울 때면 고국을 방문해 부모님과 가족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도 여러 학우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아이 친구들의 가족과도 같이 여행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행사나 교육도 다 온라인으로 변경되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평일에도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거의 70%가 넘어요. 이전에는 퇴근하고 저녁에 겨우 몇 시간 아이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이제는 주말에도 중요한 일이 있는 날에만 외출하고 거의 집에만 있어요. 또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있으니 게임이나 TV에 빠질까 걱정되고, 삼시세끼 식사 챙기는 것도 힘들고, 그만큼 집안일도 더 많아졌어요. (참여자 5.)

2. 노동 및 소득 : 코로나 실직과 취업난에 생계 막막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생활 전반에 걸쳐 가장 힘든 문제로는 단연 고용불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대다수 연구참여자도 코로나 이후 실직을 경험하거나 시간제, 일용직으로 일하는 등 고용불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어서 1년 정도 실업 상태에 놓이거나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실직하거나 일이 줄어서 쉬는 기간에는 일용직이라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결혼이주여성도 비숙련 공장이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및 여행업 등 대면서비스업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양적으로 고용 타격이 가장 심했던 숙박·음식점업은 2021년 1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12만 6천개 일자리가 감소했고, 비슷한 특성을 가진 도소매업도 가장 심할 때 5만 개 일자리가 감소했다(민중의소리 21/04/28).

코로나로 직장을 옮긴 적도 있었고, 2020년 4월부터 서류대행 업무를 그만두고, 호텔에서 일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호텔 영업이 안 돼서 첫 달엔 월급을 70% 받았고, 다음 달부터 코로나가 심해져서 무급과 일급 받으며 일하다, 또 방역지침 풀렸을 땐 월급을 100% 받았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심해지면 또 일급으로 받아요. 소득이 일정치 않아서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다가 아르바이트, 룸메이드, 식당 홀서빙, 병원·출입국관리소·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통·번역 일도 했어요.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려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참여자 1.)

우리 부부는 맞벌이인데, 저와 남편 모두 다행히 실직하지 않았지만, 코로나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도 줄었어요. 저는 6년 넘게 시민단체에서 이주민 통·번역 업무를 하는데, 보통 8시간 근무하고 최저임금을 받아요. 남편은 자동차 금형 공장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잔업이나 야근 수당 등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근무시간이 줄어들 때마다 명절이나 휴가 보너스 혜택도 없어졌어요. 이전보다 가구소득이 20% 이상 줄어서 힘들어요. (참여자 5.)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 이후에 주택문제와 회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은 적이 있고, 가계경제 중 대출이자, 각종 공과금, 의료비, 교육비 등의 부담이 크며, 특히 사회보험료나 세금 등 공공요금이 올랐는데 가계소득은 오히려 감소해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하기 힘든 상태라고 한다. 또 일부 참여자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기를 원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일자리 발굴과 취·창업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요구했다.

코로나 이후에 전세보증금이 올라서 대출을 받았어요. 현재 대출이자 내는 것이 가장 힘들고, 병원비나 보험금, 생필품구입비로 돈이 많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니다. 코로나 이후에 생활비가 부족한데 일자리도 없으니깐 생계가 막막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주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코로나로 실업자가 된 경우에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1.)

최근에 각종 보험료와 세금, 공공요금이 올랐어요. 그런데 일자리는 줄고 복지혜택도 적어서 생활하기 힘듭니다. 취업률도 점점 더 낮아져서 앞으로 청년들이 더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학교 졸업하면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들의 취업지원과 일자리 사업에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2.)

베트남 항공권 판매하는 여행업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비행기 운항이 줄어든 이후 계속 실직 상태라서 월수입이 2~3백만 원은 줄어든 것 같아요. 생계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참여자 3.)

2020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이주민 307명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주민 70%가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이 줄거나 없어지고(58%), 휴업과 해고(22%)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거나(35%), 코로나19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것(42%)으로 드러났다(오마이뉴스 20/12/02).

3. 건강 및 보건의료 : 방치된 ‘코로나블루’와 취약한 정보접근성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신체 건강의 변화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적 모임 등이 크게 줄면서 우울과 고립감을 느끼며,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도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으로 정신건강 상에 문제가 있어도 진료나 상담을 받은 경우는 드물어서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를 하니깐 운동 부족과 비만 등으로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것 같고, 백신접종을 받은 후부터 계속 피로감이 느껴져요. 특히 코로나 감염에 대한 걱정도 크고, 그 때문에 외출도 하지 않아서 가끔 화나고 답답합니다. 게다가 아이 돌봄이나 교육문제까지 겹치니 스트레스가 큼니다. 신체도, 정신건강도 다 나빠졌는데도 코로나 감염이 걱정돼서 병원에는 더 안 가게 돼요. (참여자 6.)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이전보다 의료기관 방문 빈도가 감소했지만, 오히려 증가한 사례도

있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지만, 코로나 이후 실직 등으로 불안과 우울감이 겹치면서 건강이 더 나빠진 것 같아 병원에 더 자주 가게 된다는 것이다.

직장 다닐 때는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지만, 코로나 이후로 계속 일이 없고 불안해서 그런지 어깨, 허리, 팔, 다리, 두통 등 여기저기 온몸이 다 아파요. 병원에서 검사해도 확실한 병명도 없고, 1년 내내 그런 증상이 계속되니깐 병원에 안 갈 수도 없어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 운동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냥 집에서 가볍게 스트레칭만 해요. (참여자 1.)

연구참여자들은 건강을 위해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가 드물고, 주로 가정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단활동이 제한되는 기간에는 결혼이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온라인으로 이주민 신체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가정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참여자 중 4명은 증상의심, 병원 입원, 자녀학교 확진자 발생 등의 이유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병원 등에서 PCR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이 중에서 확진 사례는 2명으로 적지 않았다. 일부 참여자는 PCR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이용시 기준이나 절차상 유연성이 떨어져 불편했고, 감염 우려로 불안감을 느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대부분 코로나19 백신접종을 3차까지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감염병 극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성실히 동참하고 있었다.

통역 일을 마치고 같이 갔던 동료와 밥 먹고 귀가했는데, 이후로 3일 동안 목마르고 가래에 장염 증세까지 있었어요. 보건소에서 항원검사를 한 결과 음성이 나왔어요. 몸에 열이 심해서 PCR 검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양성이 나와야 선별진료소에 보내준다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병원 가서 검사비를 내고 PCR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양성으로 나와서 확진 판정받았어요. 확진 후에는 자가격리를 하니 약 받는 것도 불편했어요. 우리 동네는 보호자가 보건소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야만 진료비와 약값이 무료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런지 지정병원에 전화하니깐 제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불친절해서 그냥 아들이 단골병원에 가서 돈 내고 약을 받아왔어요. (참여자 1.)

보건소에서 PCR 검사받았는데 사람이 많아서 오래 기다려서 힘들었어요. 양성도 아닐

경우, 기다리는 동안 오히려 코로나에 감염됐을까봐 걱정됐어요. (참여자 2.)

그리고 코로나19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초기에는 마스크 구입이 어려웠고, 감기 증상으로 병·의원을 찾아도 진료거부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 모든 공공장소에 백신패스가 도입되면서 개인 사정을 무시한 채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감염위험으로 선별진료소 방문을 꺼리기 때문에 가구별로 자가진단키트를 지원받기를 원했다.

감기 증상으로 이비인후과나 내과를 찾으면 무조건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받으라고 하는데 요. 선별진료소에서 오히려 감염될 가능성이 커서 사실 노약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쉽게 진료소에 가지 않아요. 선별진료소 이용을 꺼리는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들을 위해 국가에서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참여자 2.)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을 안 받는 음식점들이 많아요. 백신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백신접종이 불가능하거든요. 백신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건강정보와 지식이 충분치 않다고 말한다. 코로나19 관련 정보는 정부의 재난문자, 국내외 언론, 직장동료나 친구 등을 통해 얻고 있으며, 온라인에는 정보량이 과다해 어떤 정보가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다고 했다.

코로나 관련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떤 정보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가격리, 지원정보, 코로나 소식 등의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면 좋겠고,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지원해주어야만 제대로 알아요. 1339 상담번호가 있지만, 연결이 잘 안 되고 늘 통화 중이라는 안내만 받아요. (참여자 5.)

일반적으로 한국어가 서툰 이주민들은 필요한 정보를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습득하고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 정보가 일괄적으로 동시에 전달되기보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 전달될 가능성이 높는데, 코로나19 확산처럼 사건이나 방역수칙이 시시때때로 발생하고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사적 네트워크가 즉각적인 정보 전파와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허정원 외 2020, 132). 결혼이주민

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련 정보 및 홍보자료 등을 가구별로 배부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재난정보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덧붙여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코로나19 대응 지원책으로 제공된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또 마스크나 손소독제, 자가격리물품 등을 지원받은 적이 있었고, 주로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등에서 지원서비스를 받았고, 그 외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민지원센터, 시민단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참여자들은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은 없었다고 했으나 일부는 재난지원금 사용과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한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받았는데, 카드로 쓰다 보니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서 불편했어요. 이용시 불편한 점들은 개선되면 좋겠어요. (참여자 3.)

4. 자녀 돌봄 및 교육 : 돌봄·교육 공백에 일, 가사, 양육 삼중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은 학교와 보육시설의 휴교·휴원 기간에 재택근무를 활용해 돌봄 공백을 막을 수 있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을 때는 오전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오후 3시까지 재택근무를 해요. 4시에 아이 데리고 와서 같이 TV를 보거나 놀이를 해요. 코로나 확산이 심해지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재택근무로 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어요. (참여자 6.)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정 내에서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대화시간이 늘어나 자녀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부모-자녀 관계가 호전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여자들이 늘어난 육아와 가사노동으로 인해 자신만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자녀의 외부활동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늘어난 ‘집콕’ 시간에 게임이나 스마트기기에 과의존하는 양상을 우려하고 있었다. 또 육아와 가사를 혼자 도맡아 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 이후 남편이 일찍 귀가해도 육아나 가사에는 소극적이고 TV 시청이나 스마트기기에 빠져있다고 하소연했다.

아이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불안하고, 등교해서 수업받던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으니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것 같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니 게임이나 TV에 빠질까봐 걱정이 큼니다. 또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 삼시세끼 식사 챙기는 것도 힘들고, 그만큼 집안일도 더 많아졌어요. (참여자 2.)

전에 비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함께 있어서 좋지만, 나만의 시간은 전혀 없이 늘 식사를 챙기느라 힘들어요. 남편은 전에 비해 일찍 들어오지만, 집안일은 조금 도와주고 대부분 TV를 보거나 휴대폰만 봐서 답답합니다. (참여자 5.)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초기에는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었고, 온라인 수업의 경우 집중력이 낮아서 자녀의 성적하락을 걱정했다. 특히 자녀가 고학년에 가까울수록 진학 및 진로 문제에 대한 고민이 크지만, 다문화가정에 특화된 맞춤형 진학·진로 상담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하루속히 학교 수업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했는데, 그 이유로 아이들이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을 꼽았다.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 끝나면 학원 다니면서 복습과 예습을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온라인 클래스가 도입된 이후에는 온라인클래스로 복습이 가능해서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돼서 좋지만, 온라인교육은 집중력이 낮은 게 사실이고, 실제로 우리 아이의 성적도 많이 떨어졌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학교 방역 수칙을 강화해서라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규수업을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 무엇보다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싶은데, 진학 문제를 의논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주민들은 정보가 부족해서 진학상담을 무료로해주는 센터를 찾기가 힘들어요. 이런 문제는 다문화가정, 특히 한부모가정 엄마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참여자 1.)

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참여자들은 온라인교육에 대해 회의적인 데 비해 유아거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일부 참여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겨서 제가 돌보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종일 아이를 돌보고 있어서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학교 온라인교육도 처음에는 적응 못 해서 불편했지만, 이제는 적응했어요. 사실상 온라인 교육은 선생님의 강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에요. (참여자 7.)

물론 일부 참여자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등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유아기에 불규칙적인 학습으로 인해 자녀의 학습 능력 저하가 걱정된다며 유아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교육과 가정용 교육자료의 지원을 요구했다.

아이들과 함께 있어서 좋지만, 재택근무 시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사실 힘들어요. 유치원생이어서 온라인교육이 없다 보니, 코로나로 인해 유치원이 휴원하게 되면 유치원 교육과 가정교육이 불규칙하게 이루어져 아이가 학습 능력을 기르는데 안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아이가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아에게 필요한 다양한 온라인 수업과 가정교육용 자료를 제공하면 좋겠어요. (참여자 6.)

5. 사회적 관계 : 일차적 관계와 모국인 중심의 좁은 사회관계망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로 배우자와 자녀한테 의지하고, 가족이나 친척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등 가족으로부터 정서적·물질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물론 친구나 동료, 심지어 지원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례도 있었지만,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 일차적 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심지어 일부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단절로 경제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주로 동생한테 도움을 청해요. 가끔 한국이나 고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한테 도움을 청할 때도 있긴 해요. (참여자 3.)

예전에는 몸이 아플 때 주로 직장동료나 친구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동료나 친구는 물론이고 이주민단체 선생님에게도 도움을 받았어요. 코로나 이후에 직장동료들과는 서로 위로하면서 아이들 학교 이야기도 나누며 더 가까워졌어요. (참여자 5.)

아플 때는 남편과 자녀에게 도움을 받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도움받을 곳이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 친구들을 만나기 힘들어지니깐 관계도 점점 어색해지고 멀어져요. (참여자 2.)

아플 때는 항상 남편한테 의지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으니 은행에 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죠. (참여자 4.)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멀어졌고, 한국인은 물론이고 모국인과의 만남도 줄어들어 관계가 더 소원해졌다. 특히 한국인과의 교류와 만남은 크게 줄어든 반면 모국인과의 관계는 유지하는 편이었다. 어떤 참여자는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모국인 친구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졌다고 느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는 이주민의 사회적 관계망을 더욱 약화하는 요인이며, 특히 모국인보다 한국인과의 관계 약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코로나 이후에 사실 지역주민들과 관계는 확실히 멀어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이웃들과 만날 기회가 적고, 코로나 때문인지 이주민을 보는 시선이 차가워진 것 같아서 이웃이나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가 망설여져요. (참여자 5.)

이전에는 모국인 친구나 다문화가정 부모 등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모국인들을 만났고, 한국인들도 직장동료, 지인, 서류 대행 고객들까지 포함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났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2~3개월에 한 번 정도 한국인 지인이나 모국인 친구들을 만나요. 이전보다 관계가 좀 멀어졌어요. (참여자 1.)

코로나가 심해지고 나서 한국인 친구들은 전혀 만나지 않지만, 모국인 친구들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만나고 있어서 예전에 비해 모국인 친구들과 친밀감이 더 깊어졌어요. (참여자 4.)

V. 결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이주민들은 권력의 열세와 낮은 자원 접근성으로 인해 재난피해에 쉽게 노출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노동 및 소득, 건강 및 보건의료, 자녀돌봄 및 교육, 사회적 관계, 외국인차별 등 6가지 영역에서 코로나19 이후 변화와 당면문제를 파악했다. 연구의 주요 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결혼이주여성이 겪은 일상생활의 가장 큰 변화는 ‘집콕’의 일상화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적 모임이나 단체활동이 중단되면서 외부활동이 크게 줄었고, 학교와 보육시설의 휴교·휴원으로 인한 가정보육의 증가로 ‘집콕’

이 일상화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팬데믹의 상징이었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국민부담 경감 차원의 연착륙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업다운뉴스 23/01/30). 최근 우리 정부는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자율적인 방역실천을 강조하면서 코로나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데, 정밀한 출구전략을 마련해 진정한 일상회복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이주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의 일상회복을 돕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계층별로 일상회복의 수준에 격차가 있으므로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세계일보 23/02/12).

둘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결혼이주여성은 코로나 실직과 취업난에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숙박·음식, 교육, 문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면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코로나19 이후 실직을 경험하거나 일거리가 줄어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어 경제적 곤궁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재난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생계보장을 위해서는 대상별 맞춤형 취·창업프로그램의 확대와 이와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 발굴 및 소규모 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질병, 실직, 무급휴가 상태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이주여성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소득보장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코로나 이후 연구참여자들은 신체 건강의 악화보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의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적 모임 등이 크게 줄면서 우울과 고립감을 느끼며,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도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병 확산이 심각할수록 두려움과 공포, 혼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증식되면, 감염 우려가 있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증폭되므로 이주민의 우울과 사회적 고립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정신건강 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으로 진료나 상담을 받은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나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이주여성들이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방지하지 않도록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생산 및 홍보하고, 이주여성의 생애주기별 상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감수성을 가진 상담 및 심리치료 전문인력의 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엔데믹 전환에 맞추어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며, 특히 30~40대 양육자들을 위한 온라인 영상 활용, 비대면 교육 참여방법 어플 활용 교육이나 매뉴얼 제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공동체형성을 통한 지지그룹을 형성하는 서비스 지원도 중요하다(김연화 2020, 47).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건강을 위해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주로 가정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므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실시간 온라인 건강체력교실 등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결혼이주여성 신체활동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가정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주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건강 및 재난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가 다량으로 전달되고 있어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판별하기 어려워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재난정보는 정확성, 적시성, 신뢰성 등이 필수적이므로, 이주여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적시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외국인의 정보접근성과 유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소식, 자가격리, 지원정보 등을 제공하는 채널의 일원화와 함께 정보전달 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결혼이주여성은 코로나19 상황처럼 신생 용어나 낯선 전문용어로 생성된 정보에 대한 이해능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한국어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눈에 이해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용어를 픽토그램과 함께 제시하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이이슬 외 2021, 280). 이와 더불어 다국어 서비스의 지원범위가 대부분 생활정보나 민원 등으로 좁혀져 있고 지원언어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인구 비중이 낮은 국가출신의 이주민의 경우 정보소외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 재해 시 외국인 대상 다국어 지원서비스의 확대 개선이 필요하다(이이슬 외 2021, 279-280).

넷째, 코로나 이후 결혼이주여성은 보육기관, 유아교육기관, 학교의 휴교 및 휴원으로 인한 돌봄공백에 일, 가정, 양육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돌봄공백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자녀 관계가 호전되었다고 인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육아 및 가사노동의 증가로 자신만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외부와 단절된 생활 속에서 독박육아와 가사노동에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공적 돌봄서비스의 확대와 영유아 중심의 현행 돌봄지원정책이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도 포괄하도록 개편해야 할 것이다(부산일보 21/05/04).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아동들을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활성화하여 이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들의 다양성과 재능을 계발해 사회의 미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에 특화된 맞춤형 진학진로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지역의 가족센터에 다문화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학업·진로 상담서비스 도입, 청소년 전문상담사를 통한 진로상담 실시,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로·취업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진로 및 진학 방향을 설계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은 일차적 관계와 모국중심의 좁은 관계망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도움받을 사회적 관계가 빈약하고, 특히 경제적 곤궁에 처했을 때 가족친인척 등의 일차적 관계에 의존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적 모임이 최소화되면서 이주여성은 한국인과의 접촉과 만남이 크게 줄어 모국인네트워크에 의존하면서 사회네트워크가 더욱 취약해졌다. 사실상 코로나19의 확산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조치는 필요하고 또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모순된 예방법은 의사소통의 왜곡과 사회적 고립,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 등을 초래하여 이주민을 비롯한 노숙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위한 조치들이 개인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감염병의 장기화는 이주여성의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심화로 이어져 다문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고립은 이주민과 같은 취약계층의 소득 손실을 초래하는 원인이자 결과이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맺기를 위한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 그리고 엔데믹 전환에 대응해 비대면 영역의 사회관계망 확대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주여성들은 사회적 편견에 불안과 초조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외국인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들이 증가했고, 온라인 매체를 통해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을 비하하는 영상이나 글이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에 대한 혐오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우리 사회 곳곳에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낮은 수준의 언어적 혐오조차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므로 이를 조속히 법제도 안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조제성 외 2021, 427).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내국인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장려와 이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목적과 내용의 확장, 대상·실행기관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성인 대상 평생교육 및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등에 인권 및 세계시민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고 후속과제를 제시하면, 본 연구는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결혼이주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와 조건이 다른 이주여성의 삶의 경험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감염병 확산과 같은 지구적 재난상황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주를 선택한 여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삶 전반에 걸친 변화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향후 세부 영역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심층적인 사례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이후 해외에서는 한국을 위기극복의 모범사례로 꼽으면서 위기극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한국인들의 공동체의식에 주목했다. 그러나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체계와 수준 높은 공동체의식은 국민이 아닌 이주민들에게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국가의 감염병 관리체계에서 언어소통이 어려운 이주여성의 안전과 생명은 완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도 오히려 심화되었다. 경제적 구제정책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관계에 있거나, 국적자인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 등은 소외되었다. 우리는 종교집단 감염사례를 통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방역체계에서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국경 봉쇄가 바이러스나 재난으로부터 자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최선의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이해 이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체계의 구축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고선강·박정운·진미정, 202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직무요구 및 조직 문화가 종사자의 코로나19 관련 업무수행, 직무소진, 직무만족에 미친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9(2), 185-197.
- 구수연, 2021,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실태와 지원요구, *다문화콘텐츠연구*, 36, 7-44.
- 기준성·김민수·최민지, 2021, 코로나19 시대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원 방안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8, 29-57.
- 김강남, 2021, 코로나19로 달라진 이주배경아동의 학습과 일상, *다문화와 평화*, 15(1), 118-142.
- 김규찬, 2021, 다문화가족자녀 실태와 지원서비스 욕구, *공공정책연구*, 38(2), 301-332.
- 김남순 외, 2021, 2020년 코로나19 대응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정·마경희·윤성은, 20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코로나19 대응 및 과제탐색, *생명연구*, 58, 245-271.
- 김옥녀·임동진, 2021, 결혼이주민과 결혼정주민의 생태환경체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험대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18(3), 35-66.
- 김형태, 2014, 초등영어교사의 전문성 탐구, *영어교육연구*, 46, 36-54.
- 박병섭·정용미, 2021, 결혼이주 필리핀여성의 한국에서 반평생 살아가기 생애사, *디아스포라연구*, 15(1), 43-82.
- 박연진·박윤조, 202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사회과학리뷰*, 7(1), 69-88.
- 송원일, 2022,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시국의 중도입국청소년 이슈 분석,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7(2), 61-81.
- 신주미·김승환·김민규, 2022, 중도입국 학생의 온라인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발전 방향 모색,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3), 53-78.
- 옥시후·안정훈, 2021, 다문화 가구 여성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영향 요인 분석, *아시아여성연구*, 60(3), 95-125.

- 이은혜·장인실, 2021, 코로나시대 다문화가정 밀집지역 초등학교의 원격수업 운영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4(1), 71-93.
- 이이슬·이충호, 2021,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의 재난안전정보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재난안전정보를 중심으로, *건지인문학*, 32, 265-285.
- 이래혁·이재경, 2022, 다문화가정의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가 청소년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7(2), 153-174.
- 이재경·이래혁, 2022,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불안과 자살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 24(2), 7-33.
- 장현진·이수현, 2022, 이주배경 청년의 코로나 19 스트레스, 취업장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3), 1-27.
- 조제성·김다은, 2021, 코로나19 이전-이후 혐오범죄 변화와 혐오범죄 폭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0(4), 409-432.
- 진미정, 2021, 코로나19 시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실태 및 비대면 프로그램 지속 의향 영향 요인 탐색: 종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가정과삶의 질연구*, 39(1), 97-111.
- 진소연·정명희, 202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동참여가 결혼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문화산업연구*, 22(1), 111-117.
- 허일수, 2021, 디지털 청소년활동 현황과 미디어 접근성 분석 : 부산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애인 및 다문화 청소년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6(2), 59-78.
- 허정원·장주영, 2020, 코로나19 확산시기 서울시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특성과 생활인구 변화, *한국공간환경학회공간과 사회*, 30(3), 99-137.
- Clark, E. Fredricks, K. Woc-Colburn, L., Bottazzi, M.E., & Weatherhead, J., 2020, Disproportionat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immigrant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July 13, 2020. GCIR. (<https://doi.org/10.1371/journal.pntd.0008484>)
- Lan N. Đoàn, Stella K. Chong, Supriya Misra, Simona C. Kwon, Stella S. Yi,

- 2021, Immigrant Communities and COVID-19: Strengthening the Public Health Respons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AJPH), October, 2021.
- Patton, M. 2002, Qualitative Reserah and Evalvation Methods, 3rd edn, Thousand Oaks, CA: sage.
 - Priebe L. R, Rose, R. Hoch, A. Soares, C. Fernandes, A. Galvão, H. & Allen, J.D, 2021,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Brazilian Immigrant Community in the U.S: Results from a Qualitative Study, International of journal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21, 18(7), 3355 (<https://doi.org/10.3390/ijerph18073355>)
 - Wilson, F.A. & Stimpson, J.P. 2020, US Policies Increase Vulnerability of Immigrant Communities to the COVID-19 Pandemic. Ann Glob Health, 86(1), 57(Published online 2020 Jun 10. doi: 10.5334/aogh.289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http://www.kdca.go.kr>
 - 민중의소리 <https://www.vop.co.kr>
 -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
 -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
 - 업다운뉴스 <http://www.updownnews.co.kr>
 -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
 - 참세상 <http://www.newscham.net>
 - 한겨레 <https://www.hani.co.kr>

● 투고일: 2023.01.20. ● 심사일: 2023.01.28. ● 게재확정일: 2023.02.13.

| Abstract |

The lif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chang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Jang Imsook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marriage immigrant women's lives have changed after the COVID-19 pandemic and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To this end, an in-depth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on 7 married immigrant women. The data analysis focused on identifying changes and problems after the COVID-19 pandemic, focusing on six areas: daily life, labor and income, health care, child care and education, social relations, and foreign discrimination.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categorized into "Daily life of be stuck at home", "Livelihood is at a loss due to COVID-19 unemployment and employment difficulties", "work-household-care triple distress due to care deficit", "primary relationships and narrow social network centered on native people", and "Increased anxiety due to social prejudice".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Key words〉 COVID-19 pandemic, Marriage immigrant women, support policy, A changed life, In-depth interview

『민족연구』 논문투고와 집필요령 및 심사과정

한국민족연구원이 연 2회 발간하는 『민족연구』는 세계의 민족과 민족문제를 중심적인 연구과제로 설정, 현대세계의 제반 민족문제의 근원적 실체와 이의 발전적 해결을 모색하는 연구의 장입니다. 본 연구원은 관련학계와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투고를 환영합니다.

I. 논문 투고

1. 편집대상: 민족주의 이론, 각 지역과 개별국가의 민족문제와 민족정책, 소수민족 현황, 기타 사회과학 일반 등과 관련된 논문
2. 투고논문은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예정인 논문은 편집대상에서 제외함
3. 논문 뒤에는 반드시 외국어로 논문제목, 초록(외국어논문인 경우에는 국문초록), 외국어 저자명, 5개 내외의 주제어를 첨부함
4. 원고는 한글 혹은 MS워드 파일로 작성하여 출력본 1부와 저장장치를 아래주소로 우송하

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5. 연락처
 - 한국민족연구원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31길 5-4(수유동)
 - 전화번호: 010-2784-1105
 - E-Mail: goodsociety123@hanmail.net

II. 논문 집필 요령

1. 원고 분량: 200자 원고지 100-150매 혹은 A4용지 20-25매 내외
2. 한자와 외국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 첫 번째의 경우에 한해 괄호 안에 넣어 표기
3. 출전 및 참고문헌 작성요령
 - 1) 서양서 및 현대물의 출전 표시 요령
 - ① 출전은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자의 성(한글로 표기된 한 국, 중국, 월남 인명은 성명), 출판 연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
 - ②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같은 글," "같은 책," "앞의 글," "앞의 책"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음
 - ③ 구체적인 예
 - 저자명이 글(본문과 각주)에 나와 있는 경우는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 연도를 표시 (예: ...조정남(2011)은...)
 - 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 연도를 함께 표기 (예: ...테일러(Taylor 1994)...)
 - ④ 저자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는 성과 출판 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 (예: ...조정남 2011)... 혹은 ...(Kymlicka 2002)...)
 - ⑤ 면수는 출판 연도 다음에 점표를 하고 숫자만 표기 (예: ...Evans 1979, 56)... 혹은 ...(허생 1990, 12)...)
 - ⑥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라는 말 을 붙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냄

- (예: ...조정남 외 1991, 35-36...)
- ⑦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머클론으로 나누어 언급 (예: ...[Camings 1981, 72; 허생 1990, 35; 홍길동 1990, 18]...)
 - ⑧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명, 발행 年年/ 月月/日日 (월간지의 경우 발행 年年/月月),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 (예: ...[중앙일보 93/04/08, 5], 혹은 ...[신동아 93/02, 233]...)
 - 2) 참고문헌 작성요령
 - ①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음
 - ② 저서의 경우
 - 조정남 · 이용승. 2011. 일본의 민족주의. 교양사회
 - Kymlicka, W.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University
 -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64.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未來社.
 - ③ 논문의 경우
 - 김용환. 2007. EU의 통합과 동아시아 공동체에의 함의. 민족연구 30, 26-51.
 - Joppke, C. 2004. The retreat of multiculturalism in the liberal state: Theory and polic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5(2), 237-257.

III. 논문 심사

1. 본 연구지의 편집의도와 무관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음. 또한 연구윤리위원회에 대한 시비가 있는 경우 『민족연구』 연구윤리규정에 따름
2.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심사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위촉함. 심사위원은 당해 논문의 전 공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당해 논문제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 위촉을 원칙으로 함
3. 심사는 3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개별 심사위원의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의 평가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재심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게재 여부가 결정됨
4. 심사-평정 기준표(심사위원 3인 기준)
5. 수정지시를 받은 논문의 투고지는 이를 수정 · 보완하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 가, 가 가, 가, 수정	가,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가, 수정, 불가 가, 가, 불가	가, 가, 재심 가, 수정, 재심 수정, 수정, 재심 수정, 재심, 재심 가, 재심, 불가	가, 불가, 불가 수정(재), 수정(재), 불가 수정(재),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다시 제출하여야 함. 수정과정에서 논문 필자는 수정한 부분을 별도의 양식을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함. 수정지시에 이의가 있는 투고지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판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함.

IV. 발행

1. 『민족연구』 발행일 및 논문투고 마감일

민족연구 발행일	논문마감일
2023년 9월 1일	2023년 6월 30일
2024년 3월 1일	2023년 12월 31일

2. 연구지의 출판은 인쇄본과 전자출판을 병행함. 전자출판은 한국민족연구원 홈페이지(www.nationsworld.kr)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kci.go.kr)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며, 별도의 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타 기관에서 제공될 수 있음
3.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연구소는 편집저작권과 게재된 논문을 CD-ROM이나 광디스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판매할 권리 및 전송할 권리를 무상으로 소유함

[민족연구] 연구윤리 규정

제1조(취지)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훈령을 기초로 하여, 회원 교수 및 연구자들의 학문적 양심과 학자적 소양을 제고하고 또한 연구와 관련된 어떠한 비양심적, 불법적 행태를 지양하여, 학술활동에 관련된 기초적 윤리와 도덕의 함양 및 유지를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보해 내기 위함을 그 취지로 한다.

제2조(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이 발간하는 『民族研究』(영문명: Minjok Yeonku)에 투고 및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검증·제재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民族研究』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5조(윤리규정 서약)

『民族研究』가 학술지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혹은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하였을 때 윤리규정을 함께 공시하여야 하며,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한 시점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민족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윤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심의요청)

본 연구원의 심사위원, 편집위원, 연구윤리위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연구자의 행위가 위의 제5조에 규정한 연구윤리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조·변조 및 표절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논문의 투고 및 게재 등의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변조 및 표절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조·변조 및 표절로 간주한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경우.
2.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
3. '표절'
 - 1)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경우.
 - 2) 기 출간된 타인 또는 자신의 저술 일부를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제9조(논문의 중복게재 정의)

이전에 출판된 연구자 자신의 논문(게재 예정 논문 포함)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 혹은 게재한 경우를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제10조(IRB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투고 논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19년 3월 이후부터 투고하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원칙적으로 IRB 심의를 받은 논문만을 인정한다.

제11조(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 ① 『민족연구』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④ 연구 부정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 ⑤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게재 취소 또는 수정 요구
 2. 해당행위 발생시점 이후 7년간 투고자격 상실
 3.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4. 한국연구재단 통보 및 KCI 등록 취소
 5. 민족연구원 홈페이지에 해당사실 게재
- ⑥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 부정행위의 처리 강화)

- ① 제10조(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제5항의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일정기간 투고자격 상실"을 "해당행위 발생 시점 이후 7년간 투고자격 상실"로 수정한다.
- ② 제10조 제5항의 4와 5를 추가한다.

부 칙 (2019.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IRB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신설)

- ① 제10조(IRB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신설한다.
- ② 기존의 제10조는 제11조로 한다.

한국민족연구원

한국민족연구원은 새로운 시대환경의 도래와 더불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종과 민족 그리고 민족주의 문제 등에 대한 학문적이며 실제적인 연구 조사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연구원은 민족문제에 관한 전문 연구지인 『민족연구』를 연간 2회 발행·보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http://www.nationsworld.kr>)를 통해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 인적구성

- 원 장 : 趙政男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부 원 장 : 이제국 (토피아 아카데미 대표) 김용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연구위원 : 金炳鎬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교수) 우평균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병국 (전 서울시 시의원)
 金秀雄 (한일문화교류기금 이사)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송종호 (서울경제신문 기자)
 洪敏植 (강원대학교 교수) 이용승 (대구대학교 교수) 송태희 (SNBC 부장)
 김경숙 (공주대학교 교수) 나영주 (강원대학교) 강권찬 (경기도 기획경기수석)
 조화성 (고려대학교) 이정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김인성 (고려대학교)
- 총 무 : 김희선 (서울시)

◆ 발행처

민족연구
81

ISSN 1229-2796
값 15,000원

<민족연구>

편 집 : (사)한국민족연구원
발행인 : 조정남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131길 5-4
(수유동) (우: 01029)
Email : goodsociety123@hanmail.net
TEL : 010-2784-1105
발행일 : 2023년 3월 1일 (연 2회간)
인 쇄 : 다래기획

발행처 : 교양사회
<http://www.nationsworld.kr>

<편집위원장>

김용찬 (대구가톨릭대학교)

<편집위원>

金炳鎬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이은정 (영남대학교)
조성준 (가천대학교) 조봉래 (인천대학교)
조현구 (고려대학교) 나영주 (강원대학교)
박선경 (인천대학교) 송승중 (대전대학교)
이동민 (단국대학교) 김향은 (고신대학교)
정용숙 (춘천교육대학교) 정성운 (통일연구원)
변영학 (대구가톨릭대학교) 이예지 (대구대학교)
방성운 (경북대학교)

<편집주간>

이용승 (대구대학교)

<편집간사>

방성운 (경북대학교)